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머 리 글—

어느 민족이든 그 역사는 수 많은 전란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란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가름되기도 하였습니다. 평화는 온 인류의 염원인 반면, 이 지구 상에서는 전운(戰雲)이 걷힐 날이 없고, 전란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각국의 군비 확장은 그 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닥쳐 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사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의 기습적인 남침에 의한 전쟁 발발 1개월여도 못되어 포항·영천·창녕·영산(靈山)선까지, 국토의 거의 9분의 8을 유린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 제한된 지역에서 국운(國運)을 건 적과의 대전을 치루게 되었으며, 이때 반격의 한 방법으로 감행된 것이 바로 세계 전사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미 해군 및 상륙군이 최단시일 내에 작전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는 점과 불투명한 적정, 그리고 간·만조(干潮)의 차가 11m 나 되며, 해안 조건의 상륙작전 수행에 매우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결연히 작전이 전개되어 총반격 작전을 주도하였다는 점 등으로 세계 전사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여년간에 국내외를 통해,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이 작

전을 다룬 문헌들은 무수히 발간되어 있으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 작전을 주제로 한 단행본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인천 상륙작전」 전투사에서는 이 작전이 최초로 구상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이 난해하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륙작전에 대한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 데 지면의 상당량을 할애하였으며,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까지의 전반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되, 국군의 활동상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전투사 발간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다소간이나마 결실을 볼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감행하였던 미 제1해병사단과 그 예하 부대들의 작전 결과 보고서를 비롯하여, 상당량의 미 해병대 제공 사료(史料)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료들을 복사 제공하여 준 미 해병대 사령부 전사실에는 물론, 그동안 값진 자료와 증언을 제공해 주신 참전자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빌어, 함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에게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1983 년 12 월 10 일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위원장 윤 석 우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이 다루는 작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인명(人名)・지명(地名)・장비명(裝備名) 등 외래어가 이 책에서는 빈번하게 쓰인다. 본문 중에서는 이들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 또는 예외를 두었다.

(1) 한글 표기는 원칙적으로 문교부 제정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9. 10. 20.)과 편수 자료들을 따르되, 일반 관용의 예도 참작하였으며, 장모음(長母音)의 표시는 생략하였다.

보기 : 트루우먼→트루만

머카아더→맥아더

토오쿄오(東京)→도쿄

(2) 인명은 원칙적으로 성(Family name)만을 한글로 표기하고, 책끝의 「색인」란(欄)에서 Christian name-Family name 순으로 원명을 밝혔다.

(3) 인명을 제외한 외래어의 원어는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할때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안에 원어를 밝혔으며, 일본 지명(地名)의 경우에는 다른 외래어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되풀이해서 ()안에 한자(漢字) 지명을 밝혔다.

(4) 일상 통용되는 약어나 이에 준하는 관용어는 직접 원어를 썼다.

보기 : km, UN, LST, M1 등

특수 용어는 또 책끝에 부록으로 실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5) 외래어의 한글 표기 또는 한글 표기된 외래어의 원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끝의 「외래어 표기 대조표」 및 「색인」 가운데에 원어를

밝혔다.

2. 외국군의 부대명은 국명(國名)－서수(序數)－병종(兵種) 또는 군종(軍種)－제대(梯隊) 순으로 쓰되, 혼동의 우려가 없을 때는 그 일부를 생략하였다.

보기 : 미 제 7 보병사단－제 7 보병사단－제 7 사단

미 제 5 해병연대－제 5 해병연대－제 5 연대

3. 군사 용어는 「합동 군사 용어 사전」(합동참모본부 발행, 1983 년판)을 기준으로 쓰되, 작군 통용의 예도 참작하였다.

4. 국군의 부대명·직명·계급 등은 6·25 당시의 것으로 썼다. 참고로 사병의 6·25 당시 계급을 현행 계급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6·25 당 시		현 행	6·25 당 시		현 행
육·공군	해 군		육·공군	해 군	
일등상사	병 조 장	상 사			병 장
이등상사	일등병조	중 사	하 사	일등수병	상 등 병
일등중사	이등병조	하 사	일 등 병	이등수병	일 등 병
이등중사	삼등병조		이 등 병	전습수병	이 등 병

※ 위의 대비표는 편의상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 있어서는 그 중간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5. 연·월·일의 약식 표기는 원칙적으로 본문 밖에서만, 그리고 본문 안에서는 () 안에만 썼으나, 시·분의 약식 표기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용하였다.

보기 : 1950 년 6 월 25 일 04 : 00(본문 안에서)

1950. 6. 25. 04 : 00(본문 밖에서)

6. 주기(註記)는 해설 및 문헌 주기로 나누어서, 해설 주기는 해당면 하단에, 그리고 문헌 주기는 일괄하여 책 끝에 실었다.

— 차 례 —

제 1 장	인천 상륙 : 최초의 구상	1
1.	한강변의 「맥아더」 장군.....	2
2.	미 지상군 참전과 상륙작전의 구상.....	5
3.	극동 미군	8
4.	작전계획 「블루하트」.....	12
5.	포항(浦項) 상륙	17
6.	훈련된 상륙 부대	22
7.	미 해병사단의 증원 결정.....	25
8.	남서부 전선의 위기	29
제 2 장	「크로마이트」작전 : 발전적 구상.....	34
1.	작전계획 「크로마이트」.....	35
2.	제 10 군단 사령부의 발족.....	39
3.	미 제 1 해병사단의 발족	43
4.	미 해병사단의 출동	46
5.	제 10 군단의 구성 부대들.....	50
6.	1950 년의 인천	54
7.	8 월의 낙동강 전선	62
8.	마지막 논쟁.....	65
제 3 장	계획수립 단계	71
1.	인천 계획수립의 특징	72

2. 상륙군 기본 계획	77
3. 세부 계획상의 특별한 문제들.....	83
4. 한국 해군 작전	86
5. 영흥도의 첩보 수집 활동.....	89
6. 한국 해병대의 출동	93
7. 낙동강 전선의 미 해병들.....	96
8. 한국 해병대의 부산 이동	101
 제 4 장 인천으로의 항진(航進)	104
1. 제 7 합동기동부대의 발진	105
2. 해병 출동 부대의 재 편성.....	108
3. 탑재 단계	113
4. 목표 지역으로의 이동.....	118
5. 일련의 지원 작전들.....	121
6. 장사동의 기습작전	124
7. 사전 폭격과 포격.....	130
8. 월미도 확보	139
 제 5 장 돌격 단계.....	140
1. 상륙군 상륙	141
2. 적색 해안 상륙.....	145
3. 청색 해안 상륙.....	153
4. 지원 부대들의 상륙.....	162
5. D+1 일의 공격.....	167
6.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	171
7. 해안두보 확보	175

제 6 장	서울을 향하여	180
1.	내륙 진격의 서전	181
2.	부평 지역 전투	187
3.	김포 비행장 탈환	192
4.	경인 국도 상의 진격	198
5.	인천 수복	202
6.	한국 해병대의 진출	205
7.	한강 도하 명령	209
8.	9월 19일의 전반적 작전	212
9.	적의 동향	217
제 7 장	한강과 낙동강 전선	221
1.	최초의 야간 도하 시도	222
2.	주간 도하	227
3.	한강을 도하한 한국 해병들	234
4.	김포 지역의 한국 해병들	240
5.	미 제 7 해병연대의 전개	245
6.	영등포 탈환	248
7.	낙동강 전선의 돌파	253
8.	한국 육군 제 17 연대	257
제 8 장	사선(死線)을 넘어	262
1.	연희고지 일대의 지형과 적정	263
2.	결전의 시작	268
3.	반복된 공격	272
4.	D 중대의 돌격	276
5.	계획의 변경	281

6. 서울 남동쪽에서의 도하 작전	287
7. 시가지 전투의 서전(緒戰)	291
8. 적의 역습	297

제 9 장 수도 탈환.....303

1. 새로운 공격 부대들.....	304
2. 시가지 전투의 절정.....	308
3. 서울 남·동쪽의 차단 부대들	315
4. 시가지 전투의 마지막 날	321
5. 시가지 확보	326
6. 환도식.....	332
7. 작전의 종결	336
8. 결론.....	342

부록

1. 특수 용어(약어) 해설.....	347
2. 외래어 표기 대조표.....	349
3. 작전 일지	352
4. 참고 문헌에 관하여.....	357
5. 증언인명록.....	360

주기(註記).....365

색인.....381

— 사 진 —

1. 수원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	3

2. 전선으로 향하는 미 해병들.....	32
3. 「마운트 머킨리」호 함상의 장성들.....	41
4. 「맥아더」와 「스미드」 장군	45
5. 이승만 대통령과 미 해병들.....	97
6. 「피카웨이」호에 승선하는 한국 해병들	117
7. 좌초된 문산호	126
8. 「텔레나」호에서 상황 설명하는 유격대장	128
9. 월미도의 잔해(殘骸).....	138
10. 적색 해안의 돌격과.....	149
11. 청색 해안의 돌격과.....	157
12. 적색 해안의 양륙 상황(D+2 일).....	176
13. 격파된 적의 T-34 전차	187
14. 미 해병사단 지휘소를 방문한 「맥아더」 장군	191
15. 노획한 적기(敵機).....	197
16. 전차와 함께 전진하는 미 해병들.....	200
17. 한·미 해병들의 도하 작전	230
18. 도하 작전의 한국 해병들	233
19. 전선을 시찰하는 「맥아더」 장군	247
20. 제 17 연대의 각급 지휘관 및 참모들	260
21. 서울 서측방의 교외 지대	266
22. 작전을 지시하는 「아몬드」 장군	282
23. 육군 제 17 연대의 이동	286
24. 서울 남동쪽에서의 도하 작전	290
25. 바리케이드를 헤치고 전진하는 전차와 미 해병들	295
26. 105mm 곡사포의 지원 사격.....	301
27. 시가지 전투	323
28. 폐허가 된 서울 시가지	327
29. 한강 부교(浮橋)	331

30. 환도식	333

— 도 표 —

1. 「크로마이트」작전 단계의 지휘 체계	106

— 요 도 —

1. 인천 해역	55
2. 1950 년의 인천	56
3. 돌격 계획	81
4. 월미도 상륙	133
5. 적색 해안 상륙	146
6. 청색 해안 상륙	154
7. D+1 일의 공격 작전	168
8. 인천 시가지 소탕 작전	172
9. 미 제 5해병연대의 공격 계획(9월 17일)	182
10. 부평 지역 전투(9월 17일)	188
11. 적의 역습(9월 18일)	194
12. 미 제 1해병연대의 진출(9월 17—18일)	198
13. 한국 해병대의 진출(9월 17—18일)	207
14. 9월 19일의 전반적 상황	213
15. 도하 작전	228
16. 서울 북서쪽에서의 진격	236
17. 김포 지역 전투	242
18. 영등포 탈환	249

19. 낙동강 전선의 돌파	255
20. 연희고지 일대	264
21. 연희고지 : 9월 22일의 공격	269
22. 연희고지 : 9월 23일의 공격	273
23. 9월 25일의 작전	288
24. 적의 역습(9월 25—26일)	300
25. 시가지 전투(9월 26—27일)	310
26. 적의 역습(9월 26—27일)	316
27. 마지막 추격 작전	338

— 별첨 상황도 —

1. 남서부 전선의 대치 상황
2. 낙동강 전선의 미 해병여단

제 2 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북괴군의 남침을 알리는 UP(미국 합동 통신) 서울 특파원 보도와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긴급 보고가 미국에 전해졌을 때, 이 전쟁을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극적이라 할 만큼 산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은 주한 미국인의 후송과 한국에 필요한 군수 물자의 수송, 그리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되는 극동 미 해·공군의 지원을 주일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元帥)에게 지시하였다. 6월 26일*에는 「맥아더」 장군에게 38도선 이남으로 침공한 북괴군을 격퇴하기 위한 해·공군작전을 실시하도록 거듭 지시하는 한편, 미 제 7함대로 하여금 극동미해군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 6월 27일에 발표되자, 곧 뒤따라 미국의 의회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이 나타났다.

한편, 6월 25일 14:00에 개최된 UN 안보 이사회는 북괴의 남침에 대하여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북괴군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였다. 6월 27일의 제2차 결의에서는 제1차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무력 공

* 이 책에서 쓰이는 일·시(日時)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기술되는 상황과 관련한 지역의 지방시(地方時)이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 워싱턴의 시차(時差)를 비교하면 한국이 14시간을 앞선다.

2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격을 격퇴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 민국에 제공해 줄 것」을 UN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주일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이 침략을 받을 당시에는 그의 권한권 밖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던 책임 범위 안에서 그가 취한 조치는 역시 신속한 것이었다. 6월 27일, 「맥아더」 장군은 급변하는 한국 사태와 제반 지원 소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처치」 준장이 이끄는 이 조사단은 더욱 악화된 한국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극동미군의 전방사령부(ADCOM)*로 개칭하였으며, 이날 19:00 쯤 수원(水原) 비행장에 도착하자 주한미고문단도 그 산하에 흡수하게 되었다.

6월 28일 「맥아더」 장군은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황 보고와 함께, 38도선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이 투입되어야 하겠다는 건의를 받았다. 바로 이날 수도(首都) 서울은 적의 수중에 들어 갔으며, 「맥아더」 장군이 우려하던 절박한 사태는 기어코 눈앞에 닥쳐 오고야 말았다.

1. 한강변의 「맥아더」 장군

6월 29일 새벽 「맥아더」 장군의 기상(起床) 시간은 바로 4일 전에 북괴군이 기습 남침을 개시했던 그때만큼이나 이른 시각이

* 정식 명칭은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지휘 및 연락단)이다.



사진 1. 수원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 「무초」 주한 미국 대사(왼편)와 이야기 하고 있는 「맥아더」 장군(중앙) 옆에는 「처치」 장군(오른편)이 서 있다(1950. 6. 29.).

있다. 「맥아더」 장군이 이토록 서둘러 기상한 까닭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장차 미국이 「지원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스스로 한국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의 기상(氣象) 상태는 썩 좋지를 않았고 그의 비행 목적지인 수원 일대에는 적의 공중 공격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이날의 전선 시찰을 만류하는 참모들도 있었다. 이같은 악조건들을 무릅쓰고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인 「바탄」(Bataan)호가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막 미군 수송기 1대가 적기의 공중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이날 11:15 쯤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한국 전선 시찰은 「한국 국민의 항전(抗戰) 결의를 공고히 하려는 극적 조치」인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즉각적·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증표」로서, 이처럼 모험을 무릅쓰고 결행된 것이었다.¹⁾

비행장에서 이 승만(李承晩)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주한미국대사, 그리고 「처치」 장군의 영접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수원 농업 시험장에 위치한 전방사령부 상황실에 들러 「처치」 장군과 그의 참모들로부터 최근 전황을 청취하였다. 전전한 상황 판단은 피아(彼我)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도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상황 판단은 이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素地)를 안고 있었다. 전방사령부 참모 요원들이 수집 평가한 정보는 당연히 「맥아더」 장군의 상황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겨우 하루 정도를 보낸 전방사령부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 또는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적의 정체(正體)는 물론, 이때까지도 각 전선에서 분전(奮戰)하고 있는 한국군의 실상(實狀) 역시 전방사령부의 보고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²⁾

여하튼, 지휘관이 직접 사태를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에 속한다. 이날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온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였다. 약 1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난 뒤, 「맥아더」 장군은 낡은 「포드」 승용차를 타고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국도(國道)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그를 수행했던 장군들과 신문 특파원, 그리고 사진 기자들이 탄 차량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일행은 한강(漢江) 조금 못미쳐 나지막한 고개에서 차를 멈추었다. 때마침 적이 쏘아대는 포탄이 주변에 떨어져, 일행은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일시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 이상 전방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였다.³⁾

「맥아더」장군 일행은 전방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섰다. 거기서 한강 남쪽의 가장 가까운 제방까지는 약 400m의 거리였고, 한강 건너 서울 도심(都心)의 적 동정을 살피기에는 꽤 먼 거리였으나, 서울의 전경(全景)을 한 눈에 바라볼 수는 있었다. 불길과 연기를 내뿜고 있는 서울은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으며, 한강변에서 끊임없이 들려 오는 적의 포성은 흡사 사신(死神)의 외침과도 같이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언덕 아래 가로 놓인 큰길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무질서한 부대의 행렬, 그리고 먼지 낀 누더기를 걸친 피나민의 무리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맥아더」장군이 목격한 이 무리들은 「수 세기에 걸쳐 온갖 재난을 냉엄하게 감수하여 온 민족적 긍지와 성실을 이어 받은 후예들」로서, 「비굴이나 비애」를 들어내 보이지는 않았다. 한강변에 가까운 이 언덕 위에서 「맥아더」장군은 그야말로 말아야 할 한국의 비극적 현실을 한동안 지켜 보면서, 동시에 앞으로 대처할 방안들을 생각했다.⁴⁾

2. 미 지상군의 참전과 상륙작전의 구상

「맥아더」장군은 약 1시간 동안이나 한강변 언덕 위에 머물면서 구상했던 작전에 대하여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공군과 해군을 지원해도, 거세게 남진하는 적을 한국군이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우리 지상군의 즉각적인 부

6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입 뿐이었다.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한 해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난국(難局)에 대처하는 길은 내 휘하의 주일군(駐日軍)을 투입하는 것이다. 설사 수적(數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열세에 놓일지라도, 전략적 기동 방법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역경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망에 빠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5)

「맥아더」장군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일 미군에 가용한 수송 수단,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획득 방법, 일본의 방위 문제, 그리고 한국군의 재건과 그 사기의 진작 등,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그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적의 빈약한 병참선은 오히려 위험 한계에까지 신장(伸張)된다면, 이 병참선을 차단하고 얼마 안되는 가용 병력으로나마 적의 주력 부대를 포위, 격멸할 수는 있을 것인가? 이 경우, 숫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3:1의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심사 숙고하는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착상되었고, 그것은 패배를 승리로 일변시킬 수 있는 반격 작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6)

「맥아더」장군은 다시 수원(水原)으로 돌아와 이 승만 대통령과 요담한 뒤, 귀로의 기상(機上)에서는 그의 기본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워싱턴에 보고할 전문(電文) 초안을 손수 작성하였다. 「맥아더」장군은 마침 귀로에 그와 동행하였던, 「마그리트 히긴즈」라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특파원과 의 대화에서, 「확실히 한국군은 조직적인 미군의 투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군은 그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솔선 수범으로 이들을 이끌어 간다면 재기(再起)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군 2개 사

단이 나에게 허용된다면 한국은 지킬 수 있다」고 그의 구상의 일부를 밝히기도 하였다.⁷⁾

당시의 「맥아더」장군의 구상은, 요컨대, 가능한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적의 전진을 일단 저지하는 한편, 2개 사단 정도의 후속 병력으로 전선을 보강한다면 전세(戰勢)를 회복하여 반격 작전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적어도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 「맥아더」장군의 웅대하고도 대담한 구상은 분명히 현장 감각에 바탕을 둔, 그리고 「새로운 전쟁 상황에 대한 해결 및 대응책은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⁸⁾는 그의 적극적인 사고의 소산이었다. 그렇기는 하나, 그의 이러한 구상도 앞서 말한 바, 적의 전력에 대한 무지 내지는 경시와 그리고 아군 역량의 활용을 고려에 넣지 못함으로써, 그 뒤의 병력 운용과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맥아더」장군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전선 시찰 결과 보고와 함께 「현 전선을 고수하고 최근의 실지(失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미 지상군의 한국 전선 투입으로만 보장될 수 있을 것」⁹⁾임을 강조하면서, 1개 연대전투단(RCT)을 즉각 투입하고, 그뒤에 있을 조기(早期) 반격을 위해서는 주일 미군 중의 2개 사단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6월 30일, 미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트루만」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1개 연대전투단의 파견을 주저없이 승인한 것은 워싱턴 시간으로 6월 30일 04:57이었다. 뒤이어 이날 오전 중, 워싱턴 당국은 「맥아더」장군에게 그의 가용한 미 지상군의 활용 권한을 제한없이 부여하였으며, 한반도의 전 연안에 대한 해상 봉쇄 명

8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령도 아울러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 24 보병사단에 출동 명령이 내려지고 그 예하 제 21 연대 제 1 대대를 주축으로 하는, 「스미드」 특수임무부대(TF Smith)*라는 최초의 미 지상군 전투 부대가 7월 1일 부산(釜山)으로 공수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7월 5일에는 미 제 25 보병사단도 이같은 출동 명령을 받았다.

2. 극동 미군

제 2차 세계 대전 후 다시 정립된 미국의 국방 체제에 따라, 주일 연합군 총사령관, 극동미군 사령관 및 극동미육군 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지닌 「맥아더」 원수의 권한과 그가 지휘하던 병력의 규모는 미국의 해외 주둔 사령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뒤 미군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어 닥친 감축의 바람은 극동 주둔 미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극동 미육군의 경우, 1년 사이에 병력은 반으로 줄어들어 1948년 초에는 142,000명이 되었다. 그중 주력 전투 부대로서는 「워커」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 8군 산하의 제 7·제 24·제 25 보병사단과 그 부대 명칭에는 관계없이 또한 보병 사단인 제 1기병사단 등, 4개 보병 사단이 일본 각지에 흩어져 주둔하고 있었다. 최소한 완전 편성된 5개 보병 사단을 필요로 하던 「맥아더」 장군의 지

* Task Force(TF)가 지상 부대에서는 「특수 임무 부대」로, 그리고 해군에서는 「기동 부대」(機動部隊)로 쓰인다. 그리고, 이 예에서와 같이 미 지상군에서는 지휘관의 이름을 따라 그 부대명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한국군의 경우에서도 간혹 그러한 예를 보게 될 것이다.

들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경 극동미육군의 총 병력은 108,500명이었다. 각 사단 모두가 평시 편제에도 훨씬 못미치는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점령군으로서의 특정 임무와 갖은 병력 교체 때문에 교육 수준마저 크게 저조한 상태였다.¹⁰⁾

같은 무렵,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이 지휘하는 극동미공군은 5개 전투비행단, 2개 폭격비행단, 1개 공수비행단과, 1개 비행단 규모의 기타 지원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공(防空)을 주 임무로 하는 극동미공군의 보유 항공기는 총 1,200여대 중 약 반수가 전투기였고, 그 주력 기종(機種)은 「슈팅스타」라 불리는 F-80C 요격기였다. 이 기종은 최근에 F-51 「무스탕」 전투기와 교체된 것이었으나, 지원 시설 및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주로 예산 감축에서 기인하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전술적 측면에서 지적되어야 할 이들의 문제점은 공·지(空地) 작전 능력이 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에게 주어진 주 임무의 성격상, 그리고 전술 항공 작전보다는 전략적인 운용에 보다 치중하는 군사 전략에 관련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지상(地上) 부대가 점령 과업과 적절한 훈련지역의 부족으로 받는 제약 때문에 공·지 훈련을 하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은 있었다.¹¹⁾

역시 같은 무렵, 「조이」 중장이 지휘하는 극동미해군은 겨우 순양함(CL) 1척, 구축함(DD) 4척과 소해정(AMS) 6척 등, 소규모의 함정으로 매우 잡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밖에, 「스트러블」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7함대가 항공 모함(CA) 1척, 중(重) 순양함(CV) 1척, 구축함 8척 등을 가지고 필리핀과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함대는, 오늘날의 규모에

10 제 1장 인천상륙: 최초의 구상

는 비할 바 못 되나, 당시에는 서(西)태평양 해역에서 미 해군력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이 함대는 「맥아더」 장군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래드포드」 대장 예하에 있었다.¹²⁾

대전 후 극동미군의 주 임무는 점령 과업의 수행이었다. 미 제 8군 예하의 전투 사단들이 이러한 과업에서 점차 벗어나 군 본연의 임무를 위한 교육 훈련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된 것은 1949년 중반부터였다. 제대별(梯隊別) 훈련의 진도(進度)에 따라 합동 훈련이 계획, 실시되었다. 물론 그중에는 상륙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점령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예견한 「맥아더」 장군은 1950년 봄에 극동미육군의 상륙전(上陸戰)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미 해군 및 해병대에 요청하였다.

1950년 4월과 5월 사이에 미 해군·해병대로부터 3개의 교관단이 일본에 도착하였다. 제 1진은 미 태평양함대 상륙전교육사령부 산하의 부대 훈련대(TTU)로부터 파견된, 「포니」 대령이 이끄는 미 해병대의 이동 교육반(MTT)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 해군·해병 요원으로 구성된 「앵글리코」(ANGLICO) 팀이었다. 나머지의 또 한 그룹은 미 태평양함대 산하의 상륙전 기함(上陸戰旗艦: AGC), 공격 인원 수송함(APA), 공격 화물 수송함(AKA), 전차양륙함(LST) 및 함대 예인함(ATF) 등 각 1척씩으로 구성되어 「도일」 소장의 지휘를 받는 미 제 1 상륙전대*였다.

* 원명은 Amphibious Group 1이다. 미 태평양함대 예하의 한 전술 편성체로서 상륙전 훈련을 담당하며, 실제 작전시에는 그 규모에 상응하는 기동 편성의 모

TTU는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해군·해병대 뿐만 아니라, 특히 필요시에는 육군에게도 상륙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3년 8월에 설치되었던 감정적인 교육 기관이었으나, 대전(大戰) 중에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던 부대였다.

통상 ANGLICO로 약칭되는 항공·함포 연락 중대는, 원래 해병사단 편제 상에 있어 왔던 전방 항공 통제 및 함포 통제 부대들을, 그리고 이러한 부대가 없는 육군 사단이 상륙작전에 참가할 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49년에 발전적으로 통합, 편성된 부대이다.

제1상륙전대는 그 규모는 작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동 미해군이나 미 제7함대가 갖고 있지 않는 상륙 함선의 집합체로서, 상륙작전을 위한 해군의 모체 부대였다. 과묵하면서도 강인한 「도일」 제독은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의 산 경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면에서 상륙전의 원리(原理)를 체계화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었으며, 흔히 많은 상륙전 전문가의 한 사람이었다.

미 제8군 예하의 4개 전투 사단으로부터 1개 연대씩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는 앞서 설명한 3개 집단의 서로 다른 상륙전 전문가들이 부문별로 상륙전 교육을 담당하여 그 기초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6월 25일부터는 1개 대대씩 실제로 함정에 승선하여 하선망(下船網) 훈련과 함상 생활을 익히면서도 도쿄(東京) 부근 해안에서 상륙 전술 중 가장 중요한 돌격 단계의

제가 된다. 행정 편제에 주로 쓰이는 전대(Squadron)와는 다르다. 해군의 함대 조직에 있어서는 전술 편제와 행정 편제가 함께 쓰이는데, 미 해군의 경우에는 전술 편제인 Group(전대)와 대등한 행정 편제를 Flotilla(전단)라고 하며, Flotilla의 차 하급 제대를 Squadron(전대)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말로 제1상륙전대라고 할 때는 행정 편제인 전대(Squadron)와 혼동하기 쉽다.

일부인 함안 이동(艦岸移動) 과정을 실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실질적인 상륙작전의 숙달 훈련은 그 착수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지만, 때 맞추어 극동 해역에 집결된 이 상륙 함선들과 상륙전 전문가들의 지식 및 기술이 얼마 후 한국 전선에서 초기부터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은 물론, 인천 상륙작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¹³⁾

4. 작전계획 「블루하트」

「맥아더」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는 한편, 그의 참모장 「아몬드」 소장에게 상륙작전의 계획수립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극동미군 사령부 G-3 참모 「라이트」 준장 통제 하에 있는 합동전략계획단(JSPOG)*이 이 책임을 맡아 참모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강 전선 일대에서 상당 기간 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처음부터 인천을 상륙 대상 지역으로 고려한 최초의 상륙작전 기본 계획에서는, 불완전하게나마 상륙전 훈련을 받은 주일(駐日) 미 제 1기병사단을 상륙 부대로 내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변하여 적진 상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상륙 부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상륙작전(Amphibious Operaion)이란 해군 및 상륙 부대가 해군

* 원명(原名)은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합동 전략 계획 및 작전단)이다. 1949. 8. 20.에 설치된 이 기구는 극동미군 사령부의 우수한 육·해·공군 장교들로 구성된 일종의 계획수립 집단이었다. 이들은 그뒤 UN 군 사령부의 주요 계획수립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수단(手段)에 의하여 해상으로부터 해안에 돌격을 감행하는 작전이라고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작전의 복잡한 계획수립 절차와 그 실행 단계를 이처럼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 상륙작전의 핵심적인 한 단계를 표현하는 데는 「영(Zero)에서 무한대로」라는 말을 곧잘 사용한다. 그것은 적의 해안에 투입되는 전투력, 즉 상륙 부대가 최초에는 「영」이라는 역량에서 비롯되지만, 최종 목표로 공격이 진전됨에 따라 최대한 협조된 타격 부대로 구축(構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를 편성 및 기술면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특이한 방법들이 결국 상륙 부대를 일반적인 해상 전투 부대와 다르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륙 부대는 해군의 제반 기능을 이해하고 해군 수단에 익숙한, 그리고 잘 훈련된 부대일 것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미 해병대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즉응(卽應)하기 위해 준비된 부대가 이른바 「함대해병대」(FMF)이다.

미 해병대는 그들의 오랜 전통을 통해 전투 대기 태세를 갖춘 부대로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과, 따라서 지상 부대의 해외 파병이 요구될 때에는 당연히 그 첫번째의 투입 부대가 된다는 긍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긍지의 바탕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상륙작전이나 해외 원정을 위해 항시 대기 태세를 갖춘 부대로 육성, 발전시켜 온 함대해병대의 존재이기도 하다.

미 해병대는 사실상 시초부터 해군 전진 기지의 작전 부대 또는 원정군으로 존재하여 왔었으나 그들의 편성 또는 지휘 체제가 이러한 임무에 상응하여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초반에 상륙작전이 해군 교유의 작전으로서 그 개념이 정립되면

14 제 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서, 비로소 상륙작전을 위한 2개의 구성 요소인 해군 부대와 상륙군(Landing Force), 즉 상륙 부대는 해군 함대 지휘관의 통합된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함대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함대해병대가 상륙군의 모체 부대로서 미 태평양함대 안에 창설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탄생한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가 제 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 전역(戰役)에서 실시된 술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모체 부대가 되었던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서, 전후(戰後)에 대서양함대에도 별도의 함대해병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전후, 동시에 몰아쳐 온 감군(減軍)의 진통을 겪은 이들 두개의 함대해병대는 그 기간 전투 부대로 자기 1개 해병사단과 1개 해병항공사단(MAW)*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 해병대 주력 전투 부대의 전부였다.

어쨌든, 한국이 북괴의 침공을 받고,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을 때부터 미 해병대가 그들 종래의 임무에 비추어 한국 사태에 관련한 출동 태세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극동 지역에는 여하한 규모의 미 해병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와이 진주만(眞珠灣)의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부가 극동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그 예하 부대인 미 제 1해병사단은 캘리포니아 주의 펜들턴 기지(Camp Pendleton)에, 그리고 그 근처의 엘토로(El Toro)에 미 제 1해병항공사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 원어는 Marine Air Wing으로서 그 편성 및 규모는 공군 사단(Air Division)과 유사하며, 공군 비행단(Air Wing)과 유사한 규모의 부대는 해병 비행 전대(MAG; Marine Air Group)이다. 이같은 연유로, 원어의 직역(直譯) 사용 시에 있을 수 있는 개념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한국 해군에서는 MAW를 「해병 항공 사단」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때, 미 해병대의 총 병력 75,000 여명 중 함대해병대의 병력은 28,000명이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태평양 함대해병대가 12,000명, 그리고 대서양 함대해병대가 16,000명이었다. 이러한 수자는 곧 어느 사단이든 함대해병대의 편제 병력에는 미달하는 것으로서, 항공 부대를 포함한 1개 연대전투단(RCT)* 이상의 규모로는 전투 대기 태세를 갖추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

미 해병대 사령관 「케이츠」 대장은 6월 28일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 대장을 방문하여 미 해병대의 병력 현황을 요약해서 보고하고, 가능한 1개 연대전투단의 출동을 건의하였다. 7월 1일 「셔먼」 제독은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래드포드」 대장에게 1개 대대상륙단(BLT) 또는 1개 연대전투단의 출동 소요 기간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날, 「래드포드」 제독은 1개 대대상륙단을 탑재하는 데 4일, 출항하기까지는 6일이 소요되며, 1개 연대전투단은 6일 이내 탑재, 10일 이내 출항이 가능하다고 응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셔먼」 제독은 극동미해군 사령관 「조이」 중장에게 「맥아더」 장군이 원한다면,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이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알렸다. 이 전갈은 이 무렵까지도 한국 전선에서의 압담했던 인상에 짓눌려 있던 「맥아더」 장군에게 생기를 돋구어 주는 청량제가 아닐 수 없었다.¹⁵⁾

7월 2일, 「맥아더」 장군은 「조이」 제독의 조언을 받아, 해병

* 연대 상륙단(RLT ; Regimental Landing Team)이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 부대 기동 편성(機動編成)의 한 단위로 쓰이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와 동일한 개념이 있던 연대 전투단(RCT ; Regimental Combat Team)이라는 용어가 일반 지상 전투나 상륙작전을 위한 기동 편성에 함께 쓰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 전투단으로 호칭되어야 할 경우일지라도 그 부대가 독립적으로 운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연대로만 표기하였다.

16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자체 항공 부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의 극동 파견을 워싱턴에 전의하였으며, 미 합동참모본부는 7월 3일에 이를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합동전략계획단에 의해서 대체적인 작전 개념이 마련되었다. 그 대의(大意)는 현 전선 남쪽에서 미 제 24사단 및 제 25사단으로 반격 작전을,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미 해병 1개 연대 전투단 및 미 제 1기병사단을 돌격 상륙 부대로 삼아 협조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 상륙 지역으로는 인천이 고려되고 있었으나, 작전 날짜는 앞으로 이 작전을 위한 부대의 가용 시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개략적인 계획에는 「블루하트」(BLUEHEARTS)라는 작전 명칭(Code Name)도 부여되었다.

7월 4일에는 극동미군 사령부에서 상륙작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상륙전 전문가인 「도일」 제독과, 미 해병대의 「포니」 대령, 그리고 몇몇 해군·해병 장교들이 참석하였다. 당초 미 제 8군의 상륙전 훈련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던 미 제 1상륙전대와 ANGLICO 팀은 전쟁이 일어나자 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파병되는 미 제 8군의 해상 수송과 관련한 임무에 이미 전용(轉用)되고 있었다.

미 해군·해병대의 장교들은 계획 추진 중인 상륙작전에 대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듣고 나서, 그 계획의 대담성에 한동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 특유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작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작전 중에 예상되는 위험 부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 작전에 대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추어

보았다. 「도일」 제독과 그의 제 1 상륙전대는 해군 계획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여야 했고, 「포니」 대령과 그의 교관진은 미 제 1 기병사단에 준비 명령이 하달되자, 이 사단의 계획수립 및 상륙 훈련을 돕는 일이 급선무였다. 16)

이러한 일들은 전선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7월 8일에 일단 중지되고 말았지만,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졌다거나 그 작전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상륙작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7월 초의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있을 작전의 최초 계획수립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초가 되었다. 17)

5. 포항(浦項) 상륙

미 제 1 상륙전대의 「도일」 제독과 그의 참모들이 인천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을 무렵, 전선에 최초로 투입되었던 「스미드」 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오산(烏山) 북방의 첫 접전에서 고군 분투끝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뒤 평택(平澤)과 천안(天安) 사이에 미 제 24 사단의 제 34 연대가, 그리고 전의(全義)와 조치원(鳥致院) 사이에는 제 21 연대가 투입되었으나 그들 역시 병력 및 화력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적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미군들도 38도선 상에서의 한국군처럼 처음에는 두려움없이, 다가 오는 적 전차를 향하여 2.36인치 로켓포와 75mm 무반동총을 발사하였으나, 적 전차는 끄떡도 하지 않고 굴러 왔던 것이다.

18 제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미군이 적과 직접 싸워 본 뒤에야 「맥아더」 장군은 물론, 미군들의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은 비로소 그동안 그들이 적의 능력을 파소 평가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일본에서는 마 제 25보병사단의 출동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이 사단의 투입으로 적을 저지·격퇴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생각까지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월 7일 급기야 「맥아더」 장군은 기왕에 요청한 병력 외에 미국 본토로부터 30,000명의 추가 병력을 미 합참에 요청하였다. 그후에도 계속된 소요 병력의 추가 요구는 「맥아더」 장군이 가용한,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극동의 모든 병력을 우선적으로 전선에 투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18)

「맥아더」 장군은 부득이 차후 상륙작전에 운용하려던 미 제 1기병사단의 전선 이동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에도 점령지 일본의 방위라는, 그에게 부과된 우선적인 임무를 도외시 할 수 없는 한,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았다. 미 제 1기병사단마저 전선에 투입한다면 주일(駐日) 마지상군으로는, 그동안 한국 전선에 투입되는 다른 사단들에 대한 병력 보충 구실을 해 온 까닭에, 이제는 허울 뿐인 미 제 7보병사단만이 남게 되어 일본 영토를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심은 다행히 앞서 요구했던 보충 병력과 미 제 2보병사단이 미국 본토로부터 증파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일단 해결될 수 있었다.

미 제 1기병사단의 전선 이동에는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무렵,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 장비 및 보급품의 쇄도로 부산항은 그 시설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가능하면 부산 근처에 부대와 장비를 상륙시

킬 수 있는 또다른 항구나 적절한 해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거기서 전선 가까이로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7월 8일 「도일」 제독과 그의 참모들은 인천에 대한 계획수립 작업을 중단하고 이 새로운 임무에 대응하게 되었다. 7월 10일 미 제 1기병사단의 상륙 지역으로 포항(浦項)이 결정되었으며, 7월 12일에는 극동미해군 사령관의 작전명령 9-50이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그리고, 서해안으로의 상륙을 위한 작전 명칭 「블루하트」는 새로이 요구되는, 이 포항 상륙을 위한 작전 명칭으로 변신(變身)하고 말았다. 급박한 전황에 비추어 이 작전에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간 제약이 가해졌다. 7월 14일과 15일에 일본의 요코하마(橫濱)를 출항하여 7월 18일 오전 중 포항의 영일만(迎日灣)에 상륙을 감행하도록 예정된 것이다. 미 제 1상륙전대와 TTU(부대 훈련대)의 이동 교육반, 그리고 ANGLICO(항공·함포 연락 중대) 팀의 장교들에게는 이 새로운 작전을 위한 명령의 작성과 양륙계획의 수립, 그리고 부대를 탑재시키는 과업들이 부과되었다.

급박한 전선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장차 상륙이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은 1주일 뒤 포항이 우군 수중에 있을지조차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부수적으로 적전 상륙과 무저항 상륙의 경우를 함께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어떠한 경우이든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륙 지역에 대한 정보 자료이다. 7월 11일에 미 육·해군 및 해병대의 장교들로 구성된 정찰반이 포항에 도착하였다.

20 제 1 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이들은 해군 포항 경비부(警備府)의 협조를 얻어 해안 정찰을 실시하고 해안 조건, 수심(水深), 항만 시설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끊임없이 후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전선에서는 미 제 24사단이 금강선(錦江線) 방어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이 역시 시시각각으로 가중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부 산악 지대에서는 한국군이 적에게 많은 타격을 가하면서 선전(善戰)하고 있었으며, 태백(太伯) 산맥으로 격리된 동해안(東海岸)에서는 한국군 제 3사단이 미미한 병력과 장비로 포항 북쪽 80km 지점의 평해(平海)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혈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적의 전진 속도로 보아 7월 18일까지 포항이 우군 장악하에 그대로 놓여 있을지는 의문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은 후방으로 침투한 북괴군 유격 부대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해군 포항 경비부는 묵호(墨湖) 경비부의 철수 병력을 흡수하고 진해(鎭海)로부터 증원된 병력을 포함한 총 800여명 중 480여명으로 1개 대대 규모의 육전대(陸戰隊)[†]를 편성하여 적의 기릴라 부대 침투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미군 정찰반이 포항에 도착하던 7월 11일에도 입수된 정보에 따라 그 일부 병력이 안강(安康) 방면으로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⁹⁾

계획수립과 작전의 준비는 전문(電文)이나 문서 등의 공식적인

* 제 3사단 제 23연대 본부는 이날 오후 늦게 평해 남쪽의 영덕(盈德)으로 철수하였다.

† 전쟁 초기, 해군은 자체 병력으로 해병대와는 별도의 「육전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육상(陸上) 부대를 편성하여 해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포항 육전대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해병대와 함께 지상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후에는 그 대부분이 해병대로 전과(轉科)하였다.

명령보다 구두 명령이나 전화 협조로 시간을 다투며 진행되었다. 부족한 상륙 함선과 기술 요원들을 백방으로 그러 모으는 동안, 미 제 1기병사단은 4개 탑재 전대(搭載戰隊)로 편성되었다. 7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요코하마에서 탑재를 완료하고 함대가 포항으로 항해하는 동안, 전선에는 미 제 25사단이 투입되어 한국군 방어선의 일부를 보강하였다. 유동적인 전선 상황으로 출항할 때까지도 상륙의 형태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7월 18일 새벽 영일만으로 함대가 진입 중일 때의 포항은 다행히도 우군 수중에 있었다.

7월 18일 07:15, 영일만 해안에 상륙은 개시되었다. 이날 새벽에 하달된 제 1상륙전대 사령관 「도일」 소장의 명령으로 무저항 하의 상륙인 「계획 B」가 적용되어, 작전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상륙 첫날에 미 제 1기병사단의 주력과 대부분의 장비가 양륙되었으며, 다음날 정오에는 사단장 「게이」 소장이 육상(陸上)에서의 지휘권을 인수하였다. 7월 22일 동해안을 휩쓴 태풍 「그레이스」호의 영향을 받아 마지막 양륙(揚陸) 단계에서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앞서 상륙한 이 사단의 주력이, 크게 타격을 입은 대전(大田) 남동쪽의 미 제 24사단과 교대하여 전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포항 상륙은 이처럼 무저항 하에 실시되어 명목상 크게 작광을 받지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행한 일로서 전선 보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동시에, 이같이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미 해군·해병들의 상륙작전 능력이 앞으로 있을 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²⁰⁾

6. 훈련된 상륙 부대

「맥아더」장군이 당초의 상륙 부대로 내정하고 있던 미 제 1기병사단을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이미 이 사단에 배치할 부대로서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될 예정인 미 제 2보병사단을 심중(心中)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제 2사단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서 보내올 다른 보충 병력으로 주일 때 제 7보병사단을 보강하여 이에 대치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가용 부대의 여건이 좋지 않을 수록 파병이 약속된 미 제 1임시해병여단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게 마련이었고 가능하다면 이 부대가 사단 규모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맥아더」장군의 소망이었다.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이란, 「맥아더」장군이 요구했던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의 극동 파견이 미 합참본부에서 승인되자 곧 미 해병대에서 출동 부대로 편성 중에 있는 부대였다. 미 해병 펜들턴 기지(Camp Pendleton)에서는 미 제 1해병사단 이하 제 5해병연대를 주축으로 한 지상 부대의 편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인접 엘토로(El Toro) 해병항공기지의 미 제 1해병항공사단에서는 제 33해병비행전대(MAG-33)가 F4U 「코르세어」 전투기를 장비한 3개 대대를 주축으로 출동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이들로 구성되는 공·지 부대는 그 규모와 지휘편을 감안하여 7월 7일 때 제 1임시해병여단으로 공식적인 발족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미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이들의 모체 부대인 두 사단은 이

때 사실상 그 수준이 평시 편제에도 못미치는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동 부대 편성을 위해서는 두 사단의 전원이 동원되어야만 했다. 평시 편제에 따라 2개 중대만을 보유하고 있던 보병 대대들은, 주일 미군의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출동시에 그랬던 것처럼, 제 3의 중대를 증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어쨌든, 「크레이그」 준장이 지휘하는 총 병력 6,534명의 이 여단은 7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미국 본토 서해안의 항구 도시인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해군 함정 편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다.

포항 상륙을 처음 결심했던 7월 10일, 「맥아더」 장군은 하와이 주둔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관 「세퍼드」 중장의 방문을 받았다. 「세퍼드」 장군의 방문 목적은 극동 파견을 위해 편성 중인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의 편제 및 운용 문제 등을 극동미군 사령부와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맥아더」 장군의 표정은 절박한 전선 상황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이 매우 침울 하였다. 의례적(儀禮的)인 몇 마디의 대화에 이어, 「맥아더」 장군은 그의 신념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즉 UN군의 유일한 희망은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의 후방에 상륙을 감행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전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비슷했던 과거의 경험, 즉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겪었던 일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당시에도 일본군 점령하의 도서(島嶼)들에 대해 상륙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에 숙련된 부대들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24 제 1장 인천 상륙: 최초의 구상

「맥아더」 장군은 뉴브리튼 상륙 당시 그의 지휘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던 미 제 1해병사단을 불현듯이 회상하고 있었다. 21)

『제 1해병사단이 지금 다시 내 지휘 하에 들어 올 수만 있다면 인천 상륙에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을텐데!』

뉴브리튼 상륙 당시 미 제 1해병사단의 부사단장 직을 역임했던 「세퍼드」 장군은, 이때 「맥아더」 장군이 미 제 1해병사단을 적절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곧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제 1해병사단을 요청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장군은 늦어도 9월 15일까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오?』

「맥아더」 장군은 「세퍼드」 장군의 말을 받아 이렇게 되물었다.

현재 미 제 1해병사단의 바로 상급 제대 지휘관인 「세퍼드」 장군으로서 편성 중에 있는 1개 연대전투단을 제외한 병력 규모의 사단은 제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1개 연대를 편성, 차출하고 난 다음, 미 제 1해병사단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 함대해병대가 흡수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때 「세퍼드」 장군의 마음속에는 해병 예비역 자원의 동원 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걸어 불만하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미 제 1해병사단의 동원 가능성에 대한 밝은 전망은 「맥아더」 장군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종소, 그럼 여기 앉아서 합동참모본부에 보낼 전문을 기안(起案)해 주시오.』

바로 이날, 「맥아더」 장군은 이미 극동으로 파견되기 위하여 편성 중에 있는 해병여단이 자체 항공 부대를 적절히 보유하는

완전한 해병사단으로 증강, 파견될 것을 요구하는 전문(電文)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발송하였다.

이 첫번째 전문은 「맥아더」 장군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해병사단을 획득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두번째 전문이 발신되었다.

이 무렵, 미국 본토 서해안의 샌디에이고로부터 부대의 마지막 출항을 확인한 미 제 1임시해병여단장 「크레이그」 준장이 공로(空路)로 7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였다. 두번이나 거듭된 미 해병 1개 사단의 증파 요청에 대하여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던 「맥아더」 장군은 7월 19일 그를 방문한 「크레이그」 장군으로부터 해병여단의 병력이 평시 편제의 병력 수준이라는 사실을 듣고 크게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날 미 합참본부에 다시 전문을 보냈다. 이미 미국 본토를 출발한 해병여단을 전시 편제로 증원해 줄 것과 완전한 전시 편성의 해병 1개 사단 파견을 재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 지원 항공 부대를 포함한 이 해병사단의 전 병력이 9월 10일까지 극동에 도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²²⁾ 이 전문은 「맥아더」 장군이 해병사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세번째의 시도였다.

7. 미 해병사단의 증원 결정

「맥아더」 장군이 요구한 해병사단의 극동 파견 문제가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 논의되었을 때, 미 해군 참모총장 「서먼」 대장

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해병여단의 출동으로 크게 약화될 미 제1해병사단을 다시 파견하기 위해서는 대서양 함대해병대까지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대서양 지역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서면」 제독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정황(情狀)을 잘 아는 미 해병대 사령관 「케이츠」 대장 역시 미 합참으로부터 의견을 요구받았을 때, 해병사단 파견을 위해서는 해병 예비역의 소집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이에 직접 관련한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즈음, 즉 「케이츠」 장군이 미 제1임시해병여단의 최종 출동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 제1해병사단 기지인 펜들턴을 방문 중이던 7월 12일,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관 「세퍼드」 중장도 같은 목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 그로서는 도쿄(東京) 왕래의 여독(旅毒)이 아직 풀리기도 전이었다. 「케이츠」 장군은 「세퍼드」 장군으로부터 상세한 극동 방문 결과를 청취하였다. 비로소 최근의 한국 정세를 보다 정확히,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자세히 알게 된 「케이츠」 장군은, 그같은 여건하에서 해병여단의 출동 문제를 생각할 때, 「세퍼드」 장군의 건의대로 이를 해병사단으로 증강시켜 파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케이츠」 장군은 워싱턴에 귀환하는 즉시, 그의 참모진에게 필요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참모 연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 장군의 요구가 거듭되자 다시 이 문제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자문(諮問)하였다. 「케이츠」 장군은 6월 말 현재의 현역·예비역 병력 통계를 토대로 그의 참모들의 손으로 마련된 2개의 계획안을 미 합참에 제시하였다. 즉,

2개 중대 편성으로 출동한 해병여단의 대대들에 각각 1개 중대씩을 증편한다는 안(案)과 예비역을 소집하여 제 1해병사단을 전시 편성으로 확충시킨다는 안이었다.

미 합참본부는 7월 19일 해병 예비역 동원령에 대한 미 대통령의 승인과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선 미 제 1해병사단을 완전 평시 편제로 보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 합참은 미 대서양 함대해병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맥아더」 장군이 요구하는 일자에 맞추어 해병사단의 탑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미 해군 참모총장의 주장에 따라 미 제 1해병사단을 전시 편제로 보강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단의 출동은 11월이나, 어쩌면 12월까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7월 20일 「맥아더」 장군에게 통보하였다.²³⁾

7월 21일, 「맥아더」 장군은 제 1해병사단 증파 문제에 대한 재고를 미 합참에 다시금 촉구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1950년 9월 10일까지 해병사단이 도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단의 즉각적 투입이 지금 극동에서보다 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은 있을 수 없다」²⁴⁾고 강조하였다. 7월 22일, 미 합참은 다시 「맥아더」 장군에게 그의 요구를 재고하고 있다고 통보하면서, 해병사단을 9월 10일까지 필요로 하는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7월 23일 「맥아더」 장군은 미 합참의 요구에 회신하는 가운데 인천을 상륙 지역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9월 중순 예정으로 계획 중인 상륙작전의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특히 이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회답의 시기는 적에게 대전(大田)을 빼앗긴 충격이 컸던 바로 뒤였기 때문

에, 이러한 회신으로 워싱턴 당국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었다. 급기야 미 합참은 7월 24일 텔레콘(telecon)으로 「맥아더」 장군을 호출하여, 위급한 전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의 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요구된 병력 보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완전한 해병 1개 사단이 제공된다면, 9월 중에 계획된 상륙작전은 예정대로 훌륭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도쿄(東京)와 워싱턴 사이에 전문이 오가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 해병사단의 출동에 제동적(制動的) 역할을 하던 미 해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심경의 변화를 초래케 하는 데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래드포드」 대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자신이 도쿄(東京)에 다녀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퍼드」 장군의 조언까지 받고 있던 「래드포드」 제독은 미 해군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전반적으로 미 대서양 함대해병대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도 해병 부대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건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 해병대 자체의 항공 지원을 받는 전시 편제의 미 제 1해병사단이 극동으로 파견되기 위하여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탑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맥아더」 장군은 미 합참으로부터 7월 25일에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사단은 여전히 1개 연대전투단이 모자라는 규모였다. 이 나머지 1개 연대전투단은 훨씬 뒤에야 별도로 조직되었다. 다시 말하면, 증파될 미 해병사단은 약간의 항공 부대와 필요한 지원 부대, 그리고 제 1해병연대전투단으로 구성되는 것

이며, 이미 출동한 제1임시해병여단을 흡수해도 1개 연대전투단이 부족한 사단이 되는 셈이었다.

8. 남서부 전선의 위기

극동 지역의 미 해·공군은 미 지상군의 참전 결정에 앞서 이 때 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처럼, 일부 자유 진영 국가에서도 해·공군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었다. UN 안보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UN 회원국들의 군사 원조 결의가 있었던 다음날, 영국으로부터 극동 해역에 있는 영국 해군 함대의 참전 제의가 있는 뒤를 이어,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으나 호주·캐나다·뉴질랜드·네덜란드 등에서도 해·공군 부대의 파견 제의가 있었다. 이들은 참전과 동시에 일단 극동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들어감으로써 연합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7월 7일 UN 안보 이사회는 통합 사령부의 창설을 제의하고, 이 통합 사령부가 각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UN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는 동시에 그 지휘관의 임명을 미국에 위임하였다. 「트루만」 미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UN 군 사령관으로 지명 한 미 합참의 건의를 승인하는 한편, 7월 10일에는 이 사실을 「맥아더」 장군에게 통보하였다. 7월 24일 극동미군 사령부를 모체로 한 UN 군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한국군도 이른바 「대전 협정」으로 불리우는, 「맥아더」 장군 앞으로 보내는 이 승만 대통령의 공한(公翰; 1950. 7. 14.)과 「맥아더」 장군의 회한(回翰; 1950. 7. 18.)에 의해서 UN 군 사령관 지휘 아래 들어갔다. 이로

써 한국에서의 모든 작전 부대는 UN의 깃발 아래 통합되었으나, 군사 작전의 정책적 지도 기관은 여전히 미 합참본부가 그 핵심체를 이룸으로써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갈등과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한편, 미 제 8군 사령부가 한국으로 이동하여 대구(大邱)에 개설되고, 7월 13일에는 미 제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주한미 지상군(USAFIK)*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워커」 장군은 7월 17일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 지상 부대도 통합 지휘하게 되었으며, 같은날 대구에는 처음으로 청색의 UN기가 게양되었다.

지루하고 처절했던 7월의 지연전이 계속되는 동안 경부선을 따라 미군이, 그 이동(以東) 지역에서는 한국군이 적과 대치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부선의 이서(以西)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공백 지대와 다를 바 없었다.

7월 중순, 금강·대전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북퍼군 제 6사단이 천안(天安)에서 서해안을 따라 호남 지방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이 적에 대항하여 7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장항(長項)——군산(群山) 및 이리(裡里) 지역에서 최초의 썰기 구실을 한 것은 해군의 군산 지역 정부미(政府米) 후송 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군산에 출동하였던 해병 고길훈부대(高吉勳部隊)였다. 구식(舊式)

* 8·15 해방 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한 미 지상군(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은 마지막 미군 제대(梯隊)의 이한(離韓)과 때를 같이 하여 1949. 6. 30.에 해체되었었다.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1950. 7. 4. 「딘」 장군이 대전에서 다시 발족시킨 주한 미 지상군 사령부는 그뒤 미 제 8군 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해 오면서 1950. 7. 13.에는 「워커」 장군이 그 지휘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소총을 갖춘 2개 소총 중대와 극소수의 중(重) 기관총 및 박격포를 장비한 1개 화기 중대 등 겨우 300여 명의 이 부대가 사실상 큰 역할을 해 내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해상 또는 육로로 목포(木浦)를 거쳐 7월 22일 여수(麗水)로 철수한 이들은, 제주도에서 증원된 1개 중대와 함께 해병 김성은부대(金聖恩部隊)로 개편되고, 전부는 아니었으나 M1 소총도 장비하게 되었다.

그뒤 전주(全州)를 거쳐 남진하는 북괴군 제 6사단의 일부와 대치한 부대는 남원(南原)에서 재편된 육군 민기식부대(閔機植部隊)였다. 이 민부대에는 7월 23일 해병 김성은부대가 배속되었다. 민 기식 대령의 지휘를 받은 이 부대들이 7월 24일에는 전주 탈환을 위한 반격을 시도하였었으나, 시기(時機)를 놓친 이 공격 기동은 병력이 분산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다. 이들이 적의 전진을 저지하지도 못한 채, 지리산(智異山) 북쪽의 산악 지대를 동으로 횡단하여 7월 27일 함양(咸陽)에 이르렀을 때는 또다른 적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적들은 대전 전투 이후 금산(錦山)·무주(茂朱)·진안(鎭安)을 거쳐 남하한 적 제 4사단의 선두 부대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육군·해병의 이 혼성 부대는 적극적인 반격으로 일시나마 적을 격퇴한 뒤, 산청(山淸)을 거쳐 진주(晉州)로 이동하였다. 진주에 도착한 7월 30일부터는 미 제 24사단 제 19연대의 작전 통제 하에 다시 북괴군 제 6사단을 맞아 혈전을 거듭하였다.

이 적들이 미칠 위협을 미 제 8군이 감지한 것은 7월 24일 쯔순천(順川) 지역에 집결하는 적을 항공 정찰에 의해서 확인한 뒤였다. 정작 적의 정체는 파악하지도 못한 채, 미 제 8군은 대전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고 군 예비로 전환되었던 미 제 24사단을



사진 2. 전선으로 향하는 미 해병들. 부산에서 마산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열차에 오르고 있다(1950. 8. 3.).

7월 25일과 26일 사이에 진주·거창(居昌) 지역으로 이동, 배치시켰다. 7월 25일 진주로 이동한 미 제 24사단 제 19연대에는 오끼나와로부터 급거 파견되어 전날 부산에 상륙한 미 제 29연대가 배속되었다. 이들은 연대 지휘부도 없이, 그리고 각종 화기의 시험 사격은 고사하고 출항 전날에야 400여 명의 신병을 보충받아 출동한 2개 대대 병력의 연대였다. 미국의 서부 해안을 떠나 일본으로 향해 중이던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이 부산으로 직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바로 이날이었다.

7월 31일, 진주와 거창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마제 8군은 7월 27일 하동(河東)에서, 그리고 7월 31일 거창에서 의 격전이 있던 뒤에야 북괴군 제 6사단과 제 4사단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공격 방향이 부산과 대구로 지향되고 있

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미 제 8군은 8월 2일 늦게, 전날의 명령에 따라 상주(尙州) 지역에서 삼랑진(三浪津) 지역으로 이동 중이던 미 제 25사단의 목적지를 마산(馬山)으로 변경, 지시하였다. 한편, 하와이로부터 증파되어 7월 31일 부산에 상륙한 미 제 5연대전투단과, 8월 2일 부산에 도착한 미 해병여단에도 이들의 도착에 앞서 마산으로의 이동 준비 지시를 하달했었다. 「워커」장군으로서는, 대구 북쪽에 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남서부 전선에 부대를 전환 또는 집중 투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워커」장군은 진주를 탈환하고 북쪽에 가중되는 적의 압력을 전환시킬 목적으로 마산 정면에서의 반격 작전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8월 2일과 3일 사이에 마산 지역으로 이동한 미 제 25사단은 남강(南江)과 낙동강(洛東江)의 합류 지점 남단에서, 마산 서쪽 약 13km 지점의 서북산(西北山) 일대까지 육박해 온 적과 대치하면서 반격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미 제 24사단은 창녕(昌寧)과 영산(靈山)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서쪽의 낙동강 돌출부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남쪽의 미 제 25사단과 연결을 유지하였다. 그 북쪽으로 미 제 1기병사단이, 그리고 왜관(倭館)으로부터 동해안의 영덕(盈德)에 이르는 산악 지대에는 한국군이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8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은 구축되었다.

제 2 장 「크로마이트」작전 : 발전적 구상

전선 상황의 악화로 「블루하트」 계획은 일단 무산되었지만, 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집념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황이 더욱 악화될 수록 「맥아더」 장군은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이 이토록 집착하는 상륙작전은, 그의 장차 작전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표현해서 저지 단계—병력 증강 단계—반격 단계로 3 단계화 할 경우, 그 세번째 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륙작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수립과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획수립은 제 1 단계가 보장되기도 전에 착수되어야 하며, 제 1 및 제 2 단계를 위한 병력 소요는 제 3 단계, 즉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의 가용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앞 장(章)에서 보아 왔다.

상륙전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세부 계획이 착수되려면 그에 앞서는 지침으로서 적어도 상륙 목표 지역과 가용 부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7월이 다 가기 전에 「맥아더」 장군은 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돌격 상륙 부대로서 미 해병사단의 제공을 일단 보장받기는 했으나, 이 시점(時點)에서는 단지 보장에 불과할 뿐, 그 가용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상륙작전 세부 계획수립에 앞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인 상륙 목표 지역의 선정과 가용 부대의 확보를 위하여 겪게 되는 진통 과정을 주로 살펴게 될 것이다.

1. 작전계획 「크로마이트」

미 해병사단의 증파(增派)를 거듭 요구하는 동안, 「맥아더」장군의 상륙작전 구상은 극동미군 사령부 안에서 극비리에 다시 추진되었다. 「맥아더」장군은 상륙 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작업을 다시 맡게 된 합동전략계획단은 인천·군산·해주·진남포·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몇개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들이 마련한 「크로마이트」작전계획의 초안이 7월 23일 극동미군 사령부의 관계 참모 부서에 회람되었다.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작전 명칭으로 9월 중에 실시 예정인 이 상륙작전은,

- (1)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할 100-B 계획,
 - (2) 서해안의 군산에 상륙할 100-C 계획,
 - (3) 동해안의 주문진(注文津) 일대에 상륙할 100-D 계획 등,
- 3개 안(案)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채택의 가능성이 가장 짙은 것은 인천을 상륙 지역으로 하는 100-B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전 전선에서는 적의 점증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 낙동강 방어선의 좌측이 붕괴될 위험에 직

편하게 되자 7월 25일 「맥아더」 장군은 극동을 향하여 항해 중이던 미 제 2보병사단의 일부 병력과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을 한국 전선으로 직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극동 미군 사령부 참모들은 그동안 다시 추진해 왔던 상륙작전의 감행 시기와 부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는 부대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상륙작전을 위하여 다시 빼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거니와, 설사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당시 부산을 통해 전선으로 홍수처럼 흐르는 방대한 군수 지원을 일시에 정지 또는 역류시키는 이치와 같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여기에서 초래될 지장이나 혼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26일, 당시 편제 병력의 절반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일 미 제 7보병사단으로 하여금 되도록 빠른 사일 안에 한국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가 이때 그런대로나마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전투 부대라고는 이 사단 뿐이기도 했지만, 「맥아더」 장군은 9월의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로 이 사단을 심중(心中)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극동미군 사령부의 계획수립 장교들에게는 그 시점에서 미 제 7사단을 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며,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전략계획단은 상륙작전을 10월 15일까지 연기할 것을 「맥아더」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맥아더」 장군 역시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의 전쟁 개념에 따라 예정대로 9월 중에 상륙작전을 강행하려는 결심은 끝까지 단호한 것이었다.

당시 전선의 절박한 상황은 분명히 모든 부대의 우선적인 투입

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맥아더」 장군 역시 그 불가피한 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생각은 이러한 보편적 상황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여 이들 병력 투입으로 낙동강 전선에 대한 적의 압력을 제거시키려는 데까지 빠치고 있었다. 그가 추진하는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조수 문제가 카다란 제약 요소라는 것을 이미 잘 알면서도 그의 전반적 전쟁 개념에 입각하여 생각할 때, 상륙작전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 작전의 연기 또한 고려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그에게 있어서 전선 상황은 장차의 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낙동강 전선 상황에만 급급하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의 안목은 이미 인천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합동전략계획단은 8월 12일 극동미군 사령부 작전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륙작전의 기본 개념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돌격 상륙 부대로 미 제 1 해병사단이, 그리고 목표 지역으로 인천—서울 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었으며, 미 제 8 군의 반격 작전과 연결작전을 포함한 총괄적인 작전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다만 후속 상륙 부대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극동미군 사령부 예비 병력이라고만 언급되었으며, 잠정적인 D일은 9월 15일로 고려되고 있었다.

8월 15일에는 극비리에 「크로마이트」 작전의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차 미 제 10 군단의 참모장이 될 「러프너」 소장 주도 아래 「특별 계획수립 참모」라는 새로운 참모진이 구성되었다. 이 참모진은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극동미군 사령부의 훈령(訓令)을 작성, 하달하기 위한 작업을 담당했

으며, 후일 미 제 10 군단 사령부의 핵심 참모들이 되었다. 이들에게 상륙전의 전문 지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8월 19일에는 TTU(부대 훈련대) 이동 교육반의 「포니」대령을 비롯한 10명의 미 해병 장교와 2명의 해군 장교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9월 15일을 잠정 D일로 하고, 인천을 상륙 목표 지역으로 하는 「맥아더」장군의 상륙작전 개념은 그의 참모들보다도 미 해군·해병 장교들로부터 더 강력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¹⁾

작전 개념에서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라는 전술적 방법이 제시된다. 그렇다면 「맥아더」장군의 기본 개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륙 돌격에 있어서의 이 전술적 방법은 상륙의 시기 및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하물며 「맥아더」장군의 집념을 상징하는 이 상륙작전이 기본적으로 해군 작전인 이상, 해군의 함정 및 기타 지원과 해병 상륙 부대 없이는, 그리고 해군·해병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천에 대한 「맥아더」장군의 집념이 그 작전의 성공까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한, 해군·해병 장교들은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업, 즉 제외된 상륙작전에 대한 연구는 한편에서 해군의 함정과 해병 부대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미 제 1해병사단이 극동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일」제독과 그의 참모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상륙 지역으로서의 인천은 그들의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깊이 검토하면 할 수록 자연적인 장애와 많은 제약 조건이

드러남으로써 부정적 견해를 더욱 짙게 해줄 뿐이었다. 그리하여 더 정확한,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해안에 UDT(수중 파피반) 등 기술 요원과 함정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가능한 대안(代案)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였었다.

상륙 돌격을 감행한다는 것과 그 목표 지역에 관한 한, 「맥아더」 장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전략적 차원에서의 「맥아더」 장군의 의도를 명확히 아는 미 해군·해병 장교들의 반대는 상륙돌격 그 자체의 실시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륙 지역으로서의 인천이 지니는 장애 때문에 야기되는 상륙의 방법에 있는 것이었다. 결국, 작전계획 100-B는 장차 상륙작전을 위한 극동마군 사령관의 기본 작전 개념을 제시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지정된 상륙 지역은 아직도 다분히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2. 제 10 군단 사령부의 발족

인천 상륙작전은, 제 2 차 세계 대전 시의 그 많은 상륙작전들과 병력 면에서만 비교해 본다면, 결코 큰 작전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전 지역의 규모와 그 밖의 작전 여건들에 비추어 보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2개 사단 병력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면, 광대한 적의 점령 지역에 대하여 2개 사단 규모의 공격력으로 작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며, 그만큼 이 작전을 계획하고 지도할 사령부의 임무가 과중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작전을 담당할

사령부 문제는 기존 기구를 이용하든, 또는 새로 편성하든 간에 조속히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였다.

해군의 상륙전대와 같이, 상륙작전을 위하여 함대 안에 준비되어 있는 부대가 함대해병대이다. 상륙작전 시 상륙전대가 해군 부대의 모체가 되는 것처럼 함대해병대는 상륙군의 모체가 된다. 이들은 또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대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위하여 미 태평양 함대 예하의 제 1 상륙작전대가 실제로 공격 부대(함대)의 모체가 되어 있고 함대해병대 예하의 해병사단이 또한 돌격 상륙 부대를 구성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도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부를 이용한다는 방안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이 된다.

한편, 극동미군 사령부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임시 군단 사령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각 구성 요원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완전한 조직체를 이루어 야전에서 공동으로 훈련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합동전략계획단을 이끄는 「라이트」 장군의 견해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제 10 군단 사령부 구성 문제에 대하여 「라이트」 장군은 참모장 「아몬드」 장군을 통해 「맥아더」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9월 15일을 목표 일자로 할 때, 상륙 계획, 탑재 계획의 수립과 돌격 제대의 탑재를 완료하는 데는 불과 30일이 남아 있을 뿐」²⁾이며,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하는 사령부를 구성, 훈련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와이의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라이트」 장군의 건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 「맥아더」 장군에게 있어서, 「크로마이트」 작전이란 인천 상륙작전



사진 3. 「마운트 머킨리」호 함상의 장성들. 좌로부터 「휘트니」·「라이트」·「맥아더」·「아몬드」 장군(1950. 9. 15.).

그 자체보다는 그 다음의 내륙 작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자신의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의 사령부 참모진 외에 더 나은 집단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³⁾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라이트」 장군의 전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대신, 합동전략계획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전담할 특별 계획수립 참모부가 편성되었던 것이다.

8월 21일 「맥아더」 장군은 그의 관할 하에 있는 가용 인력(可用人力)으로 미 제 10군단 사령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미 육군성에 전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무렵, 특별 계획수립 참모부는 이미 새로운 군단 사령부의 골격으로 변신되어 가고 있었고, 이 군단

을 지휘할 군단장도 「맥아더」 장군의 심중에는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미 제 10 군단은 8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는데 물론 특별 계획수립 참모부가 군단 사령부로 탈바꿈을 한 것과 다름 없었다. 같은 날 군단장에는 「아몬드」 장군이 극동미군 사령부의 참모장직을 그대로 지낸 채 임명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이러한 겸직 인사 조치는 분명히 그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게 되면, 「아몬드」 장군의 사령부 복귀는 멀지 않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기관총 대대장을 역임하였고 제 2차 대전 때에는 이탈리아에서 미 제 92 보병사단을 지휘한 적이 있는 「아몬드」 장군은 1946년 6월 극동미군 사령부로 전임되어 1946년 11월부터 참모부장으로 재직하였다. 1949년 2월 18일부터 참모장직에 오른 그는 「맥아더」 장군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미 육군의 한 전사가(戰史家)는 「아몬드」 장군의 인품(人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극동미군 사령부에서는 두려움과 복종으로 통하는 사람이 「아몬드」 장군이었다. 정력적이면서도 절맞지 않게 끈기를 지닌 그는, 자신의 직책과 격무에 스스로를 채찍질해 온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였다. 그와 대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파란 눈동자에서 번뜩이는 광채를 쉽사리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는 오직 충직(忠直)할 뿐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그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회백색의 머리와 다혈질적인 안색에 잘 어울리게 다듬어진 그의 외모는 약간 굽은 어깨와 중간 정도의 신장(身長)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4)

미 제 10 군단은 상륙작전의 기본적 성격이나 이 작전이 감행될

지역적인 위치로 보아, 미 제 8군과는 별도의 지휘 계통을 필요로 하였다. 실제로도 「워커」 장군은 그의 관심이나 노력을 낙동강 방어선 이외의 지역에 돌린다거나 그의 참모들을 분산시킬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된 미 제 10군단의 지휘 계통은 이 작전 이후에도 계속 미 제 8군과는 별도로 유지되었다.

3. 미 제 1해병사단의 발족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기지(Camp Pendleton)에 위치하고 있는 미 제 1해병사단은 7월초에 제 1임시해병여단을 편성하여 급거 출동시키고 남은 병력 3,386명으로 사령부와 예하 각종 군무 지원 부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파의 남침이 개시되기 바로 며칠 전, 전임 사단장 「어스킨」 소장이 특별 임무를 띠고 동남아(東南亞) 지역으로 떠난 뒤, 그의 직무를 대행하던 부사단장 「크레이그」 준장마저 얼마 뒤에는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을 이끌고 한국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2,500명 미만의 병력이 잔류하고 있을 뿐인 엘토로(El Toro)의 미 제 1해병항공사단 역시 펜들턴의 지상 부대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었다.

이들이 합동하여 증강된 해병사단으로서 출동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단시일 안에 정규군만으로 부대를 편성, 출동할 수 있었던 제 1임시해병여단의 경우와는 또다른 일면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물론 미 대통령의 해병 예비역 동원령이 뒷받침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비역 자원을 포함한 미 해병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강한 신념에 의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미 해병대 사령부가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 1 해병사단(1개 RCT)을 전시 편성으로 확충하고 극동(極東) 파견을 위해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탑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7월 25일이었다. 물론 이에 앞서 미 대통령이 해병 예비역 소집을 승인한 7월 19일에 이 사단을 평시 편성으로 충원하라는 지시를 받아 미 해병대 사령부는 단계적으로 해병 예비역 소집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오던 중이었다.

7월 25일에는 미국 본토 일원의 모든 해병 경비 부대 병력에 대한 50% 감축안도 미 해군 참모총장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것은 약 3,600명의 현역 자원을 제 1 해병사단에 충원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날 미 해병대 사령부는 미 제 1 해병사단의 증편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미 제 1 해병사단은,

- (1) 사단의 극동 도착과 동시에 흡수될 해병여단의 부대들,
- (2) 미 제 2 해병사단으로부터 이동, 전입될 부대,
- (3) 미군 본토 일원의 각 기지와 부대로부터 전입되는 현역 병력으로 보강되며,
- (4) 최종적인 부족수는 최소한 전투 경력이 있는 예비역 소집 자원으로 충원된다는 것이었다.⁵⁾

한편, 「스미드」 소장이 미 제 1 해병사단장으로 부임 명령을 받고 7월 18일 워싱턴을 떠나, 펜들턴(Pendleton)에서 그의 직무를



사진 4. 「맥아더」와 「스미드」 장군, 인천 부두에서(1950. 9. 17.).

개시한 것은 7월 25일이었다. 사단이 출동 준비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은 불과 21일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1916년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한, 24세의 청년 「스미드」는 그 다음 해에 미 해병 소위로 임관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숭한 전투를 겪고 준장으로 승진한 「스미드」 장군은 미 해병학교 장을 역임했으며, 사단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미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있었다.

「스미드」 장군을 가리켜 「다방면으로 비범했던 해병」이라고 평한 미 해병대 출신의 한 전사가는 이어 다음과 같이 그를 묘사하였다.

46 제 2 장 「크로마이트」작전 : 발전적 구상

1917년 이래의 경력을 배경으로 볼 때, 소대로부터 중국에는 육군 군단장에 이르기까지 각급 계대(梯隊)를 지휘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미드」(O. P. Smith)는 교관과 참모로서의 평판이 자자했다. 대위 시절에는 대부분 해병대의 열성적인 장교들만이 가던 포트베닝(Fort Benning)의 육군 보병학교를 나왔다. 소령 시절에는 2년마다 1명의 해병 장교가 선발되어 가는 파리(Paris)의 육군 대학에도 갔다. 제 2차 세계 대전 시에는 뉴브리튼, 펠렐리우(Peleliu), 오키나와 등에서 많은 전투를 겪었다. 그는 성품이 상냥스럽고 온화하며 냉철한 사색가(思索家)인 동시에 교관풍이었으며, 파이프 담배는 피우지만 술은 절제하는 전형적인 크리스찬이었다. 체격면에서 본다면 「스미드」 장군은 약간 앙상해 보일 만큼 늘씬하게 큰 키와 백발 때문에 조로(早老)해 보이기는 했지만, 웅장한 독수리 상이 매우 인상적이다.⁶⁾

인천 상륙작전에서 돌격 상륙 부대를 지휘한 「스미드」 장군은 장진호(長津湖) 전투에서 더욱 그 용명(勇名)을 떨쳤고, 1951년 4월 24일에 이르기까지 사단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을 모두 한국 전선에서 보낸 장군이였다.

4. 미 해병사단의 출동

7월의 마지막날, 펜들턴(Pendleton)에는 7월 초 해병여단이 출동하던 때의 소란을 능가하는 대 소동이 또 벌어졌다. 소집된 최초의 예비역들이, 그리고 미국 본토 안의 각 기지와 부대로부터 현역 장병들이 홍수처럼 물려들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 병력의 집결은 8월 초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막사(幕舍)의 준비, 피복과 장비의 지급, 그리고 입소자(入

所者)에 대한 신체 검사가 연달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태는 한 주일 동안이나 밤낮 없이 지속되었다. 엘토로(EI Toro)의 미 제 1해병항공사단도 이와 비슷한 소란 속에서 역시 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8월의 첫 주간에 총 13,703명의 현역과 약 1만 여명의 예비역이 펜들턴에 도착하였다. 당초 출동 준비 지시에 지정된 날짜보다 이틀이나 앞당긴 8월 8일,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탑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 사단은 여단 출동 후의 사단 잔류 장병 중에서 3,459명, 각 기지와 부대에서 8월 4일까지 도착, 보고된 장병 3,630명과, 8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미 제 2해병사단에서 도착, 보고된 장병 7,182명, 그리고 8월 7일까지 도착한 예비역 1만 여명 중에서 엄선된 장병 2,891명 등 총 17,162명으로 구성되었다.⁷⁾

이미 전선에 투입된 미 제 1임시해병여단 예하의 제 5해병연대에 이어, 두번째의 출동 연대인 제 1해병연대를 주력으로 사단 본부 및 항공 부대를 포함한 각종 지원 부대로 구성된 미 제 1해병사단(-1개 RCT)의 탑재가 한창 진행 중이던 8월 10일, 이 해병사단의 세번째 연대가 될 제 7해병연대의 편성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것은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비록 「맥아더」 장군이 의도하는 상륙 돌격 시기까지 현지에 도착은 못할 지라도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발족한 것이며, 빠르면 9월 20일 쯤에는 극동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 연대가 편성되어 전투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미 제 2해병사단의 기지인 리준(Camp Leje-

une)으로부터 2개 대대가 없는 평시 편제의 제 6해병연대가 8월 16일 펜들턴 기지에 도착하였다. 사실상 이름 뿐인 이 제 6해병연대를 핵으로 하여 제 7해병연대의 실질적인 편성 작업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같은날 연대장에는 「리첸버그」 대령이 임명되었다. 이 연대는 극동으로 출발하기 위해 늦어도 9월 3일까지는 탑재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사단 주력보다는 늦게 별도로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 11해병포병연대 제 3대대와 전차·공병·해안·수송 등 전투 및 군무 지원 중대를 포함한 연대전투단으로 편성되어야만 했다.

8월 21일 오전 중 펜들턴에 도착한 「데이비스」 중령은 전임 신교를 마치고 2시간 뒤에 제 1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대대 병력이라고는 소수의 장교와 하사관 등 기간 요원 뿐이었다. 각지에서 소집되어 모여드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약 1주일 안에 전투 능력을 갖춘 대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데이비스는 만주에

장비와 피복을 수령하기도 하였다.⁸⁾

앞으로 이 새로운 연대의 세번째 대대가 될, 이전 제 6해병연대 소속이었던 제 3대대는 미 제 6함대의 해상 대기 부대로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러 함정에 분산되어 있던 이 대대는 8월 12일 극동 출동 명령을 받고 8월 14일까지 크레테(Crete) 섬

병력이 대서양 연안의 미 제 2해병사단으로부터, 1/3의 병력은 현역으로 소집된 해병 예비역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제 6해병연대 이하의 당시 지중해에 있던 1개 대대와 미국 본토 안의 각 기지로부터 차출된 병력 등으로 충원되어 총 5,638명으로 구성되었다.⁹⁾

미 제 1해병사단의 탑재는 지정된 일자보다 2일이나 앞당긴 8월 8일부터 개시되었으나 부적당한 부두 시설과 기타 악조건 등으로 8월 22일에야 완료되었으며, 그 주력은 8월 14일에서 16일 어간에 샌디에이고를 출항하였다.

「스미드」 장군은 사단의 출동 준비와 함께 장차 상륙작전을 위한 계획수립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본부의 참모진을 2개 계대로 구성하였다. 사단 G-2와 G-3 참모, G-4 및 탑재 참모보좌관, 기타 특과 참모들로 구성된 제 1진은 탑재 기간 중인 8월 16일 극동을 향해 항공기 편으로 먼저 떠났다. 사단장은 사단 주력의 출항을 지켜본 뒤, 사단 참모부의 제 2진을 이끌고 8월 18일 역시 공로로 미국 본토를 출발하였다.¹⁰⁾ 지휘관의 이동은 곧 그 부대의 이동을 뜻하기도 한다. 이로써 「맥아더」 장군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미 제 1해병사단이 극동에 도착되리라는 것은 분명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 제 1해병사단장이 공로로 극동을 향하여 출발하던 당시, 그의 부대 분포 상황은 어찌면 하나의 극적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미 앞서 출발한 제 1진(참모부)은 일본에, 제 5해병연대(제 1임시 해병여단의)는 한국 전선에, 그리고 제 1해병연대는 태평양을 횡단 중에 있었으며, 제 7해병연대는 미국 본토에

서 이제 막 실질적인 편성에 착수하였고, 이 연대의 일부가 될 1개 대대는 지중해로부터 극동을 향하여 동진(東進) 항로를 밟고 있었다.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의 일부로, 앞서 제 33해병비행전대를 출동시키고 남은 미 제 1해병항공사단 역시 증편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병 항공 예비역의 소집을 필요로 하였다. 총 16개의 해병 전술항공대대를 보유하고 있던 미 해병 항공 부대는 7월 31일에 우선 18개 대대로 증편 지시를 받았다. 그뒤 미 제 1해병항공사단은 예하의 제 12해병비행전대(MAG-12)를 주축으로 보강되어 8월 16일 극동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항공기와 함께 항공 모함에 탑재되어 8월 24일과 9월 1일에 각각 출항하였다. 한편, 지정된 일자보다 역시 2일이나 앞당긴 9월 1일에 탑재를 완료한 제 7해병연대전투단도 곧 극동을 향하여 닻을 올렸다.

5. 제 10 군단의 구성 부대들

매우 인상적이고도 극적이었던 미 해병사단의 출동 과정을 앞서 살펴 보았으나, 이 사단에 후속하여 인천에 상륙하게 될 미 제 7보병사단의 출동 준비 과정 역시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맥아더」장군이 9월의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로 미 제 7사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7월 하순, 그때까지 사실상 한국 전선에 투입되는 주일 미군 사단들의 병력 보충 구실을 하고 있던 이 사단의 병력은 장교 574명과 사병 8,200명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이 사단의 병력과 장비가 더 이상 유출(流出)되는 것을 억

제하고, 미국 본토에서 도착하는 병력의 일부를 이 사단에 보충한다고 해도, 이 사단을 가용한 전투 부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또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렵 전선 수습에 고심하던 미 제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7월 29일, 이때까지도 그의 지휘하에 있던 이 사단의 제 32연대를 조속히 한국으로 공수해 주도록 요청했을 때에도 「맥아더」 장군은 이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만이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결과로 「워커」 장군은 8월의 위기를 더욱 힘겹게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8월초, 미 제 7사단의 인천 투입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결심이 굳혀지자, 실제로 이 사단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모든 노력이 우선되었다. 이미 한국 전선에 2개 대대를 출동시켰던 오키나와 주둔 미 제 29연대의 잔존 병력 1,600명까지 이 사단으로 이동시키고,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막 도착한 대공포 자동화기 대대까지도 전환시키는 형국(形局)이었으므로, 기왕에 이 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로부터 증파가 약속된 병력에 대한 독촉은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었다. 이 모두가 비상 수단이었으나,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는 아마도 이 사단의 보강을 위하여 취해진 수단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8월 11일, 「맥아더」 장군은 「워커」 장군에게 미 제 7사단의 부족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군 약 7,000명을 확보하여 일본으로 보내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다행히 요구된 병력은 8월 17일부터 부산을 출발하게

되었으며, 8월 31일까지는 한국군 8,652명이 미 제 7사단에 충원되었다. 이들이 이른 바 「카류사」의 시초이며, 인천으로 투입되는 이 사단 뿐만 아니라 뒤이어 남쪽 전선의 미군 사단에서도 아주 절실했던 시기에 미군의 부족한 자리를 한국군이 메워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택아더」 장군은 극동미해군 사령관 「조이」 중장의 건의를 받아 8월 7일, 미 제 7사단으로 하여금 병력이 불충분한 대로나마 즉각 상륙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행정 상륙을 하게 될 부대일지라도 함상 생활에는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에 우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적전(敵前) 상륙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륙 훈련은 익혀야 된다는 것이 「조이」 제독의 건의였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들은 9월 5일 전후로 예상되는 부대 탑재 이전에 실시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미 제 1해병사단과 미 제 7보병사단 말고도 미 제 10군단 예하에 구성될 부대들을 여기서 미리 열거해 보면, 미 육군의 지원 부대들로서 제 2공병특수여단, 제 96야전포병대대, 제 73공병대대, 제 50공병항만건설중대, 제 65병기탄약중대 및 제 56수륙양용차대대의 A중대 등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부대들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의 상륙군 군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부대들로서 돌격 단계 초기부터 미 해병사단에 배속되었다.

미 육군 부대들 가운데에는 이 외에도 제 187공수연대전투단이 있었다. 「택아더」 장군은 이미 7월 초순에 「블루하트」를 위하여 공수 부대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미 육군 당국의 부대 운용상의 애로와 작전상의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대를 일

적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미국 본토의 제 11 공수사단에서 파견된 약 4,000 명의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이 9월 20 일에야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뒤 김포 비행장으로 공수된 이 부대 이하의 1개 대대가 한국 해병 제 3대대와 함께 주로 김포 반도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였다.¹¹⁾

제 10 군단 예하 구성 부대 가운데에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 제 1 행병사단에 배속된 1개 연대 규모의 한국 해병대와 미 제 7 보병사단에 배속된 육군 제 17 연대가 있었다. 인천 상륙이 성공한 뒤, 해병 부대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남서쪽 끝에서 통영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해병 제 5대대(전 김성은부대)까지 인천으로 후속 상륙을 하여 합류함으로써, 수도 탈환 전투에는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 부대가 투입되었다. 한국 해병대와 제 17 연대의 참전 상황은 앞으로 다시 살펴계 되겠지만, 이 부대들 외에도 미 제 7 보병사단에는 전술(前述)한대로 8,500 여명의 한국군이 편입되었으며, 또 각급 미군 부대에는 통역, 정보 및 기타의 특수 분야에서 상당 수의 한국군 또는 민간인들이 활동하였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한국군 외에, 「화랑 부대」라고도 호칭되던 전투경찰대가 미군 부대에는 배속되어 있었다. 미 제 1 임시해병 여단에는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100 여명 규모의 1개 전투경찰중대가 배속되어 있었으며, 미 제 7 사단에는 한국군이 충원되던 시기에 역시 100 여명 규모의 전투경찰중대가 3개 보병연대에 각각 배속되어 훈련을 받은 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이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주로 작전 부대의 후방에 침투하는 적 게릴라 또는 낙오된 적 패잔병을 색출하는 것이었으나, 소탕작전과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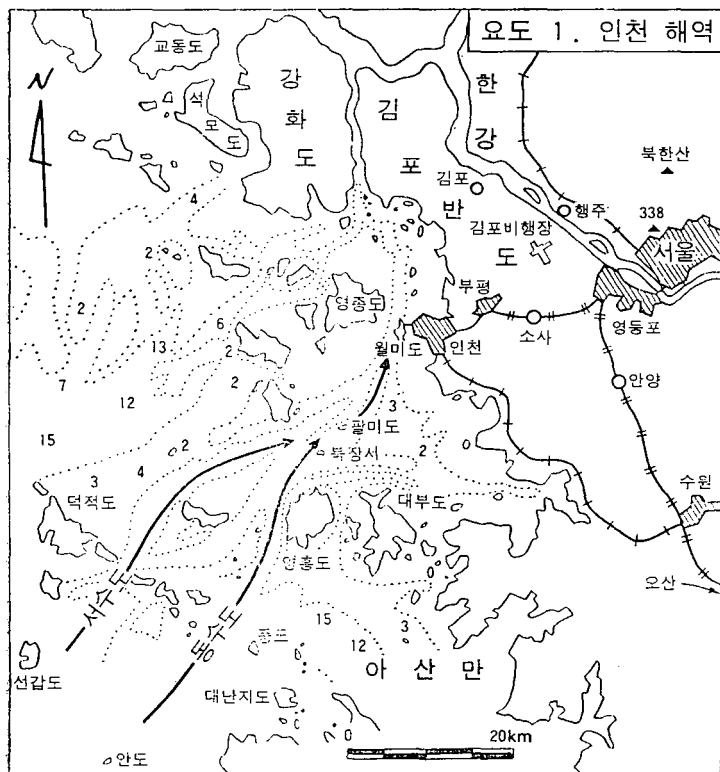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6. 1950 년의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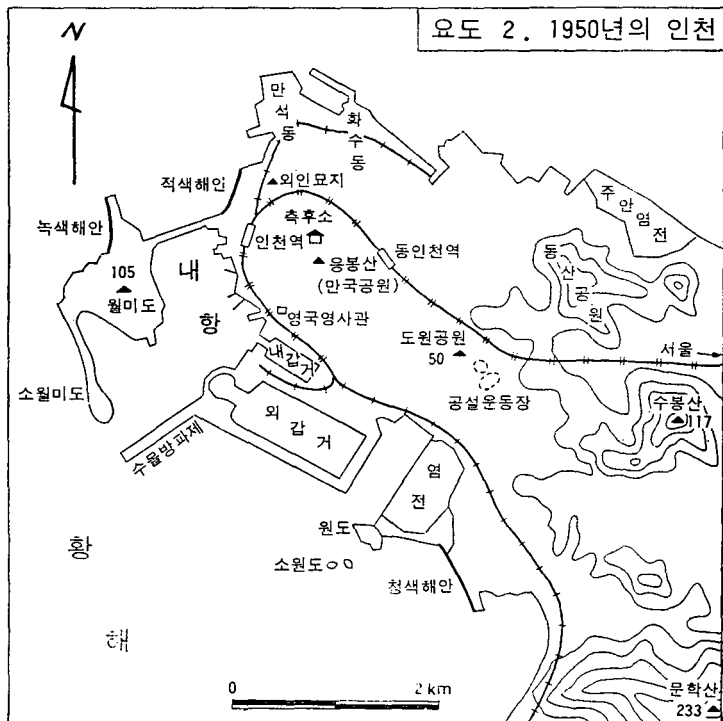
전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 전쟁 이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인천 상륙에 관한 이러한 일반론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미 해군·해병의 전문가들이 인천을 상륙 지역으로 선정할 수가 없었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어떤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계획 중인 상륙작전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거기에 개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시기적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어져야 할 시점에 있었다. 극동미군 사령부는 어딘지 모르게 점점 심상치 않은 열기에 휩싸여 가고 있었다.

멀지 않아 다가올 대 논쟁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인천의 특수 여건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조국 근대화 이후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도록 새롭게 발전한 오늘의 인천이 아니라, 1950 년 당시의 옛 인천을 더듬어 살펴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법로서는, 장차 이곳에서 전개될 작전 과정을 미리 염두에 새겨 두고 해상 접근로를 따라 인천으로 더듬어 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¹²⁾

서해(西海)로부터 인천으로 접어드는 해상접근로로서는, 크고 작은 섬들과 암초와 그리고 해저(海底)에 산재하여 있는 모래톱(砂洲: 사주)이나 갯벌 때문에, 덕적도(德積島)와 영흥도(永興島)는 좁고 굴곡이 심한 2 개의 수로만이 사이를 지나는 통로, 즉 서



수도(西水道)와 동 수도(東水道)라 일컫는 좁고 굴곡이 심한 2개의 수로만이 허용될 뿐이다. 그나마도 앞서 열거한 장애물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중첩된 위험도 때문에 인천을 오가는 모든 선박들은 서 수도보다 동 수도를 주로 이용한다. 어쨌든, 이 2개의 수로는 인천으로의 길목을 확인시켜 주는 팔미도(八尾島) 전방에서 합류되므로, 결국 거기서부터 넓은 갯벌 사이로 뻗은 인천항에 이르기까지의 약 15 km(약 8마일) 사이에는 단 하나의 수로가 있



을 뿐이다.*

인천으로 향할 해군의 대형 함정들은 안도(鞍島)에서 비롯하는 동 수도에서부터 큰 위협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만(干滿)에 따라 3—5 노트(knot)[†]의 조류가 가속 또는 감속하는 이 좁은 수로에서, 만약에 한두 척의 함선이라도 좌초하거나 또는 침몰당한다면 그 앞뒤의 함정들은 회전 또는 기동 공간에 제한을 받아

* 인천 상륙을 다룬 대부분의 외서(外書)에서는 대체로 동 수도를 포함한 인천 수도를 「비어 수도」(飛魚水道; Flying Fish Channel)라고 기술하고 있다.

† 주로 선박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며, 길이의 단위로 쓰이는 영국에서는 6,080 피트(feet)의 길이를 1 노트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1 노트는 시간 당 1 해리(海里; 1,852 m)에 해당하는 속도 단위이다.

꼼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로의 형태와 수심(水深)은 기뢰(機雷) 부설에 그야말로 안성마춤이라 할 만도하다. 특히 이러한 수로를 통해 함정들이 야간 운항을 한다는 것은 지상 전투에서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로를 통해 가짜수로 인천항에 접근하면 눈앞을 가로막는 월미도(月尾島)가 나타난다. 방파제로 인천 본토와 연결된 이 월미도는 남쪽의 소월미도(小月尾島)와 이어져 그 배후에 소규모의 내항(內港)을 형성한다. 해상으로부터의 항만 접근로를 가로막고 감제(瞰制)하는 월미도는 당시 동굴화(洞窟化)된 무수한 포진지와 참호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특히 포 진지를 사전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D일에 당할 손실이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요새화된 적의 포 진지들을 제압한다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군의 포술 장교들은 고심하였다. 이 포 진지들을 사전 포격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전 포격은 상륙작전에서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 기습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월미도에 대한 사전 포격과 동시에 군산, 진남포, 기타 가능한 해안 지역에 항공·함포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을 기만하는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전으로 월미도를 사전 제압한다 하더라도 인천 본토에 대한 상륙을 위해서는 이 섬이 실제 병력에 의해서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는, 다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해군의 함안(艦岸) 이동 계획과 상륙군의 상륙작전 개념, 즉 기동 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인천 본토에 대

한 주 상륙을 사실상 분산 상륙의 형태로 적색(赤色) 및 청색(靑色) 해안에 실시하게 되는 데에는 이제 곧 언급할 상륙 해안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월미도의 존재가 전혀 무관한 것만도 아니었다.

인천에는 상륙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는 해안다운 곳이 없다. 억지로라도 그저 해안이라고 규정할 경우, 세 곳을 들 수가 있었는데, 실제 작전에 있어서는 이들 해안이 적색·청색·녹색 해안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인천 본토로 연결되는 방파제와 대체로 직각을 이루며 북쪽으로 뻗은 이 섬의 꼬리 부분에 서쪽으로 약 200 m 폭의 해안이 있어서 해수욕장으로도 이용되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는 풀(pool)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이 해안이 월미도 상륙 시에 사용된 녹색 해안이었다. 인천 본토쪽에서는 월미도와 방파제가 이어지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안벽(岸壁)이 있는 약 300 m 길이의 해안과, 그리고 당시의 인천 시가지 남쪽 염전(鹽田), 즉 원도(猿島)의 동쪽 제방에 이어지는 작은 해안이 각각 적색과 청색 해안으로 지정, 사용되었다. 해상에서 볼 때, 월미도 양편으로 멀리 분리되어 있는 이 두 해안은 도상(圖上) 거리로도 약 4 km 가 되며, 그 사이에 있는 내항(內港)에는 내외의 두 갑거(閘渠: Tidal Basin)에서 이어지는 수몰(水沒) 방파제와 월미도 사이의 좁은 관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다.

적색 해안에서는 돌격 상륙 부대가 LCVP(상륙 주정)로부터 높은 안벽을 기어 오르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사다리를 사용해야만 했다. 흡사 중세(中世) 이전의 공성전(攻城戰)에서 성곽을 기어오르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 안벽의 배후에는 지금

은 자유 공원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는 응봉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사이의 공장 지대와 뒤섞여 형성된 주택가는 다시 산 허리를 양쪽으로 감싸고 내륙의 시가지 쪽으로 발달해 있었다. 간조 때 이 해안에는 시꺼먼 갯벌이 험상궂은 모습을 바다쪽으로 약 2km 가까이까지 드러낸다.

청색 해안은 만조 때에도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상륙 주정 운용상 제한을 받아 LVT(수륙 양용차)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염전 남쪽으로 이어지는 벌거숭이의 작은 야산과 암벽으로 이루어진 이 해안 역시 내륙 쪽에는 공장 지대가 가로 놓여 있어서 출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간조 시는 이 해안에도 약 5km 정도의 갯벌이 바다 쪽으로 펼쳐졌다.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는 갯벌들을 지나 상륙 함선들이 해안에 접안(接岸)하려면, LCVP·LCM 등의 상륙 주정은 최소 7m(23피트), LST는 8.8m(29피트)의 수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심은 조석차(潮汐差)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심하다는 인천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에 길어야 3—4일 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만조 때에만 기대될 뿐이었다.† 이러한 자연적 약조건으로 말미암아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일자라고는

* 인천항이 개항(開港)된 이후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이 산을 공원으로 가꾸었던 탓으로 시민들은 만국 공원(萬國公園)이라고 불러 왔는데, 1914년 거류지 철폐와 더불어 이 공원이 인천시로 이관된 뒤에는 서 공원(西公園)이라고도 불렀다. 이 산의 한 정상(頂上)에는 기상 관측소가 자리잡고 있어서, 인천 상륙 당시의 미군들은 주로 관측고지(Observatory Hill)라 호칭했다. 자유공원(自由公園)으로 개칭된 것은 1957.9.15. 「맥아더」 장군 동상이 건립된 뒤부터이다.

† 간만(干滿)의 차가 제일 적게 일어날 때의 조수를 소조(小潮), 가장 크게 일어날 때의 조수를 대조(大潮)라고 하는데, 대조는 음력 초하루 또는 보름이 한 이를 지난 뒤에 일어난다. 1950년 9월 15일은 음력 8월 4일이었으며, 인천의 대조는 평균 7m, 최고일 때는 약 10m에 달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조석차가 제일 심한 곳은 캐나다의 Bay of Fundy이다.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과 이 날짜들을 포함한 2—3일 뿐이었다. 계절적으로 10월은 작전 시기로서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맥아더」 장군이었으므로 자연 9월 15일을 최선의 일자로서 결정할 가능성이 짙었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의 조석표(潮汐表)는 시간상의 제약까지 부가시키는 것이었다. 즉, 이날의 만조 시간은 일출(日出) 45분 뒤인 06:59, 그리고 일몰(日沒) 37분 뒤인 19:19이었다. 따라서 오전의 만조 때로 상륙 시간을 잡고 작전을 준비하려면, 이미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험난한 수로를 야간 기동으로 해군 함정들이 통과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약 3시간 정도의 만조 시간 중에 돌격 부대와 그들의 장비 및 보급품을 최대한 양륙(揚陸)시켜야 하며, 그 뒤로는 다음날 새벽 다시 만조되기까지 모든 함선들의 접안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녹색과 적색 해안에서는 그런대로 만조 중 LST의 접안도 가능하나, 청색 해안에는 소형 선박의 접안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탄약과 유류 등 폭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들이 장시간의 하역(荷役) 작업을 위해 가까운 내륙으로부터 예기되는 적 포화의 위험을 안은 채 적색 해안에 머물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내항의 제한된 수로와 좁은 부두 시설들도 양륙 작업을 포함한 제반 군수지원 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 밖에도 황량한 갯벌에서 무한 궤도 차량의 기동이 가능할 것인지, 선창(船艙)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중장비(重裝備) 양륙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최초 돌격 상륙 부대가 안벽을 기어오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다리의 길이는 과연 얼마나 되어

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가할 수록 또다른 문제까지 제기되는 것이었다.

방향을 돌려 내륙의 지형을 살펴 보면 해안선 배후에 바로 전개되는 인구 25 만의 인천 시가지는 상륙군의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대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을 통해 그 많은 상륙작전을 감행한 미 해병대로서도 시가지에 곧장 상륙 돌격을 해본 경험은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지상 전투에서도 시가지는 공자(攻者)에게 커다란 함정이 된다. 해안에 발판을 구축하고 목표를 탈취하여 야간 전투에 대비한 진지 편성을 하기에는 일조 시간(日照時間)이 너무나 짧았다. 결국, 해안 가까이 우뚝 솟은 내륙의 감제 고지들은 야간 작전을 감행해서라도 상륙 당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상륙작전의 구상은 적의 모든 역량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에 대한 적의 방어 능력은 극히 미약하며, 적의 증원 또한 기대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해·공군 작전에 의한 적의 고립화도 충분히 계산에 넣은 것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가정이 적중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작전이 내륙으로 더 진전되면, 그에 따라 또다른 고려 사항들이 등장하게 된다. 김포 비행장은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수도 탈환에 앞서 한강이라는 장애물이 극복되어야 한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수도탈환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이 최종 목표를 탈취하기까지의 내륙작전을 위해서도 초기의 상륙 돌격이 그만큼 용이하게 수행되어야 하되, 그 희생도 또한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율 배반적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미 제 1 상륙전대의 함포 지원 장교 「캡스」 소령의 다음과 같은 마디는 당시 인천 상륙작전 연구에 참여했던 미 해군·해병 장교들의 고충을 극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낼 만한 일체의 천연적·지리적 장애물 일람표를 작성했는데, ——인천은, 바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읍니다.』¹³⁾

7. 8월의 낙동강 전선

이미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의 계획 및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당시의 전선 상황은 직접, 간접으로 밀접하게 관련 되는 것이었고, 앞으로 곧 살펴 보게 될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있어서도 그것이 도외시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8월의 전황에 대한 일별(一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8월 초, 한국에 도착하는 미국의 증원 부대를 거의 다 마산 정면에 집중시켰던 「위커」 장군은 이 부대들로써 진주를 탈환하기 위한 일대 반격 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이 무렵 대구 북쪽에 가중되던 적의 압력을 분산시켜 보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 제 25사단 예하의 2개 연대, 미 제 5연대전투단 및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을 주축으로, 미 제 25사단장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킨」 특수임무부대가 8월 6일에 구성되었다. 진주철수 이후 마산 서쪽 일대에서 적과 대치하여 오던 육군의 민부대(閔部隊)와 해병 김성은부대(金聖恩部隊)도 물론 이 작전에 참가하여 공격간

후방 지역의 소탕작전을 담당한 미 제 25사단 제 24연대에 배속되었다. 미 제 8군이 부여한 목표는 진주와 사천(泗川)이었다. 공격은 8월 7일 06:30에 개시되었다.

UN군 최초의 반격 작전이 개시된 이날, 즉 8월 7일은 미 해병여단이 최초의 지상 전투를 개시하는 날이었으며, 동시에 전선에서 한·미 해병 부대의 첫 접촉이 시작된 날로서도 기억할 만한 날이었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좌전방 공격 부대인 미 해병여단의 공격 기점(起點)이 될 진동리(鎭東里)는, 작전이 개시되던 군 예비로 전환될 미 제 25사단 제 24연대와 함께 우연히도 한국 해병 대대가 확보하고 있었다. 물론 8월 7일의 공격을 위하여 그 전날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가 이 지역에 이미 진입하였고 미 제 33해병비행전대(MAG-33) 예하 제 214해병전투기대대(VMF-214)의 함재기(艦載機)들은 8월 3일 이래 우군 전선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 해병들은 8월 7일에 첫 전투를 개시하였고, 동시에 한국에도 그들과 같은 해병대가 있다는 것을 이날 비로소 처음 알았을 것이다.

대치한 북괴군 제 6사단은 실제 병력 규모는 대단치 않았으나 비교적 적은 손실로 광대한 지역을 휩쓸어 온, 자만에 찬 부대였고, 반면에 미군의 일부는 아직도 사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원 소속이 서로 다른 부대 사이에 특히 요구되는 협조의 결여, 그리고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작전은 성공과 실패가 점철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마침내 진동리를 출발한 미 해병여단은 남쪽 해안선을 따라 고성(固城)을 거쳐 8월 12일에는 사천 동쪽 약 6km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최종 목표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이날, 미 해병여단은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을 받았다. 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또다른 전선이 미 해병여단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 전부가 공격의 최초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 가야만 했다. 그리하여 미 제 8군의 당초 기대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나, 이 반격 작전은 위축된 UN군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데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마산을 점령하려던 적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다른 전선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고, 전선이 돌파당할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미 제 24사단 정면에서는 8월 5일 밤 수중교(水中橋)를 이용하여 적의 전차와 야포까지 도하(渡河)하였고, 8월 11 일에는 영산(靈山)이 적의 공격을 받았다. 북쪽 전선에서도 8월 5일 밤 적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8월 18일 대구 북방 다부동(多富洞)까지 육박한 적을 맞아 한국군 제 1사단과 미 제 1기병사단이 혈전을 벌였다. 또 하나의 주요 전투 지대인 동해안에서는 한국군 제 3사단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산악 지대를 통해 우회 침투한 적에게 후방을 차단 당한 것이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브래들리」 및 「포항」 특수임무부대가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전투 지역을 누비면서 눈부신 활약을 거듭해 오던 제 17연대는 8월 10일 창설한 포항 지구 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부족한 예비 병력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오던 「워커」 장군으로서도 이처럼 전 전선에 걸쳐 조성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또 한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

다. 「워커」 장군은 숙고한 끝에 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낙동강 돌출부에 가장 강력한 예비대의 투입을 결심하였다. 영산 동쪽의 밀양(密陽)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대구—부산 사이의 주 보급로는 물론, UN 군 전선이 양단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8월 15일 미 제 24 사단에 배속된 미 해병여단의 반격 작전은 8월 17일 영산에서 개시되었다. 이미 첫 전투를 통해 한국의 기후와 적의 정체를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전투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100—150m 높이의 고지군(高地群)으로 이루어진 오봉리(五峰里) 능선에서의 격전 끝에 미 해병여단은 8월 19일, 위기에 몰렸던 돌출부의 전선을 회복시켰다. 살아서 도주하던 적 마저 서쪽으로 강을 건너다가 대부분 수장(水葬)되었다. 북괴군 제 4 사단을 재기 불능의 상태로 궤멸시킨 미 해병여단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전사 170명, 실종 2명, 전상 730명의 손실을 본 이 전투는 미 해병대 전사(戰史)에서 최대 격전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8. 마지막 논쟁

인천을 상륙 지역으로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미 해군·해병 장교들이 달리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미 합동참모본부 역시 8월의 전선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안과 우려했던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그의 작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깊어졌다. 결국, 몇명의 실무진을 대동한 미 육군 참

모총장 「콜린즈」 대장과 미 해군 참모총장 「서먼」 대장 일행이 직접 「맥아더」 장군과 전황 및 전쟁 계획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8월 21일 도쿄(東京)로 날아 왔다.

한편, 미 제 1 해병사단장 「스미드」 소장은 8월 22일 오후 도쿄에 도착하였다. 영접 나온 「도일」 제독과 함께 그의 기함(旗艦) 「마운트 머킨리」호로 갔다. 도쿄 부두에 계류(繫留) 중인 「마운트 머킨리」호 함상에서는 이미 앞서 도착한 사단 계획수립단의 전방 제대가 계획수립에 몰두하고 있었다.

풍문으로만 그의 부대가 상륙작전에 투입되리라는 정도로 알고 있던 「스미드」 장군은 「도일」 제독과 사단 작전 참모 「바우저」 대령을 통해 비로소 개략적으로나마 계획 중인 작전의 윤곽을 알게 되었다. 미 제 1 해병사단은 앞으로 창설될 미 제 10 군단의 돌격 상륙 부대가 되며 상륙은 잠정 D일로 정해진 9월 15일의 늦은 오후, 만조 때에 감행될 것이라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다. 그렇다고 그가 당장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시간은 없었다. 그것은 그가 도착한 지 2시간 뒤인 이날 17:30에 「맥아더」 장군 방문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었다. 「스미드」 장군은 인천 상륙에 대한 구상과 소신을 피력하는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일격(一擊)에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필승의 신념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이며 거의 신비적인 신앙」¹⁴⁾과도 같은 것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물론 많은 고난과 위험아 함께 따르리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해병은 기필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인 8월 23일은, 잇따른 회의로 「스미드」 장군에게 매우 분주한 하루였다. 「도일」 제독과 극동미군 사령부의 고위

실무진들, 그리고 미 제 1해병사단의 후속 상륙 부대가 될 미 제 7보병사단장 「바르」 소장과 토의 및 협조를 위한 회의가 거듭 열렸던 것이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었다. 극동미군 사령부의 참모들이 「맥아더」 장군의 열화같은 신념을 그대로 반영하였음에 반하여, 해군·해병 장교들은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상륙의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냉정하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분위기는, 「스미드」 장군이 참석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이날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8월 23일 17:30, 「다이어찌」(第一) 빌딩 6층의 「맥아더」 장군 집무실에 달린 전용 회의실에서는 인천 상륙 문제를 주제로 한 이날의 최종 회의가 시작되었다.¹⁵⁾ 전선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콜린즈」 장군, 「서먼」 제독이 「맥아더」 장군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조이」 및 「도일」 제독, 그리고 장차 미 제 10군단장이 될 「아몬드」 소장을 비롯한 극동미군 사령부의 참모들이 배석하였다.

「라이트」 장군의 기본 계획 설명에 이어, 회의실과 연결된 「아몬드」 장군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미 제 1상륙전대의 참모들이 정보·기상(氣象)·항법(航法)과 관련한 수로 조건, 함안 이동, 항공 및 함포 지원 등 세부 문제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약 80분간 계속된 이 브리핑에 이어 해군 측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도일」 제독은, 「인천 상륙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 작전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결론지었다.

「콜린즈」 장군은 인천에 상륙하는 제 10군단과 미 제 8군의 연

결 작전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었다. 현 전선을 고수하는데 가진 맥진한 제 8군이 인천 상륙을 위해 해병여단을 빼 줄 경우, 전력의 더욱 취약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인천과 같은 지리적 결점도 없는 군산을 인천의 대안(代案)으로 제시하였다. 「서면」 제독도 이 대안에 찬성하였다.

해군 측의 견해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맥아더」 장군은 해군의 부정적인 논평에 별로 개의함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맥아더」 장군은 전략적·심리적·정치적 이유를 들어 수도 서울은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이며, 기습의 효과로 이 작전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적이 후방에 대한 대책이나 예비도 없이 그 주력을 낙동강 전선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과도하게 신장된 적의 병참선은 서울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 착안하고, 인천 상륙으로 일격에 적 후방을 차단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 하고 있었다.

45분간이나 혼자서 말하는 동안, 그의 어조는 대화하듯 차분하였으나 그 억양은 때때로 고조되기도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낙동강 전선에서의 정면 공격만으로는 1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러고도 전쟁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회 공격에 의한 포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군산에 대한 착상은 좋으나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도 말하였다. 이 안(案)으로는 적의 병참선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조금만 물러 서면 뜻하는 대로 포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상륙작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한

「맥아더」장군은 이 무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가 강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미 제 8군의 반격을 가리켜 대장장이가 내려치는 쇠망치라면, 이 쇠망치의 일격을 받쳐 줄 모루(鐵砧: 철침)가 바로 인천 상륙이 될 것이라고도 비유하였다.

「맥아더」장군은 또 전사 상의 교훈으로서 1759년 「울프」장군이 단애(斷崖)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습에 의하여 「몽칼름」장군의 요새를 공략했던 퀘벡(Quebec) 전투*를 상기시켰다. 적 또한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방어에 소홀할 것이라고 「맥아더」장군은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덧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륙작전을 회상하면서 속삭이듯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해군은 과거에 결코 본관(本官)을 실망시킨 일이 없었고, 이번 작전에서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인천은 5,000대 1 정도로 모험률(冒險率)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본관은 그 모험에 도전하겠습니다. 본관은 이미 이러한 승부에 대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순간의 극적인 정적이 흐른 뒤, 「맥아더」장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나는 적을 분쇄하고야 말

* 「몽칼름」장군 휘하의 프랑스군 약 14,000 명이 방어하는, 캐나다 동부의 한 도시인 퀘벡은 1759. 6. 27. 「울프」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 원정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숫적으로도 불리하였던, 9,000 명의 영국군은 2개월이 지나도록 육상에 공격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함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해야만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매마침, 난공 불락의 요새라는 이 도시 북쪽에 있는 절벽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울프」장군은, 9월 12일 밤 중에 이 절벽쪽으로 부대를 상륙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이 도시를 기습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겠습니다.』

「맥아더」장군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미 해군·해병 장교들은 인천보다 천연적 장애가 적은 다른 지역에 상륙해도 「맥아더」장군이 노리는 모든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버리지 못했다. 이튿날 「서먼」 제독을 위시한 미 해군·해병의 제독 및 장군들이 「조이」 제독의 사무실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 가능한 상륙 지역으로 아산만(牙山灣) 해안에 의견이 집약되었다. 현지 정찰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맥아더」장군의 계획 추진에 적극적인 후원자이면서도 전날의 회의에는 참석치 못했던 「세퍼드」장군이 「맥아더」장군을 방문하여 미 해군·해병의 견해를 전달하였으나, 「맥아더」장군은 끝까지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뒤로는 미 해군·해병 측에서도 더 이상 아산만에 집착하지 않았다.¹⁶⁾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8월 28일 서해안 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장군의 계획을 승인하면서도, 군산 지역에 대한 계획 준비를 병행하도록 암시하면서, 금후의 진전 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제 3 장

계획수립 단계

극동미군 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사이에는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논란의 소지(素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8월 23일의 이른 바 「역사적 논쟁」에서 일단 원칙적인 문제는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비로소 인천 상륙의 계획수립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었다.

8월 23일은 D일을 23일 앞둔, 즉 D-23일이 된다. 최대한 23일로 계수(計數)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시간 제약을 극복하여 완성시킨 계획수립 과정은 인천 상륙이 전사 상 유례없는 작전이라고 곧잘 일컫게 되었던 타당성의 일면을 보여주게 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위에서 말한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계획수립 요원의 부족과 첩보의 결핍 등, 설상 가상이란 표현을 덧붙여야 어울릴 만큼, 인천 상륙의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이 계획수립 기간 중에도 전황은 차후 작전을 위한 일부 부대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분명히 이때에도 전선 상황은 인천 상륙의 준비에 타격을 주고 있었으나, 낙동강 전선의 위기를 도말고 있는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인천 상륙이 전선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훨씬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즉 인천 상륙이 개시된 뒤에도 「요즘 우리는 사생아 취급을 받고 있다……」¹⁾고 「워커」 장군은 노골적인 불평을 털어 놓았던 것이다.

1. 인천 계획수립의 특징

상륙작전은 작전 참가 부대의 행동이나 복잡한 군수 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협조시키고, 항공·함포·야포 등의 화력 지원 시기를 정밀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지휘권 관계와 작전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더욱 복잡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상륙작전은 일련의 작전 과정이나 활동을 뚜렷하게 정형화(定型化)시킨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그 첫번째 순서가 계획수립 단계이다.

계획수립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작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이지만, 그 작업의 대부분은 탑재하기 전에 이루어지며, 탑재가 시작되면 전체적인 작전 참가 부대의 지휘면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와 탑재 관계를 구분하게 된

* 그 순서는 계획수립, 탑재, 연습, 이동(목표 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돌격(목표에 대한 돌격 및 점령)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또는 활동은 해군 수단으로 적 해안에 상륙 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작전을 가리켜 상륙 돌격(上陸突擊; Amphibious Assault)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륙 돌격은 상륙작전의 기본 형태인 동시에 협의(狹義)의 상륙작전이다. 광의의 상륙작전에 포함되는 상륙 철수, 상륙 양동 및 상륙 기습은 적 해안에 상륙 부대를 투입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륙 돌격과 구별되며 위에 열거한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협의의 상륙작전을 가리키는 「상륙 돌격」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쓰일 것이다.

다. 탑재 개시는 곧 작전 행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탑재 단계 이후를 총칭하여 작전 단계라고도 하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해군 부대와 상륙군 지휘관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작전 단계에 들어서면 해군 부대 지휘관이 모든 작전 참가 부대와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해군 부대와 상륙군의 상호 대응적인 제대(梯隊)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상하급 제대 사이에 「동시적·병행적·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상륙작전을 단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필요성 때문에도 계획수립 단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극동미군 사령관의 기본적 작전 지침인 작전계획 100-B에 근거하여 극동미해군 사령관의 작전계획 108-50이 시달된 것은 8월 20일이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비로소 작전 지휘관이 임명되고 작전 참가 부대가 구성되며, 장차 작전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극동미해군 사령관의 작전 계획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전반적으로 맡게 될 제 7 합동기동부대(JTF-7)의 구성 지침과 이 부대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밝혀져 있었다. 제 7 합동기동부대의 임무는 먼저 북위 39° 35' 이남의 한국 서해안에 대하여 해상 봉쇄를 단행하고, 상황에 따라 D일전 작전을 실시하며, D일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목표 지역에 상륙 돌격을 감행하여 해안두보(海岸頭堡)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 7 합동기동부대는 의명(依命) 후속 부대와 전략 예비대를 수송, 상륙시키게 되며, 소요에 따른

74 제 3장 계획수립 단계

엄호 및 지원 작전을 계속하게 된다.

제 7 합동기대부대는, 그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 제 7 함대의 부대들을 골격으로 구성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륙 돌격을 감행하게 되는 공격 부대와 상륙군은 각각 미 제 1 상륙전대와 미 제 1 해병사단이 된다. 그리고 이들 두 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제 7 합동기동부대 사령관의 전반적 감독하에 계획 수립은 시작되는 것이다.

미 제 1 해병사단장 「스미드」 소장과 그의 참모들이 계획수립에 착수하게 되었을 때, 이미 미 제 1 상륙전대의 「도일」 소장과 그의 참모들에 의해서 연구 및 준비되어 온 인천에 관한 자료가 다소간 도움이 되었고, 이들 양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마운트 머킨리」호에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사실도 계획수립 상의 시간 단축과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도일」 제독의 기함 「마운트 머킨리」호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기 위하여 설계된 상륙전 기함(AGC)이다. 상륙전 기함이란 상륙군을 상륙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상·수중·공중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대의 통제에 필요한 통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및 기타 지원을 위하여 기상도(氣象圖)·사진·지도 등의 복사(複寫)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는 함정이다.

현행 상륙전 교리는 작전 지휘관이 최초 지시(Initiating Directive)를 수령한 때부터 계획수립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스미드」 장군이 도쿄(東京)에 도착한 것은 8월 22일이었다. 통상 상륙군의 경우, 실질적인 계획수립 진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육상(陸上) 작전 개념이다. 그리고 「스미드」 장군이 마련해야 할 육

상 작전 개념은 어디까지나 미 해병사단의 상급 부대가 될 제 10 군단의 전반적 기동 계획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스미드」 장군의 도교 도착 당시까지 제 10 군단의 기동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날, 즉 8월 23일에 「스미드」 장군은 장차 미 제 10 군단의 참모장이 될 「러프너」 소장으로부터 그 개요만을 들을 수 있었다.

제 7 합동기동부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8월 25일 도교에 도착한 「스트러블」 중장의 경우에는 그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작전 준비 기간이 21일에 불과하였다. 후일 「스트러블」 제독은 계획수립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도교에 도착하자, 나는 불과 3주일을 남겨 놓은,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는 문제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검토해 본 뒤에야 나는 인천을 선택한 「맥아더」 장군의 진의(眞意)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인천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전리품(戰利品)이었지요. 신중한 연구 끝에 계획을 완성하고서야 나에게는 인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²⁾

계획수립의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미 해병사단 참모들의 경우를 보면, 이 사단 참모들의 선발대가 극동미군 사령부에 도착하여 사전 브리핑을 받았던 8월 19일부터 기산(起算)하더라도, 이들은 상륙 부대를 탑재시킨 돌격 함선이 최초로 출발하도록 예정된 9월 9일까지 약 20여일의 계획수립 가용 기간을 갖게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휘관이나 참모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인천 상륙 계획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요건은 시간 제약이었던 것이다.

미 해군·해병대가 겪어 온 경험에서는 물론, 전사 상 이때까지의 모든 작전을 통틀어 보더라도 인천 상륙의 경우에 전출만한, 이처럼 단기간에 계획수립이 완료된 기록은 없었다. 당시 유효했던 미 해군·해병대의 상륙전 교리에서도 사단 규모 상륙작전의 계획수립 소요 기간은 60 일 내지 90 일로 규정하고 있었다.³⁾

이러한 기준이나 이미 언급된 계획수립의 원칙론들이 인천 상륙 계획수립에서는 절대적인 시간 제약 때문에 처음부터 적용될 수가 없었다. 미 해병사단의 경우, 계획수립에 참여할 전체 참모진 107명 가운데 33명은 한국 전선의 미 해병여단에 속해 있었고, 51명은 극동을 향하여 항해 중에 있었으며, 나머지 23명만이 「마운트 머킨리」호에서 최초의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상륙군으로서의 미 해병사단과 공격 부대(함대)가 될 미 제 1 상륙전대의 수준에서만 겨우 동시적 계획수립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이들은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로부터 계획수립에 관련한 평가나 전의를 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예하 부대 계획의 일부까지도 작성하는 수고를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미 해군·해병 장교들은 하루 24시간을 중단없이 시간과 경쟁하거나 때로는 시간을 앞질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가해진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의욕적인 공동작업 노력이나, 이들이 지닌 폭넓은 상륙전 지식과 오랜 경험울 바탕으로 하여 이 작전의 계획 또는 명령들이 완성될 수 있었다.

2. 상륙군 기본 계획

8월 23일 극동미군 사령부에서 「스미드」 장군이 청취한 브리핑과 제반 지침을 근거로 삼아 도출한 상륙군의 임무와 과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 《1》 인천 항만의 확보와 해안두보 점령.
- 《2》 가능한 한 신속히 진출하여 김포 비행장 확보.
- 《3》 한강 도하.
- 《4》 수도 탈환.

《5》 미 제 8군과의 연결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서울 근교(近郊)의 차단 진지 점령.

이러한 임무와 과업은 전적으로 미 해병사단에 주어졌다. 후속 상륙을 하게 될 미 제 7보병사단은 미 해병사단의 우측방인 남쪽으로 전진하게 된다. 이들은 미 해병사단과 함께, 남쪽 전선에서 반격하는 미 제 8군이 적에게 철퇴(鐵退)를 가할 때, 그 철퇴를 팔쳐 주는 도루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계획 지침을 근거로 미 제 1해병사단 참모들이 최초로 계획수립에 착수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도 해군 입안자(立案者)들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조수(潮水)와 조류 및 수로 조건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다. 해군 함정들이 상륙군을 하선(下船)시킬 수송 함정 구역까지 좁고 험한 수로를 따라 거센 조류를 헤치며 항해하는 데에는 주간에도 4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동 소요 시간을 감안한다면 9월 15일의

06:59, 즉 오전 만조 때를 H시로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좁고 험한 수로를 통한 대 함대의 야간기동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다가 월미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상륙군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상륙을 감행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므로, 오전 만조 때의 월미도 상륙과 야간 수로 통과 문제를 놓고 해군과 다시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에 이 수로의 거센 조류를 거슬러 항해할 수 있는 기동력과 현대적 항법 기재(航法機材)를 갖춘 상륙 함선은 APD(고속수송함) 및 LSD(上陸船渠艦:상륙 선거함)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함선의 부족과 기동 상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월미도 상륙을 계획해야 한다면 돌격 부대의 규모와 장비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오후 만조 때 주 상륙은 월미도 상륙 돌격 대대를 차출하는 연대가 월미도와 연결되는 적색 해안에, 그리고 청색 해안에는 다른 1개 연대로 동시 상륙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들은 내륙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연결을 유지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 상륙 돌격이 감행될 때까지 미 제 7해병연대의 극동 도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 해병사단은 당초 한국군 제 17연대로 계획하였다가 이와 대치한 1개 연대 규모의 한국 해병대를 예비로 보유하게 되며, 상륙 후 이들이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담당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9월 15일 오후, 9.4m(31 피트)를 기록하는 만조 시간은 19:19로 알려졌다. 그러나 LCVP 및 LVT가 갯벌 위에 좌초당할 위험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수심, 즉 7m(23 피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17:00, LST의 접안을 위한 8.8m(29피트) 도달 시간은 19:00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해군은 이 시간들을 각각 LCVP 및 LVT와 LST 상륙을 위해 최적한 시간으로 결정하였다. 그뒤 항공 사진의 연구 결과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잠정 H시」*는 17:30으로 정해졌다.

LST 접안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적색 해안이 내륙 지형과 관련하여 지니는 특수 여건 때문에, 실제 상륙에 있어서 해안 상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H+90에 LST를 접안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험은 돌격 부대에게 적절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최적의 시간에 맞추어 8척의 LST를 적색 해안에 접안시키는 모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LST의 적시(適時) 접안 결행(決行)에 따라 그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LVT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력을 가진 LCVP를 적색 해안 상륙에 이용해야만 했다. 반면에, 이미 전술한 바도 있으나, 주정로(舟艇路)†가 긴 청색 해안에서는 H시 직후의 한동안, 오히려 속력이 느린 LVT를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LST가 접안할 수 없는 청색 해안 지역에서의 군수 지원은 최초, 보급품을 사전 적재한 LVT 16척의 해상 담프(Floating:

* H시(H-hour)란 일반적으로 D일(D-day)의 공격 개시 시간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러나 상륙작전에서는 제1돌격파가 해안에 접안(接岸)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H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일단 정해지지만, 상륙작전 부대들이 목표지역에 도착한 뒤 공격부대 사령관에 의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잠정 H시」로 간주된다.

† 상륙작전을 위한 공격 개시선(LD: Line of Departure)은 당연히 해상에 설정된다. 특정 해상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상륙 주정 또는 함선들이 LD로부터 상륙 해안에 이르기까지 통과하도록 규정된 무형의 통로를 주정로(Boat Lane)라고 한다.

Dump)*에 의존하다가 양 해안의 돌격 연대가 상륙 후 연결을 유지하게 된 뒤에는 적색 해안 지역에서 지원받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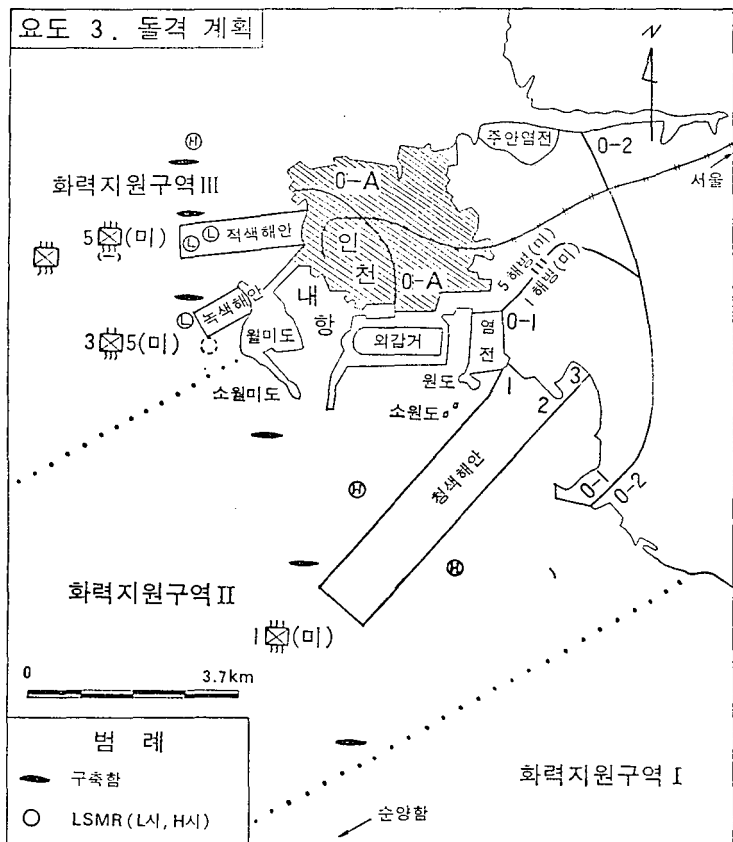
상륙 지역으로서의 많은 난점을 지니고 있는 인천의 해안 및 내륙 조건은 상륙군이 그들의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무수히 불러 일으켰다. 가령 돌격 부대가 안벽을 기어 오르기 위한 사다리의 사용 문제라든지, LVT 나 항공·함포 등의 운용 문제, 적에 관한 정보와 내륙 기동 문제 등이 모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인천 지역의 특수 여건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작전 과정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미 제 1 해병사단의 상급 부대가 될 제 10 군단의 작전명령 제 1호는 8월 28일에 하달되었다. 그러나 미 해병사단은 8월 30일까지도 이 명령을 접수하지 못한 채, 그들이 완성한 계획을 제출하고, 8월 31일에는 탑재명령 1-50을 시달하였다. 이것은 곧 상급 부대의 지침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진행된다는 이론상의 일반적인 절차를 깨뜨리는, 즉 인천 상륙작전 계획수립의 또하나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 제 1 해병사단 작전명령 2-50은 9월 4일에 하달되었고, 이 무렵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총 지휘할 제 7 합동기동부대(JTF-7)와 미 제 1 상륙전대, 즉 제 90 기동부대(TF-90)의 작전명령도 동시적으로 하달되었다.

완성을 본 상륙군 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상륙 주정, 수륙 양용 차량 또는 상륙 함선에 사전 적재된 긴급 보급품을 가리킨다. 해상 담프는 통제함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가, 육상 부대 지휘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제 장교로부터 상륙 지시를 받게 된다.

요도 3. 돌격 계획



(1) 미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 상륙단(BLT-3)은 D일 L시 녹색 해안에 상륙하여 월미도를 확보한다.

(2) 미 제 5 해병연대 (-BLT-3)는 H시,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목표 O-A를 확보하고 제 1 해병연대와 연결을 유지한 후 해안두보선(FBHL)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1 해병연대와 협조된, 동진(東進)을 위한 차후 작전을 준비한다.

(3) 미 제 1 해병연대는 2개 대대 병행 돌격으로 청색 해안에 상륙하여 목표 O-1 을 확보하고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5 해병연대와 협조된, 동진을 위한 차후 작전을 준비한다.

(4) 미 제 11 해병포병연대 (一제 3 대대) (미 육군 제 96 야전포병대대 배속)는 H시, 녹색 해안에 제 1 및 제 2 대대를 상륙시켜 월미도에 진지를 점령하고 해안두보 안의 돌격 부대를 지원한다. 화력의 우선권은 제 1 해병연대에 있으며 잔여 포병은 대기파(待機波)로 상륙한다.

(5) 한국 해병대는 최초, 사단 예비가 되며 대기파로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미 제 5 해병연대와 협조, 인천 시가지 점령 작전을 실시한다.

(6) 미 제 1 해병전차대대 (一) (증강)는 명에 의하여 1개 중대를 녹색 해안에, 그리고 잔여 대대는 의명 지정되는 해안에 상륙할 준비를 한다.

(7) 미 제 1 해병공병대대 (一)는 명에 의하여 적색 해안 또는 내항에 상륙하여, 별명(別命)에 따라 파견되는 중대들을 작전 통제하며, 지시에 의거 해안두보의 돌격 부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가지 남쪽 측면을 따라 제 1 해병연대 전투 지대로 주 보급로를 개설, 유지한다.

(8) 미 제 1 해병해안대대 (一)는 의명 적색 해안 또는 내항에 상륙하여 적색 및 녹색 해안상에서의 해안부대 활동을 통제한다.

(9) 미 제 1 해병수륙양용차대대는 청색 해안에 제 1 해병연대의 각 제대를 수송, 상륙시키고 배속이 해제되기까지 제 1 해병연대를 계속 지원한다.

(10) 미 육군 제 2 공병특수여단(증강)은 요청에 따라 선박소대

를 제공하며, 해병사단 해안부대를 증원한다. 상륙 후 지시가 있을 때 모든 항만작전 통제 책임을 인수하고 해병사단 해안부대를 작전 통제하며, 미 해병사단 군수 지원을 담당한다.⁶⁾

3. 세부 계획상의 특별한 문제들

어떤 작전에서는,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필요에 따라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부록(附錄)들이 작성된다. 통상, 상륙작전에서는 이들 작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계획(行政計劃)과 탑재계획(搭載計劃)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러한 계획들을 작성하는 때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주의가 따르는 「탑재계획」이 있기도 하지만, 작전적 측면에서는 함안 이동을 위한 「상륙계획」과 모든 지원 화력을 협조시키기 위한 「화력 지원 계획」이 작전계획의 부록들 중에서 유난히 복잡성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함안 이동이란, 돌격 단계의 한 부분으로서 돌격 부대를 상륙군의 육상 기동계획이 요구하는 대형으로 적시 적소에 상륙시키기 위하여 돌격 함정으로부터 지정된 상륙 지역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 함안 이동계획이 상륙군 작전계획에서는 「상륙계획」이라는 이름의 부록으로 작성된다.

함안 이동간 돌격 부대의 화력 지원은 주로 항공 및 함포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요시에는 D일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D일 이후의 작전 기간 중에도 많은 항공·함포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인

천 상륙작전의 경우와 같이 보조 상륙을 필요로 하고, 더우기 알물 시간을 전후한 시기의 작전에서는 이들 화력 지원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한편, 함포 사격의 개시 시기는 상륙작전의 경우, 더욱 중요사되는 기습 효과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의 우선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 항공 폭격과는 달리 사전 함포 사격은 곧 적으로 하여금 작전을 예측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서는 요새화된 월미도의 사전 제압이 중요한 문제였다.

「스트러블」 제독이 소집한 9월 1일의 회의에는 사전 포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함포 지원 관련 부대의 해군 지휘관과 상륙군 대표들도 참석하였다.⁷⁾ 목표 지역 전반에 대한 항공 폭격은 D-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나 월미도에 대한 함포 사격은 기습 효과와 관련하여 D-1일에 실시하기로 하되, 상대적으로 사거리(射距離)가 긴 순양함들이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사거리가 짧은 구축함들이 네이팜 항공 공격에 이어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뒤 현지 첩보 수집 요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월미도의 적 방어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9월 8일 「스트러블」 제독이 소집한 최종 회의에서는 월미도에 대한 사전 포격을 D-2일에 개시하되, 필요시에는 D-1일에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최종의 합의 일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전 포격을 위한 세부 계획은 관계 부대들이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완성된 것이었다. 해안두보 안의 표적은 월미도에 2개소, 소월미도에 1개소 등을 포함하여 모두 52개소로 분할되었다. 상

북 지역 근해(近海)에는 가상적인 선을 그어 3개 구역으로 나누고, 남쪽으로부터 화력 지원 구역 I·II·III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D일 이후의 함포 지원 사격에 대한 시기 및 윤곽까지도 구체화시켰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항공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 작전에 참가하는 미 해군·해병 부대에 편성된 자체 항공 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항공작전은 보편적으로 광범한 행동 반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韓半島) 안에서의 다른 항공작전과의 사이에 각각 작전 수행 상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전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항공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작전 영역과 임무를 구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였다. 상륙 장소*로부터 반경 약 55km(30마일)의 호선(弧線)으로 구획되는 상륙 목표 지역* 안에서의 항공작전은 제 7함동기동부대 이하의 고속함도기동부대가 전담하고 극동 미공군은 목표 지역 밖에서의 차단작전을 담당하기로 합의되었다.

상륙시의 근접 항공 지원은 그동안 함포「시실리」호와「바멩 스트레이트」호를 모함(母艦)으로 하면서 미 해병여단을 지원하고 있던 미 제 33 해병비행전대(MAG-33)의 2개 대대들이 제공하게 되

* 목표 지역(Objective Area)이란 군사적 수단으로 탈취 또는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포함된 일정한 지리적 지역을 말하며, 상륙작전 시에는 이 목표 지역을 경계짓는 해상, 지상 및 공중 범위가 최초 지시로 규정된다. 이 목표 지역의 일부로서 상륙작전이 실시되는 곳을 상륙 지역(Landing Area)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해안두보를 설치하는 데 요구되는 해상, 공중 및 지상 지역이 포함된다. 이 상륙 지역 안에서 해상 수단으로 병력, 장비 및 보급품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해안선의 계속된 부분을 상륙 장소(Landing Site)라고 하며, 그 중의 일부로서 통상 대대상륙단(BLT) 또는 그와 유사한 부대의 물적 상륙이 가능한 해안선 부분을 상륙 해안(Landing Beach)이라고 일컫는다.

었다. 이에 부가하여 공격 함대 사령관은 필요시 고속항모기동부대의 항공기들로부터 근접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MAG-33은 항공작전 통제권이 상륙군 지휘관에게 이양되면 미 제 10군단장 작전 통제 하의 미 제 10군단 전술 항공 지휘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 9월 8일에 발족한 미 제 10군단 전술 항공 지휘관에는 그 다음날로 MAG-33의 「쿠쉬먼」 준장이 임명되었다. MAG-33은 또한 김포 비행장을 확보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주일 미 공군 기지에 위치하게 될 미 제 12해병비행전대(MAG-12)의 대대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작전의 진전에 따라 김포 비행장이 확보되면 미 제 1해병항공사단이 이동하여 전반적인 육상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4. 한국 해군 작전

경(輕) 항공 모함(CVL) 「트라이엄프」호, 순양함(CL) 「벨파스트」호와 「자마이카」호, 그리고 3척의 구축함, 4척의 호위함(PF) 등으로 구성된 「앤드류스」 소장 지휘하의 영국 해군 함대는 6월 30일 극동미해군 사령관 작전 통제를 받게 되자 곧 작전을 개시하여, 7월 5일부터는 서해안의 해상작전을 전담하게 되었다. 영국 해군 부대를 주축으로, 뒤이어 참전한 호주·네덜란드·뉴질랜드·프랑스·캐나다의 해군 부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서해안 지원전대는 그뒤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그 일익(一翼)을 담당하였다.

소규모의 병력과 빈약한 함정으로, 이상의 UN 해군부대들이 지원되기 전까지 고군 분투하던 한국 해군도 7월 10일에는 극동

미해군 사령관 작전 통제 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한국 해군은 별도의 기동 편성으로 연안작전을 전담하게 되었으나, 작전 임무에 따라 동해에서는 동해안 지원전대의 지휘하에, 그리고 서해에서는 서해안 지원전대 지휘하에 작전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 봉쇄·경비·도서 방위 등 대체로 방어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한국 해군은 7월 말부터 점차 공세적인 작전을 병행하게 되었다. 8월 초 낙동강 방어선의 남서쪽에서 UN 군 최초의 반격작전이 시도되고 있을 때, 한국 해군은 서해 및 남해안의 도서들에 대하여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일련의 공세적인 상륙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때,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은 미 해군에게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으나, 해군은 빈번한 합동 작전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에 민감했고, 따라서 이 무렵, 막연하게나마 새로운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육감(六感)으로부터 전선의 서측방, 더 나아가 서울에 가까운 서해안 도서들의 지리적 중요성까지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⁸⁾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실시된 작전이 후일 「이 작전」(李作戰)으로 불리웠던, 한국 해군의 덕적도(德積島) 및 영흥도(永興島) 상륙작전이었다.

한국 해군의 구잠함(PC)과 소해정(YMS) 등을 주축으로 한 각종 함정과, 이들 각 함정에서 차출, 편성된 110여명, 1개 중대 규모의 육전대(陸戰隊)로 상륙작전 부대가 구성되었다. PC 702 함장 이 희정(李熙鼎) 중령이 지휘하는 해군 단독의 이 상륙작전 부대는 8월 18일 06:15 덕적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고,

이어서 8월 20 일에는 영흥도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덕적도에서는 적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나 영흥도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받아, 상륙 부대는 전사 4명, 전상 1명의 손실을 보고, 마침내 8월 23일 영흥도를 확보하였다. 서해안 지원전대의 영국 순양함 「케냐」호와 캐나다 구축함 「아타바스칸」호는 이 작전을 위해 합포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후자는 일부 소화기까지 지원해주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지만, 이 덕적도와 영흥도 상륙작전 계획은 그 실시에 앞서, 즉 8월 15일, 당시 극동미해군 사령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한국 해군을 작전 통제하던 해군 고문관 「루시」 중령을 통해 극동미해군 사령부에 이미 보고되고 있었다. 9)

이 작전의 성공에 뒤이어 당시 해군본부의 정보감 함 명수(咸明洙) 소령이 이끄는 특수 첩보 부대가 영흥도에 후속 상륙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상륙작전 부대는 이 섬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경비 병력을 잔류시키고 8월 24일 철수하였다.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孫元一) 소장의 특별 지시를 받은 해군 첩보 부대는 인천과 월미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의 적정을 계속 수집하였다. 이들의 첩보 보고는 당연히 지휘 계통을 통하여 극동미해군 사령부로 보고되고 있었다.

8월 28일 미 제 10군단의 정보 판단은 서울의 적 병력 규모를 약 5,000명, 인천에 약 1,000명, 그리고 김포 비행장에 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9월 4일의 정보 판단에서는 다만 인천 상륙 지역의 적 병력을 1,800—2,500명으로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현지에서 정집·보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그후 인천 상륙이 감행되기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 무렵, 한국에는 통칭 “KLO”로 불리는 극동미군 사령부 G-2 산하의 정보 기관이 있었다. 이들의 일부가 인천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각종 첩보 수집 기관의 보고에 의해서 극동미군 사령부의 정보 판단은 이루어지고 있었겠지만, 한국 해군 첩보 부대의 보고도 여기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5. 영흥도의 첩보 수집 활동

적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상륙작전이다. 그리하여, 적 해안 상에서 최초 영(zero)의 상태에서부터 전투력을 쌓아 올려 가기 때문에 작전 초기의 취약성이 대단하다. 이와 동일한 상정(想定)하에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수립 단계 초기부터 직면하는 첩보의 결핍 역시 상륙작전의 취약성이라는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 원거리에 있는 목표 지역의 적정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적정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상륙작전의 계획수립 기간 중 가변성이 많게 마련이다.

미 제 1 상륙전대가 앞서, 「블루하트」작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했던 자료는 분명히 유익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기본 계획수립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표 지역에 대한 항공 사진과 포로 신문 결과가 수집되고, 극동미군 사령부에서는 8·15 해방 후의 한국 주둔 군무를 인연으로 인천 지역에 대하여 잘 아는 미 육군 및 해군 장병들을 불러 오기

도 하였다.

8월 26일 극동미군 사령부에서는 정확한 적정과 해안 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하여 특수 요원의 현지 침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장차 작전의 중요성과 특수한 기술 및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가 흔하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적격자는 극동미군 사령부 안에서 구할 수 있었다.

「클라크」 대위는 극동미군 사령부 안에 별로 많지도 않은 해군의 일원으로서, 1949년 이래 근무하고 있었다. 제 2차 대전 때에는 호주로부터 필리핀, 오키나와 등을 거쳐 수 많은 남태평양 전선에 참가하였던 그는 이때까지 4개월을 제외한 8년간을 동양에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일어(日語)와 중국어도 약간은 이해하였다. 항해·통신·포술 등 대전 후의 다양한 함상 근무 경력 뿐만 아니라 병조장(兵曹長)이 되기까지의 오랜 사병 경력도 소지하고 있었다.

「클라크」 대위는 수 명의 일행과 함께, 준비한 각종 휴대품을 가지고 8월 31일 군항(軍港) 사세보(佐世保)를 출발하였다. 휴대품은 약간의 총기류와 탄약·수류탄·통신기·의약품·휴대 식량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쌀과 생선, 그리고 현금으로 한화(韓貨)도 지참하였다. 당시 극동미군 사령부 G-2 산하의 정보 기관 소속 한국군 장교 중에서 육군의 계인주(桂仁珠) 대령과 해군의 연장(延禎) 중령이 「클라크」 대위와 행동을 함께 하였다.

「클라크」 대위 일행을 호송하는 임무는 서해안 지원전대의 영국 해군에 부여되었다. 이들은 9월 1일 07:00 덕적도 근해에 도착한 영국 구축함 「채리티」호로부터 한국 해군의 PC 703 함으

로 옮겨 타고 이날 정오 못미쳐 영흥도에 상륙하였다. 앞으로 필요시 요청하면 영국 및 한국의 해군이 이들을 지원하도록 협조되어 있었다.

드디어 이들의 비상한 활동은 시작되었다. 「클라크」 대위는 한국 해군 첩보 부대와 섬마을 주민들로부터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클라크」 대위는 대사에 신중하고 침착하며, 냉정하고 도넛 없는 장교였다. 그와 동행한 한국군 장교들도 믿음직스럽고 기량이 우수한 조력자들이었다. 「클라크」 대위 일행이 훈련시킨 이 섬의 청년들은 월미도를 관찰하여 포 진지의 수와 위치를 알아 오기도 했고, 멀리 서울까지 침투하여 적 부대의 위치와 규모를 탐지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첩보들은 물론 무전으로 국동미군 사령부에 일일(日日) 보고되었다.

전율과 긴장 속에 비범한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이들은 또 훈련된 섬마을 청년들을 활용하여 주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때, 영흥도의 대안(對岸), 내륙 쪽의 대부도(大阜島)에는 약 300명의 적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영흥도의 동정에서 어떤 수상쩍은 기미를 느꼈음인지, 마침내 적의 일부가 9월 7일 저녁 늦게 영흥도로 접근하여 왔다. 빈틈 없는 경계로 이를 미리 알아차린 「클라크」 대위는 Cal. 50 기관총을 거치한 발동선을 이용하여 해상 역습으로 이들을 격멸시켰다.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한국 해군의 연락으로 다음날 「코르세어」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대부도에 로켓탄 30여발과 500 파운드 폭탄 4발을 퍼붓고 기총사격으로 이 섬을 휩쓸어버렸다.

「클라크」 대위는 어느날 밤 간조 시를 이용, 인천 해안에 접근하여 갯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발목만 잠기는 곳이 있는

가 하면 허리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극동미군 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무전을 발신하였다.

『인천——부대, 차량 공히 갯벌 경유 상륙은 부적당.』

「클라크」대위는 다시 9월 10일 경 팔미도(八尾島)를 정찰하였다. 이때 팔미도의 등대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나, 세심하게 점검해 본 결과, 모든 기재(器材)에 거의 손상이 없음을 알았다. 다만 화전 반사판에 연결된 전지선(電池線)이 끊겨 있을 뿐이었다. 심지를 돌우고 불을 켜면 되리라는 확신이 섰다. 그날 저녁에는 물론 정찰 결과와 함께 팔미도 등대의 작동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발신하였다.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클라크」대위는, 9월 14일 밤 자정에 등대를 밝히려는, 극동미군 사령부의 지시를 접수하였다.

그동안 「클라크」대위의 수염은 10cm 나 자랐다. 인천 상륙 후의 체지방(計體量) 결과, 체중이 18kg(40 파운드)이나 줄어든 것을 알았다고, 그가 후일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에 한 상자의 휴대용 식량으로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는 쌀밥이 휴대 식량보다 훨씬 구미를 돋군다는 사실을 마침내 터득하였으나 만사지탄(晩時之嘆)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영흥도를 떠나야 할 9월 14일 황혼이 깃들 무렵, 마지막 위기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 오고 있었다. 영흥도 동쪽의 대부도에서 수척의 소형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다. 또다른 수척이 영흥도 남쪽으로도 접근해 왔다. 순간의 당황 끝에 「클라크」대위는 용맹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팔미도로 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려 할 임무가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숫적으로 열세했던 영흥도 주둔 해군이나 섬 청년들이 적과 대

항하였으나, 전투를 오래 지탱할 수는 없었다. 해군의 또다른 자원 병력이 영흥도에 상륙한 것은 다수의 양민들까지 학살당한 뒤인 9월 16일이었다. 이때는 인천 상륙으로 이미 났을 빼앗긴 적이 내륙으로 도주한 뒤였다.¹¹⁾

6. 한국 해병대의 출동

상륙작전에 참가할 모든 상·하급 및 인접 부대 사이에 동시적·병행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상륙전 원리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시 미 해병사단의 돌격 연대가 될 미 제5해병연대 참모들은 한국 전선에 얽매어 조기 계획수립에 착수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도쿄(東京)에서 미 해병사단의 세부 작전계획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종 회의에, 그나마도 이들을 대신한 미 해병여단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8월 28일과 29일 사이에 미 해병여단 참모장 「스네더커」 대령을 비롯하여 G-1, G-4 및 의무 참모 등이 도쿄 부두에 계류해 있는 「마운트 머킨리」호에 도착하였다. 계획수립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G-3 참모 「스튜어트」 중령은 8월 31일, 뒤늦게 도착하여 연락 장교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이들이 장차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다. 미 제5해병연대의 임무는 물론, 아직 극동에 도착하지 못한 제7해병연대를 대신하여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사단 예비로 선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스네더커」 대령은 약 1개월에 이르는 한국 전선에서의 경험

을 통해 이미 한국군 제 17연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의 그들이 투입되어 있는 포항 지역의 위급한 전투 상황에도 정통해 있었다. 그는 이때 제 17연대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아, 그들이 전선에서 교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상륙작전에 전혀 생소한 이 부대가 전선을 빠져나와 약 10여일 뒤로 예정된 탑재 시기에 댈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차라리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내다보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약 3,000명에 달하는 한국 해병대가 약간의 훈련과 장비로 보강된다면 즉각 동원될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이러한 「스베디커」 대령의 의견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어서 즉각 필요한 협조가 진행되었다.

8월 중순 영산(靈山) 지역의 전선이 회복된 뒤인 8월 19일 미 제 8군의 예비로 전환되었던 미 해병여단 예하의 제 5해병연대는 이 무렵 창원(昌原) 숙영지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도 곧 세부 계획과 그에 따른 제반 준비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과 함께 또는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한국 해병대의 출동 준비는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한국 해병대를 위한 화기와 장비는 미 제 8군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 해병대의 출동은 이처럼 급작스럽게 협의된 것이었으나 미 해병여단 참모들이 앞으로 더 바빠질 그들의 과업을 위하여 다시 한국으로 출발할 때까지, 남겨진 문제라면 절차상 극동 미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뿐이었다.¹²⁾

1949년 4월 15일 진해(鎭海)에서 해병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의 병력은 해군의 기간 장병 중에서 지원 또는 선발 과정을 거친

80명과 당시 갓 모병된 해군 신병 중에서 뽑아 온, 그러므로 굳이 따지자면 해군 자원이었던 해병대 사병 제 1기 300 명이 그 전부였다.¹³⁾ 그뒤의 사병 제 2기 역시 제 1기와 같은 방법으로 충원되었고, 이후 해병대가 약 1,200 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병력의 근원은 해군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병대 간부 후보생 제 1기가, 이들 역시 그 대부분은 해군에서의 지원자였고 해병대 자체의 교육 능력이 없었던 만큼 육군에 위탁되어 태릉(泰陵)에서 육사(陸士) 제 9기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해병대가 멀지 않아 운용하게 될 미군 장비와 전술의 기본을 익힌, 그리고 해병대 자체의 소요에 따른 최초의, 자원이었다.

그뒤 제주도에서 1,200 명의 병력 상한선에 묶여 있던 해병대는 6·25를 당하자 증편이 당장의 시급한 과제였으나, 군산(群山)에 1개 대대를 출동시킨 뒤에야 본격적인 모병을 시작하였다. 8월 초에 모집된 사병 제 3기와 8월 말의 제 4기를 합하여 3,000 명이 넘었으며, 그중에는 경상 남·북도 일원에서의 징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지원한 청년과 학생들이었다. 특히 8월 말에는 제주도 내 중학교(구제)의 대다수 청년 교사들이 지원병으로서 앞장을 섰는가 하면, 주위의 만류를 뿌리쳐가면서 교원 양성소에서 연수(研修) 중이던 여교사와 도내 여학생들이 126명이나 자원하고 나섰다.¹⁴⁾ 해병대는 8월 초에 모집된 청년들과 당시의 잔류 병력으로 제주에서 제 2대대를, 그리고 모슬포(慕瑟浦)에서 제 3대대를 편성하였다. 다행히 이때에는 시흥(始興)의 육군 보병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도중에 돌아 온 제 2기 간부 후보생과 자체 교육중이던 하사관 후보생들로 대다

수의 소대장 및 분대장의 소요에 충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말에 모집된 신병들로 대대를 증편하기 위해서는 간부 요원들을 해군에서 일부 차출하는 방법도 써야만 했다.

약 1,000 명이 넘는 제 4기 신병들을 모집하여 입대 절차를 마치기도 전인 8월 말, 제주도 제엄 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申鉉俊) 대령은 전 부대의 진해 이동명령을 받았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동 목적이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하루라도 빨리 미 해병여단의 도움을 받아 부대의 훈련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동 준비 시간도 허용되지 않았다. 해병대 사령관은 가까스로 입대 절차만 마친 신병들을 주력으로 제 1대대를 편성하는 한편, 도솔포의 제 3대대를 제주로 이동, 집결시켰다. 제주도 주둔 해병대는 긴급 동원된 해군 함정들 편으로 8월 31 일을 전후하여 제주 산지 항을 출발하였으나, 그들이 곧 갖추어야 할 화기 및 장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은 부산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아무도 정확한 이동 목적을 알지 못했으나, 전선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만은 명약 관화했기 때문에, 이동중인 배 안에서도 최소한 개인 화기 조작을 위한 신병 교육만큼은 쉬지 않고 계속하면서 진해로 가고 있었다.

7. 낙동강 전선의 미 해병들

미 제 8군의 예비로 전환된 미 해병여단은 8월 21 일 창원 지역의 원 숙영지로 다시 이동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8월 23 일 한국 연예인들이 베푸는 야외 공연으로 저녁 한때를 즐겼고, 8



사진 5. 이 승만 대통령과 미 해병들. 좌로부터 미 해병여단장 「크레이그」 준장과 이 대통령, 그리고 세번째 부상한 두 장병(1950. 8. 29.).

월 29일에는 진해 체류 중 격려차 찾아 온 이 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영접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부대 안에는 곧 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되리라는 소문이 말단 사병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었다. 이 즈음, 앞으로의 출동에 대비하여 중장비를 부산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예상될 만도 한 것이었으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작전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갖가지 추측까지 터무니 없이 나돌았다.¹⁵⁾

미 해병여단 예하 제 5해병연대의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은 도교 회의에 다녀 온 여단 참모들을 통해 8월 30일 오후에야 인천에 대한 미 해병사단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그들 스스로 마련해야 할 계획의 일부가 번칙적인 방법으로 사단 참모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했으나, 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하는 계획과 준비해야 할 일들 또한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미 제 5해병연대는 이제부터 밤낮으로 시간과 다투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의 전선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상륙작전 준비에만 전념할 수만도 없게끔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리고 있었다. 이들은 8월 31일 최초의 자체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장차 작전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 및 기타 준비에 착수하려던 9월 1일 오전 여단으로부터 영산 지역 출동 준비명령을 받았으며, 물론 이와 동시에 인천 계획수립은 잠정적으로 취소되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적들은 전선 돌파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8월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제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그런대로 적에게는 선택적인 선제 공격의 이점(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돌파에 성공하는 곳도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 8월에도 미 해병여단이 긴급 투입된 적이 있었던 영산 지역이었는데, 이때에는 미 제 2보병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마산(馬山)의 미 제 25사단 전방에서나 대구와 포항의 북쪽에서도 위기는 조성되고 있었지만, 미 제 2사단 정면에서 밤 사이에 낙동강을 도하한 적이 영산 전방까지 침투하여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워커」 장군은 미 해병여단을 다시 영산 지역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 해병대의 주력이 속속 진해에 도착하고 있던 9월 1일 오후, 미 제 5해병연대는 영산 동쪽의 밀양(密陽)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그날 밤 영산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영산 지역 가까이 다시 이동한 미 제 5해병연대는 미 제 2사단 예하 제 9연대와 교대하고 9월 4일에는 서쪽으로 공격을 개시하

였다. 9월 5일, 이들은 지난 8월의 격전지였던 오봉리 능선까지 진격하였다. 예정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불과 10일을 남겨 놓은 D-10일의 일이었다.

3개 연대의 완전한 전투 편성을 갖춘 해병사단으로 인천 상륙돌격 부대를 구성하려던 「맥아더」장군의 끈질긴 집념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발족한 미 제7해병연대의 D일 전 목표 지역 도착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은 이미 앞서 살핀 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드」소장에게 있어서, 전선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5해병연대의 가용성 문제였다.¹⁶⁾ 8월 23일의 회의에서 이미 「아몬드」장군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제5해병연대가 전선에서 철수하게 되면 미 제8군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스미드」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유일한 연대인 제1해병연대만으로는 인천 상륙의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8월 30일 「스미드」장군은 미 제10군단장 「아몬드」소장에게 미 제1임시해병여단 부대들의 사단 복귀를 다시 요구한 끝에 마침내 9월 4일까지는 이 부대들이 사단에 복귀될 것이라는 「맥아더」장군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9월 1일 미 제5해병연대는 다시 영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에는 그들의 사단 복귀 명령까지도 취소되었던 것이다.

9월 3일, 「스트러블」·「조이」·「도일」등 미 해군의 제독들과 「스미드」장군이 「아몬드」장군 사무실에 모였다. 「아몬드」장군

파 미 해병여단의 사단 복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이 회의에는 미 제10군단 참모장 「러프너」 소장과 극동미군 사령부의 G-3 참모 「라이트」 준장도 동석하였다. 「스미드」 장군의 해병여단 복귀 요구에 대하여 「아몬드」 장군은 해병여단을 전선에 그대로 두는 대신 미 제 7 사단의 제32연대를 보충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스미드」 장군은 막바지 순간에 갑자기 대치되는 부대가 해낼 수 있는 성과에 회의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조치에서 초래될 혼란과 복잡한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또 그렇게 할 경우, 제 1 해병연대를 선두로 하는 연대 중대 대형의 상륙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런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공격 함대의 「도일」 제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침내 「스트러블」 제독이 묘한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쫓점은 미 제 8 군에 예비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미 해병여단을 복귀시키는 대신, 미 제 7 사단의 1개 연대를 해군 함정들에 탑승시킨 채, 예비로서 부산항에 해상 대기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전선 투입의 필요성이 없게 되면 그대로 인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타협안에 따라 「아몬드」 장군은 즉각 미 제 8 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고, 「라이트」 장군이 급히 제 8 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협조한 뒤, 미 해병여단은 9월 5일 자정을 기하여 제 8 군으로부터 배속 해제될 것이라는 통보가 「스미드」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8. 한국 해병대의 부산 이동

한국 해군은 극동미군 사령부 지휘 계통을 통해 긴급 요구를 받고 해병대를 제주도에서 진해로 이동시키기는 하였으나, 미 해병여단 지도 하에 이 부대를 재 편성하여 차후 작전에 투입하려는 그 목적은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사실상, 그 안다는 것도 서해안의 「어디」에선가 상륙작전이 실시되리라는 것이었고, 그 「어디」란 다분히 군산 쪽으로 짐작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미 해병여단이 다시 낙동강 돌출부에 투입되고 그들의 장차 전망이 불투명했던 동안은 한국 해병대 역시 차후의 행동 목표가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해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해상 이동 중에도 쉬지 않았던 신병 훈련을 계속시키는 것 뿐이었다.¹⁷⁾

이 즈음 낙동강 전선의 위기는 미 해병여단이 긴급 출동했던 영산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적의 마지막 발악으로 전선 도처에서 위기가 재연되었고, 낙동강 돌출부에 이어 전황이 심각해진 곳은 대구 북쪽이었다. 정부나 한국군 지휘부는 이 위기에 보다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3일 신 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은 막 진해에 이동된 해병대를 대구 북쪽의 왜관(倭館)으로 이동시키도록 해군에 지시하였다. 전황이 위급해지자 신 성모 장관은 직접 해군 진해 통제부에 독촉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절박해지는 상황에 따라 이동 수단마저 해상 또는 철도로 변경 시달되는 그때 그때의 명령에 따라, 해병대는 서둘러 부두로 갔다

가 다시 역으로 옮겨 가곤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으며, 이때 부산의 해군 본부에 있던 손 원일 해군 총참모장은 해병대가 출동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완곡하게 설명하면서 해병대의 출동을 중지시키는 데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¹⁸⁾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 대령은 이때의 우군 동향과 전황 등, 해군에서 얻은 정보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부대가 어떤 중대한 전투작전에 투입되리라는 것과 그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전투 임무가 되는 간에 거의 훈련이 안되었거나 미숙한 신병이 대부분인 당시의 부대 수준으로서는 벅찬 일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달리 가능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신 현준 대령은 그동안 전투 경험을 쌓은 통영 주둔 김성은부대(金聖恩部隊)의 일부 병력과 신병의 일부를 교체하여 출동 부대의 전력 보완 방안을 해군 총참모장에게 건의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신편 제 1대대의 2개 중대를 해상 이동으로 통영에 보냈다.

한편, 전 전선에 걸쳐 자행된 적의 대공세와 때를 맞추어 낙동강 방어선 후방 지역에서는 적 게릴라들의 준동이 한층 더 심해졌다. 진해에서 가까운 마산과 창원 지역에서도 미군 부대의 경비가 미약한 후방 시설들이 적 게릴라의 습격을 받게 되자 불안이 조성되고 있었다. 당시 진해 지역의 해군이 전 육상 부대 병력으로 군항 내·외곽의 방어를 담당하면서 이러한 주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9월 4일 밤 수 미상의 적 게릴라 부대가 진해와 창원 사이에 있는 미군

부대의 한 통신 시설을 습격해 왔을 때에는 해병 제 2대대가 출동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제 2대대는 적을 포착하고, 자욱한 안개를 헤치며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강 덕호(康德鎬) 1등 수병이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제주도 출동 이후의 첫 손실이었다. 19)

9월 5일, 해병대는 부산 이동명령을 받았다. 낙동강 돌출부에 출동하였던 미 제 5해병연대가 이날 밤 자정을 기하여 전선에서 교대되면, 곧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대는 이날 오후부터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해군 함정에 승선하여 부산으로 떠났다. 적 게릴라들을 추격하던 제 2대대는 갑작스러운 철수명령을 받아 공격을 중단하고 진해로 다시 돌아 왔으나, 이미 떠나버린 다른 대대들의 뒤를 따라 다음날에야 부산에 도착하였다. 20)

해병대가 제주도를 떠날 때 함께 진해로 이동하였던 여군 지원병들은 그뒤 해군 훈련소에서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해군 병원 또는 후방 행정 부서에 배치되었다. 2명의 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사관과 병으로서, 이들이 각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 기간을 마치고 사라져 가자, 이들 여군 수병의 모습을 해군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21)

제 4 장 인 천 으 로 의 항 진 (航進)

작전 단계의 첫 신호라고도 할 수 있는 탑재 단계는 장비 및 보급품과 함께 부대가 탑재 지역에 집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8월 중순 미국 본토의 서해안을 출발한 미 제 1 해병사단의 주력 부대들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일본 고베(神戸)항에 도착하였다. 미 해병사단이 일본까지는 전술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함정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대와 화물을 최단 시간 내에 실는 행정 적재(Administrative Loading) 방식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고베에 도착하자 일단 모든 화물을 양륙한 다음, 차후 작전을 위한 탑재 계획에 따라 전투 적재(Combat Loading)* 방식으로 재 탑재(再搭載)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9월 3일 공교롭게도 고베 지역을 강타한 태풍 「제인」호의 내습으로 작업은 24 시간이나 완전히 중단해야만 했다. 해수(海水)에 젖어 버린 피복을 말려 재 포장하고 장비를 재 정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겼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의 몇몇 다른 항구와 부산항에도 각종 함정들이 집결 중에 있었다. 고베에서 미 해병사단 주력의

* 상륙작전 시의 일반적인 함선 적재 방식에는 행정 적재와 전투 적재가 있다. 함정 공간의 경제적 이용보다는 상륙 시의 전술 상황에 맞추어 부대·장비·보급품 등이 전투 태세를 갖춘 상태로 양륙될 수 있도록 적재하는 방식이 전투 적재이다.

제 7 합동기동부대의 발원, 요코하마(横浜)에서는 미 제 7 보병사단이, 부산에서는 한국 해병대와 미 제 5 해병연대가 탑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격 부대에 속하지 않는 함선들 대부분도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기 위하여 제 7 합동기동부대의 기함(旗艦) 「로체스터」호와 함께 일본의 사세보(佐世保)항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해병대의 주력이 미 제 5 해병연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다시 진해를 출발하던 9월 5일, 저속(低速)의 예인함(曳引艦)들로 구성된 이동 전대(移動戰隊)가 최초로 목표 지역을 향하여 일본의 요코하마를 출항하였다. 같은날, 목표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에서는 장차의 작전과 관련된 해상·공중작전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낙동강 전선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작전 단계로까지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1. 제 7 합동기동부대의 발진(發進)

작전 단계에 돌입하면, 부대를 해군 함정에 탑재시키고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부대들을 육상에 전개시키는 일련의 작전 행동은 전적으로 해군 부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인천 상륙에 관련한 전반적 작전을 수행하게 될 제 7 합동기동부대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TF-90 공격부대 미 해군 소장 「도일」

TF-92 제 10 군단 미 육군 소장 「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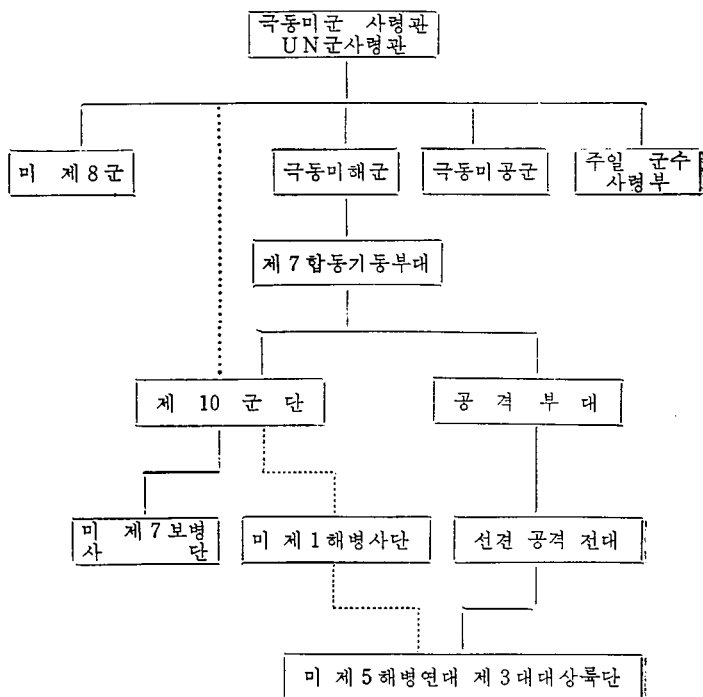
TF-91 봉쇄·엄호부대 영 해군 소장 「앤드류스」

TF-99 초계·정찰부대 미 해군 소장 「헨더슨」

TF-77 고속항모부대 미 해군 소장 「어윈」

TF-79 군수지원부대 미 해군 대령 「오스틴」

도표 1. 「크로마이트」작전 단계의 지휘 체계



—— D일의 지휘권 관계

.....상륙 후의 지휘권 변동

인천 상륙작전을 위하여 제 7 합동기동부대에 소속된 대소 함정의 총수는 약 230 척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미 해군을 비롯하여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해군 함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 해군에서도 4척의 초계함(PC)과 7척의 소해정(YMS) 등 다수의 함정들이 참가하여 작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결국, 낙동강 전선의 측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약간의 포함(砲艦)들을 제외하고는, 극동 지역에서 가용한 전투 함정이 전부 동원된 셈이었는데, 그중에서 고속함모부대, 초계 및 정찰부대, 그리고 군수지원부대에 할당된 52척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도일」 제독의 지휘를 받는 공격부대, 즉 제 90기동부대(TF-90)에 소속되었다. 공격부대가 한국군을 포함한 제 10군단 예하 총 70,000 여명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는 무려 120 척 이상의 함정이 소요되었다.¹⁾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적이었던, 「도일」 제독과 「스미드」 장군을 중심으로 한 작전 단계 중의 지휘권의 변동 관계는 도표 1 과 같다.

동반구(東半球)의 한국 전역(戰域) 일원에서는 제 7 합동기동부대의 예하 부대들이 사실상 작전의 행동 단계로 진입하고 있을 무렵, 서반구(西半球)의 워싱턴에 있는 미 합참본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상륙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보고를 극동미군 사령부에 요구했던 8월 28일 이후, 계속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던 미 합참본부는 마침내 9월 5일에 이르자 이전 지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의 전반적 개요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다」는 답변과 함께, 9월 11일까지 연락 장교를 파견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것이 9월 6

일에 보낸 「맥아더」 장군의 회신이었다.²⁾

이 즈음의 전황과 관련하여 인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미 합참에서는 다시 9월 7일 「맥아더」 장군에게 9월 초의 위기로 전선에서는 미 제 8군의 거의 전 예비대가 투입된 사실과, 미국 본토에서도 당분간은 병력을 증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세와 관련시켜 인천 상륙작전을 새로이 평가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때 「맥아더」 장군은, 마지막 고비로 보이는 전선의 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도 않았으며, 그 이상의 우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에도 대비할 자신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서도 상륙작전에 새삼스러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맥아더」 장군은 9월 8일, 미 합참에 보내는 회신에서 이미 부대의 탑재와 해·공군작전이 진행 중인 사실과 함께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본관과 예하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은 예의 없이 이 작전의 성공을 열망하며 확신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마침내 미 합참본부에서는 작전 1주일을 앞둔 9월 8일, 인천 상륙작전을 승인하는 「최종적인 청신호」를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게 되었다.³⁾

2. 해병 출동 부대의 재 편성

9월 5일 밤의 자정을 넘어선 어둠 속에서, 음산한 비를 맞으며 전선을 빠져 나온 미 제 5해병연대의 주력은 9월 6일 중으로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9월 7일 오전까지는 전 부대의 이동이 완

로되었다. 다시 말하면, 9월 6일은 한·미 해병 부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합류하여 「형제 해병」으로 인연을 맺은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 이미 마산 서쪽의 진동리 전선에서 8월 6일 한·미 양국의 해병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한국 해병대의 미 해병사단 배속 결정 역시 극동미군 사령부에서는 이미 9월 3일자로 승인된 것이었으나, 한·미 해병 부대의 실질적인 만남은 9월 6일 부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이동한 미 해병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바로 1개월여 전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에 다시 돌아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새삼스러운 감회에 젖어들 여유는 없었다. 그 동안 2개 중대 편성만으로 전투를 감당해 오던 각 대대에는 비로소 제 3의 중대가 보강되었다. 이들 앞에는 장비를 재 정비하고, 손실 병력을 보충하여 재 편성하는 일과, 장차 작전을 위한 탐색 편성 및 훈련 등의 중요한 과업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들에게는 이렇듯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주한 과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1주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 중에 한국 해병대의 재 편성과 사격훈련 등을 도와야 하는 과업도 부과되어 있었다.

한국 해병대는 보잘 것 없던 낡은 장비들을 반납하고, 대체로 미 해병대에 준하는 보병 부대로서의 장비를 지급받았다. 기본 보병들에게는 M1 소총이, 자동 소총 사수에게는 BAR 자동 소총이, 그리고 기타 병사들에게는 카빈 소총과 단발식(單發式)의 O-3 소총이 각각 지급되었다. 소총 중대는 공용 화기로서 구경 30 경 기관총과 60 mm 박격포를, 그리고 사실상 이름 뿐이었던 화기 중대들(제 4·제 8·제 12 중대)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81 mm 박격포, 2.36 인치 또는 3.5 인치 바주카포, 그리고 구경 50 중기

관중 등을 갖추게 되었다.

새로 장비를 지급받은 한국군들에게 각종 화기의 숙달 및 사격 훈련을 돕기 위하여, 미 제 5해병연대의 각 대대에서는 우수한 하사관들이 교관 요원으로 차출되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 해병대 하사관들의 열의도 대단했지만, 언어 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취하는 과장된 몸짓과 손짓은 오히려 한국 해병들의 호기심과 친근감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신참(新參) 해병들은 처음 쏘아 보는 M1 소총의 반동에 놀라기도 하고, 오른 쪽 불이 열렬하여 때로는 순간적으로 눈을 잃기도 했으나 충분한 사격 연습을 못하는 것을 아쉬워 했다. 한편, 공용 화기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미처 개인 화기의 사격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들은 아쉬운대로나마 기거하던 함상에서 오륙도(五六島)를 표적으로 시험 사격을 마치기도 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이때까지 부대를 전면적으로 재 편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가능한 전제 부대(建制部隊)를 유지하면서 상륙 부대로서의 기본 전술 편성 단위인 3개 기동 및 화력조를 갖는, 당시 미 해병대 식의 분대 편성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 편제 위에 각급 제대가 편성되고, 화기 중대도 새로 지급된 장비를 기준하여 81 mm 박격포 소대와, 흔히 2.36인치 바주카포 소대라고도 부르던 대전차공격소대, 그리고 구경 50 mm 중 기관총소대로 구성되었다.

제 2대대와 제 3대대는 사병 제 3기를 주력으로 하여 8월 초, 거의 같은 시기에 편성된 부대들이었으나, 제 3대대의 주축을 이룬 기간 요원들은 주로 사병 제 1기 출신들이었고, 제 2대대의 기간 요원들은 주로 사병 제 2기 출신들이었다. 우연히도 양 대

대장이 해군 사관학교 제 1기 동기생이었는데, 제 3대대장은 해병대 초창기에 중대장 근무를 거친 김 윤근(金潤根) 소령이었으며, 제 2대대장은 해병대 증편(增編)을 위하여 해군에서 전보(轉補)된 김 종기(金鍾淇) 소령이었다. 이 두 대대는 부족한 병력을 신병으로 보충하여 재 편성을 마쳤다.

뒤늦게, 통영 주둔 해병 부대인 김성은부대(金聖恩部隊)에서 교체되어 온, 김 광식(金光植) 대위와 이 봉출(李鳳出)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들은 대부분이 신편(新編) 제 1대대의 제 2·제 3중대로 편입되었으나, 그 병력의 일부는 제 1중대의 기간 요원으로 충원되었으며, 또한 화기 중대 편성의 골격이 되기도 하였다. 전투 경험을 지닌 이 두 중대원들은 일 계급씩 특진하여 삼등 병조(三等兵曹) 이상의 계급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대부분이 사병 제 2기였던 이들을 제 2 및 제 3대대에까지 분산 배치한다는 것은 실제 전투 지휘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못되었다. 신편 제 1대대장에는 지난 7월 중순, 해병대 최초의 군산 지구 출동 부대를 지휘하였던 고 길훈(高吉勳) 소령이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대대 단위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기본적인 전술 편성을 갖추었으나, 헌병대와 탄약·식량 보급을 주로 담당하던 이른바 「작업 소대」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 대대나 또는 해병대를 통틀어 전투·군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라고는 없었다. 당시의 이같은 여건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마땅히 있을 법한 별도의 연대 단위 지휘 기구도 없이, 해병대 사령부의 참모 기구가 사실상 연대급의 지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해병대가 그 예하에 공식적으로 연대를 가지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으나 미 해병사단에서는 이때부터 한국 해병대를 가리켜 편의상 「한국

해병 연대」 또는 「한국 해병대 제 1 연대」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였다.⁴⁾

한국 해병대에 부여된 상륙 초기의 임무는 개략적으로나마 이 미 전장(前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었다.

한국 해병대는 최초 사단 예비가 되며, 대기파로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미 제 5 해병연대와와의 협조로 인천 시가지 점령 작전을 실시한다.

우선 한국 해병대의 상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 제 5 해병연대의 상륙 계획을 살펴 보면, 이 연대는 D일 오전의 월미도 상륙을 위해 선견 부대에 1개 대대를 차출하고, 남은 2개 대대로 D일 오후, 적색 해안에 상륙을 감행하게 되므로 당연히 별도의 예비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 해병사단의 기동 편성에 의하면, 한국 해병대는 1개 대대를 미 제 5 해병연대 예비대로 배속하고, 그 1개 대대를 제외한 잔여 부대로 미 해병사단의 예비대가 되도록 짜여져 있었다. 당시 한국 해병대로서는 이러한 사실도 잘 알 길이 없었지만, 실사 전반적인 차후 작전 내용 까지를 속속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작전을 위한 상륙 편성이나 탑재 편성 등을 스스로 해낸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던 만큼, 사실상 미 해병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돕기 위하여 미 해병사단에서는 장교 1명과, 3명의 통신병, 그리고 1명의 운전병으로 구성된 연락반을 한국 해병대에 파견하였다. 실제로는 미 해병여단에서 차출되었으나, 명목상으로는 미 해병사단 최초의 연락 장교가 된 「해그나」 중령

은 인천 상륙작전 기간을 통해서는 물론이지니와, 그뒤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수석 고문관으로서 한국 해병대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였다.⁵⁾ 이 연락 장교의 기능은 작전의 비밀 보호라는 제약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과중해지게 마련이었다. 가령, 돌격 연대의 예비대가 될 1개 대대의 선정은 가능한 조기에 한국 해병대 사령관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기밀 보안 때문에, 이러한 일도 「해그나」 중령 스스로 지휘관 및 부대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훈련 과정을 거쳐 사격 생적이 뛰어난 제 3대대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⁶⁾

3. 탑재 단계

탑재 단계는 통상 상륙 부대의 장비와 보급품의 탑재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화물이 지정된 함정 안의 할당된 공간에 양륙(揚陸)의 역순(逆順)으로 적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차량들은 후진(後進)으로 적재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작업은 병력의 탑재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탑재 단계가 끝나면 잡다한 함선들은 그 유형(類型)과 항속(航速)의 정도에 따라서 몇개의 이동 전대(移動戰隊)를 형성하여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 계획은, 대다수 함정들이 전술적으로 소산(疎散)해야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 비닉의 필요성과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세심하고도 정확하게 작성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함선이, 요구되는 시간까지 목표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속(低

連) 함정들부터, 그리고 목표 지역과 원거리의 항구에서부터 이동은 시작된다. 미 해병사단의 주력이 탑재되는 일본의 고베(神戸)에서는 LST를 주축으로 하는 수송 함선이 9월 10일에, APA와 AKA 등은 12일에 출항하도록 계획이 짜여졌으며, 부산에서는 LST들이 9월 12일에, 그리고 APA 등은 13일에 출항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요컨대, 시간적인 제약은 계획수립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탑재 단계와 목표 지역으로의 이동 단계에서도 여전하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는 탑재와 이동에 차질이 생겨 장차 작전의 실행 자체가 의문시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요인이 태평양 남쪽의 수평선 상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멀리 남태평양의 마리아나 군도(群島) 부근에 나타난 태풍의 눈이 9월 6일에 최초로 포착된 것이다. 「케지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태풍이 3일 후에는 동 지나해(東支那海)를 거쳐 대한해협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 중심에는 시속 200 km에 가까운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다. 9월 12일이나 13일에는 예상 시속 약 230 km(125 마일)로 세력이 강화되면서 대한 해협 일대를 휩쓸이 태풍이 부산과 일본 고베에서 마지막 출항하는 함선들의 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었다.

9월 3일의 태풍 「제인」호에 빼앗겼던 시간은 장병들의 능숙한 경험과 피땀어린 노력으로 메울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게다가, 인천의 조수 관계 때문에 작전의 연기란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7 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은 심사 숙고한 끝에 9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함정들을 하루 빨리 출항시키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의 기함 「로체

스터」호 역시 9월 11일 이른 새벽에 일본의 요코스카(横須賀)항을 빠져나왔다. 「스미드」장군이 동승한 「도일」제독의 기함 「마운트 머킨리」호도 전 함선의 출항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9월 11일 10:30 마지막으로 고베를 떠났다.⁷⁾

한국 해병대와 미 제 5해병연대가 탑재하기로 예정된 부산항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7월과 8월을 통하여 전쟁 수행상 대들보 구실을 한 것이 부산항이었다. 부산항과 같은 훌륭한 항구를 통래 그 술한 병력과 막대한 군수 물자의 양륙이 가능했기 때문에 7월의 지연전, 8월의 방어전 역시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부산항에는 3척의 APA와 1척의 AKA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부두와, LSD를 계류할 만한 또 하나의 부두, 그리고 동시에 수 척의 LST가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가 있었다. 부산에서의 부대 탑재를 위해서는 APD 3척, LSD 1척, APA 4척과, LST 12척이 할당되었다. APD와 LSD는 월미도에 상륙할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를 탑재시켜 선견 부대를 구성하게 될 함선들이었다.⁸⁾

한국 해병대의 출동 예정 병력은 2,786명이었다. 탑재 계획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병력이 APA 「피카웨이」호에 승선하도록 되어 있었다. APA란, 중장비를 제외한 1개 대대상륙단(BLT)을 탑재시켜 자체 보유 상륙 주정(LCVP)으로 적 해안에 상륙을 감행할 수 있도록 건조된, 병력 수송 위주의 상륙 함선이다. 「피카웨이」호에는 1,600—2,000명의 수송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2,412명의 병력 수용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장교 6명을 포함한 220명이 LST 1척에, 장교 1명과 사병 50명으로 편성된 3개 탑재조(搭載組)는 미 제 5해병연대가 탑재하는 3척의 APA에 분

승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한국 해병대에 할당되는 보급품의 양륙을 담당할 근무 지원 부대로서의 역할을 겸한 이들 병력은 전적으로 제 2대대에서 차출되었다.⁹⁾

9월 11일 미 제 5해병연대 본부에서는 한·미 해병 부대 최초의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양 부대를 대표하여 미 해병 여단장 「크레이그」 준장과 한국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 대령이 극히 제한된 참모와 예하 지휘관만을 대동한 이날의 회의는, 극비 사항이라는 경고가 따르기는 하였으나,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 한국군 작전 참가 부대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중요한 작전 회의였다. 작전의 의의와 양 부대의 선전(善戰)을 당부하는 「크레이그」 준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의는 실질적으로 미 제 5해병연대장 「머리」 중령이 주재하였으며, 작전의 개요와 한국 해병대의 임무가 중점적으로 설명되었다.¹⁰⁾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양 부대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삼중한 의미가 담긴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한국 해병대의 선두 부대로 상륙한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긍지를 느낀 제 3대대장 김윤근 소령은, D일 인천에서 그가 직접 지휘를 받게 될 「머리」 중령에게 한마디 인사를 건네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인천에 가서 뵙겠습니다.』

그 순간, 안색이 변하면서 당황하는 「머리」 중령을 보고, 김 소령은 부지 중 「인천」을 발설했다는 사실에 아차 하는 느낌이 들었으나, 이미 저질러진 실수였다. 「머리」 중령의 안색은 곧 누그러졌지만, 이미 짙다문 입술 위에 가 있는 그의 왼손 인자(人指)가 김 소령에게는 말조심하라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¹¹⁾



사진 6. 「피카웨이」호에 승선하는 한국 해병들. 부산 부두(1950. 9. 12.).

하루씩 앞 당겨진 탑재 일정에 따라 일부 병력의 탑재가 시작되는 9월 11일,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 대령은 「미 해병대와의 합동작전에 참가」한다는 애매한 임무와, 그리고 함선 할당 등이 포함된 「부대 행동 지시」라는 해병대 출동 후 최초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12)

(1) 각자 수령한 무기에 대하여 간단없는 기회 교육(機會敎育)을 실시하여 급속히 숙달시키는 동시에 휴대 무기에 대한 자신력을 갖게 할 것.

(2) 시가전에 대한 교육이 지극히 긴급하니 시간과 장소를 얻는대로 그 개념을 습득할 정도의 교육을 필히 실시할 것.

(3) 상륙·도하작전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구명대(救命帶) 사용법도 교육할 것.

이상과 같은 승선 중의 교육 지침을 비롯하여, 같은 명령 가운데에는 함선 안에서의 제한 구역의 출입 금지, 각종 기체류에 대한 흡수 엄금, 언행의 단정 등, 함상 생활 시의 준수 사항과, 마지막으로 변소 사용을 청결히 하라는 주의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한국 해병들 사이에서도 상륙작전에 참가한다는 소문과 함께 상륙 지역으로 군산·인천·원산 등이 구구하게 이야기 되었을 뿐, 탐색 직전에 내려진 이 명령에서도 차후 작전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4. 목표 지역으로의 이동

「스트러블」 제독의 기함 「로체스터」호가 태풍 「케지아」 때문에 서둘러 출항하기 하루 전인 9월 10일, 한국 해군의 PC 703 함은 해주(海州) 해역에서 북괴의 기뢰(機雷) 부설 선박 1척을 격침시켰다. 해주만(灣) 입구에 기뢰가 부설되었다는 이 보고는 태풍 「케지아」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스트러블」 제독에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상 적들은 이 보다 훨씬 전인 8월 초까지 소련으로부터 원산으로 반입한 기뢰 약 4,000 개를 원산과 진남포에 부설하는 한편, 그 일부를 해주 경유, 인천·군산·목포까지 운반하고 있었으며, 소련의 기뢰 전문가들에 의해서 북괴 요원에 대한 기뢰 부설 교육과 지형 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소련의 잠수함 활동이 장차 작전에 미칠 영향과 함께 적의 기뢰 부설 가능성은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일차 고려되었으나 그것이 크게 우려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것인데, 급기야 공격부대의 많은 함정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진

중이었고 목표 지역에서의 작전이 더욱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¹³⁾

「스트러블」 제독은 미 태평양함대에 소해정(掃海艇)의 증원을 긴급 요청했으나, 그러한 지원이 급박한 작전에 때맞추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작전의 중단 또는 변경이란 고려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설사 적의 기뢰가 인천 수로에 부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래식의 기뢰라면 공격부대 예하의 소해정들로써 제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작전은 강행되었다.

9월 11일,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에서도 한·미 해군의 작전 참가 부대 사이에 작전 회의가 있었고, 이날 오후 일군(一群)을 이룬 LST 들은 부산을 출항하였다. 한·미 해병 부대의 주력을 승선시킨 APA 와 AKA 등은 9월 12일 15:00에 역시 일군을 이루어 부산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해병대의 주력을 태운 APA 「피카웨이」호에는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 대령과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도 동승하였다.¹⁴⁾

같은날 「도일」 제독의 기함 「마운트 머킨리」호는 일본 규슈(九州)의 남쪽 공해(公海) 상에서 APA 와 AKA 등 일군의 이동을 마지막 점검한 뒤, 「맥아더」 장군 일행을 태우기 위하여 사세보(佐世保)로 향진하였다. 의례적으로는 의당 제 7 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의 기함인 「로체스터」호에 탑승하여야 할 「맥아더」 장군이 「마운트 머킨리」호에 탑승하게 된 까닭은 상륙상황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측하고자 「맥아더」 장군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초에는 「마운트 머킨리」호가 공항과 항구를 경비한 후꾸오까(福岡)로 가서, 그 곳에 공로로 도착하는

「맥아더」장군을 탑승시킬 예정이었으나, 「마운트 머킨리」호가 신속히 태풍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맥아더」장군의 승선지를 사세보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9월 12일 오후 「맥아더」장군은 이다즈께(板付)까지 공로로, 거기서부터는 육로를 이용하여 사세보에 도착하였다. 사세보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였다. 극동미군 사령부와 제 10 군단의 장성들이 그를 수행하였으며, 미 태평양 함대 해병대 사령관 「세퍼드」중장도 동행하였다.

「마운트 머킨리」호는 「맥아더」장군보다 약 2시간 늦은 야음 속에 도착하여 곧 「맥아더」장군 일행을 태우고 1시간 이내에 사세보항을 빠져 나왔다. 어둠을 뚫고 격랑을 헤치며 나아가는 「마운트 머킨리」호의 항로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9월 13일 09:00, 「피카웨이」호의 사관실에서는 다시 한·미 해병 부대의 작전 회의가 개최되었다. 작전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 함상의 확대 회의에서는 작전계획과 지도(地圖)가 배부되고, 장차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토의 및 협조가 이루어졌다. 이제 보안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되었으므로, 인천 일대의 지리에 밝은 병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찾다시피 하였다.¹⁵⁾ 다행스럽게도 모든 함정들이 이미 대한 해협을 벗어난 이날 오후, 태풍 「케지아」의 위세는 훨씬 약화된 채 규슈(九州) 남동쪽을 거쳐 북동쪽으로 사라졌다.

공격부대의 돌격 함선들은 9월 14일, 한결 잠잠해진 한반도(韓半島) 남서쪽의 해상에서 하선망 훈련을 실시하였다. 통상 목표 지역으로 이동 도중에 갖게 되는 연습 단계는 시간 제약 때문에 애당초부터 고려되지도 않았던 만큼, 함상 생활 중 승조원들

과 함께 실시하는 전투 배치(GQ) 및 퇴함(退艦) 훈련을 제외하면 이 하선망 훈련이 한국 해병대가 실시한 사전 상륙 훈련으로서 유일한 것이었다.

해병으로서는, 함상 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 과정이기도 하나, 통상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상륙전(上陸戰)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화기 손질과 차량, 기타 장비의 방수(防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된다. 이동 중 한국 해병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여전히 화기의 조작 훈련 및 손질이였다. 수세식(水洗式) 변소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후 10여년 동안이나 한·미 해병의 연합 훈련 시 마다 장교들이 한결같이 겪어야만 했던 두통거리가 되었다. 대부분 처음 대하는 수세식 변소에서는 심기(心氣)가 편치 못했던지, 상당수의 병사들이 기발한 방법을 창안하여 변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장교들이 지켜 서서 단속하고 변기의 바른 사용법을 거듭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다.

5. 일련의 지원 작전들

인천 상륙작전에서 소기하는 성과를 기습의 효과로 달성하려 했던 「맥아더」 장군은 극비리에 작전의 계획 및 준비를 추진시켰으며, 심지어 그 준비 기간 중 미 합참본부에 대해서까지도 보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었다. 이 작전에 대한 한국에서의 보안이 어떠했는지는 앞서 해병대의 출동 과정이 실증적으로 보여 준 바 있으며, 당시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했던 「노블」 1등 서기관이 한 저서가 또한 그 일면을 밝혀주고 있다.¹⁶⁾ 그러나, 막상 상륙작전

의 계획 및 제반 준비가 상당 기간 진행된 일본에서는 점열 제도가 개방적이며, 심지어 가상 적국의 정보원들까지도 비교적 용이하게 암약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었던 만큼, 완벽한 보안을 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었다. 거의 보름 동안의 작전 유예 기간을 둔 9월 초, 많은 함정들이 집결하고, 미 해병사단 병력이 도착하여 재 탐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러했다. 사실상 이 무렵, 일본 도쿄(東京)의 외신 기자(外信記者) 클럽에서는 장차 작전이 「상식의 작전」(Operation Commonknowledge)이라는 별칭으로 통하고 있었다.

보안 문제의 초점은 상륙작전 그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이 상륙작전이 「언제」 「어디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기만(欺瞞)에 있었다. 적으로서도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 한 작전 가능한 모든 해안을 방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상륙작전의 커다란 의의가 내재(內在)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천은 목표로서의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며, 「맥아더」 장군이 노린 핵심 또한 거기에 있었다. 「스트러블」 재독의 항공 계획도 이 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짜여졌으며, 마지막 일격(一擊)이 어디에 가해질지를 적이 알 수 없도록, 특히 북으로는 평양(平壤)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 지역에 고루 폭격을 실시하되, 객관적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군산에 적의 관심이 쏠리도록 기만작전도 전개하였다. 인천에 대한 본격적인 함포 사격을 D-2일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한 것도, 그때에는 적이 설사 이 상륙 지역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응 조치할 시간을 놓친 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제 7 합동기동부대 산하의 항공기들은 9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대체로 인천—서울 지역에 약 40%를, 그리고 나머지로 그 북쪽과 남쪽의 목표들에 반반(半半)의 비율로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미 공군기들은 군산 일원을 강타하고 있었다. 9월 초까지도 낙동강 전선에서 미 해병여단을 지원하던 미 해병항공기들은 9월 10일 월미도에 총 43톤(95,000 파운드)의 네이팜을 퍼부어 이 섬의 남쪽과 서쪽 숲들을 거의 다 태워버렸다. 태풍 때문에 일사대파하였던 고속함모부대의 함재기들은 9월 12일과 13일, 월미도와 인천 일원에 다시 출격하였다.

이 무렵 서해안에서는 「앤드류스」경(卿) 지휘하의 수상 함정들이 9월 5일 인천에, 그리고 6일에는 군산에 포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항공작전이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안 봉쇄와 초계 활동을 펼쳤다. 9월 12일 밤에는 미 육군의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영 혼성의 기습 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였다. 상륙돌격의 일환인 것처럼 해안 정찰까지 시도한 상륙 양동이었으나 적에게 발견되자 함포와 항공기가 가세하여 적을 맹타하였다. 3명의 미군 사상자를 내고 13일 새벽, 부대는 철수하였으나 크게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¹⁷⁾

한편, 동해안 전대(東海岸戰隊)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三陟) 일대에 맹 포격을 가하였다. 15일의 포격에는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지구의 반을 돌아서 바로 전날 오후 늦게 동해상에 그 웅자를 나타내었던 전함(戰艦) 「미주리」호가 가세하여 16인치 거포(巨砲)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14일과 15일의 삼척 포격은 적을 당황케 하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 방향으로의 적 증원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 동해안의 장사동(長沙洞)이라는 곳에서 시도된 상륙 기습 역시 인천에 대한 지원작전의 성격울 띤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6. 장사동 기습작전

적의 제 1차 대 공세가 있었던 지난 8월, 낙동강 방어선의 동쪽 끝에 있는 영덕(盈德)에서 적을 막아 선전하던 육군 제 3사단은 적에게 후방을 차단 당하자 8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부득이 해상 철수를 단행하였었다. 제 3사단은 포항 남쪽에서 형산강(兄山江)을 경계로 적과 다시 대치하였고, 이때 포항 서쪽의 안강(安康) 지역에서는 수도사단에 다시 예속된 제 17연대가 분전하고 있었다. 장사동이란, 영덕에서 남쪽으로 15km, 포항에서는 북쪽으로 약 26km의 거리에 위치하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나, 제 3사단이 해상 철수를 하던, 바로 그 한(恨)이 서린 독석리(獨石里)와 인접한 해안이다.

한국 육군은 1개 대대 규모의 유격대를 해상으로부터 장사동 해안에 투입하여 이 부대로 하여금 「제 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도록」¹⁸⁾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던 미군 지휘 계통으로 극동미군 사령부를 거쳐 다시 부산에 있는 한국 해군의 수석 고문관 「루시」 중령에게 지원 지시가 내려질 만큼 일단 협조는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⁹⁾

이 작전을 위하여 이 명훈(李明勳: 후에 宗勳으로 개명) 대위가 지휘하는 독립 유격대 제 1 대대가 차출되었다. 일명(一名) 「명 부대」(明部隊)라고도 불리는 이 유격대는 8월 말 쯤 경남 밀양(密陽)에서 편성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병력은 불과 보름 동안의 훈련을 받았을 뿐인, 세칭 「학도병」이었다. 일제(日製)와 소련제 등, 이들의 휴대 무기와 복장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 부대가 출동할 때에는 유격전 전문가로 알려진 전 성호(全盛鎬) 대령이 전술 고문으로, 그리고 미군에서 파견된 「해리슨」 중위가 1명의 하사관을 대동하고 동행하였다. 20)

780여명의 출동 부대를 탑재한 해군 수송선 LST 문산호(汶山號)는 9월 14일 16:00 부산을 출항하였으며,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호의 호송을 받아 15일 05:00 쯤 장사동 해안에 도착하였다. 당시 해군에 징발되어 운영되던 해운공사(海運公社) 소속의 문산호와 「엔디코트」호 사이에 통신망이라고는 「해리슨」 중위의 소형 휴대 무전기인 워키 토키 뿐이었다. 21)

태풍 「케지아」의 마지막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고 파도는 높은데, 안개마저 자욱했던 이날 새벽 장사동의 남쪽 해안으로 접근하던 문산호는 불행히도 좌초하고 말았다. 결국 장사동에 주둔하고 있던 적의 맹렬한 사격을 받으면서 상륙을 감행한 유격대는 적 해안 상에 가까스로 반월형(半月形)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다시 공격을 계속하여 장사동 남쪽의 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상륙 중에 많은 희생을 당했던 유격대는 새로이 장악한 고지에서, 그리고 좌초된 LST에서, 여전히 적의 박격포 사격을 받아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기는 크게 저하되고 있었다.



사진 7. 좌초된 문산호.

한편, 삼척 전방 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동해안 전대 사령관 「하트먼」 소장은 「엔디코트」호가 중계하는 해안 사격 요청을 받고, 그의 기함 「헬레나」호로 뒤늦게 조난 해역에 도착하여 헬리콥터를 띄웠으나, 해안에서는 피아의 식별이 곤란하였다. 「하트먼」 소장은 두번째 비행한 헬리콥터 편에 구조되어 온 두 미군을 통해 베로소 대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과 기상상태로 보아 자체 보유 소형 주정으로나, 또는 달리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을 즉시 파견해 주도록 부산에 무전으로 요청하는 한편, 함포 사격으로 상륙 부대를 지원하였다. 통신 수단이라고는 전혀 없이, 따라서 협조도 없는 함포 지원을

받아, 유격대대장 이 명흠 대위는 다시 부대를 수습하고 작은 해안두보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 첫날의 재난에서 전 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적의 사격을 받아, 또는 심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기상 상태가 좋지를 않아 다음날에야 부산에서 보낸 해난 구조용 예인선이 조난 해역에 도착하였으나, 암초에 얹혀 선복(船腹)에 구멍이 뚫린 문산호는 빼기처럼 해안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결국 이날의 구조작업은 전적으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도 좌초된 LST의 구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하트먼」 제독은 헬리콥터편으로 유격대장을 불러 다른 구조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애로사항을 물었다. 이 대위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함포의 계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트먼」 제독은 이 대위를 격려하여 해안으로 다시 돌려 보내고 배 안에 저장 중인 휴대용 식량을 해안으로 운반해 주었으나, 탄약 지원은 유격대 휴대 무기와 구경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였다. 유격대는 한동안 크게 저장되었던 전의(戰意)를 되찾아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펴기도 했으나, 탄약이 자주 고갈되는 반면에 적들은 계속 증원되고 있어서, 다시 해안 지역으로 물러나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9월 18일 새벽,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수송선인 LST 조치원호(鳥致院號)가 조난 현장에 도착하였다. 조치원호가 조난선 북쪽으로 접근을 시도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적의 포화가 다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가 지원되어 적 진지에 로켓 및 네이팜 공격을 퍼붓고, 함포가 측방 차단 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해안 약 70m 거리까지 바짝 접근한 조치원호와 해안 사이



사진 8. 「헬레나」호에서 상황 설명하는 유격대장. 「헬레나」호의 한국 해군 연락 장교 정 익조 소령이 통역하고 있다. 「하트먼」 소장(중앙) 오른쪽은 헬레나」호 함장 「스텔터」 대령(1950. 9. 17.).

에 맨 밧줄과, 그리고 밧목을 이용하여, 유격대의 구조 작업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훈련이 부족했던 유격대원들은 파도에 겁을 먹어 밧줄만을 붙들고 주저하는 데다가, 이때금 적의 포화마져 위협적으로 날아 오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순조롭지는 못하였다. 실상 가상으로 간조가 시작되어 부득이 조치원호는 7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에 종지부를 찍고, 이날 13:33 해안을 빠져 나왔다. 결국,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00여명을 구조하였으나 129명이 전사하였으며, 조치원호가 철수할 때까지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한 39명이 해안에 남아 있었다.²²⁾

이상과 같이 장사동 기습작전은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흡사 1915년의 「갈리폴리의 재난」*이 축소, 재현된 것과도 같았다. 비극의 소지는 이 작전을 상륙작전으로서 보다는 단지 해군 수송 수단을 이용하는 지상작전(地上作戰)으로 인식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당시의 한국군 쪽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작전에 대한 통제 및 협조적 측면에서 역시 이 작전을 경시하거나 또는 협조가 미온적이었던 점을 함께 추찰(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 주일 미 해군 사령관 「조이」 중장은 당시 한국 해군의 작전권을 관장하던 UN 봉쇄 및 호송 함대 사령관† 「스미드」 소장에게 「금후 한국군의 상륙작전에 있어서는, 비록 소규모의 것일지라도, 상륙작전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시하라」²³⁾는 전문을 보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적 후방을 교란하려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사단의 진격 작전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고 치더라도, 서울을 조기에 탈환하는데 다소나마 한 몫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²⁴⁾

* 1915년, 영국군을 주축으로 한 당시의 연합군이 지중해의 다다넬즈 해협에 있는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터키를 공략한 다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배후로 진격할 목적이었으나, 연합군은 이 작전의 실패로 무려 25만에 달하는 인명 손실을 당하였다. 대체로, 적을 경시했고, 계획이 미숙하였으며, 함대와 상륙 부대 사이에 협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 한국 연안에서의 효율적인 해군작전을 위하여 1950.9.12. UN 봉쇄 및 호송 함대(TF-95)가 새로 발족되었다. 그 예하에는 TG-95.1(제1 한국 봉쇄 전대; 영국 해군 Andrewes 소장), TG-95.2(제2 한국 봉쇄 전대; 미 해군 Hartman 소장), TG-95.5(호송 전대), TG-95.6(소해 전대) 등과 함께 한국 해군도 TG-95.7로 독립 구성되었다.

7. 사전 폭격과 포격

조수와 수로 조전에 관련한 함선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인천에 대한 사전 포격에 있어서는 야간 포격이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적의 반응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하여 웬만한 희생은 각오하고 주간 포격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속항모부대가 다시 서해(西海)에 나타나 월미도와 인천에 대해서는 물론, 목표 지역 차단과 적의 지상 시설 및 병참선에 대한 폭격을 9월 12일과 13일에 걸쳐 계속하는 동안, 화력 지원 부대의 함정들은 서서히 인천 수로로 진입하였다. 이들은 9월 13일, 즉 D-2일 오전에 인천 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때마침 간조로 수면(水面) 위에 그 형체를 드러낸 4개의 기뢰를 발견하고 이를 폭파시켰다.

「맨스필드」호를 선두로 한 5척의 구축함들은 다시 만조를 따라 월미도 전방 약 800 m의 지근 거리(至近距離)까지 접근하여 지정된 위치에 투묘(投錨)하였다. 이 구축함들의 포대(砲臺)는 월미도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함수(艦首)는 모두가 바다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구축함들의 외곽 멀리 바다 쪽에는 「스트러블」 제독의 기함인 순양함 「로체스터」호와 「톨레도」호, 영국의 순양함 「자마이카」호와 「케냐」호가 들어와 배수진을 형성하였다.

9월 13일 13:00 조금 못되어 함재기들의 항공 폭격이 끝나고, 구축함들이 월미도를 향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약 30분간의 포격이 멎는 듯 하자, 잠잠하던 적이 마침내 응사를 해 왔다.

그러나 때를 같이하여 여기에 가세한 순양함들의 6인치 및 8인치 포가 적의 포화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렸다. 거의 1시간 동안에 걸쳐 약 1,000여발의 5인치 포탄을 퍼부었던 구축함들은 순양함들이 포격을 계속하는 동안에 먼저 수로를 빠져 나왔고, 순양함들은 항공 폭격이 다시 계속되는 동안에 물러났다. 이날의 포격전에서는 적의 76mm 포탄에 명중되어 3척의 구축함이 손상을 입었고, 장교 1명의 전사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간조를 따라 수로를 빠져 나오던 화력지원전대는 다시 8개의 기뢰를 발견하여 이를 폭파시켰다. 다행히도 적의 기뢰가 작전에 미친 영향은 이것이 전부였다.

다음날인 9월 14일에도 항공 및 함포 사격은 계속되었다. 전날 피해를 입은 「콜레트」호가 제외되고, 대신 「헨더슨」호가 가세하여 다시 5척이 된 구축함과 순양함들이 인천 수로로 다시 진입하였다. 월미도와 인천항에 대하여 10:50부터 시작된 약 20분간의 항공 폭격에 이어 순양함들이 포격을 개시하였다. 정오가 지난 직후에 구축함들이 지정된 위치에 전개하는 동안, 다시 항공 폭격이 가해졌고 그뒤를 이어 구축함들은 12:55부터 14:22까지 약 1,700발의 포탄을 월미도와 인천항에 퍼부었다. 구축함이 철수하는 동안에는 또다른 항공 폭격이 재개되었고, 다시 순양함들이 최후의 포격을 가한 뒤에 전 함정들은 인천 수로를 빠져 나왔다. 이날도 적 포대에서는 약간의 응사가 있었으나, 그 반응은 대단히 무디고 부정확하여 우군에게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못하였다.²⁵⁾

마침내 9월 15일의 첫 자정이 막 지나자 일군(一群)의 구축함을 선두로 선견공격전대가 인천 수로로 진입하였다. 「시어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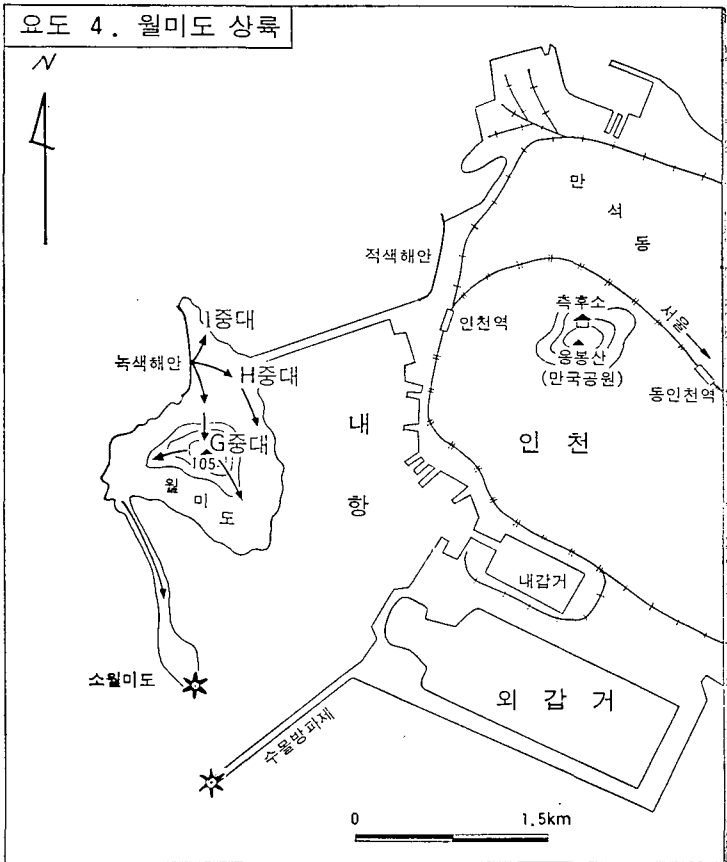
령이 지휘하는 선견공격전대는 좁고 험준한 수로를 통해서도 야간 항행이 가능한 APD 3척과 LSD 1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함선에는 월미도에 최초의 상륙 돌격을 감행할, 「태플리트」 중령 지휘 하의 미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상륙단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을 선도(先導) 또는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외에도 3척의 로켓포함(砲艦)이 함께 하고 있었으며, 「스트러블」 제독의 기함 「로체스터」호와 「맥아더」 장군이 동승하고 있는 「도일」 제독의 공격부대 기함 「마운트 머킨리」호도 이미 여기에 합류하고 있었다. 얼마 후 이들은 「클라크」 대위가 밝혀 주는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무난히 인천항에 이르렀다.

월미도를 다시 강타할 미 해병 항공기와 내륙의 정찰 및 목격을 담당할 고속함모부대의 함재기들이 어둑어둑한 새벽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인천의 적막은 깨어졌다. 모든 함정들은 지정된 위치를 찾아 전투 배치되고 있었다. L시는 06:30으로 확정되었다. 드디어 선견공격전대는 목표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월미도에 상륙을 감행하기 위한 돌격 단계로 돌입한 것이다.²⁶⁾

8. 월미도 확보

미 해병 항공기들이 멀리 사라지자, 05:45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작렬하였다.²⁷⁾ 이미 전날의 엄청난 항공 및 함포 사격을 받아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월미도가 다시 몸부림을 치며 포연에 휩싸였다. 이따금 훑날리는 연기 속에서 월미도 105고지의 정상(頂上)이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그 이지러진

요도 4. 월미도 상륙



잔해(殘骸)를 들어내 보이곤 하였다. 어느덧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의 병사들을 옮겨 태운 상륙 주정들은 주파(舟波 : Boat Wave)를 형성하여 대기 구역(待機區域 : Rendezvous Area)에서 원(圓)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06 : 15, 월미도 북쪽으로 바짝 다가 간 3척의 로켓 포함들이

포격할 차례가 되었다. 인천에서 최초의 실전(實戰)에 참가하는 이 포함(砲艦)들의 불품이야 별로 대단치도 않았으나, 그 내뿜는 위력만큼은 적 해안에 가해지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순식간에 상륙 해안과 그 후방의 구석구석에까지 1,000여발의 5인치 로켓 포탄이 퍼부어졌다.

로켓 포함이 월미도의 녹색 해안을 강타하는 동안, LCVP 7척으로 구성된 제 1파가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다. L-2분 모든 포격은 일시에 중지되고, 주정로(舟艇路; Boat Lane)를 따라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돌격파(突擊波)들 머리 위로 미 해병 항공기들이 날아가, 거의 다가 간 제 1파의 바로 전방 해안에 폭탄과 기총 사격을 쏘았다. G중대와 H중대의 소대들이 탑승한 제 1파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적 해안에 예정보다 3분이 늦은 06:33에 상륙하였다.* 2분 뒤, 제 2파가 접안할 때는 수중 파괴반(UDT) 요원들이 해안 상의 부유물(浮遊物)들을 미처 치우지 못한 터에 상륙 주정들이 한 곳으로 몰렸기 때문에, 한때 해안에 혼잡이 일기도 하였다.

제 1파로 상륙한 G중대의 제 3소대가 신속히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진하는 동안, 중대장 「보운」 중위는 제 2파로 도착한 잔여 중대를 이끌고 뒤를 따랐다. 최초 목표인 105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한 G중대는 전진 중 약간의 저항을 받았다. 「와일드먼」 대위가 지휘하는 좌전방의 H중대는 그 주력이 제 1파로

* 미 지상군 편성에서의 중대 호칭에는 알파벳이 사용되는데, 미 육군과 해병대의 보병 대대별 중대 호칭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육군—제 1대대: A, B, C, 및 D(화기)중대. 제 2대대: E, F, G, 및 H(화기)중대. 제 3대대: I, J, K, 및 L(화기)중대.

해병—제 1대대: A, B, C, 및 화기중대. 제 2대대: D, E, F, 및 화기중대. 제 3대대: G, H, I, 및 화기중대.

상륙하여 신속히 재 편성한 뒤 곧바로 전방을 향하여 진출하였다. 이 중대는 별다른 저항없이, 인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방파제의 출구에 도달하여 그 일대를 점령 차단하였다.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공병들이 방파제의 통로 상에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였다. 한편, 이 무렵 중대의 주력은 공격 방향을 우측으로 돌려 인천 내항 쪽의 해안을 따라 건물 지대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2개 돌격 중대가 그들의 목표를 공격하는 동안, 전차대대 A중대 파전대로 구성된 제 3과가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6대의 M26 「퍼싱」 전차, 2대의 도자 전차, 그리고 화염 방사기 전차와 구조(救助) 전차 각 1대 등 1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막으로 예비대인 I중대가 이들의 뒤를 이어 상륙하였다. 06:50 예비대에 앞서 상륙한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약 5분 뒤에 G중대의 선두인 제 3소대가 105 고지 정상에 도달하였다는 무전 보고를 받았다.

부산에서 증편되어 이날 예비대로 상륙한 I중대는 H중대 좌측으로 진출하여 월미도의 북단(北端)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앞서 전진한 H중대가 소탕한 것으로 속단했던 곳에서 I중대는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약 1개 소대로 추산되는 적이 산재한 참호 속에서 저항했다. 적을 향해 한국말로 세번만 투항 권고를 하라는 중대장 「맥멀린」 대위의 지시를 받은 I중대 통역관²⁸⁾은 세번으로 멈추지 않고 더 많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오히려 적들은 그때마다 수류탄으로 응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들에게는 부득이 전차가 대응하였다. M26 전차와 보병의 엄호를 받으며, 도자 전차가 적의 참호를 밀어 붙이기도 하

고, 또는 포차(砲車)와 더불어 화염 방사기 전차가 참호 안에 포탄과 화염을 퍼붓기도 하였다. 그제서야 혼비 백산한 적들은 흡사 유령과도 같은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손을 들고 나왔다. 섬 안의 동굴화된 다른 진지에서도 극히 냉혈적인 일부 적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살아 남은 대부분의 다른 적들은 이미 사기를 잃고 스스로의 운명을 헤아린듯 살길을 찾아 투항하였다. 그리고 105고지를 공격하던 G중대와 인천 내항 쪽에 면한 건물 지대를 소탕하던 H중대도 약간의 저항에 부딪치기는 했으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의 중간 보고는 수시로 「마운트 머킨리」호에 전달되었다.

『포로 45명. 적의 저항은 경미함.』

상륙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07:45에 있는 대대장의 보고였다. 잠시 뒤에는 보다 결정적인 상황 보고가 뒤를 이었다.

『08:00 현재 월미도 확보.』

미 해병사단장 「스미드」 소장은 새벽 05:30 부터 함교(艦橋)에 올라와 있었고, 요란한 포성에 잠을 깨 「맥아더」 장군도 상륙야 개시될 무렵에는 이미 함교에 자리잡고 있었다. 기라성(綺羅星) 같은 장군들과 전 세계의 우수한 신문 및 통신 특파원들이 월미도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제 1파의 돌격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무거운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이따금 함내(艦內) 스피커가 작전 진행 상황을 알려 주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시종 돌격 상황을 지켜보면 「맥아더」 장군이 기다리던 월미도 확보 소식을 듣고 나서 우선 피해 상황을 궁금해 하자, 누군가가 지레 짐작으로 전사자

5—6명 정도에 부상자 15—20명 정도가 고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의 실제 피해는 그보다 더 적은 것이었으며, 특히 전사자는 1명도 없었다.

얼굴에 활짝 함박웃음을 띤 「맥아더」 장군은 주위를 둘러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됐습니다. 자, 이제 커피나 한잔 드시다.』

얼마 뒤에는 월미도 상륙의 성공을 축하하는 「맥아더」 장군의 찬사가 「도일」 제독을 통하여 「스트러블」 제독에게 전달되었다.

해군과 해병이 오늘 아침처럼 찬란하게 빛난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맥아더」

한편, 월미도의 정상 105 고지 일대를 장악한 G중대와 인천 내항 쪽의 저 지대를 소탕하던 H중대가 연결을 이루고, I중대가 섬 북쪽 끝까지 진출하게 되자,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각 중대로 하여금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방어 태세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소탕작전을 계속케 하였다. 대대 관측소가 설치된 105 고지 주변에는 많은 동굴과 교통호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특히 그 서쪽 경사면에는 포격을 받아 많이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포 진지가 많았고 무수한 대인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소월미도에 대한 공격 준비는 10:00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월미도 남쪽으로 약 1km가 조금 못되는 방파제로 이어진 소월미도에는 대공포와 자동 화기로 장비된 약 1개 소대의 적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중대 제3소대장 「카운슬먼」 소위가 이끄는 1개 분대에 3대의 전차, 경기관총, 그리고 공병 등으로 증강된 공격 부대가 방파제를 따라 전진을 개시하였다. 죽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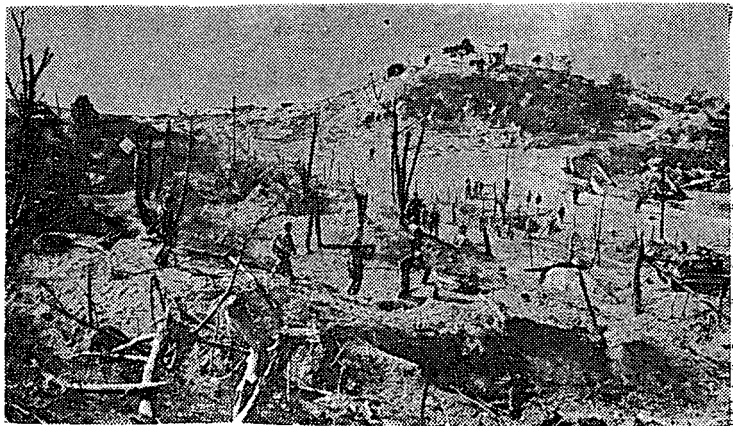


사진 9. 설미도의 잔해(殘骸).

면 투항의 길 밖에 달리 퇴로조차 없었던 적들은 사격으로 대항하여 왔다. 105 고지에서 관측하고 있던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즉각 항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미 제 214 해병전투기대대의 「코르세어」 8대가 곧 날아 와 베이팜과 20 mm 기총 사격으로 응수하는 동안, 공병들이 지뢰를 제거하며 전진하였다. 항공 공격을 견디어 내지 못한 적의 일부는 바다 속으로 뛰어 들고 있었다. 공격 부대의 마지막 전진 시에는 105 고지에서 대대 81 mm 박격포가 지원하였다. 마침내 전차포와 기관총의 엄호하에 돌진한 보병은 적의 마지막 저항을 제압하였다. 헤엄쳐 달아나던 적들도 보병의 조준 사격을 받았다. 소월미도는 11:15에 확보되었다. 공격 부대는 3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으나, 적 17명을 사살했으며 포로가 19명에 달하였다. 끝내 살아 도망한 적의 수는 8명이었다.

정오 쯤에는 섬 전반에 걸친 소탕작전전을 완료하였다. 미 해

병의 총 피해는 부상자 17명이었다. 반면에 대대는 적 사살 108명을 확인하였으며, 포로도 136명을 헤아렸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월미도와 소월미도에는 적 제 918해안포연대 제 2대대와 2개 포대 지원을 받는 북괴군 육전대(陸戰隊) 소속 제 226연대와 예하 부대 약 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 적어도 150명 이상이 도자 전차가 밀어 붙인 참호 안에서 사살되었거나 생매장되었을 것이다.

소탕작전이 끝나자 월미도에는 한동안 적막이 감돌았다. 더구나 13:00의 썰물을 전후하여 한동안은 황량한 갯벌 위에 얹힌 월미도의 을씨년스러운 물결이 더 한층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월미도의 못 시선들은 인천 내륙 쪽을 노리고 있었으며, 특히 인천 측후소(測候所)가 자리잡고 있는 대안(對岸)의 내륙 고지를 부단히 살피고 있던 대대 관측소의 요청에 따라 지원되는 함포 사격이 이따금 적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한편, 목표 지역 외곽에서는 함재기들의 공중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포연이 피어 오르는 인천 하늘에 비를 실은 먹구름까지 물려 오고 있을 즈음, 조수의 방향이 바뀐 밀물을 따라 인천 수로에는 공격부대의 돌격 함선들이 서서히 다가 오고 있었다.

제 5 장

돌격 단계

부산 출항 이후 「피카웨이」(APA-222)에서 세번째 밤을 보낸 해병들은 3일이 채 못되는 동안의 함상 생활이 마치 열흘, 또는 보름 쯤이나 된 것처럼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함내 또는 갑판(甲板) 위를 무단 배회하지 말라는 주의와 약간은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제한 구역이 많기도 했지만, 모처럼의 호기심으로 함내를 기웃거리다가는 미로(迷路)처럼 복잡한 통로에서 상·하 갑판의 분별 능력이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애를 먹기 일쑤여서 대부분의 해병들은 식당과 변소를 왕래하는 일 말고는 아예 침실에 서만 죽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약삭빠른 해병들이 간간히 주 갑판(主甲板)에 오르내리는 경우는 있었다.

월미도 상륙이 바쁘게 준비되고 있을 무렵인 9월 15일 새벽, 선견 전대를 제외한 공격 함대의 함선들은 대부분 인천 수로 입구의 해역에 집결하고 있었다. 새벽잠을 깨자 주 갑판에 올라 온 몇몇 부지런한 해병들은 먼저 주변 해상에 별처럼 많이 떠 있는 함선들을 보고 놀랐으며, 다음에는 멀리 은은하기는 해도 빈번하게 들리는 포성과 항공기의 소음(騒音)에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졌다.

『상륙작전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 나온 이 한 마디는 삼시간에 해병들의

침실로 전파되었다. 마침내 해병들이 슬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때 마침 함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목소리가 일시에 해병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천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오늘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이 작전야야말로 불법 남침한 북괴군을 분쇄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구하여 정의와 자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엄숙하면서도 약간은 격앙된 손 원일 제독의 목소리였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지닐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손 제독의 훈시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해병들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손 제독의 훈시에 이어 다시금 전 장병의 새로운 각오와 용전 분투를 촉구하는 사령관 신 현준 대령의 훈시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덧 해병들의 가슴 속에도 무언의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작전 준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훈련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출동한 해병들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상륙작전의 의미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들은 말없이 상륙 준비를 서둘렀다. 이리하여, 훈련과 준비는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상륙에 앞서 정신 무장을 새로이 가다듬는 계기는 마련되었던 것이다.¹⁾

1. 상륙군 상륙

한동안 월미도와 인천 주변에 흉물스러운 갯벌이 드러나게 하던 썰물 때가 지나고 밀물 때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돌격 함선들

은 목표 지역으로 진입하였다. LST와 기타 수송 함정들이 다시 물 위에 뜨고, LCVP는 돌격 함선들을 찾아 움직였으며, 화력 지원함들도 전투 배치를 완료하였다. 17:30으로 확정된 H시가 전 함대에 전달되자, 화력 지원함들은 14:30을 기하여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상륙군 상륙!』

9월 15일 14:45에 내려진 공격부대 사령관 「도일」 소장의 엄숙한 명령이었다. 이 명령은 「상륙」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직설적인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상륙군 상륙」이란, 곧 함안 이동(艦岸移動) 개시의 신호인 동시에, 상륙군으로 하여금 그들이 타고 있던 돌격 함선에서 떠나라는 명령이다. 상륙군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사위는 드디어 던져진 것이다.

미 제 5해병연대 예하의 2개 대대는 APA 「헨리코」와 「캐벌리어」호에서 하선만을 타고 내려와 LCVP로 옮겨 탔다. 미 제 5해병연대의 예비대가 될 한국 해병 제 3대대도 대기하고 있던 「피카웨이」호에서 LCVP로 전재(轉載)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간에, 많은 LST들 속에서는 미 제 1해병연대의 돌격 대대를 태운 LVT와 월미도에 행진 상륙을 하게 될 2개 대대의 포병을 실은 DUKW(수륙 양용 트럭)들이 쏟아져 나왔다. 삼시간에 500을 넘는 상륙 주정과 수륙 양용 차량들이 넓은 수송 함정 구역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이들 상륙 주정과 수륙 양용 차량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약 200척의 LCVP를 비롯하여 LCM(중형 상륙정)

* Dual Utility Cargo Waterborne의 약자에서 전화(轉化)된 것이며, 「더크」로 읽는다. DUKW가 물 위로 항진하는 모습은 물오리(duck)와 흡사하다. 이에 연유하여 duck는 DUKW의 속어로도 쓰인다. 한국 해병대가 DUKW를 장비하던 시기에는 주로 「따쿠·차」라는 속어로 호칭되기도 했다.

70 척, LSU(대형 상륙정) 12 척, LVT(A) 18 대, LVT 164 대, 그리고 DUKW 가 85 대에 달하였다.²⁾

함포와 더불어 잘 짜여진 사전 계획에 따라, 미 해군·해병의 항공기들이 500파운드 및 1,000파운드 중량의 폭탄과, 로켓탄, 그리고 기총 사격으로 해안을 강타하였다.³⁾ 한편, 고속함모부대가 공중에 계속적으로 띄운 12 대의 다른 항공기들은 반경 약 40km(25 마일) 이내의 모든 적 활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중심(縱深) 깊은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상륙의 순간이 눈 앞에 다가 온 것처럼, 어떤 긴장과 불안에 싸여 모함을 떠났던 상륙 부대의 병사들은 대기 구역에서 원 운동을 하는 LCVP 또는 LVT 에 몸을 내맡긴 채, 파도와 초조 또는 무료함과 싸우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덮개탈 것도 없는, 네모의 상자와도 같은 LCVP 에 탑승한 병사들은 그런대로 눈 앞에 전개되는 주변 해상 및 해안의 정경에 정신을 쏟을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한 편에 속하지만, 사방 팔방이 밀폐된 LVT 안의 병사들은 더 심한 멀미와 신경을 자극하는 기계 소리에 지쳐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허탈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답답한 시간을 태연하게 카드 놀이로 버티는 병사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른 바 관복으로 통하는 고참병들이다.

마침내 상륙 주정과 수륙 양용 차량들이 공격 개시선(LD)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지형 지물이 있을 수 없는 해상에서의 공격 개시선은 통제함에 의해서 식별하게 되는데, 적색 해안의 공격 개시선은 해안으로부터 약 2km(2,200 야드)의 거리에, 그리고 청색 해안에는 약 5 km(5,500 야드)의 거리에 설정되어 있었다. LD로부터 해안에 이르는 이 해상에 규정된 무형(無形)의 길을 주

정로라고 하는데, LCVP 에 비하여 속도가 느린 LVT 가 운행되는 청색 해안의 주정로가 적색 해안의 그것보다 긴 까닭은 이미 1950 년 당시의 인천을 살필 때 설명된 바 있으나, 각 해안에 간조 때 드러나는 갯벌의 길이를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16 : 45, 미 제 1 해병연대의 제 1 파로 구성된 18 대의 LVT(A) 가 청색 해안을 향하여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포격은 그 양과 빈도에 있어서 더욱 증가되어 갔다. 17 : 05, 로켓포함 3 척이 각각 지정된 해안으로 다가 왔으며, 이들은 순양함과 구축함들의 포격이 멎자, 각각 1 분당 100 여발의 로켓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약 20 분간에 걸쳐 6,000 여발의 로켓탄이 공중에 궁형(弓形)의 탄도(彈道)를 그리며 해안 지역으로 날아가 인천을 크게 진동시켰다.

H-8 분, 미 제 5 해병연대의 제 1 파는 적색 해안의 LD 를 통과하여 전 속력으로 해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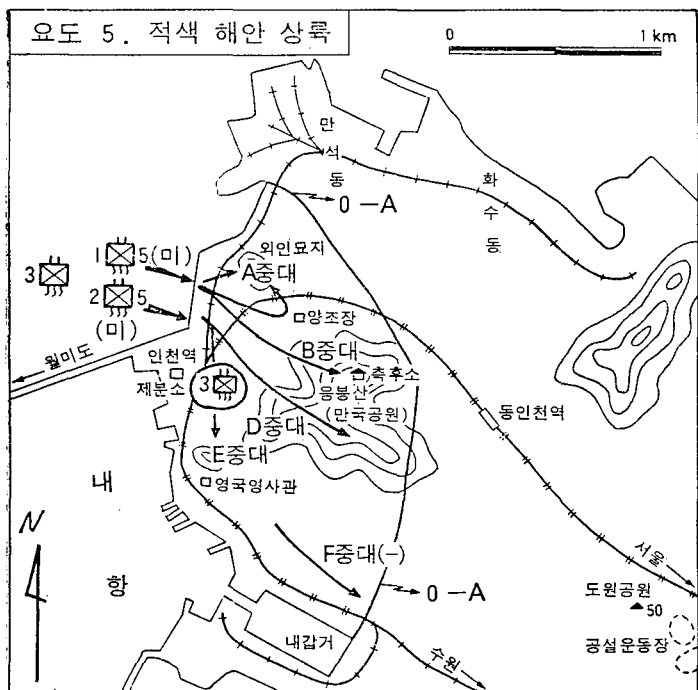
『자물쇠를 잠그고 실탄 장전(裝填)! 자세 낮춰!』

해안에 가까이 다다를 때, 소대장 또는 경험 많은 하사관들로 임명된 주정조장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고, 병사들은 각자의 소총에 실탄을 끼우면서, 더러는 사선(射線)에 서서 표적을 노리던 순간의 긴장을 느끼기도 한다. 인천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어느 사이엔지 비를 뿌리고 있었으며, 해안 일대에서 솟아 오르는 검은 연기와 어울려 연막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H-5 분, 로켓포함의 사격이 멎자, 어느덧 적 해안에 성큼 다가 선 돌격파들의 머리 위로는 항공기들이 날아 가면서 해안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였다.

2. 적색 해안 상륙

한국 해병 제3대대를 예비대로 배속받은 미 제5해병연대의 임무는 2개 돌격 대대로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O-A 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약 3km의 길이를 갖는 O-A 선은 적색 해안의 현저한 지형 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응봉산을 중심으로, 그 북쪽의 공동 묘지는 물론, 남쪽의 내항까지를 모두 에워 싸는 궁형(弓形)의 통제선이었다. 상륙 시 이용 가능한 해안의 폭이 좁아, 2개의 돌격 대대는 각각 중대 중대로 상륙하면, 좌측의 제1대대가 공동 묘지와 응봉산의 북반부를, 그리고 우측의 제2대대가 응봉산의 남반부와 항만 일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차후 작전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항만 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미 제5해병연대는 인구 25만의 대 도시 심장부에 직접 상륙하는 모험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었다.

LCVP 8척으로 구성된 제1파 가운데에서는 제2대대 E중대의 일부 병력이 타고 있는 오른쪽의 4척이 H시보다 1분 늦은 17:31에 먼저 접안하였다. 밀물은 점점 불어가고 있었으나, 아직도 안벽은 LCVP의 램프 위로 1m 이상이나 솟아 있었다. 미 해병들은 안벽 너머로 수류탄을 던지는 한편, 재빨리 사다리를 걸치고 기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주정이 안벽에 부딪칠 때마다 사다리는 미끄러져 내렸지만, 그런대로 제 구실을 해 주었다. 해안에 올라선 「렙틀라」 소위의 제1소대는 제2파와 제3파로 뒤따라 오는 중대의 상륙을 엄호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륙으로 전진하



였다. 간간이 적의 총격을 받았으나, 소대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제 1대대 A중대의 2개 돌격 소대를 태운, 제 1파의 나머지 LCPV 중에서는 해안에 못미쳐서 기관(機關) 고장으로 뒤흔쳐진 제 1번 주정을 제외한 3척만이 H시보다 3분 늦은 17:33에 공동묘지 앞쪽으로 접안하였다. 결국 제 1소대는, 소대장 「맥밀린」 중사를 포함한 소대 병력의 반이 탑승한 제 1번 주정이 뒤흔쳐, 나머지 반만이 제 2번 주정으로 북쪽 맨 끝에 접안하자 사다리를 타고 안벽 위로 오르기 시작하였으나, 북쪽 측방과 전방의 참호에서 날아 오는 자동 화기 및 소 화기 사격을 심하게 받았다. 순

식간에 대원 수 명이 쓰러졌으며, 소대 향도의 지휘를 받고 있던 이 소대는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가 없었다. 불과 200m 거리의 전방에 있는, 40m 정도의 야산인 공동 묘지가 이들의 최초 목표였으나, 그 사이에는 철로와 군데군데 교통호가 가로 놓여 있을 뿐, 적의 사격을 피할만한 지형 지물이 전혀 없었다.

다른 2척의 주정에 탑승한 제 2 소대는 다행히 함포 사격으로 허물어진 안벽 사이를 통해 전방으로 나아갔다. 때마침 항공기가 50m 전방에 기총 사격을 가하면서 지나 갔고, 잠시나마 적의 사격은 뜸한 것 같았다. 소대는 바로 전방에 가로 놓여 있는 교통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2명의 대원이 교통호로 이어지는 한 엄체호에 접근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자, 피로 범벅이 된 적병 6명이 손을 들고 나왔다. 이들을 감시하도록 1명을 남겨둔 소대는 공동 묘지를 왼쪽으로 끼고 전진하여 내륙쪽에 있는 한 양조장에 도달하자, 소대장 「뮤첵」 소위가 중대장 「스티븐즈」대위에게 무전으로 소대의 진출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 1 소대가 반수의 병력으로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 제 3 소대가 제 2 파로 도착하였으며, 곧 제 1 소대의 나머지 병력도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 A 중대의 좌측 지대는 적의 사격에 버틸만한 지형이 제한되어 있어서 갑자기 해안이 불비게 되고, 사상자 또한 늘어나기만 했다. 이 곤경을 벗어나려면, 부대가 신속히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했다. 소대를 이끌고 조금씩 전진하던 제 3 소대장 「로페즈」 중위는 가까운 적의 엄체호를 향해 수류탄을 힘껏 던졌다. 또하나의 수류탄을 쥐고 안전핀을 뽑아 다른 엄체호를 향해 던지려던 순간, 오른쪽 팔과 어깨에 적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로페즈」 중위는 수

류탄을 놓쳤다. 그는 순간적으로 주위에 가까이 있는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수류탄!」이라고 외쳤으나, 공교롭게도 이때, 총성이 더 요란했던 탓으로,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적 쪽으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그의 외침은 전혀 경고(警告)가 되지를 못하였다. 그는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고자 했으나, 상처의 아픔 때문에 손을 놀릴 수가 없었다. 다시 소리치거나 주저할 여유는 없었다. 「로페즈」 중위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던졌다. 소대장의 장렬한 죽음으로 그 주변의 병사들은 생명을 전질 수 있었다.

A 중대장 「스티븐즈」 대위는 부중대장 「유뱅크스」 중위를 보내어 제 3 소대를 지휘케 하는 한편, 이미 내륙으로 진출한 제 2 소대를 공동 묘지 쪽으로 진향시켰다. 중대장으로서의 대대의 후속 상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묘지의 고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공동 묘지 남쪽에서 그 정상에 이르는 공격로를 발견한 제 2 소대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점령하고, 이어서 그 후사면에 있는 적의 박격포 진지를 덮치자, 얼빠진 적 10여명은 맥없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때, 해안 쪽에서는 제 1 및 제 3 소대가 격렬한 수류탄 투척전 끝에 화염방사기로 적을 제압하고, 전진을 계속하여 제 2 소대와 접촉을 유지하게 되었다. 17:55, 마침내 A 중대는 목표 점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약 30 분간의 전투에서 전사자 8명, 전상자 28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우전방의 제 2 대대에서는 H+10 분에 상륙한 E 중대장 「재스킬카」 대위가 지금의 대한 제분(大韓製粉) 근처에서 잔여 중대를 재 편성하여 내륙으로 전진하였다. 앞서 진출하였던 제 1 소대는 이렇다 할만한 적의 저항도 받지 않고 철로를 따라 남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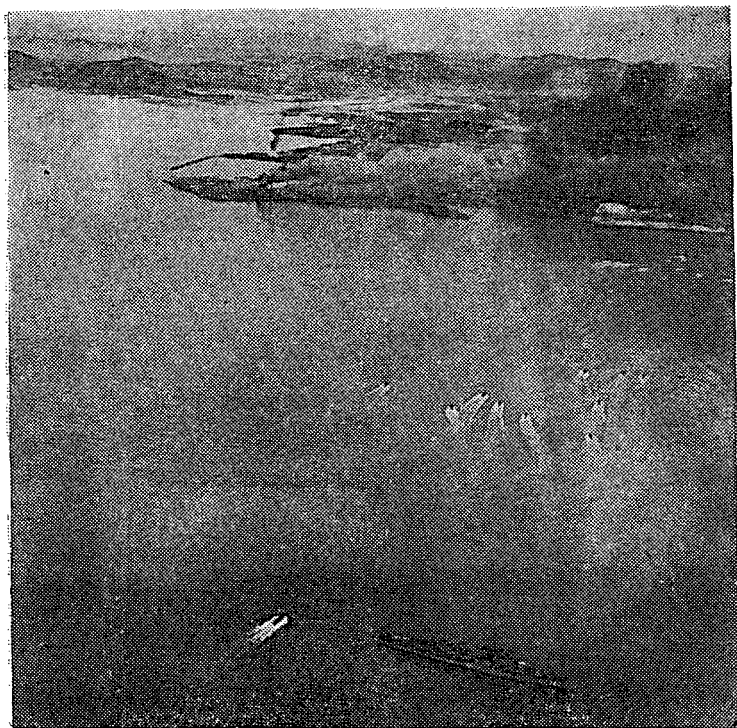


사진 10. 적색 해안의 돌격파.

로 계속 전진한 끝에 18:45에는 내항 부두 가에 불록하게 솟아 있는 작은 독립 고지를 점령하였다. 언덕 위에 영국 영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이 고지는 연대에서 지정한 목표 C였다. 이 무렵, E중대의 또다른 1개 소대는 철로를 건너 응봉산 하단부의 주택가를 소탕하였다. 이로써 적색 해안에는 20개가 넘는 후속파와 LST가 상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보장된 셈이었으나, 그 감제 고지인 응봉산의 봉우리들은 아직도 적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연대의 기동 계획에 의하면,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응봉산은 측후소가 자리 잡고 있는 북동쪽의 봉우리와, 실질적인 공원(公園) 터이기도 한 남서쪽의 봉우리가 목표 A와 B로 분할되어, 제 1대대와 제 2대대가 각각 맡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목표 A를 공격할 제 1대대 C중대와 목표 B를 담당하는 제 2대대 D중대는 18:00 가까이 되어 제 4파와 제 5파로 병행 상륙을 하였다. 그런데, 제 4파는 공격 개시선을 출발할 때, 파 구성이 잘못 되어 C중대와 D중대의 상륙 대형이 서로 바뀌었다. 게다가 제 5파의 C중대장 「페더슨」 중위가 탑승했던 주정은 앞에서 차진 LCVP를 끌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상륙이 더욱 늦어졌다.

상륙 후 부대를 먼저 수습한 「매그니스」 소위의 제 2소대가 A목표로 출발한 데 이어, 「메리트」 소위의 60mm 박격포반이 그 뒤를 바짝 따라 나섰지만, C중대의 나머지 병력은 후속파의 다른 부대들과도 뒤섞여 수습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이러한 실수는 연습 단계를 가졌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낱 시간 지연 정도로 간과해 버리기 쉬우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늦어진만큼의 시간이 항공 및 함포 사격 하에 넋을 잃고 있던 고지 위의 적들에게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이 무렵의 해안 상황을 잠시 살펴 보면, 공동 묘지 일대를 이미 확보한 제 1대대에서는 C중대의 빠른 수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본 대대장 「뉴튼」 중령이 대대 예비인 B중대로 하여금 C중대 대신 목표 A를 공격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으나, C중대의 제 2소대는 이미 A목표의 하단부까지 진출해 있었다. 제 2대대 지역에서는 E중대에 의하여 응봉산 하단부와 부두 일대가 거의

확보되어 가자 대대장 「로이즈」 중령은 D중대의 B목표 공격 준비를 독촉하고 있었으며, 18:30 쯤에 상륙한 대대 화기 중대와 본부 및 근무중대는 바로 뒤따라 상륙하게 될 한국 해병 제3대대에게 해안 지역을 비워주기 위하여 서둘러 내륙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느릿하게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던 큰 몸집의 LST들은, 적어도 목표 A 및 B에 대한 공격이 늦어진만큼의 시간에 다시 숨을 돌리고, 잃었던 뱃을 되찾은 응봉산 정상 of 적들에게 좋은 사격 목표가 되게 마련이었다.

18:30, LD를 통과한 미 해군의 LST 859호는 18:35 쯤 적의 자동 화기와 박격포 사격을 받았으며, 약 5분 간격으로 중대대형을 이루어 그뒤를 따르던 LST 975호와 857호도 적의 사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태세 하에 있던 이들 LST의 40mm 및 120mm 기관포(機關砲)가 각기 사격을 받을 때마다 즉각 응사하였다. 그러나 임기 응변의 이러한 사격은 통상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LST들의 응사는 산만하게 공동 묘지, 응봉산, 그리고 우측 제2대대 지역의 크고 높은 건물들 쪽으로 지향되었다. 다행히도 해안 상의 많은 우군 부대들이 사각(死角) 또는 지상의 차폐물들 덕분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으나, 때마침 내륙 쪽으로 진출하고 있던 제2대대의 화기중대와 본부 및 근무중대에서는 1명의 사망자와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네번째의 LST 914호는 적의 자동 화기 사격을 받아 탄약고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진화(鎮火) 작업으로 화를 면하였으며, LST 857호에서도 휘발유 드럼통 8개에 구멍이 뚫렸지만 다행히 화재는 모면하였다. 뒤늦게나마 이 돌발적인 상

황의 원인을 알게 된 육상 및 해상 부대 간에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모든 포화도 멎었다. 마침내 8척의 LST 들은 만조의 절정인 19:00 전후하여 해안에 나란히 계류(繫留)를 끝내고 양륙을 위한 철야 작업에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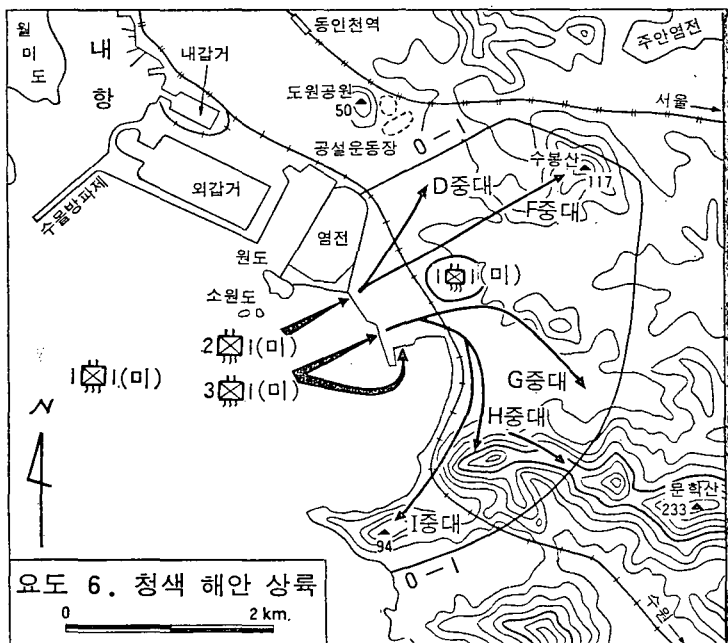
LST의 사격이 막 멎은 18:45 쯤, C중대의 제 2소대는 박격포반과 더불어 목표 A와 B의 정상을 잇는 길목에 도달하여 하나 뿐이었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공교롭게도 불발되었으며, 중대와의 통신도 두절되어 목표 점령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둠에 싸여가는 A목표의 공격에 나섰던 B중대는 이때금 적의 저항을 받아 6명의 부상자를 낸 끝에 20:00 쯤 목표 A의 정상을 점령하였다. 마침내 이 중대는 그 우측의 C중대 제 2소대와 연결을 이루었으며, 제 1대대는 22:40까지 책임 지역 내의 O-A 선을 확보하였다.

한편, 제 1대대 지역에 잘못 상륙하여 그만큼 늦게서야 B목표의 공격에 나섰던 제 2대대 D중대는 목표를 확보하기까지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하였다. 뒤이어 F중대의 1개 소대가 올라와 좌측 제 1대대와의 사이를 메워 양 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였다. 이 대대의 우측방으로는 F중대에서 내보낸 소규모의 정찰대가 약 1km 전방까지 진출하였으며, 23:00 쯤 아무런 접착 없이 돌아왔다. 정찰 결과를 보고 받은 제 2대대장은 내갑거(內關渠) 일대에 병력 배치의 필요성을 느껴, 이미 목표 B에 배치된 1개 소대를 제외한 F중대에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D일의 자정이 막 지날 무렵, 이 부대의 이동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제 5해병연대의 O-A 선 확보는 일단 전술적으로 마무리되었다.

3. 청색 해안 상륙

미 제 1 해병연대가 상륙할 청색 해안은 내륙에서 흘러 내려 오는 작은 개천에 의해서 400m 미만의 비슷한 폭을 갖는 2개의 해안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 개천의 북쪽 해안을 청색 1호, 그리고 남쪽을 청색 2호 해안으로 부르게 되었다. 나지막한 구릉(丘陵)이 가로 놓인 청색 1호 해안에는, 조수에 침식된 구릉이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LVT의 접안에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접안한 LVT들이 구릉을 넘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가 있을지는 의문시되었다. 그리고 청색 2호 해안은 적색 해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안벽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그 폭의 반 정도는 남쪽의 오목 해안을 가로 막는 방파제로서 바다 쪽에 길게 뻗어 있었다. 결국, 이 두 해안에, LVT가 수륙 양용의 그 특성을 살려 병력을 태운 채 어느만큼 내륙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해안 출구가 불비한 상태라면, 두 해안의 가운데에 나 있는 개천이 유일하게 LVT의 내륙 진출 통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당시 미 제 1 해병연대 참모들의 이용 가능한 첩보 자료에서 이 개천의 상태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 곁들여 청색 2호 해안 남쪽의 오목 해안을 잠시 살펴 보면, 이 해안은 만조 때에도 그 수심이 3m(10피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전혀 상륙 해안으로서 고려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돌격 단계 중 청색 1호 및 2호 해안을 통한 LVT의 내륙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른 출구를 찾던 중



에 청색 2호 해안의 돌출 방파제를 우측으로 돌아서 그 뒤쪽에, 돌출 방파제와 직각을 이룬 해안선에 LVT의 상륙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고, 이 해안을 사실상 청색 3호 해안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미 제1해병연대의 기동 계획에 의하면, 각각 2개 돌격 중대를 앞에 내세운 2개 돌격 대대가 청색 1호 및 2호 해안에 병행 상륙하여, 좌측의 제2대대가 해안으로부터 1km 쯤 북동쪽으로, 교통의 요지에 선정된 목표 A와, 내륙 쪽의 목표 D인 수봉산(壽鳳山; 117 고지)을 확보하는 동안, 우측의 제3대대는 상륙 후의 공격 방향을 우측으로 돌려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진출하

면서 상륙 해안의 감제 고지들인 목표 C와 B를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 제 1해병연대의 임무는, 약 6.5km의 길이를 가지고 비스듬히 기운 타원형처럼 상륙 해안 주변에 설정된 O-1선을 확보함으로써, 내륙으로부터의 인천 접근로들을 장악하는 한편, 차후 공격작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 2대대의 선두에 선 9대의 LVT(A)는 17:30, 계획대로 청색 1호 해안에 도착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이 LVT들은 내륙으로의 출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북쪽 염전(鹽田)과의 경계 지대로 물렸으나, 공교롭게도 함포·항공 사격으로 흠더미가 무너져 내려, 그곳을 통해서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는 없었다. H+1분, 제 2파의 LVT 11척도 대부분 예정대로 해안에 도착하였으나, 해안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제 1파의 LVT들 때문에 진로가 막혀 머뭇거리는 동안, 더러는 물이 얇은 갯벌에 주저앉고 말았다. LVT에서 내린 D 및 F중대는 물에 잠긴 갯벌을 건너 신속히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H+4분, 제 3파로 도착한 D 및 F중대의 잔여 병력들도 곧 뒤따라 상륙하였다. 청색 1호 해안은 삼시간에 약 30대의 LVT와 600명의 병력으로 붐비게 되자, 제 2대대장 「서터」 중령은 그의 지휘용 LVT인 독립 트랙터*를 해안 좌측의 염전 제방에 대도록 하였다. 해안이 붐비기 때문에 그는 후속파를 염전 제방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었으나, 이 대대의 나머지 3개 후속파는 아직도 멀리 뒤처져 있었다.

* 함안 이동 시 계획되는 주파(舟波)에 포함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륙할 수 있는 주정 또는 LVT를 가리켜 독립 주정(Free Boat) 또는 독립 트랙터(Free Tractor)라고 하며, 대대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그의 참모 및 부지휘관들이 운용한다.

D 및 F중대가 재 편성을 마치자 제 2대대장 「서터」 중령은 공격을 강행시켰다. 1시간 뒤면 다가 올 어둠 때문에, 그는 예비대의 후속 상황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D중대는 약 1km 내륙의 좌측에 있는 교차로 일대의 목표 A를 어둡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으나, F중대는 도상 거리로도 2.6km에 달하는 북동쪽 내륙의 목표 D를 22:00 쯤에야 확보하였다. 수봉산의 점령은 곧, 그 북쪽 발치에 가로 놓여 있는 경인 국도(京仁國道)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적의 인천 탈출 및 접근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발적으로 적의 저항을 받았던 제 2대대의 이날 손실은 전사 1명, 부상이 19명이었으며, 전과는 확인 및 추정을 합한 적 사살 약 50명, 포로가 15명에 달하였다.

제 3대대를 선도한 LVT(A) 9대는 H시가 조금 지나서 청색 2호 해안에 도착했는데, 안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리는 동안, 방파제 뒤로부터 소규모 적의 소 화기 사격이 있었다. 뒤로 약간 물러난 LVT(A)들이 적을 향해 응사하는 동안, 제 2파가 도착하였다. G중대를 태운 좌측의 LVT들은 중대를 이루어 개천으로 진입하였으나, 선도차가 진흙 바닥에 빠져 기동할 수 없게 되자, G중대장 「웨스트오버」 대위는 재빨리 부대를 하차(下車)시켜 내륙으로 전진하였다. 우측의 I중대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안벽에 걸쳤다.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LVT에서 사다리를 타고 안벽을 넘어 가는 일이 쉽지 않을 뿐 더러 뒤따라 제 3파가 해안에 와 닿자, 청색 2호 해안도 몹시 붐비게 되었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제 3대대장 「리지」 중령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면서 우측 해안, 즉 남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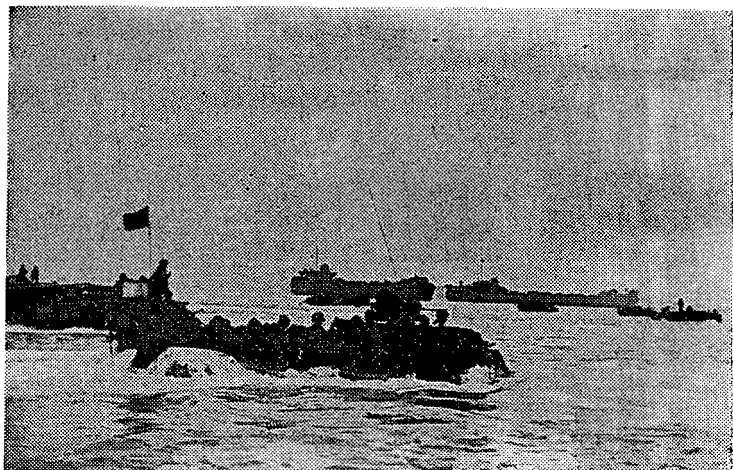


사진 11. 청색 해안의 돌격파.

로 떨어진 돌출 방파제를 돌아가 보았다. 오목 해안의 안 쪽에서 돌출 방파제와 직각으로 이어지는 해안이 LVT접안에 가용함을 알게 된 「리지」 중령은 그곳으로 잔여 후속파들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임기 응변으로 활용된 청색 3호 해안을 통해 청색 해안의 상륙은 일층 가속되었다.

이날 제 3대대의 전·사상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그 대부분은 상륙 초기에 돌격 중대들이 해안 지역을 소탕하는 동안, 약 500m 내륙의 공장 지대에 우뚝 솟아 있는 한 탑에서 날아 오는 적의 기관총 사격에 의한 것이었다. LVT의 응사로 이 적의 화기를 잠잠하게 한 뒤, G중대는 내륙 저 지대로 진출하였고, I 중대는 우측으로 급선회하여, 내륙의 문학산(文鶴山; 233 고지)으로부터 해안 쪽으로 흘러 내린 능선 위의 목표 C를 공격하였다. 19:00 쯤, I 중대가 목표 C를 확보한 데 이어 G 중대도 20:30 경까지

는 상륙 해안 전방의 내륙 저 지대를 횡단하여 문학산 쪽으로부터 인천 및 청색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목에 차단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대대 예비로 뒤늦게 상륙한 H중대에서는 먼저 제 1소대가 해안 도로를 따라 남진(南進)하여 I중대의 후방을 통과한 뒤, 목표 B를 공격하였다. 94 고지 일대의 잘 준비된 진지를 지키고 있던 약 1개 중대 규모의 적들은 이미 항공·함포 사격에 시달려 전의를 잃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번히 싸워 보지도 못하고 30여명의 사상자를 버려둔 채 도주해 버리고 말았다. 빈틈없는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제 1연대장 「플러」대령에 의해서 전술적으로 O-1선이 확보되었다는 확신이 서기까지 한동안 어둠속에서 부대 전개는 계속되었으며, 「플러」대령은 자정을 훨씬 넘긴 01:30 쯤 사단장에게 O-1선의 확보를 보고하였다.

상륙 후 비교적 무난하게 그 임무가 달성된 미 제 1해병연대의 육상 작전 상황을 먼저 살펴 보았으나, 그에 앞선 이 연대의 함안 이동 과정이 미 제 5해방연대의 그것과는 또 다른 점에서 상륙 돌격의 어려운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라도 다시금 조명(照明)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륙작전의 성패(成敗)는 함안 이동의 결과에 좌우된다고 흔히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상륙 후 이 연대의 임무 달성 또한 함안 이동 중의 혼란들을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색 해안에서의 함안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조류(潮流)였을 것이다. 실제로 확인된 유속(流速)은 LVT의 수중 주행 속도와 거의 맞먹는 3.5 노트(knot)였다. 다시 말하면,

이 조류가 LVT의 진행 방향과 일치 또는 역류(逆流)할 때, LVT의 속도는 배가(倍加) 또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각 돌격파(突擊波)의 LVT들은 주행 중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물론, 처음부터 대형 유지를 위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류와 파도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LVT들은 전차와 마찬가지로 측방 시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함안 이동 간 LVT들의 횡대 대형을 유도해 주는, 주파 향도(舟波嚮導; Wave Guide)라는 상륙 주정을 양측에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청색 해안에서 운용된 16개의 LVT 파를 위해서는 32척의 LCVP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상륙 주정의 부족으로 주파 향도는 최초의 2개 LVT 파에 4척이 운용되었을 뿐이었다. 그 뒤의 LVT 파들이 빚어내는 혼란은, 연습 단계를 거처지도 않았던만큼 더욱 가중되게 마련이었다.

청색 해안에서의 함안 이동에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시도(視度)의 불량이었다. 낮게 깔린 구름과 빗발로 인한 시도 제한은 청색 해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에 더하여 인천을 불사르는 연기(煙)와 포연(砲煙)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청색 해안을 폭 넓게 뒤덮고 있었다. LVT들이 5km 밖의 해상에서 해안으로 향할 때는 오히려 좋은 연막으로 생각되던 것이 막상 해안에 이르기도 전에 연막 속에 휩싸여버린 LVT들은 시계의 제한을 받아 대부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다. 실상 가상으로 콤파스(나침판)와 무선망이 불비한 LVT들이 많았던 터에 미숙 또는 경험 부족의 승조원들도 적지 않았다.

H-50 분, LVT의 제 1 파가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기에 앞서 원 운동(圓運動)을 하고 있는 대기 구역에 난데 없이 적의 박격포

탄이 떨어졌다. 구축함의 즉각적인 응사로 적 포대는 곧 잠잠해졌으나, 이 적의 일탄(一彈)은 함안 이동 중에 야기될 갖가지 혼란을 예고하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조류의 영향을 받아 가뜩이나 애를 먹던 LVT 들은 LD 를 통과하면서부터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들은, LVT 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일 뿐, LVT 들의 후속파로 운용된 LCVP 주파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에 LVT 파를 유도했던 4척의 향도 주정들이 다음에 할 일은, 다시 다른 LVT 파를 유도하기 보다는 넓고 긴 주정로의 양측에 간격을 두고 위치하여 LVT 들이 주정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나중에는 후송용과 구조용의 주정들까지 이 일을 거들었으나, 이 방법에 있어서는 통신망의 불비라는 결함 때문에 LVT 와 상륙 주정들의 주파 또는 집단들이 엉뚱한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전적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었으며, 시도 제한 때문에 주정로에 들어 서기도 전부터 방향을 잃고 마는 주파들에게는 무의미한 방법이었다.

이같은 임기 응변의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시행 착오나 실수를 빚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연대 예비대인 제 1 대대의 상륙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H시 쯤 연대장 「폴러」 대령은 제 1 대대장 「호킨즈」 중령에게 상륙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대기파로 제 21 파에서 제 25 파 사이의 LCVP 에 탑승하고 있던 제 1 대대는 차례로 LD 를 통과하여 해안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들의 진로를 향해 통제함(統制艦)이 탐조등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전 해안을 뒤덮은 구름과 연기, 그리고 빗발에 가려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

이였기 때문에 탐조등은 실제 진로에서 약 45°나 벗어난 북동쪽을 비추고 있었다.

예비대의 첫번째와 두번째 주파가 엉뚱하게도 외갑거(外閘渠)에 접안하였으나, 그 곳을 청색 2호 해안으로 오인한 미 해병들은 LCVP에서 하선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의 세번째 주파를 뒤따라 가던 대대장 「호킨즈」 중령은 원도(猿島)와 소원도(小猿島) 옆을 지나면서, 도상(圖上)으로만 익혔을 뿐인 이 섬들을 알아 보고서야 실수를 알아 차렸다. 급히 외갑거 쪽으로 나아간 「호킨즈」 중령의 노력으로 A중대는 거의 다시 LCVP에 승선할 수 있었으나, 하선이 빨랐던 B중대는 일부 LCVP가 이미 해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1개 소대 정도의 병력을 외갑거의 제방 위에 남겨 둘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편, 이들 첫번째와 두번째 주파를 뒤따르던 예비대의 다른 주파들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아 가고 있었으나, 매마침 청색 1호 해안과 LD의 중간 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부연대장 「리케르트」 중령이 이를 알아 보고 후속 주파들의 진로를 바로 잡아 주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예비대의 상륙은 그만큼 늦어졌으나, 제 1대대 병력의 대부분은 약 500m 내륙의 철도 연변에 정해진 야간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해안을 오인하여 잘못 상륙했던 결과로 밤사이 외갑거에 쳐져 있던 B중대의 1개 소대는 다음날 아침에 중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안, 뜻밖에도 해안 일대에 낙오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적패잔병들을 마치 이삭이라도 {줍듯이} 굶어 모았다.

4. 지원 부대들의 상륙

앞서 살핀 바와 같이 LST의 모험적인 접안은 상륙 초기의 육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천 항만 시설의 조기 확보는 앞으로의 서울 진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전투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지원(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륙작전의 경우, 이러한 지원은 지원 부대들의 상륙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원 부대들의 상륙 역시 돌격 부대들의 상륙에 못지 않게 복잡하고, 그만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격 단계를 위한 지원 화력으로서의 항공 및 함포가 절대적인 것임에 틀림 없으나, 상륙군의 입장에서는 의당 자체 지원 화기인 포병의 조속한 활용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인천 상륙의 경우, 오전 상륙으로 확보되는 월미도에 포병을 사전 포진시켜 오후의 상륙을 지원하는 방안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월미도가 확보된 뒤, 비록 간조 중에라도 비교적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월미도 서쪽의 갯벌을 통해 DUKW가 105mm 곡사포를 수송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실패하는 경우의 위험 부담이 크고, 그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천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 선전 부대의 구성 문제와도 관련되어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오전 상륙 시에는 포병 정찰 요원만 상륙시키고, 오후 상륙 시에 2개의 105mm 곡사포 대대를 DUKW로 월미도에

상륙시키게 되었다. 실제로 있어서는 DUKW 들이 파 구성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만큼 조류에 밀려, 상륙이 1시간 45 분이 나 지연된 터에 해안의 혼잡까지 가중되었으며, 20:45 쯤에야 제 1 대대가 제 5 해병연대에, 그리고 제 2 대대가 제 1 해병연대에 대한 직접 지원 태세를 갖추었으나, 막상 적의 저항이 경미했던 탓으로 화력 지원 요구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월미도는 전차 상륙을 위해서도 최적지였으나, 인천으로의 방파제가 파괴될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전차의 월미도 상륙만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청색 해안으로의 전차 양륙은 쉽게 고려할 수조차 없었으며, 적색 해안의 경우, 1차 양륙 후의 2차 양륙은 다음 만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전차 수송에 가용한 함종(艦種) 및 수(數)의 제한도 있었으며, LST의 경우에 있어서는 갯벌에 좌초되지 않기 위하여 적재량의 제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여건들 때문에 월미도 상륙 부대에 배속된 10대의 전차를 제외한 A 중대만이 적색 해안에 상륙하였으며, 전차 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D+1 일 이후 녹색 해안과 내항(內港)을 통해서 상륙하게 되었다.

돌격 단계 중 해안을 개척하여 부대와 장비 및 보급품의 상륙을 돕고, 이들의 내륙 이동을 촉진시키는 일은 해안 부대(海岸部隊)*가 할 일이다. A 해안단(海岸團)의 정찰 요원들이 돌격 부대와

* 해안 부대(海岸部隊)는 해안에서 부대, 장비 및 보급품의 상륙과 내륙 이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해안으로부터의 사상자 및 포로 후송을 담당하며, 상륙 함선 및 주정 집안 및 이안(離岸)을 용이하게 하고, 그 구조 역할까지 담당한다. 해군 부대를 배속받는 상륙군의 한 기동 편성체로서, 해안 부대는 그 지원 규모에 따라 해안 대대, 해안단(Shore Party Group), 해안 분단(Shore Party Team), 및 해안 소대 등의 제대로 기동 편성이 이루어진다.

함께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해안 표지(標識)*를 세우자, 그 중의 하나는 흡사 표적이거나 된 것처럼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아 구멍 투성이가 되었다. 해안 대대의 본부 및 근무중대는 적색 해안에 접안한 최초의 LST 편으로, 그리고 뒤따라 A 및 B해안단의 부대들이 상륙하였으며, 8척의 LST들은 자기 접안하는대로 함수문(艦首門)을 열고 안벽 위로 램프(ramp)를 걸쳤다. 하지만, 더러는 램프의 접지(接地) 상태가 좋지 못하여 먼저 양륙된 불도우저의 도움으로 정지(整地)된 뒤에, 그리고 더러는 썰물이 시작되자 LST 자체가 갯벌 위에 내려 앉기 때문에 안벽을 무너뜨려 램프의 접지 수준을 조정해야만 차량들이 양륙될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의 만조에 맞추어 8척의 LST가 빠져 나가고, 동시에 또 다른 LST들이 접안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하역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업이 또한 해안 부대의 할 일이었다.

한편 청색 해안에서도 돌격 부대와 함께 상륙한 경찰 요원들의 뒤를 이어, 19:30 쯤에는 B해안단(一)이 상륙하였으나, 이 해안에서의 군수 지원 규모는 돌격 단계 초기의 수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운용된 해안 부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다. D일의 오후 만조 때 청색 해안에는 24대의 LVT에 사전 적재된 보급품이 양륙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10대는 해안을 잘못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썰물에 밀려 갯벌에 얹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LVT들의 화물(貨物)은 해안 부대 요원들이 맨손으로라도 운반하려 했으나, 그럴만큼 긴급 소요가 제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LVT들은 다

* 해안 식별 내지는 해안 상의 어떤 활동 상황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해안에 접근하는 모든 부대의 해상 교통을 돕기 위하여 해안 상에 플래카드의 형태로 세워진다.

음날 아침 밀물 때를 맞아 물위에 다시 뜨게 된 뒤에야 상륙하였다.

의무 지원(醫務支援)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상륙 돌격 시의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즉 인천의 특수한 상륙 조건들에 적응시킨 획기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적색 해안에 돌격 부대를 뒤따라 접안한 8척의 LTS 중에는 잠정적으로 수술실을 마련하여 병원선으로 활용된 LST(H) 898 호가 끼여 있었다. 그리고 3명의 군의관과 10명의 위생병을 한 팀으로 구성한 4개조의 수술진이 LST 들 편으로 함께 도착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륙군의 의무 지원 부대가 아무리 서둘러도, 육상에서의 지원 태세를 이 LST(H)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나은 상태를 갖출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바꾸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하여, 미 해병사단 의무대대에서 통상 보병 연대에 배속되는 치료 및 수용(收容)중대의 치료소대들은 사단 통제하에 둬으로써, 차후 육상에서의 병원 개설시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대신 1명의 군의관과 6명의 위생병으로 구성되는 치료반을 병원중대인 A중대에서 1개팀, 그리고 B중대에서 2개 팀을 차출하여 각각 별개의 LST 편으로 적색 해안에 상륙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육상에서 최초의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었고, D일 야간을 통해 응급 수술을 요하는 전상자들은 LST(H) 898 호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의무대대의 2개 병원중대는 D+1 일에 상륙하였다.

적색 해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군수 지원 시설이, 운용된 청색 해안에서는 의무 지원 역시 B해안단의 후송 시설 범위에서 제공되었다. 다음날 청색 해안이 폐쇄되기까지 이곳에서

취급한 부상자는 23명에 불과하였으나, D일의 긴급 후송용으로 6척의 10인용 고무 보우트를 대기시켜, 조수 상태가 허용되는 한 이를 활용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었다.⁴⁾

D일 오후의 만조 때, 미 제 1해병사단의 부지휘관 제대는 사단장의 사전 지시에 따라 월미도에 상륙하여 전방 지휘소(CP)를 개설하였다. 이날 월미도를 확보하고 있던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는 20:00 쯤 인천으로의 방과제를 따라 내륙 쪽의 집결지로 이동하였으나, 오후에 상륙한 포병들과, 차량 및 보급품으로 월미도는 여전히 혼잡하였다. 사단 지휘소가 오래 머물기에는 월미도가 너무 협소하다고 느낀 부사단장 「크레이그」 준장은 다음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볼 생각을 갖게 되었다.

D일도 30분 쯤을 남겨 둔 23:28, 미 제 1해병사단의 작전명령 3-50이 하달되었다. 이 명령에 의하면, 다음날 새벽 미 제 1 및 제 5해병연대는 0-3 통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 국도를 따라 병행 공격을 개시하며, 한국 해병대는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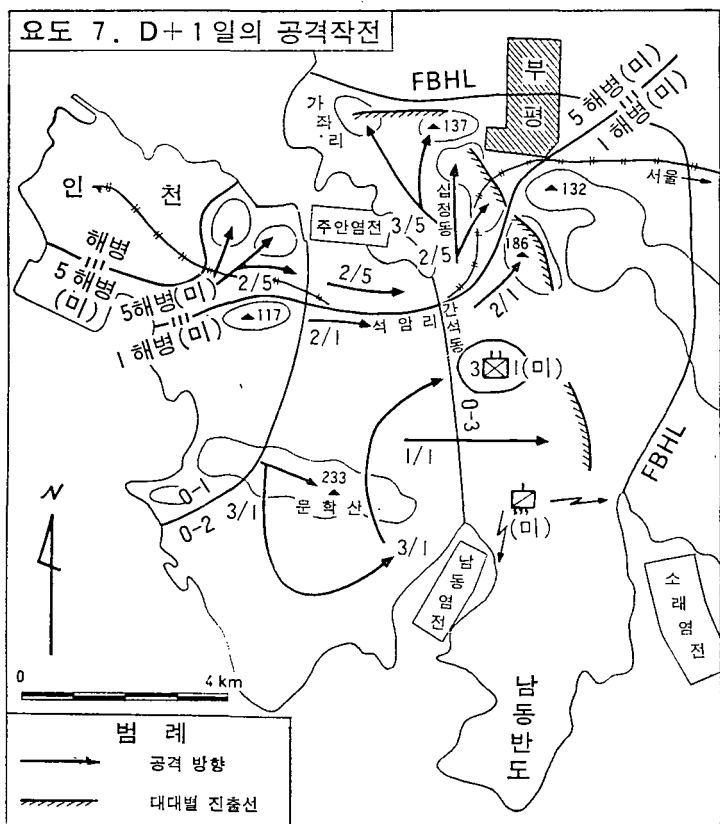
D일의 상륙 과정을 대체로 살펴 볼 때, 연습 단계를 갖지 못했던만큼 시정되지 못한 결함도 많았고, 그만큼 혼란도 야기되었으나,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상륙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며, 모든 목표는 계획된대로 장악되었다는 사실이다. D일의 미 해병사단 전과는 포로가 최소한 300명을 넘었고, 사살된 적들은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으나, 미 해병사단에서도 전사자 21명, 실종자 1명, 그리고 전상자 174명의 피해가 있었다. 한편, 이날 중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약 13,000명에 달

하였으며, 450 대의 차량을 포함한 다량의 장비와 보급품이 계속 양륙되고 있었다.

5. D+1 일의 공격

우선적으로 해안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물론, 차후의 내륙 진격 작전을 위해서도 미 해병사단은 경인 국도를 축선(軸線)으로 하여 2개 연대가 병행 공격하는 기동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보면, D일의 부대 전개 형태는 전혀 엉뚱하게도 제 1연대가 공격 전면에, 그리고 제 5연대가 그 후방에 위치하는 꼴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D+1 일의 공격 재개를 위해서는 제 5연대의 신속한 전방 진출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미 제 5해병연대는 이 연대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한국 해병 제 3대대에게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맡기고, 미 제 1해병연대와 나란히 공격을 재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시가지를 우회 전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 단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O-1 선에서 그 북쪽의 제 5연대 전투 지대로 연장, 설정한 통제선이 O-2 선이었는데, 제 1연대 지역에서는 이 O-2 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O-1 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D+1 일,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3-50에 의거 제 1 및 제 5해병연대가 확보해야 할 O-3 통제선은, 인천 반도를 에워싼 북쪽과 남쪽의 바다에서 각각 내륙쪽으로 저 지대를 따라 깊숙이 뻗어 있는 주안(朱安) 염전과 남동(南洞) 염전의 양 끝을 연결하는, 길이 약 4km의 최단선(最短線)이었다. 이 O-3 선 전방에서 경



인천 철도와 국도는 그 방향을 직각으로 꺾어 북쪽으로 뺏어 나가 고, 그 양편에는 과히 높지 않은 대신 매우 조밀한 고지군이 형성되어 있다. 단순히 인천 지역의 확보만을 고려한다면 0-3선은 전술적으로 최선의 방어선이 되겠으나, 차후 작전을 염두에 둘 때 0-3선 전방의 고지군은 그 발판으로서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해

안두보선(FBHL)은 이 고지군 외곽에 설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D+1 일의 공격작전에서는 O-3선의 확보 외에, 가능하다면 다음 날의 진격을 위한 발판의 확보도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동트는 새벽은 육지에서보다 바다에서 훨씬 빨리 맞게 된다. 그만큼 해상에서의 활동은 빨리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굳이 이러한 관행(慣行)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D+1 일에도 제일 먼저 활동을 개시한 것은 해상의 함재기들이었다. 9월 16일 05:48, 대잠(對潛) 호위 항모인 「시실리」호에서 발진한 VMF-214 소속, 8대의 미 해병 항공기들은 국도를 따라 인천으로 접근중인 것으로 보이는 적의 T-34 전차 6대를 O-3 선 바로 전방의 간석동(間石洞) 상공을 비행 중에 발견하였다. 미 해병 항공기들은 이 들연한 목표물들을 향해 네이팜과 로켓탄, 그리고 기총 사격을 퍼부었다. 맨 앞의 적 전차는 화염에 휩싸였고, 로켓탄을 맞은 두번째 전차는 궤도가 망그러져 꼼짝 못하게 되었으며, 역시 로켓탄을 맞은 세번째 전차는 기름을 내쫓으면서도 엔진 작동이 멎었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차 공격 중 적의 대공 사격을 받은 미 해병 항공기 1대가 추락하여 조종사 「심프슨」 대위가 복숨을 잃었다. 얼마 뒤 VMF-214 소속 제 2의 편대가 출동하여 나머지 적 전차를 모두 파괴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뒤 파괴된 적 전차가 지상 부대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5대였다.

미 해병 항공기들이 적 전차들을 강타하고 있을 때, 미 제 5 해병연대 제 2대대의 각 중대들은 E중대를 선두로 O-A 선을 출발하였다. 경인 국도에 들어서자 E중대와 F중대는 각각 도로

북쪽의 연대 목표 D와 E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09:30경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각각의 목표들을 점령하였다. 한편, 배속받은 전차 A중대의 1개 소대와 함께 도로를 따라 전진하던 D중대는 도로 우측의 제 1연대 제 2대대와 접촉을 유지하고, O-2선을 통과하여 계속 전진하는 동안 이따금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적의 사격을 받았다. 11:00 쯤 제 2대대가 O-3선에 도달하기까지, 그 뒤에는 중대 대형으로 제 1대대와 연대 예비인 제 3대대가 따르고 있었다.

미 제 1해병연대 지역에서는 좌전방의 제 2대대가 국도에 연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전진하는 동안, 우전방의 제 3대대는 문학산(文鶴山)과 그 남쪽의 광활한 전선에 걸쳐 많은 고지군과 마을들을 수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개활지를 통과할 때는 가능한 한 LVT로 기동하여 진출 속도를 조절하였다. 제 1연대 역시 적의 저항은 거의 무시할만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 지역이 너무나 광범하여 예비인 제 1대대로 하여금 전진하는 양 대대 사이의 간격을 메워 나가도록 하였다.

미 제 1해병연대 남쪽 전선의 진출이 다소 부진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의 저항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예견한 미 제 1해병사단에서는 같은날 10:45,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O-3선에서 공격을 계속하라는 사단 작전명령 4-50을 하달하는 한편, 이날 오전에 상륙한 사단 수색중대를 제 1연대 우측방으로 진출시켰다. 같은날 13:30, 마침내 좁은 전투 지대를 벗어난 제 5연대에서는 제 3대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여 제 2대대와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수색중대의 우측방 엄호를 받게 된 제 1연대는 제 1 및 제 2대대로 병행 공격을 계속케 하고 제 3대대

를 예비로 전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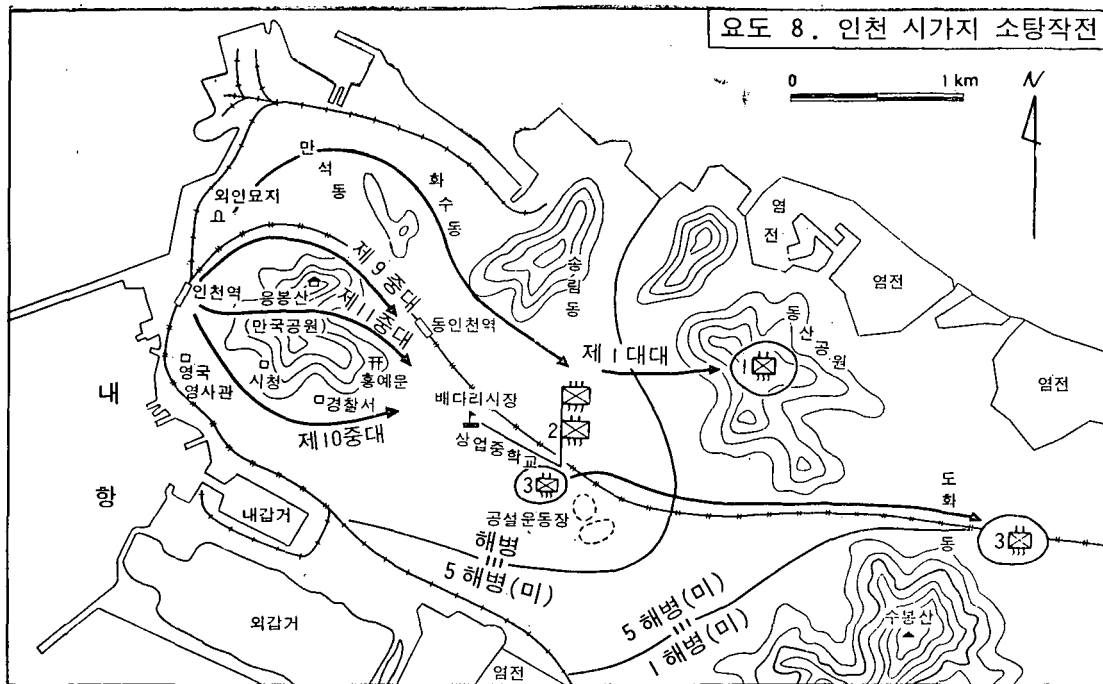
6.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

미 제 5해병연대의 예비가 된 한국 해병 제 3대대는 D일 오후 LST 들에 의한 북새통으로 소란스러운 적색 해안에 상륙하여, 지금의 대한 제분 쪽으로 철로를 건너 응봉산의 서쪽 하단부에서 야간 숙영지를 마련하였다. 적색 해안에서의 한바탕 소동이 가시고 어둠이 짙어질 때 상륙한 한국 해병대의 잔여 부대들은 공동묘지에 가까운 북쪽 해안에 집결, 숙영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한 그 휘하의 해군 및 해병 부대를 직접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했던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은, 해상 작전을 도와야 하는 직책상의 명분보다는 수도 탈환의 전열(戰列)에 끼려는 충정에서, D일 오후 해병대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⁵⁾

D+1 일 아침 미 제 5해병연대가 행동을 개시한 직후의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은, 미 제 5해병연대 작전 통제 아래에 있던 제 3대대 뿐만 아니라 제 1대대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한국 해병대 사령관 지휘로 실시되었다. 시가지에 가로 놓인 경인 철도를 경계로 그 남쪽의 응봉산 일대와 도심 지역 소탕을 제 3대대가 맡고 그 외곽, 즉 경인 철도 북쪽의 공장 지대를 제 1대대가 담당하였다.⁶⁾

전날의 항공·함포와 상륙 부대의 돌격작전에서 용케 살아 남은 적의 대부분은 이미 인천 지역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 때를 놓친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주택가에 숨

요도 8.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



어 들어 있었다. 소탕작전 중, 많은 수가 무기력하게 투항 또는 생포되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저항 또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살되기도 하였다.

제 3 대대에서는 좌측의 철로 연변을 제 9 중대가, 우측의 도림으로 뻗는 주택가를 제 10 중대가, 그리고 제 11 중대와 제 12 중대가 중앙에서 응봉산의 공원 일대를 담당한 가운데 소탕작전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인천역으로부터 속칭 중국인 거리와, 시청, 경찰서, 홍예문(虹蜺門)에 이르는, 제 10 중대의 소탕 중심 지역은 당시 인천에서 으뜸가는 번화가였다. 종 덕원(鍾德遠) 중위가 지휘하는 제 10 중대가 속칭 중국인 거리를 수색할 때는 집안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중국인들이 더러 있었으며, 그런 집에는 으레 마오쩌둥(毛澤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경찰서에 진출한 해병들은 이미 적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구치소(拘置所) 안에서 학살당한 참상을 목격하고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⁷⁾

경황(驚惶) 중에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집안에 숨어 있던 시민들은 국군을 알아 본 뒤에야 밖으로 뛰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저마다의 설움과 한이 폭발하여 국군 용사들을 붙들고 소리 내어 울거나 살아 남은 기쁨에 흥분하여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어느덧 시가지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점점 불어가고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시민들은 우선하여 해병대의 소탕작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낯설고 수상한 자와 적 치하에서의 악질 부역자(附逆者)들이 속속 고발되었다. 사투리나 구릿빛 얼굴과 짧은 두발(頭髮)에 의해서 적의 무리들은 쉽사리 구분되었다. 지하에 숨어 있다가 나온 청년들은 하얀 안색에 머리가 길었으며, 대개는 반역자들을 가려 내는 데도 앞장 섰다.⁸⁾

이날 14:30 전후하여 도심 지역의 소탕작전을 마친 제 3대대의 중대들은 배다리 시장(市場) 근처로 빠져, 경인 국도를 따라 더 전진하다가 공설 운동장 옆 도원 공원(桃源公園)에 집결하였다. 미 제 5 해병연대의 진출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한나절 동안의 갖가지 경험담으로 다소간 웅성거리는 분위기 속에 중대별트 병력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제 9 중대의 대열 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다. 무심코 세워 총을 할 때 땅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탄창을 끼운 채인 한 병사의 BAR 자동 소총이 오발된 것이었다. 놀라서 달려 온 제 3대대장 김 윤근 소령은 이때 중대장 대신 중대 병력을 파악하고 있던 제 9 중대 선임 장교 서 상국(徐相國) 소위의 뺨을 호되게 때렸다. 오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날의 작전에서 또한 제 3대대는 전투 손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대대장이 그토록 노한 까닭은, 이날 아침 작전 행동에 들어 가기 직전 제 11 중대의 한 분대장 진 복룡(陳福龍) 1 등수병과 정 관섭(鄭寬燮) 수병의 목숨을 앗아 갔던 BAR 오발 사고에 대한 통한(痛恨)이 그의 가슴 속에 맺혀 있기 때문이었다.⁹⁾

제 3대대 지역에 비하여 주택가가 적고 대부분 공장 지대로 되어 있는 경인 철도 북쪽에서의 소탕작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 1대대는 해안선 철도를 따라 만석동(萬石洞), 화수동(花水洞) 일대를 거쳐 오전 중 송림동(松林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제 1대대에서도 제 3대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소탕작전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날 오후 제 1대대는 인천 동쪽으로 좀 더 진출하여 동산(東山)공원 일대(지금의 선인 학원 일대)에 야간 방어 진지를 구축하

였다. 교외로 피난했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 오는 시민들 속에 적이 잠입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교외 지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해병대 사령부와 제 2대대(一)는 이날 16:00 쯤, 인천 상업중학교(구제 중학교)로 이동하였다. 도원 공원에 집결, 대기 중이던 제 3대대는 13:00 쯤 경인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다시 행군하여 19:30 쯤에는 도화동(道禾洞) 일대에서 야간 숙영지를 잡았다.¹⁰⁾ 제 3대대의 이동은 미 제 5해병연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다음날의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해병대는 시내의 주요 공공 시설을 장악하고 야간에는 시내 외 요소에 대한 경비와 경찰 활동을 강화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는 조속한 생활 안정과 치안 회복을 갈구하는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소탕작전 첫날의 해병대 전과는 포로만도 181명에 달하였으며,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였다.¹¹⁾

7. 해안두보 확보

인천 상륙의 경우, 그 자연적·지리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특히 상륙 초기의 군수 지원에 있어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기술한 바 있으나, 실상은 전형적인 상륙작전에 있어서도 군수 기능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견해이다. 그 주된 까닭은 상륙군의 군수 지원이 상륙작전 초기에 있어서는 주로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그 기능



사진 12. 적색 해안의 양륙 상황(D+2일).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군·상륙 부대 상호간에 특별한 지식 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색 해안에서는 탐조등을 밝혀 놓고, 때로는 적 사격을 받아 가면서 밤새도록 양륙 작업을 강행한 결과, 8척의 LST가 예정대로 D+1일 새벽의 밀물 때에 맞추어 물러나고, 또다른 LST들이 들어 왔다. 이 LST들은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2척이 갯벌에 좌초되었으나, 군수 지원면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오후의 밀물 때에도 어김없이 LST들은 교체되고 양륙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적색 해안으로는 미 해병사단 포병연대의 155 mm 곡사포 대대인 제 4대대가 상륙하여, 같은 날 오후 월미도에서 인천 남동쪽 교외로 이동한 포병 제 1 및 제 2

대대와 합류하였다.

적색 해안 외에 또 양륙 작업이 진행된 월미도의 녹색 해안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도 불비하였던 까닭으로 역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전차대대 B중대는 D+1 일 07:00부터 상륙을 시작했으나, 상륙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가 상륙을 완료한 것은 같은날 저녁 19:00 쯤이었다. 그러나 전술(前述)했던 바와 같이 이날 중 육상에서는 전날 양륙된 A중대 중에서도 1개 소대만이 작전에 투입되었을 뿐으로 전차 운용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¹²⁾ 의무대대의 병원중대인 A 및 B중대 또한 병력은 이날 새벽부터 상륙하여 방파제를 건너가 하인천역 일대에 집결,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의무 장비와 수송 장비는 다음날에야 양륙되었다.¹³⁾

한편, 해안 부대의 양륙 작업을 지원하던 공병들이 적색—청색 해안 사이의 주 보급로를 보수, 개통시키고, 각 해안 지원 지역 사이에 수송대대가 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청색 해안은 9월 16일 21:00에 폐쇄되었다. 그리고 이날 21:00까지의 양륙 현황을 살펴 보면, 병력이 약 15,000명, 차량 1,500대, 그리고 화물이 1,200톤에 달하였다.¹⁴⁾

이제까지 대체로 군수지원면에서 돌격 단계 중의 양륙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천의 특수한 해안 조건과 조수 문제를 함께 실감하였으나, 이 문제들은 사실상 장차 제10군단 전반의 양륙과 관련한 군수 지원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들이다. 앞으로 만조 수준은 점차 낮아져 D+3일 이후에는 적색 및 녹색 해안에서도 LST의 접안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차 군수 지원면에서의 초점은 내각

거(內閘渠)를 포함한 인천 내항(內港) 시설의 복구 및 활용 여부에
 모여지게 된다. 사실상 미 제 2 육군 공병특수여단은 이러한 작
 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륙 초기 미 해병사단에 배속된 부대였
 다. D+1 일 월미도로 양륙된 대형 기중기(起重機)가 내갑지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이동되는 한편, 항만 복구 작업 또한 활발하게
 진척되어, D+3 일 이후의 양륙작전은 제 2 공병특수여단 통제하
 에 황색 해안으로 지정된 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되었다.

한국 해병대에 의하여 인천 시가지 일원이 어느만큼 안정되고,
 전방 공격 부대가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재개하
 는 동안, 미 해병사단 전방 CP는 월미도에서 인천 남동쪽 교외
 로 이동하여 새로운 지휘소를 준비하였다. 미 제 1 해병사단장 「스
 미드」 소장은 비로소 「도일」 제독 및 「맥아더」 장군과 작별 인사
 를 나누고 「마운트 머킨리」호를 떠났다. 17:30, 인천 내항 부두
 로 상륙한 「스미드」 장군은 「크레이그」 장군의 감격어린 영접을
 받았다. 「스미드」 장군은, 이번 상륙작전에 훨씬 앞서서 미 제 1
 임시해병여단을 이끌고 미국을 떠나 낙동강 전선에서 숭한 위기
 를 이겨냈고, 이제는 자신을 보좌하는 부지휘관으로 일하게 된,
 「크레이그」 장군과 인천에서 해후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미 해병사단 예하의 제 5 해병연대는 이미 해안두보선
 의 북쪽 부분에 도달하여, 당시에는 조병창(造兵廠)*으로 더 잘 알
 려졌던, 지금의 부평(富平)*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주변
 고지들을 장악하였다. 이때까지 전혀 손실없이 12명의 포로를 생

* p. 183의 하단 주기(+) 참조.

또한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는 가좌리(佳佐里) 일대까지 전개하였으며, 우측의 제 2 대대는 전방에 진출한 2 개 중대로 경인 철도 양 쪽의 고지를 점령하고 야간 방어 진지 준비에 들어 갔다.

이 무렵의 제 1 해병연대 진출 상황을 살펴 보면, 16:00 쯤 0-3 선에서 공격이 재개된 뒤의 전진 거리는 대체로 2 km 를 넘지 못하였다. 국도를 따라 전진한 좌전방의 제 2 대대는 제 5 연대 제 2 대대의 진출선보다는 약간 뒤로 처진 경인 국도 우측의 136 고지를 점령하기까지 다른 대대들에 비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D+1 일 미 해병사단의 총 손실인 전사자 4 명과 부상자 21 명 중 이 대대의 손실이 전사 4 명, 부상 10 명에 달했던 것이다. 이때, 제 1 연대 우전방의 제 1 대대는 남동(南洞) 반도 북쪽의 고지군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17:00 쯤 사단 수색 중대에 측방 경계 임무를 인계한 제 3 대대는 연대의 중앙 지대로 이동 집결하여 두 전방 대대의 간격을 메우면서 연대 예비대의 임무를 맡았다.

미 제 1 해병사단의 새로운 CP 에 도착한 「스미드」 장군이 18:00. 공격 부대(Attack Force) 사령관 「도일」 소장으로부터 육상작전의 지휘권을 인수했을 때, 위에서 살핀 것처럼 미 해병사단의 두 연대는 부분적으로 해안두보선에 도달했으나, 사실상 해안두보선을 통제할 수 있는 감제 고지들은 이미 점령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D 일 H 시를 기하여 상륙군의 돌격 부대가 인천 해안에 첫발을 내디딘지 거의 24 시간만에 상륙 목표는 확보되었으며, 이로써 인천 상륙의 돌격 단계는 막을 내린 셈이다.

* 미 제 1 해병연대가 실제로 해당 전투 지대의 해안두보선에 도달한 것은 D+2, 13:00 쯤이었다.

제 6 장

서울을 향하여

9월 17일 새벽의 인천 해역이 지난 이틀 동안의 그것에 비해 훨씬 찻찻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느슨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 어려운 고비를 넘기거나 큰 일을 치루고 났을 때에 흔히 나타나기 쉬운 나른함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D+2일 새벽의 인천 해역에는 적기(敵機)가 비집고 들어 와 잠시나마 활개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9월 17일 05:50 쯤, 인천 해역 상공에 돌연히 나타난 적기 2대가 먼저 「로체스터」호에 100파운드 폭탄 4발씩을 투하하였다. 그 중의 1발이 함미(艦尾) 쪽에 떨어지면서 항공기용 기중기를 스쳤으나 다행히도 불발하여 「로체스터」호는 큰 피해를 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영국 순양함 「자마이카」호를 공격한 이 적기들은, 즉각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춘 「자마이카」호의 4인치 대공포 사격을 받아, 1대는 격추되고 나머지 1대는 멀리 도망해 버렸다. 이 전투에서 「자마이카」호는 전사 1명과 부상 2명의 손실을 당하였다.¹⁾

이날의 적 공습은 불의의 것이었던 만큼 피아의 신속한 식별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기간 중 단 한번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

이 적의 제 1 격을 받게 된, 이같은 상황은 제공·제해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이 자칫 자만 내지는 태만에 빠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각에 육상에서 미 해병들이 겪은 상황과 전주어 볼 경우에는 더더욱 교훈적으로 음미해 볼 만한 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살피게 되겠지만, 적이 전차와 보병 협동으로 반격을 시도해 왔을 때,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종심(縱深) 있는 진지를 마련하고 있던 미 해병들은 접근해 오는 적을 용의 주도하게 포착하여 완전 섬멸한 것이다.

1. 내륙 진격의 서전

9월 16일 오후, 「마운트 머킨리」호를 떠나 인천으로 상륙하려는 「스미드」장군의 무운을 빌면서, 「맥아더」장군이 마지막 당부한 말은 「김포 비행장을 가능한 한 조기에 탈취하라」²⁾는 것이었다. 서울을 향하여, 드디어 해안두보선을 넘어서는 한·미 해병 부대들 앞에는 중간 목표로서 장악해야 할 김포 비행장과 영등포, 그리고 자연 장애물로서 극복해야 할 한강 등,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과업은, 「맥아더」장군이 강조한 것처럼, 김포 비행장의 조기 확보였다. 그렇기는 하나, 미 제 1해병사단은 확보해야만 할 주 보급로로서 뿐만 아니라, 영등포의 탈취와 관련해서도 경인 국도를 하나의 공격축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서, 이 사단의 기동 계획은 복잡성을 면치 못하였다.

있다. 이 선이 경인 국도를 횡단하는, 소사(素砂)* 동쪽에 제 1 연대의 목표인 123 고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두 연대의 공격 방향은, 병행한다기보다는 45° 의 각을 갖는, 동쪽과 북동쪽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다.

김포 비행장을 목표로 부여 받은 미 제 5 해병연대는, 제 2 대대가 중앙에서 중간 목표 A와 B를 거쳐 C 목표인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고, 제 1 대대는 최초로 제 2 대대를 뒤따르다가 연대 우전 방향으로 진출하여 군단 통제선 CC 바로 밖의 감제 고지인 목표 E와 F를 점령하는 동안, 한국 해병 제 3 대대가 연대 좌전방으로 진출하여 목표 1, 2, 3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군단 통제선 CC에 이르기까지 측방 방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격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같은 계획에 있어서, 대체로 지금의 부평(富平)† 중심가 서쪽에 되는, 이른바 조병창(造兵廠)‡과 그 주변 일대는 공장 시설과 만가가 밀집된 건물 지대로서, 최초 부대가 진출하는 데 다소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9월 16일 23:30을 전후하여 미 제 5 해병연대가 하달한 작전명령 19-50에 의하면, 한국 해병 제 3 대대는 계산동(桂山洞: 옛 부평) 쪽으로 진출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주 공격 대대보다도 먼저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문제시되는

* p. 200의 하단 주기(*) 참조.

† 부평 지역의 옛 중심은 지금의 계산동(桂山洞)이었다. 1893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부평역이 세워지고, 1914년에는 이 일대가 부천군(富川郡)으로 개편되면서 옛 부평은 「부평리」라는 한낱 마을로 전락되었으며, 1940년 이 일대가 다시 인천부(仁川府)로 편입되면서 옛 부평은 계산동으로, 그리고 부평역 일원이 부평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日帝) 탈기, 부평역 서쪽 일대에 조병창이 건설되면서 그 지역은 「조병창」으로 통칭되고, 부평역 일원은 대정리(大井里)라는 옛 고을 이름으로 흔히 불리워졌다. 8·15 해방 후, 이른바 조병창에는 주한미지상군(USAFIK) 산하의 육군 기지창(Army Service Command)이 설치되자, 그 약칭인 「애스콤」(ASCOM)이 한동안 부평 지역의 대명사처럼 통용되어 왔다.

이 건물 지대를 소탕하도록 되어 있었다.³⁾

해병 제 3대대에 파견된 미 제 5해병연대 연락장교 「데이비스」 대위⁴⁾를 통해 대대장 김 윤근(金潤根) 소령이 수령한 미 제 5해병연대 작전명령에 의하면 대대는 부평 지구 작전에 돌입하기 위하여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 전선을 06:00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십정동(十井洞) 일대에 전개되어 있던 제 2대대의 당시 전선을 살펴 보면, 경인 철도를 경계로 그 좌전방의 131 고지에 F중대가, 그리고 우전방, 즉 경인 국도와 철도 사이의 107 고지에 D중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D중대에서는 주진지 전방 약 300m 거리⁵⁾의 89 고지에 중대의 2.36인치 로켓트 포 1문과 경기관총이 증강된, 1개 소총소대를 전초로 배치하고 있었다. D중대장 「스미드」 중위가 전방의 89 고지에 이토록 강력한 전초 부대를 배치한 까닭은, 이 고지가 그 북쪽의 부평 일대와 동쪽의 경인 국도를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지의 남쪽에 있는 132고지와 사이에 굽이진 협곡과 원통이고개(圓通峴)를 통해 경인 국도는 그 방향이 90°로 꺾여 나가고 있어서, 특히 대전차 전투를 가상할 경우, 이 일대가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89 고지 후방으로는 큰 길을 따라 약 500m 거리 안팎에 대대의 3.5인치 로켓트 포, 연대의 75mm 무반동총, 그리고 전차가 적절한 중심을 가지고 철벽같은 대전차 방어 진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D중대 주진지 우측의 국도 건너편에는 186 고지를 중심으로 배치된 제 1연대 제 1대대의 F중대와 함께 이 연대의 대전차 화기들이 역시 국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9월 17일, 한국 해병 제 3대대가 도화동의 숙영지에서 도보행군을 개시한 것은 새벽 04:00 쯤이었다. 며칠째 좋지 않은 날

씨가 계속되었으나 경인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행군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덧 동녘 하늘은 흰하게 밝았다. 속칭 석바위(石岩里: 석암리)를 지나자 해병들은 길가에 파괴된 채, 불품없이 서 있는 적의 전차들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 같은 적의 전차들이 한동안 남침의 선봉에 서서 한국군을 전율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던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새삼스러운 분노로 몸을 떠는 병사들도 없지 않았다.

1시간 남짓한 공격 개시 시간을 앞두고 서서히 그 준비를 서두르면서 89 고지의 제 2소대 병사들은 은은하게 지각(地殼)이 진동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간단없이, 그리고 점점 커지는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 제 2소대장 「호워드」 소위는 전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자, 즉각 중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뒤 실제로 접근하는 적의 전차 6대를 확인하기까지의 관측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D중대장을 통해 첫 보고를 받은 대대장 「로이즈」 중령이 젊은 풋내기들의 착각 쯤으로 지레 짐작하여 반신 반의(半信半疑)하고 있던 중, 이어지는 보고 내용들을 미처 재고해 볼 겨를도 없이, D중대 전방의 상황은 급변해 가고 있었다.

전초 진지의 제 2소대 병사들은 적의 T-34 전차 6대와, 거기 올라 타거나 뒤섞여 따르는 적 보병 약 200명이 100m 길이 안팎으로 중대를 이루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켜 보면서 소대장의 사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전초 진지 앞을 지나치고, 원통이고개를 내려 간 적의 마지막 전차가 90°로 굽은 큰 길을 막 켜어 돌려고 할 때, 약 70m(75야드)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던 전초 진지의 2.36인치 로켓트 포에서 발사된 첫 포탄이 맨 위의

적 전차를 명중시켰다. 뒤 이은 다른 대전차 화기들의 집중 사격을 받아, 앞서 가던 적 전차 5대 역시 전혀 대응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였으며, 역수 같은 소총 사격을 받은 전차 위의 적 보병들은 순식간에 낙엽처럼 땅 위로 굴러 떨어졌다.

한국 해병 제 3대대가 약 6km의 거리를 이동하여 거의 행군 목적지에 다다른 것은 06:00 쯤이었다. 겹겹으로 배치된 대전차 부대들의 진지 지역을 막 통과 중이던 행군 중대의 본대는 매 마침 전개되는 전투 상황을 다소간의 호기심으로 관망하게 쯤 되었으나, 앞서 가던 제 10 중대 제 2소대의 침병들은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명의 침병조 바로 뒤에는 소대 선임하사관 겸 제 1 분대장 임 경섭(林景燮) 3조(三等兵曹)와 그의 잔여 분대가 따르고 있었다. 침병의 보고를 받고, 위장된 우람한 물체가 약 150m 전방의 도로와 콩밭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관측한 임 경섭 3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적의 전차라는 생각이 들자 중대 로켓트 포 사수를 찾았다. 당황한 탓인지 로켓트 포 요원들의 장탄(裝彈)이 더딘 것을 본 임 경섭 3조는 스스로 2.36인치 로켓트 포를 메고 침착하게 목표물을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순간적으로 포탄이 날아 가는 것은 목격했으나, 이내 어수선한 주변 상황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⁵⁾

독 안에 든 쥐와 다를 바 없는 적의 저항은 사실상 미미한 것이었으며, 오래지 않아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한국 해병이 발사한 로켓트 포탄은 단지 1발에 그쳤으나, 미 해병들의 로켓트 포, 75mm 무반동총과 90mm 전차포들의 일제 사격을 받은 적의 T-34 전차는 1대도 온전할 수가 없었으며, 200여구의 적 시체가 즐비한 원통이 고개 일대는 피로 물들었다. 단 1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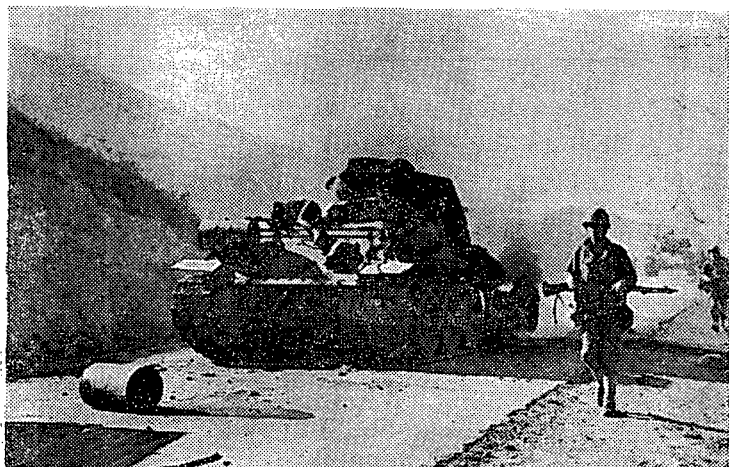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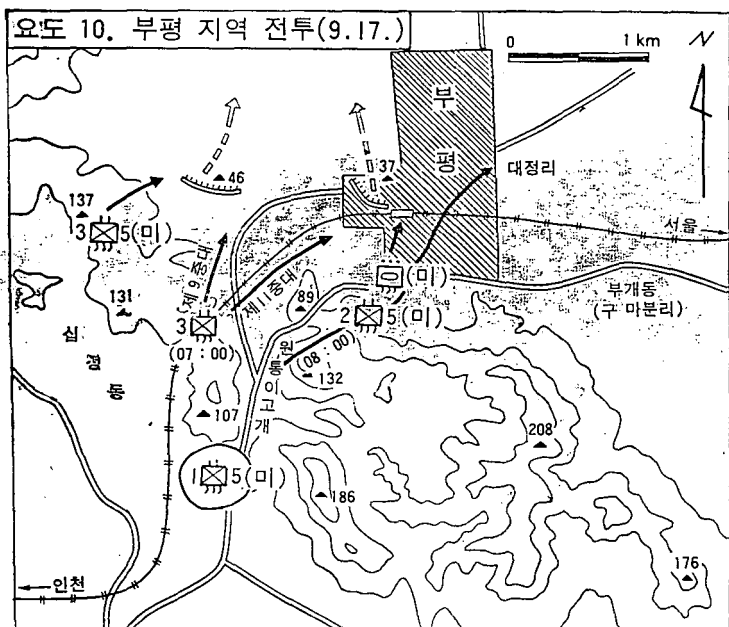


사진 13. 격파된 적의 T-34 전차. 원통이교개(1950.9.17.).

가볍게 부상했을 뿐, 미 해병들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2. 부평 지역 전투

9월 17일 아침, 적의 반격 부대를 포착, 섬멸하고 그 잔적을 소탕하기까지, 한·미 해병 부대의 공격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바로 1시간 전에 제 10 중대 참병이 행군을 멈추었던 곳에서 왼쪽으로 뻗은 소로(小路)를 따라, 한국 해병 제 3 대대는 07:00에 진출을 재개하였다. 제 11 중대가 먼저 철로를 따라 나가면서 부평역 쪽으로 전개하였고, 제 9 중대는 약간 뒤늦게 소로를 따라 가다가 경인 철도를 횡단하여 제 11 중대의 좌측방으로 진



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 해병 제3대대는 미 해병들의 진출에 앞서 부평 지역을 탐색, 소탕하기 위하여 제11중대를 우전방에, 제9중대를 좌전방에, 그리고 제10중대를 그 후방 중앙에 예비로 위치시키는 공격 대형을 취한 것이다.⁶⁾

제11중대의 선두에서, 철로를 따라 가다가 부평역에서부터 탐색 작전을 개시하려던 제3소대는 갑자기 부평역 바로 북쪽의 작은 언덕(37고지)으로부터 적의 자동 화기 사격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화차(貨車) 뒤에 몸을 숨겼던 제3소대장 육동욱(陸東旭) 소위는 그 화차를 은폐물로 이용, 전진하고자 대원들과 합세하여 화차를 밀고 나가다가 적의 총격을 받아 경상(輕傷)이기는 하나, 카빈 소총을 옮겨 쥐고 있던 왼손에 부상을 당하였다. 적의 진지

로부터 감제되는 저 지대(低地帶)의 철로를 따라 전개한 제 11 중대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력을 적절히 집중시키지도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적을 구축(驅逐)하지도 못한채, 사병 1명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당하였다.⁷⁾

부평역 북쪽에서 있는 적의 사격을 신호로 한듯, 거의 동시에, 이른바 조병창의 서쪽 46 고지에서 날아오는 적의 자동 화기 사격을 받아 제 9 중대의 진출도 저지되었다. 제 9 중대는, 이때 비록 개활지에 있었으나, 적으로부터 약 300m 이상의 거리에서 약간 언덕진 길쪽을 은폐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침착하게 경기관총을 거치하고 적을 향해 사격을 집중시키기까지 했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요람을 갓 박차고 나온 이때의 해병들로서는 적을 포획 또는 섬멸하기 위하여 사격과 기동을 조화시키면서 신속히 개활지를 횡단, 전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술에도 아직 익숙해 있지 못했던만큼, 결과적으로는 적의 사격에 고착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⁸⁾

이처럼 공격이 둔좌(頓挫)된 한국 해병 제 3대대의 상황은 치밀하게 잘 짜여진 미 제 5해병연대의 전반적인 공격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타개될 수 있었다. 제 9 중대의 진출 방향 서쪽에 있는 137 고지에는 이미 그 전날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의 G 중대가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중대의 일부 병력이 46 고지 공격에 지원되었다. 미 제 5해병연대 작명 19-50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예하의 제 3대대로 하여금 이날 연대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한편, 한국 해병 제 3대대의 부평 지역 소탕작전을 엄호 및 지원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적 18명이 사살되고 46 고지의 잔적(殘敵)은 도주하였으나, G중대에서도 3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가 한국 해병 제 3대대보다 1시간 늦게 원통이고개를 넘어 부평 지역 동쪽으로 빠져 진출할 때, 이들과 함께 이동을 개시한 전차가 부평역 일대로 투입되자, 부평역 주변에서 한동안 저항하던 적은 급히 도주하거나 주춧가로 숨어들었다. 오전 중 한국 해병 제 3대대는 미 제 5해병연대의 공격 대대들이 부평 지역을 빠져 나가기까지 대기하면서, 지원된 전차와 함께 그 일대의 소탕작전을 담당하였으며, 오후 늦게서야 목표 1을 향하여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⁹⁾

9월 17일, 「맥아더」장군이 전선을 시찰하기 위하여 「마운트 머킨리」호를 출발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인천 내항의 한 부두에 상륙하자, 「스미드」장군의 영접을 받은 「맥아더」장군은 미 해병사단 지휘소(CP)로 안내되었다. 사단 CP는, 인천 내항에서 청색 해안으로 가는 도중, 염전(鹽田) 동쪽의 도로 가까운 곳(TA 918 478)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D일 청색 해안으로 상륙한 미 제 1해병연대의 D목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사단 CP에서 정보 및 작전 상황을 청취한 뒤, 「맥아더」장군은 다시 미 제 1해병연대 CP로 향하였다.

이날 전선을 시찰하는 동안 줄곧 「맥아더」장군을 수행한 일행은 「스트러블」 중장과 「세퍼드」 중장, 그리고 「아몬드」 소장을 비롯하여 극동미군 사령부와 제 10군단의 많은 장군들과 또다른 참모 장교들, 신문 특파원과 사진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많은 장군들을 포함한 그 행렬이 5성(五星) 장군의 전선 시찰에



사진 14. 미 해병사단 지휘소를 방문한 「맥아더」 장군. 인천 교외(1950. 9. 17.).

결맞는 것이기는 하나, 이 혼하지 않은 행렬을 대하는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래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미 제1해병연대 CP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선 상황을 청취한 「맥아더」 장군은 연대장 「풀러」 대령에게 은성(銀星)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과 그의 수행원 중 누구도 이날 훈장을 준비해 오는 것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탓으로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기록상으로는 이날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실제 훈장은 후일에 전달되었다. 마침 때맞추어 이 곳에 와 있던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과 해병대 사령관 신 현준 대령을 소개받은 「맥아더」 장군은 이 양인에게도 미국 은성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는 언약(言約)을 주었다.¹⁰⁾

미 제1해병연대 CP를 출발한 「맥아더」 장군 일행은 제5연대 CP로 이동 중 적의 T-34 전차 5대를 구경하였다. 이 전차들

은 전달 미 해병 항공기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었는데, 제 5 연대장 「머리」 중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조금만 더 전방으로 나가면 방금 보병들이 쳐부순 전차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추었다. 「맥아더」 장군의 신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스미드」 장군의 입장에서, 최고 사령관을 최전선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신중한 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설사 만류한다고 해서 주저할 「맥아더」 장군도 아니었다. 어쨌든, 아직 천진(戰塵)이 가시지도 않은, 일순간의 격전장이었던 원통이 고개 하륙에 「맥아더」 장군이 당도했을 때, 한·미 해병 부대는 불과 1km 전방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격전 현장의 생생한 전과들을 둘러 보고 막 떠난 뒤, 미 해병들은 장군의 차가 세워져 있던 길가의 한 도랑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적병들을 자그마치 7명이나 잡아 끌어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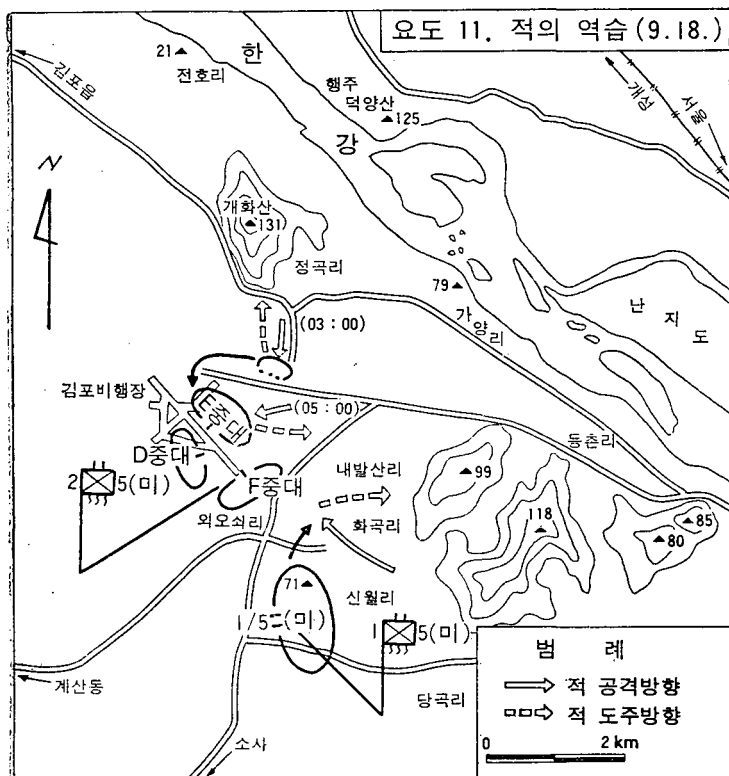
3. 김포 비행장 탈환

9월 17일 09:00, 예정보다 늦게 행동을 개시한 미 제 5 해병 연대 제 2 대대는 국도를 따라 1km 쯤 전진하다가 왼쪽으로, 부평 동쪽 지역을 거쳐 김포 비행장으로 빠질 수 있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선두에 선 E중대가 부평 동쪽 변두리의 조밀한 주거 지역을 소탕한 뒤 대대가 이 지역을 빠져 나가기까지는 오전 한나절을 소비해야만 했다. 미 해병들은, 멀리 도주할 겨를없이 민가로 숨어 든 적으로부터 저항을 받은 까닭도 있었으나, 사실은 그에 못지 않게, 지형 지물의 식별이 어려울 만큼 허허벌판인

김포 평야 지대를 눈앞에 두고 지형 판단이 쉽지 않은 터에, 이때 사용하던 지도마저 실지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진출로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¹²⁾

보병들과 함께 전진해야 할 전차 A중대 제 1소대의 경우 또한 그 예외는 아니었다. 오전 중에 보병들의 소탕작전을 지원하던 이 전차소대는 부평 중심 지역을 벗어나 마을 북쪽으로 빠졌으나, 무겁고 덩치 큰 전차들이 이동할만한 진출로를 찾는 데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동하는 동안 보병과의 혼잡을 피하고 신속히 전진하기 위하여 보병들의 진출로와는 다른 길을 사전에 지도 상으로만 선정해 두었었으나, 실지에서 이들은 그 길을 찾아 내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부평 지역 훨씬 북쪽에서 건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한 도로를 발견한 이들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파괴된 다리를 보수한 뒤에서야 그 길로 빠져 나갈 수 있었다. 시종, 소총 소대의 엄호를 받은 이 전차소대는 오래 지체하는 동안 뒤따라 온 다른 전차소대와 합류했으며, 부평 지역을 벗어나자 앞서 가는 보병대대를 따라 잡기 위하여 전진을 서둘렀다.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가, E중대를 선두로, 다시 김포 비행장을 향하여 진출을 재개한 것은 이날 14:00 쯤이었다. 이 대대는 16:00 쯤, 목표 A와 B를 저항없이, 그리고 비교적 쉽게 점령하였다. 대대장 「로이즈」 중령은, 이제 남은 목표 C를 탈취하는 데 있어서 기동 속도를 매우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까닭은 탈취해야 할 목표의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목표를 탈취하기까지는 시간 상으로도 쫓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대장은 목표를 향해 서둘러 부대를 전개시켰다. 우전방의 E중대가 전차 1개 소대와 함께 비행장 활주로의 동쪽 지



역을, 그리고 D중대가 그 서쪽 지역을 공격하게 되며, 대대 예비로 중앙에서 후속하는 F중대에서는 1개 소대가 돌격 중대 사이로 끼어들어 활주로 남쪽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뒤늦게 합류한 전차 A중대(-)는 대대 좌전방으로 보병보다 훨씬 깊숙이 파고 들게 하였다.

활주로 남쪽 외곽 지대에서 최초로 적의 사격을 받자, 미 해병들은 보·전 협동으로 적의 자동 화기 2정을 제압하였다. 비행장에 대한 돌격은 18:00 쯤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돌격 부대들

은 한동안 여기저기서 적의 소화기 사격을 받았으나, 그저 저항한다는 의미뿐 위협적인 것은 못되었다. 적들은 기습을 당한 것이 분명했고, 그만큼 미 해병들의 작전은 급진전되었으나 어둠을 앞지르지는 못하였다.

어둠이 짙게 덮이어 비행장을 완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공항 청사(廳舍)와 격납고(格納庫) 등 주요 지역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 대대는 중대별 방어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대대 전체로 보면, 이 방어 진지는 공격 대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었다. 주 활주로 북동쪽에 E중대, 그 남서쪽에 D중대, 그리고 활주로 남쪽 끝에 F중대가 자리 잡아 상호간 양 날개에서는 협조를 유지하되 각각 독립된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대대본부는 그 중앙 지역에 위치한 것이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직전에 E중대에서는 공항 출입문 밖에 있는, 서울과 김포읍 쪽으로 뻗는 두 길의 교차 지점 일대에 1개 소대를 전초로 배치하였다.

한편, 제 2대대를 뒤따르다가 연대 우전방으로 진출한 미 제 5 해병연대의 제 1대대는 19:00, 저항없이 목표 E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야간 방어에 들어갔다. 신월리(新月里) 서쪽의 71 고지를 비롯한 군소(群小) 고지에 편성된 이 대대의 방어 진지는 비행장과, 김포-소사(素砂)를 잇는 간선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미 제 1 해병연대와 연결하여 군단 통제선 CC의 방어를 보강하는 구실까지도 해내는 곳이었다. 이보다 앞서, 연대 예비대인 제 3대대는 제 1대대 서쪽으로 약 4km 거리에 있는 삼정리(三井里)에 이날의 마지막 집결지를 잡았으며, 연대 지휘소도 그 자리를 옮겨 16:30 이후에는 부평역 북쪽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미 해병들의 신속한 공격을 받고 놀란 적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비행장에서 물러서고 말았으나, 야음(夜陰)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동시에 그들이 반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 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후반야(後半夜)에 시작된 적의 반격은 대체로 비행장 북동쪽과 남동쪽의 2개 방향에서 시도되었다. 적의 수괴(首魁)들은, 한강을 배수진(背水陣)으로 하여, 급히 규합된 그들의 부대를 반격의 대열에 몰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분명했다.

9월 13일 03:00 쯤, 비행장 북동쪽의 개화산(開花山), 즉 김포읍 쪽으로 난 길을 따라 종대로 접근하는 중대 규모의 적을 E중대의 전초 소대가 먼저 발견하였다. 불시에 집중 사격을 받아 별로 신통하게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도주했던 적들은 몇 차례 더 반격을 해 왔었고, 마침내 T-34 전차 1대를 앞세워 전초 진지로 다가 왔다. 대전차 화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전초 소대가 부득이 철수하자, 적의 일부는 E중대의 주 진지 전방까지 접근했었으나, 마침 날이 밝아오자 제물에 물러서 버리고 말았다.

새벽녘, 비행장 남동쪽에서는 E목표의 북반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 1대대의 B중대가 영등포 쪽으로부터 신월리 부근을 통해 비행장으로 침투하려는 적 부대를 먼저 발견하였다. 이 적 정 보고는 신속하게 대대를 통해서 인접 대대의 F중대에까지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B중대는 약 200명 규모의 적 주력이 진지 전방을 통과할 때 일제 사격을 가하였으며, 각종 곡사 화기가 또한 여기에 가세하였다. 앞서 지나친 약 1개 소대 규모의 적 또한 비행장 남동쪽을 지키던 F중대의 집중 사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치열한 전투가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이내 날이 새자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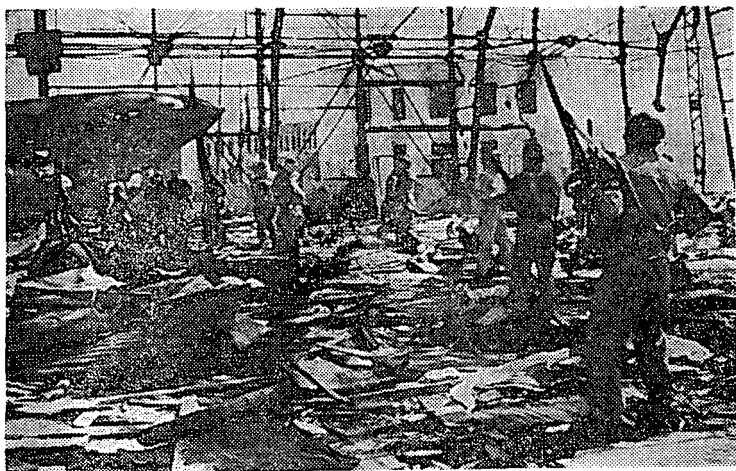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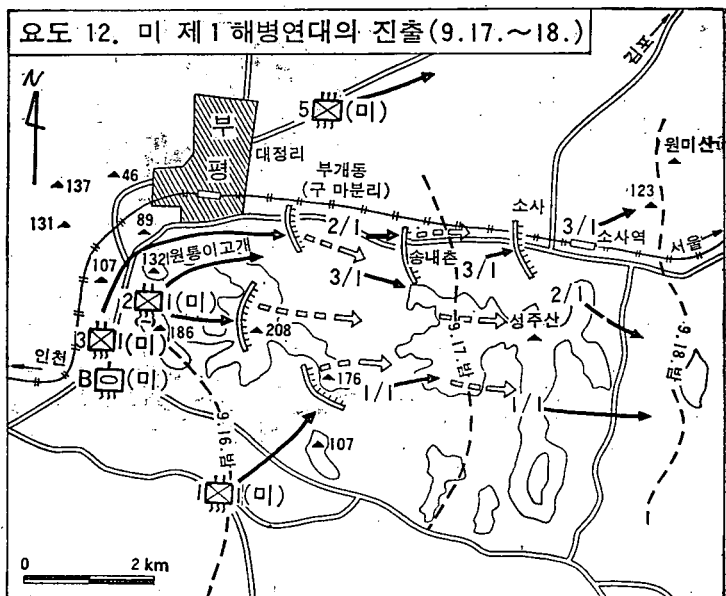


사진 15. 노획한 적기(敵機).

남은 적들은 뿔뿔이 흩어져 한강 쪽으로 도주하였다.

9월 18일 10:00까지 제 1 및 제 2대대의 각 중대들은 비행장과 그 주변 마을들에 대한 탐색을 완료하였으며, 미처 도망하지 못했던 적 패잔병들은 고스란히 붙들렸다. 작전은 계속되어 이날 09:30, 제 1대대는 목표 F를 점령하였으며, 제 2대대에서는 11:45, D중대가 연대 목표 D인 개화산을 아무런 저항없이 점령하였다. 같은날 12:45, 연대 CP는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비행장을 완전히 확보하기까지, 그 주공을 맡았던 제 2대대에서는 전사자 4명과 부상자 19명이 발생한 반면, 최소한 100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획품 중에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은 「야크」형 항공기 1대를 비롯하여 3대의 적기(敵機)가 포함되어 있었다.



4. 경인 국도 상의 진격

9월 17일 07:00, 미 제 1해병연대의 공격은 예정대로 개시되었다. 그리고 미 제 5해병연대가 부평 지역을 벗어나 김포 비행장을 향해 진출하는 동안, 미 제 1해병연대는 경인 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향하여 진출하였다.¹⁴⁾

미 제 1해병연대의 좌전방에서, 국도를 따라 E중대를 진출시키고 그 남쪽으로 F중대와 D중대를 나란히 전개시켜 공격을 개시한 제 2대대는 208고지 일대에서 약 1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적의 저항을 받았다. 국도를 따라 나가던 E중대도 부평 지역

동쪽의 개활지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부개동(富開洞: 옛 마분리)* 어귀에서 진출이 중단되었다. 적의 저지선은 208 고지에서 그 북쪽의 연봉(連峰)을 따라 부개동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203 고지와 그 북쪽의 연봉들이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E 중대가 진출하려면, 그에 앞서, 진출을 가로 막는 전방 개활지와 부개동 일대를 화력으로라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항공 지원은 미 제 5 해병연대에, 그리고 포병 화력은 208 고지 쪽에 그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했다.

제 2 대대가 포병 화력을 지원 받아 208 고지를 먼저 탈취한 것은 한낱이 다 되어서였다. 이 무렵, 연대의 조치에 따라, 국도 쪽에서는 전차 B 중대의 제 1 소대와 함께 전방으로 진출한 제 3 대대의 G 중대가 부개동 공격에 나섰다. G 중대를 제외한 제 3 대대는 LVT와 더크(DUKW)를 지원 받아 전차 B 중대(一)와 함께 기계화 부대를 편성하여 G 중대 뒤를 따르고 있었다. 최전방에 나선 미 해병 전차 부대는 부개동의 민가 사이에서 85mm 포신(砲身)을 앞으로 내미는 적의 T-34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적보다 한발 앞서 M 26 전차의 90mm 포를 발사하였다. 적의 전차와 함께 집들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미 해병들은 16:00 조금 못 되어 부개동을 확보하였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우기 시작했으나, 공격은 속행되었다. 제 3 대대는 국도를 따라 전진하고, 그 좌측의 개활지로 진출한 제 2 대대는 철로를 중심으로 전진하였다. 부개동 동쪽 약 1km 의

* 행정 구역상 부천군 부내면(富內面)에 속한 때의 지명은 마분리(馬墳里)였다. 인천 상륙 소요 지도의 제작시에 마분리의 한자 지명(漢字地名) 중, 분(墳)을 項(項)으로 잘못 판독한 듯, 당시의 지도 및 문헌에서는 마분리가 마항리(Mahang-ri)로 잘못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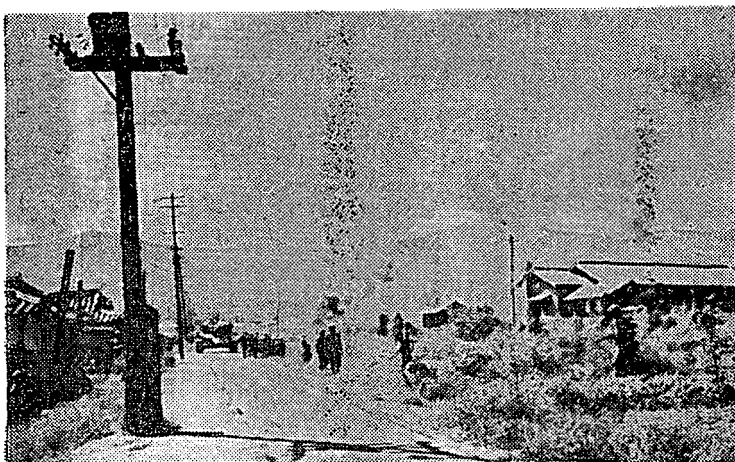


사진 16. 전차와 함께 전진하는 미 해병들.

거리에 송내촌(松內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2km쯤 되는 곳에 소사(素砂)*가 있었는데, 이 소사 남쪽의 성주산(聖柱山)에서 그 북서쪽으로 흘러 내린 한 능선을 경인 국도가 관통하는 곳이 송내촌이었다. 적들은 지형적으로 경인 국도의 목을 지키기에 알맞은 송내촌 일대의 능선을 이용하여 미 해병들의 진출을 저지하려 했다. 상당수의 대전차 화기까지 배치되었으며, 폭사 화기의 지원도 받고 있었다.

미 해병들이 송내촌 일대의 적으로부터 기습적인 사격을 받았을 때, 공교롭게도 선두 전차의 엔진 작동이 멎어버렸다. 산개한 보병과 전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격렬한 사격을 주고 받으며 적

* 1889년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소사는 1941년에 읍으로 승격, 1973년에는 부천시(富川市)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행정 구역상 부천시 송내동(松內洞)에 속하는 옛 송내촌 서쪽 가까이에서 인천 직할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 재빨리 지원 요청을 받은 미 해병 항공기 편대가 나타나 미 해병들 전방의 고지를 폭격하고 로켓 포탄과 기총 사격을 적진에 퍼부었다. 마침내 제 3대대 좌측의 제 2대대가 먼저 능선 끝 부분을 점령한 데 이어 국도 상에서는 후속 전차들이 90mm 포와 기총 사격을 퍼부으면서 돌진하자, 살아 남은 적들은 소사 쪽으로 도주하였다. 미 해병들은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대전차포 6문을 파괴했으나, 그에 앞서 미 해병 전차도 3대가 약간씩 손상을 입었다. 미 해병들은 18:30 경까지 송내촌 일대의 능선을 완전히 확보하고 서둘러 야간 방어 준비를 시작하였다.

한편, 준비한 산악과 전담들을 가로 질러 나가면서 미 제 1 해병연대 우전방에서 기동 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제 1대대는 208 고지의 남동쪽 연봉인 176 고지에서 한낮을 전후하여 약간의 저항을 받았다. 그 뒤로 별다른 적의 저항은 없었으나, 이 대대는 복잡한 능선과 계곡을 오르내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진출은 더디었으며, 이날 야간은 제 3대대 진지 남쪽에 있는 고지에서 방어 진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전진 중, 그 남쪽에서는 종일토록 사단 수색중대가 측방 엄호를 담당하였다.

9월 18일 이른 아침, 미 제 1해병연대 제 2대대가 소사에 다다를 무렵에는 전날과 같이 기계화 부대로 편성된 제 3대대가 전방으로 나가서 소사로 돌진하였다. 한동안 소사 어귀에서 대전차 장애물에 부딪쳤으나, 미 해병들은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오전 중에 소사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정오 쯤, 국도상에 전개한 전차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제 2대대

는 소사 남동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제 3대대는 소사 동쪽에 있는 원미산(遠美山)의 한 봉우리인 123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해병사단 작명 5-50에서 제 1 해병연대에 목표로 주어졌던 이 123 고지가 장악되고, 제 2대대 남쪽에서는 전날에 이어 험한 산악 지대를 오르내리며 전진한 제 1대대가 전선을 연결하여 포진함으로써, 미 제 1 해병연대 지역에서의 군단 통제선 CC는 9월 18일 오후에 완전히 확보된 것이다.

9월 18일, 군단 통제선 CC를 확보하기까지, 미 제 1 해병연대가 조우한 적의 저항들을 돌이켜 보면, 그것들이 작전상 당장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국면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작전에 있어서는 어느만큼 우려할만한 조짐을 보여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전날에 비하여 대전차 화기 및 장애물이 새롭게 등장한 외에 포격도 크게 증가했다. 소사 동쪽의 123 고지를 점령한 제 3대대는 집중적인 적의 120mm 박격포 사격을 받아 무려 30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으며, 그뒤 비슷한 적의 포격으로 제 2대대에서도 14명의 손실이 있었다.

5. 인천 수복

한국 해병들의 신속 과감한 작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화를 이루어 인천 일원은 하루가 다르게 질서와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시정(市政)의 정상화(正常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전 포격과 폭격, 시가지 전투 등, 상륙 작전 과정에서의 피해가 어느만큼은 불가피했던 터에 약탈과 방

화, 학살 등, 적의 마지막 만행 또한 극심하였다. 게다가 긴급 복구와 사상자의 처리, 교아와 난민의 구호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맡아 해야 할 시의 행정 기관은 자그마치 3개월에 가까운 적치(敵治) 기간으로 마비되어버린 것이다.

미 제1 해병사단장 「스미드」 소장은 그가 인천에 상륙한 다음 날인 9월 17일, 고위층으로부터 인천의 시정을 조속히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의 미 해병사단은, 해안두보가 확보되는 대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하여 곧장 내륙 진격 작전을 서둘러야만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천의 시정을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다. 인천 상륙에 관한, 군사적 측면에서 그 계획이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만큼, 상륙 후의 실지(失地) 회복 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한국 정부의 경우를 보아도 이 시점에서는 그 준비에 착수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는 못하였다.¹⁵⁾

우선적으로 수소문한 전전(戰前) 시장의 행방을 알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스미드」 장군이 인천의 시정(市政) 복구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적역(適役)이 손 원일 제독이었다. 이때 인천에는 북괴군에게 붙들려 감금되어 있다가 인천 상륙 후 아군에 의해서 구출된 인사들이 더러 있었다. 손 제독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인천 갑구(甲區)에서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바 있는 표 양문(裴良文)이라는 지명(知名) 인사를 「스미드」 장군에게 천거하였다.¹⁶⁾

마침내, 시정을 복구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속속 진척되었다. 9월 18일 오전, 시청의 좁은 광장에서 거행된 시장 취임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였으며, 인천 시가지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 해병 제2대대에서 차출된 소규모의 의장대가 경비를 겸

하여 식당 주변에 도열하였다. 애국가 봉창에 이어 국·영문으로 된 상륙군 사령관 명의의 시장 임명장이 낭독되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시장을 임명하는 포고문에는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시장을 임명할 때까지 「임시」라는 단서(但書)가 붙었다. 표 양문 시장, 「스미드」 장군, 그리고 손 원일 제독의 짝막한 인사들이 이어진 뒤, 손 제독이 선창하는 두번의 만세 3창으로 대한 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UN 군의 무운을 기원하면서 이날의 조출한 행사는 끝났다. 17)

미 해병사단의 내륙 진격 작전이 가속됨에 따라, 작전적 측면에서 노출되는 측방 경계 문제가 하나의 두통 거리였다. 특히 미 제 1 해병연대의 경우, 측방에 대한 경계 부담이 공격 속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남쪽 측방으로 진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미 제 7 보병사단의 상륙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수적 측면에서 보면, 해안두보가 이미 확보된 17일에 있어서도 점점 더 나빠지는 조수 조건으로 말미암아 양륙은 월미도의 녹색 해안으로만 제한되고 있어서 작전적 요구를 따를 수 없었다.

9월 17일 늦게 항만 시설이 복구되고 황색 해안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이날 24:00를 기하여 양륙 작전은 미 제 2 육군공병특수여단 통제하에 일원화되었다. 마침내, 전술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안 시설이 허용되는 한, 양륙의 속도와 양적인 면에 치중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일반 양륙(一般揚陸) 단계에 들어섰으며, 제 10 군단의 행정 상륙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9월 18일 오후, 상륙군의 후속 부대로서는 최초로 미 제 7 보병사단 예하의 제 32 연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 연대는 우선 미 해병사단에 배속되었으며, 소사 방향으로 군단 통제선 CC까지 진출하여 다음날 오전 중 미 제 1 해병연대의 남쪽 지대를 맡아 미 해병사단의 우측방 엄호를 담당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리하여 9월 18일은 인천 시정의 복구라는 민사(民事)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작전 전반에 걸쳐서도 또 하나의 진척을 가져 온 날이었다.

6. 한국 해병대의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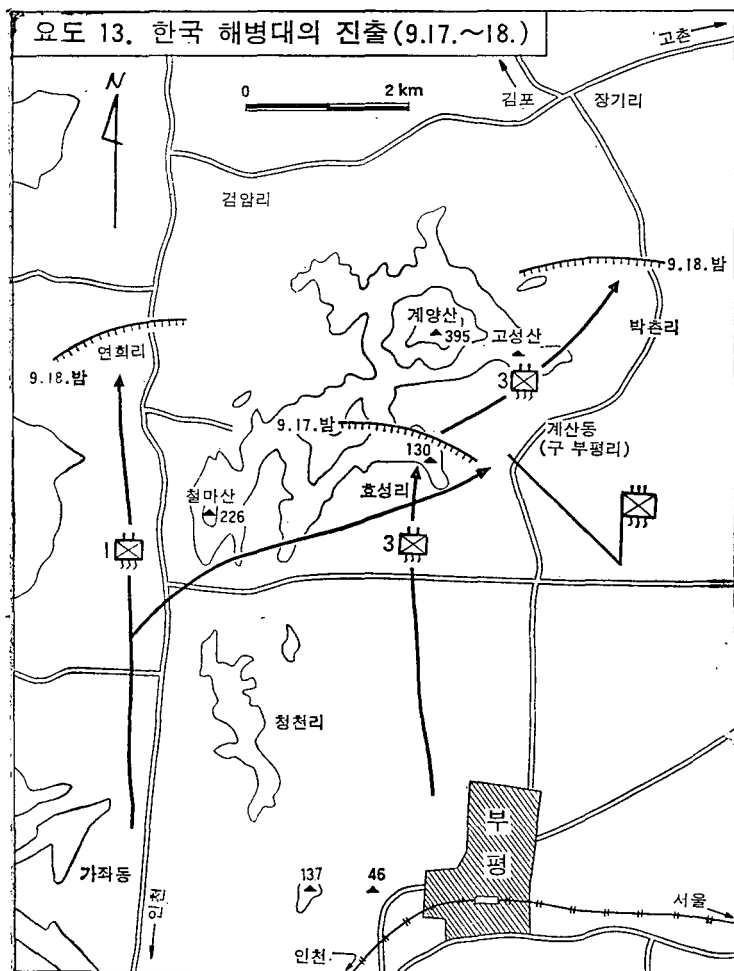
미 제 5 해병연대가 김포 비행장을 향하여 공격 작전을 진행 중이던 9월 17일, 연대장 「머리」 중령은 사단 좌측방의 경계 책임을 사단에서 맡아 주도록 「스미드」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그 까닭은, 이 연대가 김포 비행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지형적으로 넓은 김포 평야를 사이에 두고 전개될 한국 해병 제 3 대대를 계속 작전 통제한다는 것이 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한 부담이 연대의 차후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머리」 중령은 판단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미 제 5 해병연대장의 건의는 대체로 이 연대 자체의 임무와 역량에 입각하여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동시에 이 무렵의 적정에 관련하여 일고 있는 사단의 관심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물론, 상륙 초기에 있어서도 미 해병사단은 사단의 좌측방, 즉 북쪽의 김포 반도에 대해서는 남쪽 측방

에 대해서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 까닭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받아 쫓기는 적이 남쪽에서 위협을 끼칠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북쪽은 한강 하류의 폭 넓은 자연 장애물로 차단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륙으로 진격 작전이 전개되는 9월 17일에 이르러 아침 일찍부터 부평 지역에서 적의 저항에 부딪혔던 터에 이날의 항공 정찰을 통해서도 한강 하류의 양쪽 강안(江岸)에서 점증하는 적의 움직임이 포착됨으로써, 사단의 관심은 김포 반도쪽에도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17일 17:00, 한국 해병대는 인천 시가지 소탕 작전을 일단 마무리하였다. 물론, 미 해병사단의 새로운 작전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앞서 같은날 15:00 즈음, 해병대 사령부가 작성, 전달한 작전명령 제16호는 한국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 임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제2대대는 미 제2육군공병 특수여단 작전 통제하에 계속 인천의 치안을 담당하며, 해병대 사령부는 제1대대와 함께 18일 계산동쪽으로 진출, 같은날 미 제5해병연대로부터 원대 복귀하게 될 제3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미 해병사단의 좌측방 방호를 전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해병사단의 또다른 조치에 따라, 미 제5해병연대는 2개의 해안 사격 통제반(SFCP)을 차출하여 단독 작전하게 될 한국 해병대의 각 대대에 배치하게 되었다. 특별히 훈련된 해병의 탄착(彈着) 수정조와 해군 연락조로 구성되는 해안 사격 통제반은 지원부대의 직접 통신망을 가지고 통상 피지원부대의 최전방에까지 나가 합포 사격 지원을 통제하게 된다.¹⁸⁾

한편, 9월 17일 오후, 김포 비행장을 진출 목표로 하는 미 제5해병연대의 예하 대대들이 부평 지역을 모두 빠져 나간 다음



뒤늦게 진출을 시작한 한국 해병 제3대대는 목표 1을 눈앞에 둔 효성리(曉星里) 일대에서 전진을 멈추고 야간 방어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날(9월 18일) 10:00 쯤 공격을 재개한 제3대대는 제

1 목표와 제 2 목표인 고성산(古城山)을 점령한 다음, 박촌리(朴村里) 쪽으로 계속 진출하여 같은날 17:00 쯤에는 제 3 목표를 확보하였다.¹⁹⁾ 이날 10:00 에 제 3 대대가 미 제 5 해병연대에서 배속 해제됨으로써, 이 대대에 파견되었던 미 제 5 해병연대의 연락장교 「데이비스」 대위는 원대 복귀하고, 그 대신 사단 연락장교로 「해리슨」 중령이 파견되었다.²⁰⁾

잠시, 여기서 인천 상륙 당시 한국 해병대대들의 참모 편성을 살펴 보면, 각 대대마다 어김없이 인사장교는 보직되어 있었으나, 작전장교는 그렇지 못했다. 작전장교는 제 2 대대에만 보직되어 있었으나, 그나마도 출동 직전에 해군에서 충원된 경우로서, 인사장교보다 우선하여 보직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전날, 최초로 공격 전투에 투입되었던 제 3 대대가 적의 저항을 받아 일시적으로나마 돈좌되었던 상황에서 당시 해병들의 한 전투 수준을 자적인 바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미 살핀 바 있는 한국 해병대의 증편 및 출동 과정에서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이제 살펴 본 참모 편성의 일면도 어찌던 당시 해병대의 일반적 수준을 가늠케 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해병대 사령부에 파견된 미 해병사단의 연락장교 「해그나」 중령이 사실상 그 시초부터 고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처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이비스」 대위 역시 연락장교로서의 기본 임무 뿐만 아니라, 대대장에 대한 조언자로서, 그리고 어느 만큼은 작전장교로서의 참모 기능까지를 수행했다고 평해서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한편, 9월 18일 08:00, 인천 지역을 출발한 해병대 사령부는 제 1 대대를 지휘하여 주안(朱安)에서부터 부평 쪽을 향하여 탐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주안과 부평 사이에서는 전방 부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을 방해하는 적 패잔병들의 저격 및 요란(擾亂) 사격이 이따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십정동(十井洞), 청천리(淸川里)를 거쳐 계속 북상(北上)한 제 1 대대는, 같은날 16:00 쯤 계산동 서쪽 약 4km 거리의 연희리(連喜里) 일대에 전개하였으며, 이 무렵, 해병대 사령부는 계산동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마침내, 군단 통제선 CC의 북쪽 부분은 한국 해병대에 의하여 완전히 확보되었다. 이날 중 한국 해병대는 거의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던만큼 몇명의 포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나 손실도 없었으며, 작전 역시 전반적으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7. 한강 도하 명령

미 해병사단으로서는, 영등포 탈취를 위한 진격 작전이 다소간 순조롭지는 못하였으나, 김포 비행장이 확보됨에 따라 일단은 새로운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 섰다. 이와 동시에 인천시의 행정이 복구되어 후방 지역에 대한 책임까지도 벗어버릴 수 있게 됨으로써, 미 해병사단은 그 지휘소를 전방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 셈이었다. 다시 말하면, 9월 18일 오후 늦게, 미 해병사단은 수도 서울을 향하여 한걸음 더 다가 서기 위한 한강 도하작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무렵, 약 2시간의 간격을 두고 제 10 군단과 미 해병사단에서는 도하 작전에 관련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9월 18일 18:14

에 하달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6-50은 제 5해병연대로 하여금 다음날(9월 19일) 한강 남쪽 제방을 따라 도하 지점들을 확보하고 명에 의거 도하 준비를 갖추도록 하며, 제 1해병연대는 국도를 따라 영등포로 공격을 계속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명령은, 같은날 20:00에 하달된 제 10군단 작전 훈령 제 1호(Operational Instruction No.1)보다 시간적으로 약 2시간 앞서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군단의 훈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제 10군단 최초의 이 작전 훈령에서는 미 해병사단으로 하여금 서울 시가지와 그 북쪽의 고지 들을 탈취, 확보하기 위하여 9월 20일에 한강 도하 작전을 감행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

미 해병사단으로서는, 한강 도하 작전이 기본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이에 관련한 사전 계획을 검토해 왔었으나, 그 구상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당초 미 해병사단에서는 한강 인도교나 철교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고려되었던 것이나, 막상 이들에게 주어진 도하 작전의 여건은 예상했던 시기가 성숙되기도 전에 다가 온 것이다. 계획 상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문제도 야기되게 마련이다. 이 경우, 적절한 도하 지점의 선정과, 차량들이 제방을 오르내리는 데 필요한 램프(ramp)와 부교(浮橋) 등 도하 장비의 확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한강에는 예로부터 많은 나루터가 있었다. 당시 제 구실을 하는 곳은 거의 없었지만, 도하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나루터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마련이다. 미 해병사단에서는 강 양쪽 제방의 상태, 도로망 또는 출구(出口), 그리고 LVT 운용을 위한 하상(河床) 상태 등을 고려한 사전 연구 결과 3개의

나루터를 가용한 도하 지점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차후 작전과 관련하여 다시 고찰했을 때, 그 중 상류 쪽이 되는 영등포 부근의 마포(麻浦) 나루는 서울의 공격 목표에 너무 가깝고, 반면에 하류 쪽의 도하 지점은 목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결국 도하 지점으로서의 정찰 결과에서도 가장 적합한 곳으로 확인된 뱃배항 근처의 행주(幸州) 나루가 선정되었다.²¹⁾

도하 장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강의 강폭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미 해병사단 공병의 보유 장비만으로는 도하 작전에 충족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군단에 제기되었으나, 군단 공병의 보유 장비도 사단 장비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군단의 지원 노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뒤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9월 19일 오후, 미 해병사단 지휘소는 인천 시가지 남동쪽 교외에서 그 자리를 옮겨 김포 비행장 남동쪽 변두리의 외오쇠리(外五釐里)에서 16:45에 개소하였다. 외오쇠리에는 8·15 해방 직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들이 사무실 및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던, 흔히 「퀸세트」라 불리는 간이 건물들이 있어서, 지휘소 건물로 사용하기에 안성 마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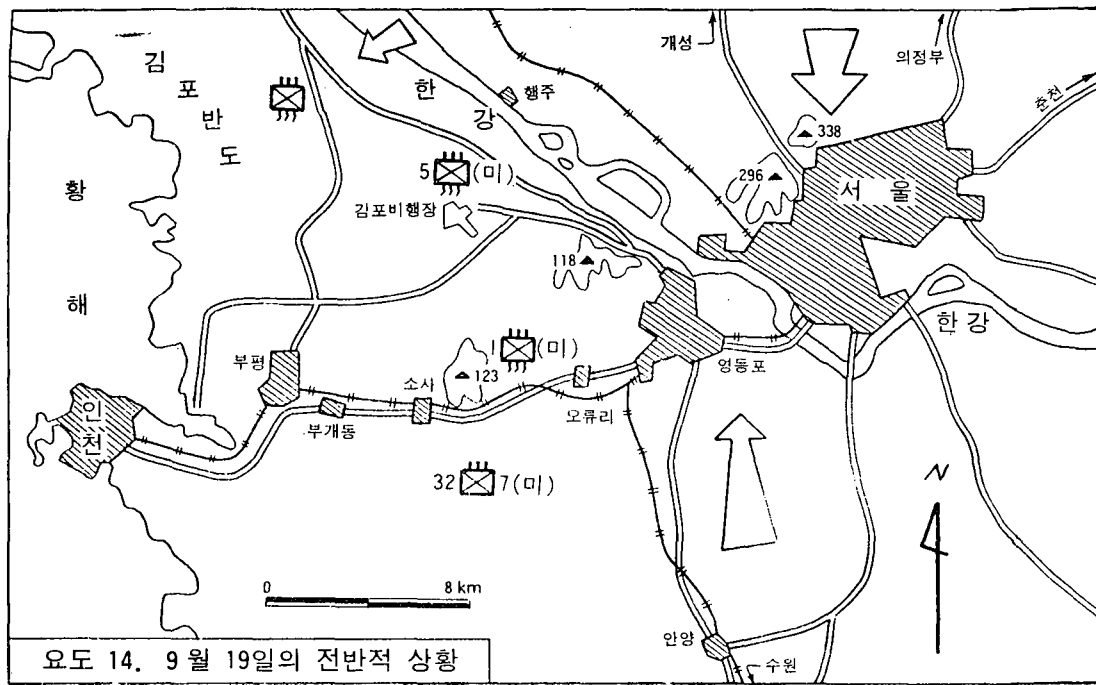
9월 19일 14:30, 지휘소 이동에 앞서, 미 해병사단은 제 5해병연대로 하여금 행주 나루 근처에서 한강을 도하, 대안(對岸)의 125 고지를 확보하고 서울 외곽의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철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전진케 하는 내용이 담긴 작전명령 7-50을 하달하였다. 동시에 사단의 수색중대, 전차대대 A중대 및 미 육군 제56수륙양용차대대 A중대가 제 5해병연대에 배속되었으며, 사단 공병대대, 해안대대 및 LVT 대대가 직접 지원 부대로 할당되

는 한편, 제 11 포병연대에는 제 5 해병연대에 화력의 우선권을 주도록 지시되었다. 이같은 부대 배속 및 지원 임무 부여는 그 이전의 준비 명령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며, 배속부대들 가운데에는 이때까지 인천의 경계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 해병 제 2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8. 9월 19일의 전반적 작전

인천 상륙의 D일로부터 9월 18일에 이르기까지는 1개 연대 규모의 한국 해병대를 제외하면, 미 해병사단 예하의 2개 연대가 제 10 군단의 전 전선을 담당하는 전투 부대였다. 9월 19일, 비로소 미 제 7 보병사단 예하의 제 32 연대가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들 전 전투 부대가 9월 19일에 실시한 작전은 차후와 도하 작전을 위한 부대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9월 19일 아침, 미 제 5 해병연대는 사단의 작전 명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한강 남쪽 제방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07:00, 개화산(開花山) 좌측방의 전호리(錢湖里)에 있는 21 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한 제 2대대의 F중대가 아무런 저항없이 목표를 확보하는 동안, 제 3대대에서는 H중대의 1개 소대가 개화산 남동쪽의 가양리(加陽里)에 있는 79 고지를 확보하였다. 전날 오후 늦게 김포 비행장 남동쪽의 신 집결지로 이동했던 제 3대대는 차후 도하 작전의 돌격 부대로 예정되고 있었다. 이 대대는 79 고지를 대대 관측소(OP)로 정하고, 차후 작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찰을 위하여 이 고지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한편, 전



날, 비행장 동쪽의 F목표를 장악하고 있던 제 1 대대가 이날 영등포와 한강 일부를 감제할 수 있는 일련의 고지군(118, 80, 및 85 고지)을 점령함으로써, 도하 지점을 중심으로 한강의 남쪽 제방과 그 주변 고지들은 모두 확보되었다.²²⁾

그러나, 미 제 5해병연대는 차후 작전을 위하여 도하 지점 가까이 집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연대의 제 1 대대는 이날 오후 미 제 1해병연대 제 1 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게 되어 있었다. 이날 한낮을 넘길 무렵, 미 해병사단에 일시 배속된 미 제 7보병사단 예하의 제 32연대가 미 제 1해병연대 남쪽 전선을 맞게 됨으로써, 이들에 의해서 교대될 미 제 1해병연대 제 1 대대가 그들 연대의 좌측으로 차량 이동하여 미 제 5해병연대 제 1 대대 진지를 인수하게 되어 있었으나, 수송 수단 지원의 지연으로 출발이 늦어졌으며, 차후 임무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었던 미 제 5해병연대 제 1 대대가 이동한 뒤를 쫓아, 이미 어둠 속에 잠긴 118 고지까지 겨우 진출할 수 있었다.

제 1 대대를 제외한 미 제 1해병연대의 다른 2개 대대는, 이날 오전 중, 이 연대의 우측방 전선을 맡게 된 미 제 32보병연대의 진출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먼저 진출을 개시한 것이 10:30 쯤이었다. 전차 C중대를 선두로 국도를 따라 나가던 제 2대대는 술한 장애물로 뒤덮인 지뢰 지대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악전고투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때마다 포병 및 항공 지원을 적절히 받아가면서 적을 물리친 끝에, 이날 19:00 쯤에는 오류리(梧柳里) 동쪽 덕고개(德峴)에 야간 방어 진지를 마련하였다. 국도 좌측에서 높고 낮은 능선들을 횡단하면서 제 2대대와 병행 전진하던 제 3대대는 당곡(堂谷) 일대의 고지군들을 점령함으로써, 그 북쪽으

로는 118 고지에 진입하게 될 제 1 대대와, 그리고 남쪽으로는 제 2 대대와와의 전선을 연결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진지 지대에서는, 별다른 시계(視界)의 제한없이, 그 앞에 가로 놓인 안양천(安養川) 하류의 저지대와 그 너머로 영등포 시가지까지를 모두 관측할 수가 있었다.

이날(9월 19일), 차후의 도하 작전과 관련한 부대 기동은 미 해병사단 좌측방의 한국 해병 전선에서도 진행되었다. 전날, 인천에서 부평 지역 북쪽의 계산동으로 이동했던 해병대 사령부는 차후의 도하 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19일 중에 일부 부대를 도하 지점 좌측방으로 한강변까지 전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국 해병대는, 제 1 대대로 기왕의 진출 지역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제 3 대대로 하여금 고촌(高村) 방면으로 진출, 도하 작전 엄호 임무를 담당케 하되, 제 1 대대와와의 중간지대에 1개 중대를 전개시켜 김포 반도쪽에 대한 전선을 형성케 하였다. 9월 19일 아침, 박촌리 북쪽 약 3km 거리에 있는 장기리(楊基里)에 제 10 중대를 전개시킨 뒤, 고촌 방면으로 진출한 제 3 대대는 별다른 적의 저항없이 이날 오후 서울—김포 도로 상의 요지(要地)인 천등고개(天登峴)와 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96 고지를 장악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한국 해병대는 김포 반도 쪽에 대한 약 12km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²³⁾

한편, 미 제 32 보병연대는 이날 오후 미 제 1 해병연대 우측방으로 전개하였다. 제 32 연대의 당시 실 병력 5,114명 중에는, 지난 8월의 절박했던 위기에 급히 충원되어야만 했던 한국인 병사들이 1,87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날 18:00에는 미 제 7 보병사단이 국도 남쪽 지대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제 32 연대는 미 해병사단으로부터 원대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날 중 미 제 7 사단의 또하나의 연대인 제 31 보병연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²⁴⁾

9월 19일, 제 10 군단 전술항공본부(TAC)가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제 10 군단 전술항공본부의 이동은 실질적으로 미 제 33 해병비행전대(MAG-33)의 이동을 의미한다. 바로 하루 전날, 미 제 1 해병항공사단장 「해리스」 소장이 제 10 군단 전술항공 지휘관 「쿠쉬먼」 준장과 함께 헬리콥터 편으로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었다. 미 제 1 해병항공사단은 극동으로 이동한 이후 주일(駐日) 미 공군의 이다미(伊丹) 기지에 본부를 두고 제 10 군단 전술항공 본부와 MAG-33에 행정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래 미 제 1 해병항공사단의 부사단장이었으며, MAG-33을 이끌고 미 제 1 임시해병여단과 함께 앞서 출전하였던 「쿠쉬먼」 장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기구일 뿐인 제 10 군단 전술항공 지휘관을 겸하고 있었다. 「해리스」와 「쿠쉬먼」, 두 장군은 미 해병사단 공병들이 복구 공사를 한창 서둘고 있는 비행장을 둘러 보면서 항공 부대의 조기 이동을 결정했던 것이다.

「해리스」 장군은 또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까지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던 미 제 1 해병항공사단 예하 제 12 해병비행전대(MAG-12) 소속의 2개 전투기대대(VMF-212 및 VMF-312)와 1개 야간전투기대대(VMF[N]-542)를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시켜 MAG-33으로, 그리고 MAG-33 소속의 해병 함재기들(VMF-214 및 VMF-323)과 야간전투기대대(VMF[N]-513)를 MAG-12로 소속 전환을 시킨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9월

19일 오후 늦게, MAG-12 소속의 3개 전투기대대가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이같은 조치는 항공 모함에 탑재되어 있던 미 해병 전투기대대들이 지상으로 이동, 전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실질적으로 항공 지원 역량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이동해 온 전투기대대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제 10 군단 전술항공본부 통제하에 김포 비행장에서 항공 지원 작전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항공 지원은 수도 탈환을 위한 김포 비행장의 조기 확보에 뒤이어, 더욱 가속된 공격 작전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한가지 더 특기할 것은, 이미 동해안에서 첫 포문을 열었던 전함(BB) 「미주리」호가 9월 19일, 인천 해상에 그 웅자(雄姿)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미 해병들이 한강을 넘어서면 「미주리」의 16인치 포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도착이 조금은 늦은 것이었다. 미 해병들은 사실상 이날 중으로 대부분 해군 함포의 최대 사거리를 넘어섰으며, 따라서 함포 지원은 좌측방의 김포 반도 쪽에서 계속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9. 적의 동향

인천 상륙에 성공한 한·미 해병 부대가 서울을 향하여 진격 중 김포 비행장이 탈환되었을 때까지도 적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허튼 수작을 부릴 여유조차 없을 만큼 적들은 인천에서 허(虛)를 찔렀던 것이다. 9월 18일, 공식적으로

보여준 적의 반응은 그들의 해안 방어 부대가 마군 전투기 2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었다. 석암리 상공에서 9월 16일에 추락한 미 해병기 1대와, 여기에 같은날 인천 해상에 불시착한 바 있는 해군이 1대까지 그들의 섹으로 쳐주고 보면, 이때까지도 적들은 그들의 간교하고도 상투적인 수법(手法)으로 그 숫자를 더 과장하거나 날조할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서울을 빼앗긴다는 사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던 적들로서는, 뒤늦게 서울 지역 방어 대책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전투 부대의 정보 자료에서도 그 도출이 가능하다. 이미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인천 지역을 방어하던 적 부대는 북괴 해군 소속 육전대의 제 226 독립연대(최소한 2개 대대)와 이들을 지원하던 제 918 포병연대 예하의 2개 포대, 그리고 소규모의 지원 부대들이었다. 그러나, 그뒤 한동안 한·미 해병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대치했던 적들은, 경인 국도를 따라 점증적으로 투입된 적 제 18사단의 부대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잡다한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도 서울 지역의 적들은 당황한 나머지 그들의 병력을 다 치는대로 끌어 모아 인천 지역으로 내몰았으리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9월 17일 새벽 부평 지역에서 시도된 적의 역습을 비롯하여 경인 국도상에서 적의 저항 수단이 점차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한강 도하 작전이 준비되고 있던 9월 19일까지도 미 해병사단 전투 지대 내에서 크게 위협적인 적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미 해병사단 전투 지대 외곽과, 보다 더 멀리에서 일

고 있는 적의 움직임은 좀 달랐다. 9월 17일에는 한강 하류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강을 도하 중인 것으로 보고된 적 부대들에 대하여 화력 지원함들이 맹 포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혔다. 한강 하류의 양쪽 제방 일대에서는 9월 18일에도 적의 활동이 점증하여, 약 1,000여명의 적이 집결하고 있다는 항공 관측 보고가 있었다. 이날 해군 함재기 4대가 이 적의 일부를 강타했을 때, 적 약 50명이 사살되고 잔여 적 부대는 일단 분산되었으나, 적의 활동이 끊이지는 않았다. 한편, 미 해병 전투기들은 김포 비행장 북동쪽의 한강 대안(對岸)인 행주(幸州) 주변에 적의 움직임이 있음을 관측, 보고 해 왔다.²⁵⁾

적들은, 다급해진 서울 지역 방어와 관련하여, 아마도 개성(開城)과 임진강(臨津江) 하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적 제 107 보안연대를 김포 반도에 전개시키려 했던 것 같다. 후일(9월 21일), 김포 지역에서 노획한 적의 문서(지도)²⁶⁾를 여기서 미리 살펴 보면, 적 제 107 연대는 그 이하의 제 33 대대를 개성과 임진강 사이의 중간 지점인 풍천(豐川) 일대에 예비로 남겨 두는 한편, 연대 지휘부를 김포읍에 정하고 제 27 대대를 부평 지역 북쪽의 고성산과 박촌리 어간에, 제 32 대대를 김포읍 북서쪽 8km 거리에 있는 양곡(陽谷)에, 그리고 제 31 대대를 강화(江華)로 전개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움직임이 9월 17일 항공 관측에 의하여 한강 하류에서 최초로 포착되었으며, 제 27 대대 소속의 적병이 9월 18일 김포 비행장 주변에서 미 해병들에게 붙들린 포로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 적들이 미 해병사단의 좌측방, 즉 김포 반도쪽에 전개된 한국 해병들에게 접촉된 것은 9월 19일부터였으며, 이들 적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살펴

게 될 것이다.²⁷⁾

한편, 적들은 한·미 해병 부대가 인천에 상륙을 개시하던 시기에 서울 지역을 떠나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이던, 적 제 18사단을 다시 서울 쪽으로 끌어 올리고, 수원 주변에 있던 적 제 70연대를 이들과 합류시켰다. 서둘러 인천 지역으로 이동시킨 이들의 선두 부대가 9월 17일 새벽 부평의 원통이교에서 전멸을 당했으며, 이들과 함께 나타난 전차 부대는 9월 초순 신의주(新義州)에서 서울에 도착한 제 42기계화 또는 전차연대로서 적 제 18사단에 배속되었으며, T-34 전차 18대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 국도를 따라 진출하는 미 제 1해병연대 전방에서 이 부대들의 저항은 점차 증대되어 갔다. 그리고, 김포 비행장 주변에서 생포된 적 장교 2명에 대한 신문 결과에서도 1개 연대 규모의 적 부대가 이미 영등포 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과 같은 적의 동정 외에도 9월 18일 이후 서울 남쪽과 북쪽에서 도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움직이는 다수의 적 부대들이 UN 공군에 의하여 판측되었다. 하지만, 이들 적의 정체나 그 규모가 야전 부대의 적정 판단에 고려될 만큼 적시에 확인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쨌든, 미 해병사단이 도하 작전을 준비 중이던 무렵, 서울 방어에 동원된 적의 규모는 약 20,000명으로 미 해병사단은 추산하였다. 그러나, 9월 19일자의 제 10군단 정보 판단이 보여주는, 이 무렵 미군 지휘관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적의 역량이 서울에서 완강히 저항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증원이 없는 한, 그 역량만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고~~보지 않는다」²⁸⁾는 것이었다.

제 7 장

한강과 낙동강 전선

인천의 D일, 상륙에 성공한 「맥아더」 장군이 워싱턴에 발신한 상황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손실은 경미함. 각 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동이 주목할만 했으며……지휘 체통이 두드러지게 돋보였음. 전반적인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 1)

미 제 1 해병사단에 의한 한강 도하 작전이 최종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 미 제 7 보병사단의 일부 부대가 육상에 전개된 9월 19일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크로마이트」 작전에 관한 한 분명히 손실은 경미했으며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전쟁 전반에 걸친 「맥아더」 장군의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일면의 진전 상황에 낙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인천에 상륙한 제 10 군단의 부대들이 한강변에 진출하기까지, 미 제 8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사실상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은 미 제 8군의 낙동강 전선 돌파 능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어 미 제 8군과의 연결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 10 군단이 수도 탈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후 어떤 의외의 비관적 사태가 초래될지 모를 일이었다.

9월 19일 저녁, 「맥아더」 장군은 그의 작전 참모인 「라이트」 준장에게 미 제 8군으로부터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을 차출하여 10월 15일 경, 군산에 상륙시킬 계획을 추진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직후방을 위협함으로써 적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 구상은, 상륙작전에 관련한 지난 8월의 마지막 논쟁 시에 「콜린즈」 장군에 의해서 인천의 대안(代案)으로 지지된 바 있었고, 또 극동미군 사령부에서 최초로 준비했던 몇개의 복안 중의 하나인 「계획 100-C」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실천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뒤, 낙동강 전선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됨으로써 이 계획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그만한 병력의 차출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보더라도, 이 계획의 실현 전망은 극히 희박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

1. 최초의 야간 도하 시도

9월 19일 오후, 미 제 5해병연대 지휘소가 자리하고 있는 김포 공항 청사의 지하실 주변은 손님들로 붐비는 잔칫집처럼 매우 수선스러웠다.³⁾ 도하 작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연대의 참모들을 잔칫집 주인에 비유한다면, 이제까지 이들을 지켜 보면서 종군(從軍)한 각종 신문·잡지의 기자들이 손님인 셈이었다. 때마침, 일본으로부터 김포 비행장으로 곧장 날아오는 항공기편에 새로이 물려 온 보도진들 때문에 손님들의 수는 배가되었다. 이때까지의 작전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작전

당사자가 아닌 국외자의 입장에서 장차 작전 역시 낙관할만한 것이어서, 이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 소리는 자연히 커지게 마련이었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는 새손님들의 호기심은 바쁘게 움직이는 계획수립 장교들을 붙들여 세우기 일쑤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강 도하 작전 계획은 마련되었다.

9월 19일 오후, 연대 지휘소로 각 대대 및 중대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하달한 연대 작전계획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어두워진 뒤, 사단 수색중대에서 차출되는 정찰반이 한강을 헤엄쳐 건너 가서 대안을 정찰하고, 걱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의 유도를 받아 잔여 수색중대가 9대의 LVT로 도하하게 된다. 이 수색중대의 임무는 행주의 125 고지와 강매리(江梅里)의 95 고지, 그리고 능곡(陵谷) 바로 남동쪽의 51 고지에 의해서 대략 3각형으로 형성되는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들이 확보되면, 04:00(9월 20일),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가 도하하여 서울 쪽으로 공격을 계속하게 되며, 그로부터 2시간 뒤에는 제 2대대와 한국 해병 제 2대대가, 그리고 연대 예비인 제 1대대가 차례로 도하하게 된다. 전차와 차량들은 50톤 문교(門橋)*가 설치되는대로 도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같은 작전 계획에 앞서 설명된 걱정은 그다지 명확한 것이 못되었으나, 회의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점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었다. 이때까지의 항공 관측에서 대안의 걱정이 다소간 포착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작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았으며 한편, 이 지역 주민을 통한 탐문 결과에서 이날 낮까지는 대안 가까이에 적의 집결 기미가 없

* 동력 장치가 설비된, 병력·장비 도하용 부유물의 일종이다.

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었다. 어쨌든, 공격 전 준비 사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적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최초로 도하할 정찰반은 사단 수색중대 장교 2명과 사병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통역 장교와 정훈 장교 등 미 해군 예비역 장교 2명이 동반하게 되었다. 당시 통역 장교로 정찰반과 동행했던 「언더우드」 대위는, 1885년에 내한(來韓)하여 현 연세(延世) 대학교의 전신인 연희(延禧) 전문학교를 설립했던 「언더우드」(한국명 원 두우:元杜尤) 선교사에 이어 3대째 한국에서 선교사 및 교육자로 봉사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 일한(元一漢)이라는 한국 인명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다. 그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미 해군 대위로 예편하여 다시 한국에서 선교 및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6·25 직후 한동안은 민간인 신분으로 미 제 24 보병사단을 돕다가 미 해군에 재 복무를 신청하였다. 8월 초순, 극동미해군 사령부에 부임한 「언더우드」 대위는 때마침 추진 중이던 상륙작전을 위한 정보 분야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작전 단계에는 미 해군 부대를 따라 인천에 출동하였다. 해군 부대에 속해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집에 들러 보지도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언더우드」 대위는 원(願)에 의하여 9월 16일 다시 미 해병 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마침내 한강 도하 작전 부대의 선두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어둠에 잠긴 이날 저녁 20:00 쯤, 수색중대장 「호튼」 대위가 이끄는 정찰반은 강물의 유속(流速)과 흐르는 방향을 살핀 뒤, 출발 위치를 잡아 은밀히 강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들이 물결이나 하얗은 소음이 이는 것까지도 조심하면서

화기 및 장비를 실은 2척의 소형 보우트를 끌고 개구리 해엄으로 행주나루에 닿은 것은 9월 19일 20:40 쯤이었다. 경찰반은 강쪽에 닿자 곧 서울에서 피난 중인 민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2명과 부딪혔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저동이 수상쩍어 보여 일단 붙들어 두었다. 그리고 「호튼」 대위는 「캐손」 소위와 사병 4명으로 경찰조를 구성하여 행주 마을과 125 고지를 정찰하도록 출발시켰다.

행주 마을을 거쳐 덕양산(德陽山) 쪽으로 정찰 중이던 「캐손」 소위의 정찰조는 중턱의 밋밋한 봉우리를 125 고지 정상(頂上)으로 오인하여 거기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생소한 지형에 대한 어둠 속에서의 판단 실수였던 것이다. 「캐손」 소위의 정찰조를 출발시킨 뒤, 북쪽 강변 일대를 정찰한 「호튼」 대위는 자신의 제한된 정찰 결과만으로도, 대안에 적이 없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굳히고 있던 터에, 「캐손」 소위로부터 1시간 넘겨 실시한 정찰에서 전혀 접적이 없었다는 무전 보고를 받자, 더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버렸다. 마침내 중대의 도하 개시 명령은 내려졌다.

한편, 경인 국도를 따라 영등포 쪽에서 미 해병들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오던 적들은 뒤늦게나마 한·미 해병들의 도하 작전이 행주 쪽에서 시도된다는 눈치를 채 듯, 이날 늦게 행주와 난지도(蘭芝島) 쪽으로 서둘러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또 닥치는대로 끌어 모은 부대를 수색(水色) 쪽으로 내몰았다. 불행스럽게도 미 해병들은 이 적들에 대하여 전혀 짐새채지 못한테 반하여, 덕양산 일대에 진지를 잡은 적들은 미 해병 경찰반의 동정을 날날이 지켜 보고 있었다.

9대의 LVT에 분승한 수색중대의 본대(本隊)가 강 남쪽 개화

산 부근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넓은 한강의 중간 쯤을 횡단하고 있을 때, 125 고지 일대의 적이 기습적인 사격을 가하여 왔다. 적의 빗발같은 자동 화기 사격과 주변에 작렬하는 박격포탄의 충격을 받아 선두 쪽의 LVT들은 순간적으로 엔진의 추진력을 잃고 말았다. LVT 4대가 강물따라 약간 표류하다가 강 북판에 있는 모래톱에 좌초되었다. 그리고, 공격의 기세가 꺾여버린 나머지의 LVT들은 모두 남쪽의 강안(江岸)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적의 사격을 받은 것은 도하 중이던 LVT 종대(縱隊)만이 아니었다. 행주나루 쪽에 있던 정찰반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을 틈타 도주하는 민간복 차림의 억류자 2명을 부득이 사살했는데, 이로 인하여 위치가 폭로되어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았다. 중대장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주나루 쪽으로 되돌아 오고 있던 「캐손」 소위의 정찰반에서는 1명의 실종자가 생겼다. 은폐물조차 없이 위험에 직면한 중대장 일행은 만약의 경우에 화기와 장비가 적의 수중에 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풀숲 속에 숨기거나, 더러는 물속에 집어 넣고 모두 물로 뛰어 들었다.

「호튼」 대위는 잠시 후 LVT들을 수습하여 나루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좌초된 LVT들을 향해 헤엄쳐 갔다. 공교롭게도 이때 가까운 물 위에서 작렬하는 박격포탄에 의해서 「호튼」 대위는 파상(波狀) 충격과 파편상을 입었다. 때마침 가까이서 위험을 모면한 다른 중대원에 의해서 구출된 「호튼」 대위는 좌초된 한 LVT로 운반되었으나 중상으로 의식을 잃었다. 뿔뿔이 흩어진 정찰반 중에서는 또다른 2명의 대원이 경상을 입었으나 이들도 모두 구출되었다. 날이 새면 좌초된 LVT들이 적의 공격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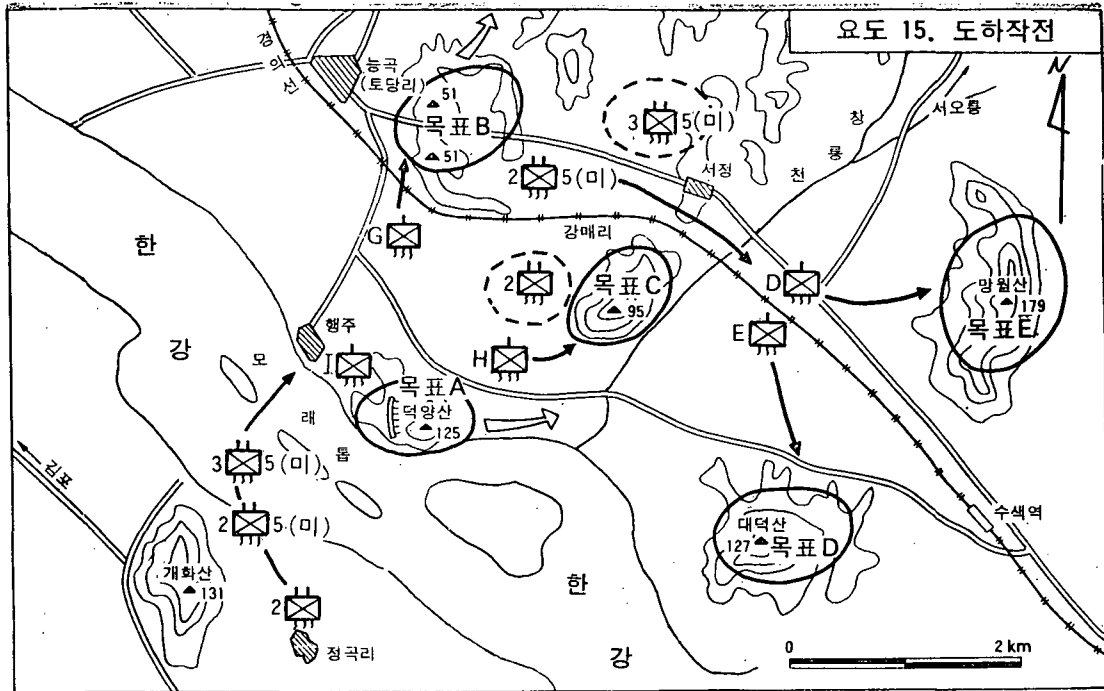
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 탑승한 병력은 강 남쪽으로만 저 철수하였다. 그뒤 좌초된 LVT도 2대는 모래톱을 벗어나 부상자들을 싣고 철수하였다. 결국, 생사(生死)를 알 길 없는 1명의 실종자와 강상(江上)의 모래톱에 좌초된 LVT 2대를 제외한 도하 부대는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 한강 남안(南岸) 일대에서 모두 수습되었다.*

2. 주간 도하

9월 20일 새벽, 작전이 어그러진 원인들을 살펴 오던 미 제5해병연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은 곧 심기 일전(心機一轉)하여 계획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 갔다. 덕양산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적의 규모는 약 1개 중대로 추산되었다. 이로써, 적정을 너무 무시했거나 가볍게 다루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교두보를 이루는 3개의 목표는 약 2km씩의 거리를 두고 대안에서 깊숙한 내륙에까지 위치해 있는데도, 이 목표들을 사전 정찰한 바도 없이 1개 수색중대가, 더구나 야간 도하하여 확보하도록 한 계획 역시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적정에 대한 경시 태도는 계획수립 면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야간 도하 작전을 통해서 또하나 밝혀진 것은 대안의 제방이 웅벽처럼 수면(水面) 위로 높게 솟아 있어서, LVT가 내륙으로 진

* 실종자로 알려졌던 「레디트」 일병은 정찰 중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 배치되어 있었다. 적의 사격을 받은 뒤 적지(敵地)에 혼자 남은 「레디트」 일병은 밤새도록 적의 동정을 살펴, 다음 공격 부대에 훌륭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좌초되었던 2대의 LVT와, 정찰반이 대안에 숨겨 두었던 장비들도 물론 전부 회수되었다.

요도 15. 도하작전



출하기 위해 빠져 나갈 수 있는 출구(出口)로서는 행주나루 외에 달리 적합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기동 계획을 결정 짓는 데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요소였다.

밤을 새워 새로이 수정한 최종 계획은 새벽(9월 20일) 04:30 쯤에 확정 되었다. 약 2시간 뒤인 06:30, LVT에 탑승한 제 3 대대가 중대 중대 대형으로 행주나루를 건너 목표 A·B·C를 확보하면, 후속 도하하는 다른 대대들이 내륙으로 진출하도록 했다. 드디어 주간 도하작전을 감행키로 한 것이다. 돌격 부대 임무는 인천 상륙의 선봉으로 월미도에 상륙했던 제 3대대에 다시 안착했고, 1중대가 그 선두에 서게 되었다. 제 1 파로 도하하는 1중대의 임무는 행주 산성(山城)의 정상(頂上)이 되는 125 고지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9월 20일 06:45를 기하여 한강 남쪽 제방을 출발한 제 1 파의 LVT 6대는 적의 치열한 사격을 받으면서 중대로 전진하였다. 공격 개시에 앞서 15분간의 포병 준비 사격이 실시되었으나 서둘러 계획했던 탱크로 그 대부분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강가 운데 떨어졌다. 돌격 부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날 06:50, 제 1 파로 대안에 상륙하자 125 고지 쪽으로 공격 방향을 잡은 1중대에서는 제 3소대가 우전방으로, 그리고 LVT에 탑승한 채 좀더 내륙으로 전진한 제 2소대가 좌전방으로 전개하였다. 적 사격하에 이 중대가 전개하는 동안 제공받을 수 있었던 지원 화력은 겨우 LVT의 구경 50 기관총 사격 뿐이었다.

은폐·엄폐물이 거의 없는 긴 능선을 1중대가 기어오르는 동안, 특히 밤사이에 적의 진지가 더욱 보강된 강변 쪽의 능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 3소대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여, 소대장이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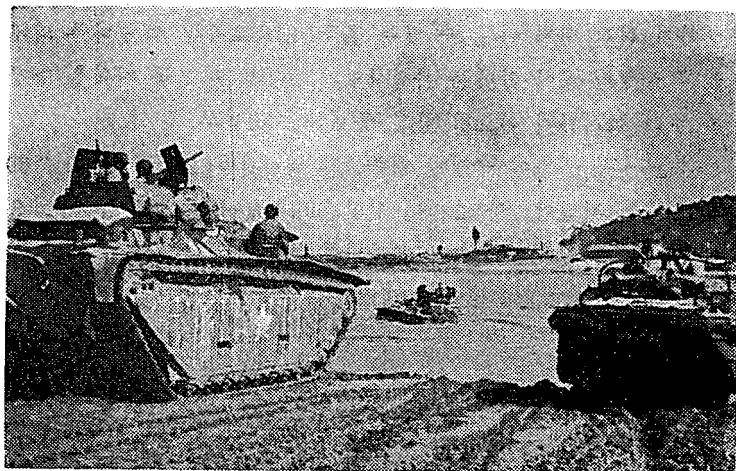


사진 17. 한·미 해병들의 도하 작전(1950. 9. 20.).

하자 전진마저 어렵게 되었다. 때마침 지원된 미해병 전투기 4대가 125고지 정상의 적을 강타하는 동안, 중대장 「맥멀린」 대위는 예비인 제 1소대를 제 3소대의 우측으로 진출시키고, 제 3소대에는 중대본부의 공병분대를 증원시키는 한편, 부중대장이 지휘토록 하였다. 재정비된 제 3소대를 중앙에 두고, 3개 소대로 공격을 속행한 1중대는 단숨에 덕양산의 중턱을 넘어 섰으나, 희생도 더욱 늘어나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1중대장 「맥멀린」 대위가 자신의 부상까지도 도외시하며 마지막 정상(頂上) 공격을 위하여 부대를 다시 수습하고 있을 때, 좌전방의 제 2소대장으로부터 긴급 무전 보고가 있었다. 125고지 정상의 적들이 그 북동쪽의 비탈을 통해 저 지대(低地帶)로 도주하는 것을 관측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항공관측자들이 확인해 주었다. 즉각적으로 돌격을 감행한 1중대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저항하는 적도 별로 많지 않았다.

미 제 5해병연대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는 개화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 속에서 작전을 지켜 보고 있었다. 개화산에서는 시계(視界)의 제한없이, 그리고 쌍안경 없이도 약 2.5 km 내외의 대안을 잘 관측할 수 있었다. 사단장은 물론, 미 태평양 함대해병대 사령관 「세퍼드」 중장, 제 7 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중장, 그리고 제 10 군단장 「아몬드」 소장이 새벽부터 이곳에 와 있었다. 수많은 장교들과 보도진도 운집해 있었다. 그 많은 관전자(觀戰者)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는, 지난 9월 15일 새벽의 월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새벽 한 강에서도 도하 작전의 중요한 몫을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I 중대가 목표 A를 탈취하는 동안, 목표 B와 C는 다른 중대들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확보되었다. I 중대를 뒤따라 도하한 G 중대와 H 중대는 LVT를 탄 채 내륙으로 전진하여, 앞서 가던 G 중대가 행주나루에서 북동쪽으로 약 2 km의 거리에 있는 목표 B를 확보하는 동안, H 중대는 약 3 km 동쪽에 있는 목표 C를 확보하였다. 마침내, 이날 09:40 까지 교두보는 확보되었다. 이때까지 제 3대대에 의하여 집계된 적 사살 200이라는 수의 그 대부분은 I 중대에 의한 전과였지만, 동시에 이 대대가 입은 총 손실 43명 중의 그 대부분도 I 중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가 교두보를 확보한 뒤, 후속 제대의 도하 및 부대 전개는 대체로 기계적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이날 10:00 쯤에 후속 도하한 제 2대대는 LVT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따라 나가다가, 능곡에서 그 진출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 얼마동안 더 전진한 뒤, 제 3대

대 H중대가 확보한 목표 C의 북동쪽에 이어져 있는 능선을 따라 부대를 전개시켰다.

9월 20일 오후, 창릉천(昌陵川)과 넓은 개활지를 앞에 두고, 그 뒤의 능선 일대에 전개한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는 LVT와, 때맞추어 지원나온 전차 소대의 사격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대대는, 전방에 가로 놓인 창릉천 제방과 폭넓은 개활지를 통과한 뒤, D중대가 좌전방의 목표를, 그리고 E중대가 우전방의 D목표를 확보하였다. 목표 E에서는 미처 도망하지 못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적 30여명을 색출하여 고스란히 생포하였다.

멀리 북동쪽으로부터 서오릉(西五陵)을 감싸고 한강 쪽으로 뻗어 내려 와, 수색(水色)의 북서쪽에 가로 놓인 능선상에, 경의선(京義線)을 사이에 두고 마주 솟아 있는 대덕산(大德山)과 망월산(望月山)이 있다. 대덕산의 127고지와 망월산의 179고지가 이날 제 2대대의 공격 목표인 D 및 E목표였다. 행정 구역상, 한강 북쪽에서는 이 고지들을 넘어서야 비로소 서울에 진입하게 된다. 동시에, 이 고지들은 다음날의 공격을 위한 발판이었다. 15:40까지 이 고지들을 완전히 확보한 제 2대대는 거기에 그대로 눌러앉아 야간 방어 진지를 준비하였다.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를 뒤따라 도하한 부대는 한국 해병 제 2대대였다. 전날 13:00, 인천 시가지 경비 책임에서 벗어난 이 대대는, 그때까지도 인천 항만에서의 하역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 7중대를 인천에 그대로 남겨 둔 채, 김포 비행장 지역으로 이동했었다. 9월 20일 오전 중, DUKW(수륙 양용 트럭)를 타고 도하 지점 부근 집결지로 다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이 대



사진 18. 도하 직전의 한국 해병들.

대는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를 뒤따라 도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술하게 통과한 LVT들에 의해서 진창이 되어버린 진입로와 대안의 출구를 DUKW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결국, DUKW와 매치된 LVT로 도하를 완료한 이 대대는 이날 12:30 까지 목표 C의 강매리로 이동하였다.⁵⁾

같은날 13:30, 도하 명령을 받은 미 제 5해병연대 제 1대대는, 때마침 개화산 관측소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이 주시(注視)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도하한 뒤 목표 C의 95고지 부근에 선정된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14:00에는 연대 지휘소도 95고지 북동쪽 철로 건너편의, 속칭 서우물이라는 서정(西井) 일대로 이동, 전개하였다.

한편, 이날 08:35, 미 해병사단 공병대대는 도선장(渡船場)과 그 접근로, 그리고 6-부주(浮舟)의 M4A2 문교(門橋)의 건설에 착

수하였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만에, 그리고 보병이 최초의 도하를 시작한 지는 6시간만에 최초의 문교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전차 A중대의 제 2소대가 우선 도하한 것은 이날 14:00쯤이었다. 같은날 16:00에는 제 2소대가, 그리고 제 3소대는 다음날 오전 중에 도하하였다. 공병들은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각각 또다른 문교를 추가로 건설하여 차량 및 중장비의 도하를 지원하였다. LVT들 역시 계속적으로 병력, 소형 차량, 탄약, 기타 보급품 및 장비들을 도하시키고 대안(對岸)에서 차안(此岸)으로 돌아 올 때는 부상자와 포로들을 수송하였다. 이들 LVT와 DUKW를 위한 도하 지역에서의 교통 통제와, 양안(兩岸)의 후송 및 보급 시설 운용 등은 물론 해안대대가 담당하였다.⁶⁾

3. 한강을 도하한 한국 해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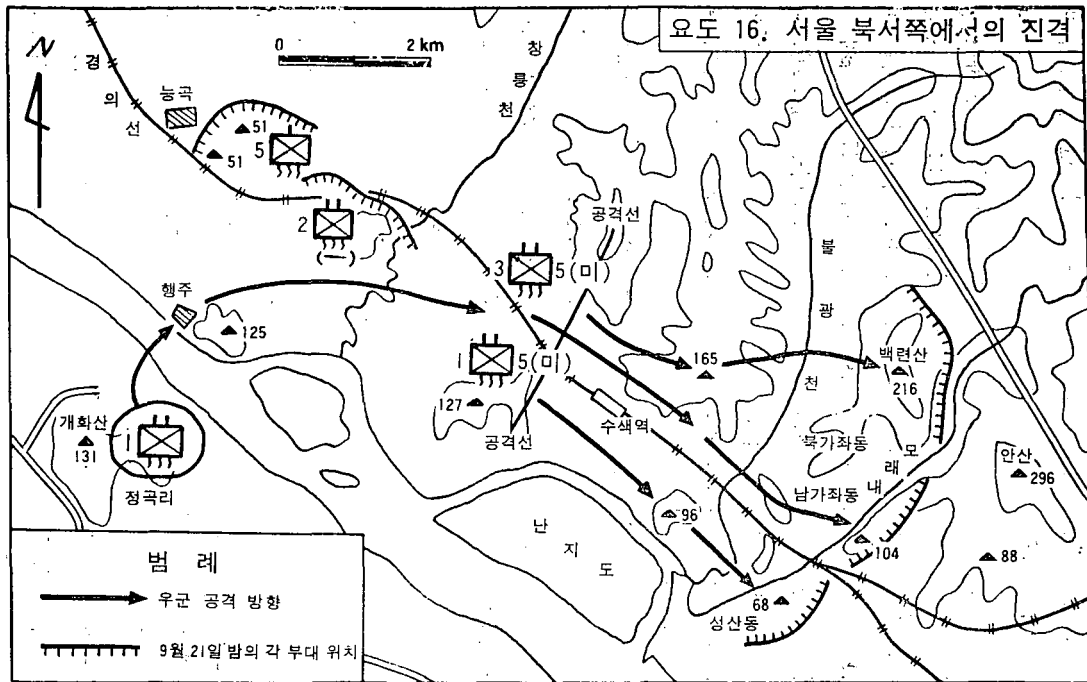
미 해병사단이 한강을 도하할 때의 전반적 계획은, 이제 도하한 제 5연대가 먼저 강변 북쪽을 소탕하고, 이 연대의 엄호를 받아 한강 인도교와 철교 부근에서 도하하는 제 1연대가 남산(南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 외곽에 적절한 포위망이 형성되면, 이때 한국 해병대가 미 제 5해병연대 전방으로 진출하여 서울 시가지를 공격하며, 동시에 미 제 1해병연대가 서울 동쪽 외곽으로 이어지는 여타의 목표들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사단의 좌측방 방호는 곧 인천에 상륙하게 될 미 제 7해병연대가 담당하여 서울 북쪽과 북동쪽의 목표들을 확보하고 적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미 제 5해병연대는 사단 예비로 전환시킬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제

획은 한국 해병대로 하여금 그들의 수도인 서울 탈환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담당케 하려는, 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⁷⁾

서울 시가지 탈환의 한몫을 한국 해병대에게 맡기고자 하는 미 해병사단의 구상에 따른 한 조치가 9월 20일 10:00에 하달된 한국 해병대 사령부의 작전명령 제 17호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 1대대는 경계 지역을 제 3대대에 인계하고 이날 17:00까지 한강에 가까운 개화산 남동쪽의 정곡리(井谷里)로 이동하였으며, 다음날 이 대대와 함께 한강을 도하하게 될 사령부 역시 이날 중에 정곡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김포 반도 북서쪽에 대한 방어 책임은 제 3대대가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 한강을 도하하여 미 제 5해병연대의 북쪽 측방 경계를 담당하게 된 제 2대대에서는 이날 15:20,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에서 넘겨 받은 목표 B에 박 성철(朴成哲) 중위가 지휘하는 제 5중대를, 그리고 목표 C에 대대의 잔여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특히 제 5중대의 진지는 미 제 5해병연대의 좌측방 및 후방에 대한 방호 진지가 되는 동시에 그 북쪽으로부터 도하 지역에 이르는 접근로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다. 자정이 지난 뒤 이 중대 진지에 1개 중대 규모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 부대가 역습해왔다. 이에 대비하고 있었던 중대의 최초 사격은 신호에 따라 잘 이루어졌으나, 일단 사격이 시작된 뒤의 통제나 사격의 정확도가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모든 중대가 사정은 비슷하여 출동 직전에 충원된 신병이 중대 병력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터에 최전방의 독립 진지에서 최초로 겪는 야간 전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격은 간단없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날이 셀 때까지도

요도 16. 서울 북서쪽에서의 진격



진지 전방의 논두렁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붙들린 적의 수가 사살된 적의 수와 비슷한 20 여명이나 되었다. 중대의 손실은 전상자 1명에 불과하였다.⁸⁾

9월 21일 07:00, 해병 제1대대는 한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정곡리의 집결지를 출발하였다. 이보다 30분 뒤인 이날 07:30, 서울의 북서쪽 관문에 들어 서는 미 제5해병연대의 공격 작전도 시작되었다. 미 해병 LVT로 행주나루에서 도하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같은날 09:10, 미 제5해병연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미 제5해병연대 좌전방의 제3대대는 한낮을 전후하여 수색(水色)과 그 북동쪽의 165고지 일대를 장악한 뒤에도 전진을 계속하였으며, 우전방의 제1대대는 수색과 난지도 사이에 있는 96고지를 이날 13:10까지 확보하고 속칭 모래내라는 사천(沙川)의 하류, 즉 성산동(城山洞)에 있는 68고지를 향하여 계속 진출하였다. 이들 전진 부대에 발맞추어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사령부와 함께 오전 중 수색의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인천 상륙 이래, 한국 해병들이 지녀온 일념(一念)은 수도 탈환의 선봉에 선다는 것이었다. 그 궁지와 신념은 해병들의 사기(士氣)와도 직결되고 있었다. 서울을 향한 진격의 대열에 나설 때 그 사기는 충천했고, 측방 방호로 그 임무가 전환될 때 사기는 저하했다. 때로는 미 해병사단장에 대한 조연자적 역할을 하면서, 해병들과 함께 행동해 온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의 심경도 해병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는 없었다. 사실상 손 제독이나 해병들이 열망하는 바는 「스미드」장군의 복안(腹案)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스미드」장군으로서는 한국 해

병들에게 수도탈환 전선의 일익을 담당케 하려는 그의 복안을 앞당겨 실천에 옮기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9월 21일 16:15, 미 제 5해병연대는 기왕의 연대 기동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새로운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대 우측방에서 경의선과 한강 사이를 전투 지대로 하고 성산동의 68고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이 연대 소속 제 1대대의 임무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연대 좌측방에 있는 백련산(白蓮山)의 216고지를 제 3대대의 이날 공격 목표로 한정시키는 한편, 한국 해병 제 1대대로 하여금 연대 중앙에 위치하여 모래내 건너편의 104고지를 확보하고 그 일대에 야간 방어진지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수색에서 서울의 도심(都心)으로 들어 서려면 안산(鞍山)의 주봉(主峰)인 296고지로부터 그 남쪽과 서쪽을 향해 뺀어 내린 여러 갈래의 능선들을 넘어야만 한다. 수색에서 불광천(佛光川)을 건너 백련산과 경의선 사이의 광활한 야지(野地)인 남·북 가좌동(加佐洞) 일대를 지나면 그 최초의 나지막한 능선과 마주치게 된다. 철로변에서 멎는 그 끝 봉우리가 염산(廉山)이라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가진 104고지이다.

적의 저항없이 불광천을 건너 선 한국 해병 제 1대대는 북가좌동 일대에 좌로부터 전제순으로 3개 소총중대를 전개시켰다.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름 그대로인 모래내가 목표 바로 전방에 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모래내 주변에는 확연한 구분도 없는 전담들이 이어져 있어서, 목표를 공격하려면 지형에 따라 100—300m 폭의 개활지를 통과하여야만 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이 대대 역시 이러한 개활지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부대 지휘 및 기동을 할만한 수준에 달해 있지는 못하였다. 갑작스

러운 적의 자동화기 및 소화기 사격을 받았을 때, 특히 정 만진(鄭滿鎭) 중위 지휘 하의 제 1 중대가 이용할 수 있는 은폐물이라고는 군데군데 쌓여 있는 돌무더기 뿐이었다. 앞서 가던 제 2 소대장 민 동기(閔東基) 소위와 제 3 소대장 이 장옥 소위, 그리고 많은 대원들이 쓰러졌다. 중대는 대대 81mm 박격포의 지원사격과 간간이 날아 오는 적의 박격포탄조차 식별할 수 없을만큼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⁹⁾

철로 가까운 쪽의 기동로 상에 약간의 은폐물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제 3 중대장 이 봉출(李鳳出) 대위는 제 1 소대장 김 한수(金漢壽) 중위로 하여금 소규모의 돌격 부대를 이끌고 우측의 철독 너머로 우회 기동하여 104 고지 전사면 서쪽편의 절벽 위에 구축된 적의 자동화기 진지를 제압하게 하였다. 이들의 진출과 때를 같이 하여 중대 좌전방에서는 이 도조(李道祚) 일등 병조(一等兵曹)가 이끄는 제 3 소대가 전방 모래내 가운데 있는 작은 독립 가옥으로 접근, 적진에 돌격을 감행하였다. 비로소 대부분의 적들은 능선 너머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살된 자를 포함, 104 고지 일대에 유기된 적의 시체는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날 18:30 쯤, 제 1 대대는 마침내 목표를 확보하였다. 대부분 개활지에서 발생한 이 대대의 손실은 전사자가 8명, 그리고 부상자가 20명에 달했는데, 불행히도 제 3 중대 화기소대장 김 진태(金振泰) 중위는 목표를 탈취한 직후 날아 온 적의 포탄에 의해서 전사하였다.¹⁰⁾

해병 제 1 대대는 제 1 및 제 2 중대로 104 고지 일대를 방어하도록 하고, 제 3 중대는 사령부와 함께 북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대본부로 이동시켜 후방 지역 경계를 담당케 하였다. 한편, 해

병 제 1 대대 좌측의 미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도 이날 18:20 까지는 백련산의 216 고지를 확보했으며, 우측의 제 1 대대는 이보다 훨씬 앞서서 이날 17:30 쯤 성산동의 68 고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능곡 일대에서 여전히 미 제 5 해병연대의 좌측방 및 후방 방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 해병 제 2 대대에는 이날, 인천에 떨어져 있던 제 7 중대가 이동, 합류하였다.¹¹⁾

4. 김포 지역의 한국 해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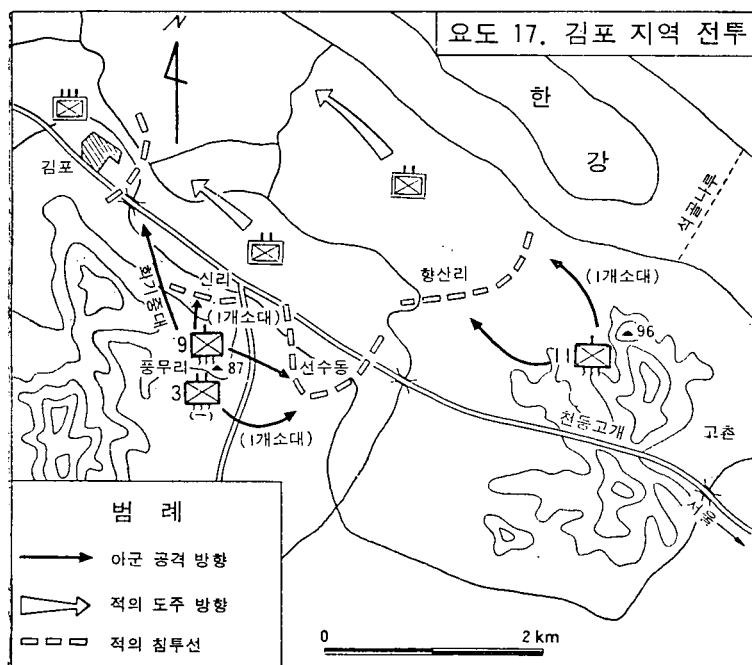
해병 제 3 대대가 김포 반도 북서쪽에 대한 방어 책임을 미 해병사단 직접 통제 하에 단독으로 맡게 된 것은 9월 20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방어 책임이 아직은 사령부 책임 하에 있었던 이날 새벽, 군청 소재지인 김포에서 자그마한, 그러면서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수도 탈환 작전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만 했던 미 해병사단은 김포 반도 북서쪽에 대한 방어 책임을 한국 해병대에 부여하면서도 군단 통제선 CC의 북서쪽 끝 부분에서 한강변에 직각으로 연장된 방어선 전방으로의 공격 작전은 제한하고 있었다. 측방 지역에서 필요 이상으로 작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¹²⁾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입장에서, 방어선 밖의 김포가 이 지역의 지리적·행정적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김포 북동쪽의 나루터를 통해 적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방 지역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도 없었다.

9월 19일 오후, 사령부 정보참모실 소속의 정보대가 단지 적

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김포에 진출했었다. 그날로 활동을 마친 정보대는 사령부로 복귀하면서, 파견대와 같은 성격의 소규모 병력을 김포에 잔류시켰다. 파견대의 선임자 오 세동(吳世東) 대위는, 치안(治安) 목적의 임시 조직체인 지방 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얼마 안되는 대원들을 김포 외곽의 요소에 배치하는 한편, 김포 중심가의 옥호(屋號)도 없는 한 음식점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밤이 되자 한강 하류의 나루터로 김포 반도에 건너 온 적의 일부가 김포에 침투하였다. 중과 부적(衆寡不敵)으로 적에게 유린 당한 파견대 본부에서는 오 대위를 포함한 4명의 전사자와 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¹³⁾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령부에서는 제 3대대에 의한 즉각적인 김포 공격을 미 해병사단에 건의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진행 중이던 도하 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제 1대대는 곧 이동을 개시해야 할 시기였던 것이다.

9월 20일, 제 3대대는 김포 반도 북서쪽 방어를 위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한강변 방어를 위하여 천등고개 북쪽의 96고지 일대에 제 11중대를 두고, 제 1대대가 위치하고 있던 서해안쪽의 점암리 일대에 제 10중대를 이동시켰으며, 김포—서울 간 도로를 중심으로 김포 반도의 중앙 지대를 방어할 수 있도록 김포 남동쪽 2km 거리의 풍무리(豊舞里) 일대에 제 9중대를 전개시키는 동시에, 대대본부도 화기중대와 함께 풍무리로 이동하였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김포를 지척의 전방에 두고 이 대대 역시 전방으로의 진출은 제한받고 있었다.¹⁴⁾



9월 21일, 제3대대의 과업은 아침 일찍부터 각 중대별로 할당된 지역내에서 잔적(殘敵)에 대한 탐색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한편, 9월 19일 이후 계속 한강을 건너 와 김포 이북 쪽에 집결 중이던 적 제 107연대는 9월 20일 밤, 무방비 상태의 김포에 진입하여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그 이하의 2개 대대를 김포 남동쪽으로 전개시켰다.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는 그 선두 부대가 김포—서울간 도로와 한강 남안(南岸)을 따라 선수동(仙壽洞)과 향산리(香山里)에 이르고 있었다. 적 부대들의 이같은 전개는 김포 비행장을 공격할 목적에서였다.

9월 21일 06:00 쯤, 이날의 작전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제 3

대대 본부에 인근 주민이 적의 출현 사실을 알려 왔다.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적이 선수동 마을에 들어 와 아침 식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대대장의 출동 명령을 받은 제 9 중대장 황영(黃泳) 중위는 대수롭지 않은 적일 것으로 짐작하고 제 1 및 제 3 소대를 우선 출동시켰다. 중대 선임장교를 겸하고 있는 제 1 소대장 서 상국 소위가 허 홍(許泓) 소위의 제 3 소대를 통합 지휘했는데, 이같은 지휘 및 부대 운용 방식은 선임장교가 중대 안의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던 당시의 흔한 관행(慣行)이었다. 15)

풍무리와 그 동쪽의 선수동 사이에는 아직 추수하지 않은 논들이 약 500m 폭으로 가로 놓여 있었다. 공격 부대는 개활지를 통과 중 적의 사격을 받았다. 개활지를 덮은 짙은 안개 덕분에 적의 사격이 치명적인 것은 못되었으나 공격 부대는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격 부대를 먼저 발견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었던 적들의 경우, 어려운 야간 기동 후의 피로와 허기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터에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에 먼저 사로잡혔다. 적의 동요는 쉽게, 그리고 재빨리 번져 갔다. 갑작스러운 총격전의 영문을 모르는 채, 제 9 중대의 잔류 부대는 신리(新里) 일대에서 서성대는 또다른 적 부대를 발견하고 공격에 나섰다. 대대본부에서는, 고전(苦戰)하고 있는 제 9 중대의 최초 출동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 익삼(張翼三) 일조(일등 병조)가 이끄는 대대 보급소대를 개활지 우측으로 우회 기동시켰다. 매 아침, 개활지를 덮었던 농무(濃霧)가 얇게 걷히기 시작하면서 적의 저항 또한 힘 없이 스러지기 시작했다. 16)

이 무렵, 김 용선(金龍善) 중위가 지휘하는 고촌 방면의 제 11 중대는 실상 소부대 단위로 탐색 작전에 나서던 길이었으나, 향

산리 일대에서 분산, 대기 중이던 적들은 스스로 동요를 일으켜 싸우기도 전에 전의(戰意)를 상실해 버렸다. 적들은 앞을 다투에 김포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17)

대대장 김 윤근 소령은 중대장들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직접 관측으로 적의 동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가 있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화기중대를 추격부대로 동원하였다. 화기중대의 당시 전투력은 소총중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쫓기는 적들은 도주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김포 중심가에 들어 서면서 비로소 화기중대는 적의 저항을 받았다. 김포 경찰서 북동쪽에 인접한, 속칭 천주교 뒷산에 적 제 107 연대의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었던 때문이지만, 이들 적의 저항도 오래 끌지는 못하였다. 야산 숲속에 위치해 있던 적의 지휘본부는 이 광수(李光洙) 병조장(兵曹長)이 이끄는 제 2 소대(로케트 포 소대)의 급습(急襲)을 받아 도주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18)

엄 순길(嚴順吉) 수병의 제 2 분대에 붙들린 한 장교는 첫눈에 삼상치 않아 보였다. 중대장 정 중철(鄭重鐵) 중위는 이 포로가 바로 북괴군 제 107 연대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단독 신문(訊問)에 순순히 응하던 적 포로가 마실 물을 청하자 중대장은 연락병에게 물을 떠다 주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득의(得意)한 마음이 앞섰던 듯, 중대장은 SCR-300 무전기로 대대장을 호출하는 동안 적 포로에 대한 주의를 잊고 있었다. 대대장에게 막 보고를 시작한 정 중위의 카빈 소총을 적이 순식간에 가로챘다. 때마침 수통에 물을 떠 오던 연락병이 지체없이 적을 사살했으나, 불행히도 정 중위가 목숨을 빼앗긴 뒤였다. 19)

천등고개 쪽으로 침투한 적의 일부는 제 11 중대가 포위하여 고

스란히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김포와 그 주변에서 미쳐 도주하지 못한 적의 패잔병들은 제 9 중대와 화기중대에 대거 투항했다. 하지만, 누렇게 익은 벼가 무성한 논바닥에는 겁먹은 적들이 적지 않게 숨어 있었다. 해병들은 「마치 들에 나가 메뚜기를 잡는 격」이었다. 어쨌든, 절로 신이 난 해병들의 소탕전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리고 급속도로 진전되어 오전 중에 마무리되었다. 무려 300 여명에 달하는 포로와, 그리고 다량의 노획 무기가 미 해병사단에서 긴급 지원된 DUKW에 실려 인천으로 후송되었다. 사살된 적이 얼마인지는 셈하지도 못했다. 제 3 대대에서는 정 중철 중위를 포함한 전사자 10 여명, 그리고 이와 비슷한 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

9월 21일 오후, 제 3 대대장 김 윤근 소령은 화기중대를 대대 본부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제 9 중대를 김포로 재배치하였다. 이날 밤 최소한 중대 규모를 넘는 적이 제 9 중대에 역습을 감행하여 그 일부가 진내에까지 침투했었으나, 다음날 새벽녘에는 모두 격퇴되었다. 밤사이 「미주리」호를 비롯한 다수의 미 해군 함정들에 의해서 지원된 함포 사격은 해병들이 적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기도 했다. 21)

5. 미 제 7 해병연대의 전개

한강 북쪽에서는 미 제 5 해병연대가 서울을 향해 공격 작전을 시작했던 9월 21일 07:30, 미 해병사단은 한국 해병 제 3 대대에 배속된 항공연락장교로부터 김포 지역 상황을 최초로 보고 받

고 항공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한편, 한국 해병 제 3대대의 김포 진격도 승인하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중에 김포 지역의 적 부대들은 일단 제압되는 듯이 보였으나, 오후로 접어들면서 적의 공격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날 오전에 한국 해병들에게 붙들린 북괴군의 한 장교에 대한 신문에서,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려고 김포 지역 일대에 전개된 적 부대는 북괴군 제 107 연대 예하의 2개 대대이며 또다른 2개 대대가 한강 북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포에 파견된 항공장교의 보고서에서도 해병 제 3대대 전방에 약 2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이 집결중이라는 것이었다.²²⁾

미 해병사단은 일차적으로 적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여 비행장 주변의 모든 부대들로 하여금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조치를 취하였다. 미 육군의 LVT 부대를 비행장 주변으로 이동시킨 것도 그 한 조치였다. 한편, 이 사단의 세번째 연대로 이날 비로소 인천에 상륙한 미 제 7해병연대의 대대들을 비행장의 남·북쪽으로 전개시켜 비행장 방어를 더욱 보강시켰다. 이날 최초로 상륙한 제 2대대는 해질 무렵까지 개화산 남쪽의 집결지에, 그리고 같은날 21:00 쯤, 연대 지휘소가 김포 비행장 남쪽 약 3km 거리의 원종리(遠宗里)에 개설된 데 이어 연대 본부중대와 제 3대대가 연대 CP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제 1대대는 양륙(揚陸) 작업을 위해 인천에 처져 있었다. 이처럼 서둘러서 이 연대를 전개시킨 「스미드」 장군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이 연대를 수도 탈환 전선에 신속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앞서 기술한대로 이날 김포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과도 관련은 있었던 것이다.



사진 19. 전선을 시찰하는 「맥아더」 장군(1950. 9. 21.)

미 제 7해병연대가 인천에 도착한 9월 21일은 또다른 특기할 만한 의미도 지닌 날이었다. 70세의 고령자(高齡者)답지 않게 정력적으로, 때로는 최전방을 누비고 다니면서, 경인 전선(京仁戰線)에 머물고 있던 「맥아더」 장군이 이날에야 그의 사령부로 복귀하였으며, 그동안 해상에 머물고 있던 제 10군단의 지휘소가 이날 인천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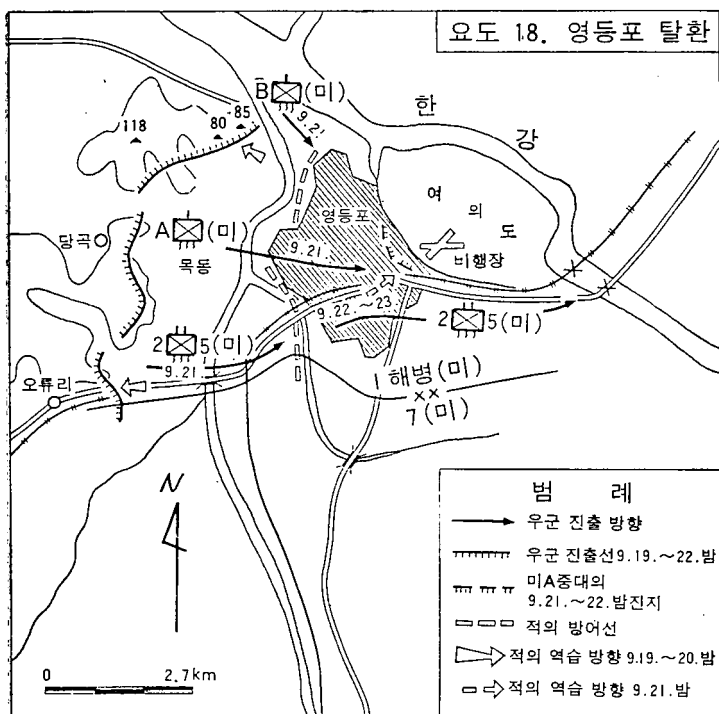
「맥아더」 장군은 김포 비행장을 출발하기 하루 전인 9월 20일, 개화산에서 미 제 5해병연대 도하 작전의 진척 상황을 잠시 살펴 본 뒤, 그 길로 다른 전선들도 둘러 보았었다. 김포—소사간 도로 상의 원종리에 이른 「맥아더」 장군이 다시 그 주행(走行)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뻗은 산길과 들길을 따라 달리다가 차를 매린 곳은 당곡(堂谷) 동쪽의 은행정(銀杏亭) 마을이었다. 영등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곳에서 미 제 1해병연대의 격전 현장을 직접 살핀 「맥아더」 장군은 다시 소사쪽으로 빠져, 그 전날 전선

에 투입되었던 미 제 7 보병사단의 「바르」 소장도 격려하였다. 그리고,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비운지 근 10일만인 9월 21일 오후, 김포 비행장을 떠나기에 앞서 「맥아더」 장군은 「용맹스러운 사단의 용맹스러운 지휘관에게」라는 찬사와 함께, 「스미드」 장군에게 미국 은성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²³⁾

한편, 제 10 군단 지휘소가 인천에 개설된 것은 9월 21일 18:00였다. 이때부터 「아몬드」 장군은 전 육상 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이때까지 집계된 제 10 군단의 양륙 상황을 보면 병력이 49,586명, 차량이 5,356대, 그리고 화물이 22,222톤에 달하였다.²⁴⁾ 배속 부대를 포함한 군단 구성 부대의 전부가 이때 작전 지역에 도착해 있지는 않았다. 낙동강 전선을 빠져 나와 부산에서 편성을 마친 한국 육군 제 17연대는 출항 대기 중에 있었으며, 우연히도 이 연대와 똑같은 단대호(單隊號)를 가진 미 제 7 보병사단 예하의 제 17연대 역시 부산항에 머물고 있었다. 9월 6일, 일본 요코하마(橫濱)를 출항했던 미 제 17 보병연대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낙동강 전선에서 뽑아 낸 미 제 5 해병연대를 대신하여 미 제 8군의 긴급시에 대비한 예비대 임무를 띠고 부산항에서 함상(艦上)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지원되는 약 4,400명의 미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은 9월 20일에야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6. 영등포 탈환

행주나루에서 미 해병사단 수색중대가, 그리고 김포에서는 한



국 해병대의 소규모 정보 부대가 한차례 고전(苦戰)을 겪었던 9월 19일에서 20일 사이의 밤이 미 제 1해병연대 지역에서 조용하게 넘어 가지는 않았다. 연대 좌측방의 118고지 일대에 방어 진지를 마련한 제 1대대와 연대 우측방의 경인 국도를 중심으로 포진한 제 2대대에 별개의 적 부대가 각각 9월 20일 새벽에 역습해 왔던 것이다. 특히 제 2대대 지역에 역습해 온 적의 규모는 5대의 T-34 전차를 앞세운 보병 1개 대대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도로를 중심으로 지형적인 이점(利點)을 잘 살려 중대들을 배치하고 있던 제 2대대에 의하여 적의 역습 부대는 독안에 든 쥐와 같

은 끝이 되고 말았다. 초전(初戰)에 박살이 나 버린 적들은 퇴로를 차단하는 맹렬한 포병 사격까지 받았다. 덕고개 일대에는 무려 300여구의 적 시체가 널렸고, 수많은 적의 소화기와 함께 파괴된 전차 2대와 온전한 전차 1대도 버려져 있었다.

「맥아더」장군 일행이 전선을 시찰한 바 있는 이날 오후, 미 제1해병연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적들은 저 지대의 폭넓은 개활지를 끼고 이 연대의 전방에 가로 놓인 안양천 제방을 방어선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등포 시가지를 요새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만큼 엄청난 적의 박격포·야포·전차포 사격이 영등포 시가지와 주변 외곽 지대에서 날아 왔다. 적의 진지 및 시설들을 찾아 미 해병들의 항공기와 곡사화기들이 맹격을 가하는 동안 보병들은 안양천 서쪽에 머물고 있었으며, 연대장 「폴러」대령은 북쪽 한강 연변의 김포—영등포 간 도로와 남쪽의 경인 국도를 따라 다음날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기로 했다. 밤새도록 포병 사격이 계속되었으며, 영등포 시가지에서 치솟는 불길도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

9월 21일 새벽,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에 뒤이어 일제히 안양천을 건너 선 우전방의 제2대대가 영등포 시가지로 진입하려면 구로동(九老洞) 동쪽에 가로 놓인 안양천의 한 지류(支流)를 또 건너야 했으며, 이 강 건너편에는 적의 강력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구로동 일대에 들어선 제2대대는 남쪽으로 뻗은 경부선(京釜線) 연변의 능선으로부터 적의 맹렬한 자동화기 사격을 받았다. 전방과 우측방 멀리서 적의 박격포 및 야포 사격도 날아 왔다. 이 대대의 우측방이 노출된 까닭은, 경인 국도 남쪽 지역을

담당한 미 세 7 보병사단의 공격 작전이 미 해병들보다 뒤처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출 방향마저 인천—안양간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었다. 보병 전선 100m 가까이까지 강타해 주는 항공기와 각종 화기들의 지원 사격을 받았으나, 전사자 11명과 부상자 74명을 낸 이 대대의 공격 작전은 이날 15:30, 연대 예비대인 제 3 대대가 이어 받았다.

한편, 연대 좌측방의 제 1 대대는 영등포 북서쪽 저 지대의 개활지를 진출 중에 적지 않은 희생을 당했으나, 한강 제방을 따라 전진하던 B중대는 양평동(楊平洞)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B중대는 여기서 적의 강력한 방어 진지에 부딪혔다. 안양천 제방을 따라 영등포 서쪽의 광대한 지역에 형성된 적의 방어 진지가 영등포 북서쪽에 이르러 양평동을 가로 질러 한강 제방으로 연결된 것은 아마도 안양천 맨 하류 쪽을 감제할 수 있는 80 및 85 고지를 미 해병들에게 빼앗긴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양평동 일대에 양측의 전투력이 집중되고 총격전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 제 1 대대 우전방의 A중대는 목동(木洞) 쪽에서 다행스럽게도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안양천을 건넜다.

영등포 시가지를 동서(東西)로 관통하는 길을 따라 「배로우」대위 지휘 하의 A중대가 약 700m를 전진하여 도심(都心)에 이른 것은 한낮이 다 되어서였다. 얼마 뒤 서울 쪽에서 영등포 서쪽의 적 방어 진지로 증원되는 적의 한 이동 부대를 포착한 A중대는 사격으로 적 부대를 기습하여 분산시키고, 계속해서 영등포 시가지 동쪽으로 빠져 나갔다. 한강 남쪽 제방에 다다르자, 중대장 「배로우」대위는 제방을 이용해서 중대 방어 진지를 편성했다. 제방의 양쪽 경사면에 고지(高低)가 일정치 않게 개인호를 파게 하되 화

기 진지는 영등포 쪽을 향해 제방 상단(上段)과 전사면(前斜面)에 주로 배치하였으며, 경인 국도와 철도의 교차점을 남쪽 경계로 하였다. 거기에는 여의도(汝矣島)로 내려 가는 진입로도 있었다.

영등포쪽으로부터 적 전차 5대가 A중대를 공격해 온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제방과 나란히 3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길을 따라 줄을 지어 달리면서 A중대 진지에 사격을 가하던 적 전차들은 오히려 미 해병들의 3.5인치 로켓포 사격을 받아 1대가 완파, 2대가 부분 파손되고, 남은 2대 만이 영등포 쪽으로 사라졌다. 그뒤, 제방 북쪽으로 자리 잡은 제 3소대 진지 전방에는 밤 21:00부터 자정 사이에 5회에 걸친 적 보병 부대의 공격이 있었으나 번번이 격퇴되고 말았다. 9월 22일 새벽 A중대가 진지 주변에서 헤아린 적의 시체가 무려 275구, 자동화기는 50여점에 달했다. 영등포 지역에서의 적 저항도 날이 셀 무렵에는 사라졌다. 미 제 1해병연대는 9월 22일 중에 영등포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23일에는 노량진(鰲梁津)으로 진출한 제 3대대가 한강의 파괴된 교량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들을 확보하였다.

한편, 미 해병사단의 우측방을 담당한 미 제 7보병사단은 인천—안양 간 도로를 중심으로 9월 20일 새벽에야 실질적인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사단 좌측방의 제 32보병연대는 바로 인접한 미 제 1해병연대보다 하루를 뒤쳐져 진출을 시작한 터에, 첫날부터 적의 광범한 지뢰 지대에 봉착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 전차가 3대나 손상되고, 그 만큼 진출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연대도 9월 21일에는 오후 늦게나마 안양을 확보하였다.

안양을 확보한 미 제 7보병사단의 또다른 임무는 남으로부터의

적 증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진격해 오는 미 제 8 군과의 연결을 신속히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사단은, 또 다른 과업의 하나인 수원(水原) 비행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에 제일 먼저 진출했던 사단 수색중대의 일부 병력을 전차 부대와 함께 이날 16:00 쯤에 남진시켰다. 수원 시가지를 통과 중, 서울 증원을 위한 남쪽 전선에서의 북상 부대로 보이는 적의 한 선두 부대와 접전한 이 부대는 도주하는 적을 그대로 제쳐두고 계속 남진하여 수원 남쪽 5km 쯤 되는 곳에서 경부(京釜) 국도 상에 방어 진지를 잡았다. 이미 어두워진데다 지형에도 익숙치 못하여 비행장을 지나쳐 버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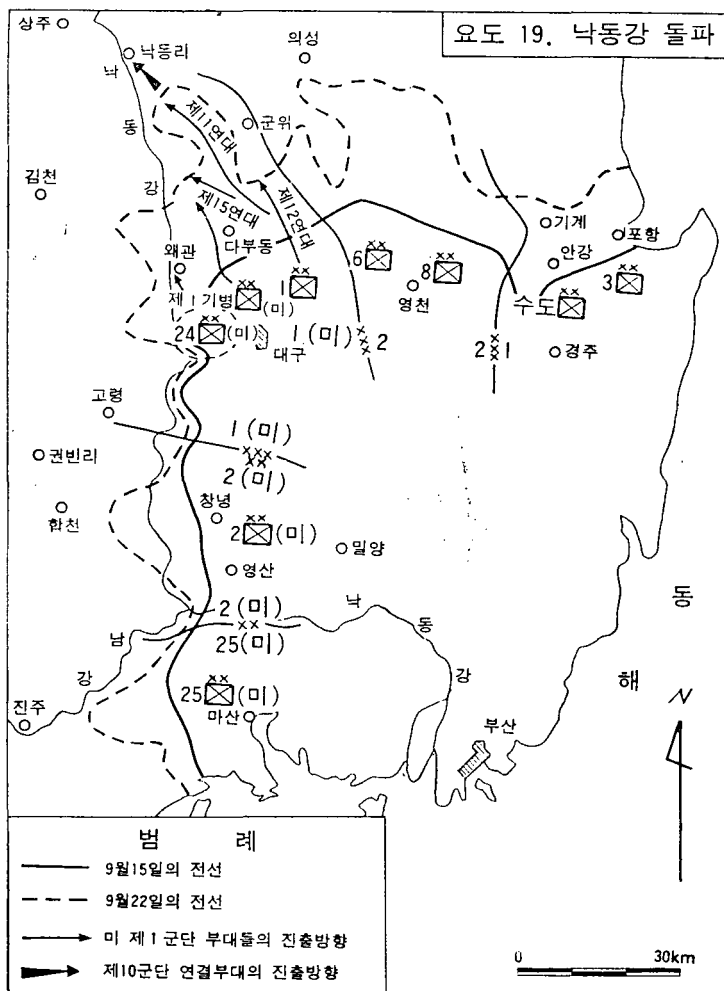
사단에서는 이 수색·전차 부대와 통신이 두절되자 21:25, 안양에서 제 73 전차대대장 「해넌」 중령이 이끄는 한 특수임무부대를 출발시켰다. 이 부대도 수원을 통과 중 적의 전차 부대와 조우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쫓긴 수대의 적 전차가 이미 남쪽으로 전진해 있던 수색·전차 부대에 의해서 격파되기는 했으나 한 동안 혼전(混戰)을 면치 못했다. 안양에서 남진한 부대들은 9월 22일 새벽, 마침내 수원 비행장을 확보하였으며, 인천—수원 간 도로를 따라 진출하던 미 제 31 보병연대가 수원과 비행장 일대에 뒤따라 전개하였다. 이로써 우군의 항공 작전을 위한 또하나의 기지가 마련된 것이었다.

7. 낙동강 전선의 돌파

인천 상륙에 대응한 적의 증원을 견제하는 구실을 낙동강 전선

이 했던 것처럼, 인천 상륙의 승전보(勝戰譜)가 적에게 심리적인 타격이 될 것을 기대하여 낙동강 전선에서는 전면적인 반격 작전의 D일을 인천의 D일보다 하루 늦춘 9월 16일로, 그리고 H시는 09:00으로 정하게 되었다.²⁵⁾ 정작 인천 상륙이 시작되자 그 성공의 소식이 낙동강의 우군 전선에는 그날 중으로 전파되었으나, 대치하고 있는 적들에게서는 며칠 뒤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일지 않았다. 그리고, 적의 선제 공격에 고착(固着)되어 자그마치 6주간이나 버티어 오던 전선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집중시킬 만한 가용 병력도 없이 감행된 총 반격 작전에서도, 대부분의 미 제 8군 참모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 처럼, 한동안은 적진(敵陣) 돌파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미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9월 11일에 마지막 수정을 본 미 제 8군의 작전 훈령을 보면 새로 구성된 미 제 1군단이 낙동강 방어선의 중앙에서 적진을 돌파한 뒤 경부 국도를 따라 전진하면서 인천에 상륙한 제 10군단과의 연결 작전을 수행하되, 동시에 전선 양익(兩翼)에서도 다른 미군 사단과 한국군이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 반격 계획의 골자였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마련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 180호는 9월 13일 12:00에 하달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경주(慶州) 북쪽의 안강(安康) 일대에서 대치한 적과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던 한국 육군 제 17연대는, 「9월 14—15일 어간의 야음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 집결하라」는 내용이 담긴, 육군본부의 다른 작전명령 제 179호를 수령하였다. 이 명령을 수령한 연대장 김 희준(金熙濬) 대령도 연대의 차후 임무를 알 길은 없었지만, 이 연대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해상 이동한 뒤 미 제 7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수도 탈환 전선에 참가하도록 내정되었던 것이다.²⁶⁾



미 제8군의 반격 작전이 개시된 첫날에는 그 전날과 다름없이 곳곳에서 적의 공격 또한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아간의 치열한

공방전 외에 별다른 변화를 찾아 보기는 힘들었다. 들쭉날쭉에는 적의 역습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일이어서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조짐이 엿보였으나 전선 상황은 여전하였다. 셋째날인 18일, 미 제 2보병사단 예하의 제 38연대가 부곡(富谷) 근처에서 비로소 도하에 성공하였으며, 19일에는 미 제 5연대전투단이 왜관(倭館)을 점령하였다. 낙동강 전선을 전반적으로 주시(注視)할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변화를 제외한다면 9월 19일에도 전 전선에 걸쳐 적의 저항은 의외라고 할 만큼 완강했으며, 미 제 8군은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날 밤, 멀리 인천에 떨어져 있는 「맥아더」 장군이 미 제 8군의 돌파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 낙동강 전선에서는 작은, 그러면서도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대구(大邱) 북동쪽의 한국 육군 제 1사단 예하 제 12연대가 적이 포진하고 있는 고지들 사이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사단 좌측방의 미 제 1기병사단보다 거의 20km를 더 전진한 이 연대가 다부동(多富洞)—군위(軍威) 간 도로를 차단한 것이 바로 9월 19일이었다. 이에 힘입어 미 제 1기병사단은 9월 21일까지 대구 북쪽의 격전장 다부동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동해안에서도 한국군 제 3사단이 포항을 탈환하였다. 마침내 적의 전선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금, 이번에는 제 8군의 주공을 담당할 미 제 1군단의 당초 계획을 잠시 살펴 보면, 이 군단은 먼저 미 제 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배속받은 미 제 5연대전투단과 함께 왜관 근처의 낙동강 대안(對岸)에 교두보를 마련케 한 뒤, 미 제 24사단이 도하하여 김

천(金泉)—대전 축선을 따라 진출토록 하며, 이때에는 미 제 1기병사단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실제로 있어서는, 미 제 24사단이 예하 3개 보병 연대와 배속된 영국군 제 27여단을 도하시킨 것이 9월 20일이었으며, 사단의 전 차량 및 기타 장비를 대안에 집중시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22일의 해도 다 저물어서였다. 한편, 이미 앞서 기술한대로 미 제 1기병사단은 그 전날에 다부동을 장악했으며, 이때 한국 육군 제 1사단 예하 부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전진하여 약 13km 전방에서 상주(尙州)와 군위 방향의 도로들을 각각 차단하고 있었다.

미 제 1군단은 기동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제 24사단 대신 제 1기병사단을 돌파 부대로 지정하였다. 9월 22일 08:00, 미 제 1기병사단의 한 기제화 부대가 추격의 선봉에 서서 다부동을 출발하였다. 「워커」장군의 추격 명령은 물론 이날에 내려졌다. 위협과 강제의 굴레로 근근히 버티던 적의 전선은 마침내 그 사슬이 끊기자 형편없이 무너져 갔다. 한편, 재편성을 마치고 9월 21일에 부산항에서 닻을 올린 한국 육군 제 17연대는 인천을 향하여 서해로 계속 항진하고 있었다.

8. 한국 육군 제 17연대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始興)에서 창설된 제 17연대는 이듬해인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수도사단의 전신)에 예속되어 있다가 같은해 11월 15일 웅진(龜津) 지구로 이동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제 17연

대는 여기서 기습 남침해 오는 적의 제 1격을 받았었다. 연대장 백 인엽(白仁燁) 대령 지휘 하에 적과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던 이 연대는 그 이튿날 육군본부의 철수 명령에 따라, 해군이 급파한 LST와 민간 어선들을 이용하여 웅진 반도에서 물러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웅진 지구 전투에서 이 연대는 전사자 113명, 전상자 371명, 그리고 실종자 64명이라는 희생을 당하였다.²⁷⁾

인천, 군산 등지를 거쳐 대전으로 집결한 제 17연대 장병들은 재 편성을 마치자 숨돌릴 사이도 없이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적과 부딪치기도 전인 7월 3일 오후, 평택(平澤) 일대에 대한 우군기의 오폭(誤爆)으로 이 연대에는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이때 과편상을 당한 연대장이 후송되자 부연대장이 부대 지휘를 이어 받았다. 7월 5일, 오산(烏山) 북쪽에 투입되었던 미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적에게 밀리자, 이 연대도 어쩔 수 없이 물러 서야만 했다. 그뒤 계속된 지연전 과정에서 제 17연대는 7월 17일 보은(報恩)으로부터 안동(安東)으로 이동 중, 화령장(化寧場)* 일대에서 조우한 북괴군 제 15사단의 한 예하부대를 대파함으로써 적에 대한 시원한 앙갚음을 하게 되었다. 전 장병이 일제급씩 특진을 했다.

7월 하순, 진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동으로부터 이동 중 그 시기를 놓친 제 17연대는 7월 29일 미 제 24사단에 배속되었으며, 8월 1일에는 거창(居昌)으로부터 밀어 닥치는 북괴군 제 4사단의 한 선두 부대를 거창—합천(陝川)과, 거창—고령(高靈)간 도로의 길목인 권빈리(勸彬里) 일대에서 또 한차례 대파하였

* 행정 구역상 경북 상주군 화서면 신봉리(化西面 新鳳里)의 마을 이름이며, 상주와 충북 보은(報恩)의 중간 쯤에 있다.

다. 28) 전 부연대장이었던, 28세의 젊은 연대장 김 희준 대령 지휘 하의 이 연대는 마침내 미군들에게서도 가장 우수한 한국군 부대의 하나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1개월 전 대전에서 충원되었던 1,000여명의 신병들이 어느덧 이 연대 전투력의 기초를 이루었다. 한국 육군의 재 편성에 따라 8월 7일, 대구로 이동한 제 17연대는 3일만인 8월 10일, 다시 경주 북쪽의 안강 지구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 북괴군의 이른 바 8월 공세로 조성된 기계(杞溪)·안강 지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일시적으로 적에게 빼앗겼던 기계를 탈환한 8월 18일 이후의 약 10일간은 이 지역에 대체로 소강 상태가 지속되던 시기였으며, 제 17연대는 이때 전 연대장이었던 백 인엽 대령이 지휘하는 수도사단에 예속되어 있었다. 한편, 인천 상륙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제 10군단의 구성 작업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장차 작전에 대한 계획들은 사실상 극비리(極秘裡)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국군측에서는 극히 제한된 고위층에서만 그 대체적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국의 수도 탈환 작전에는 한국군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한·미군 작전 당국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개 연대 규모로 한정된 한국군 참가 부대로는, 과거의 서울 주둔 인연과 한·미군간에 잘 알려진 부대 명성에 비추어, 수도사단 예하의 제 17연대가 이의(異議)없이 선정되었던 것이다.

제 2장에서 이미 기술했던 바와 같이 인천 상륙을 위한 한국군 참가 부대는 그뒤 해병대로 대치되어야만 했다. 8월에 이어 다시 야기된 적의 이른 바 9월 공세로, 8월 30일 기계에서, 그리고 9월 4일에는 안강에서까지 물러나야만 했던 수도사단 전투



사진 20. 육군 제17연대의 작금 지휘관 및 참모들.

지대에서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사단장 백 인엽 대령이 또다시 부상하여 교대되었으며, 지난날 화령장, 권빈리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 17 연대의 용사들도 여기서 대부분이 희생되어 갔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육군 부대의 수도 탈환 작전 참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국군측의 요구에 따라, 미 제 8군의 총 반격 계획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제 17 연대의 미 제 7사단 배속은 결정되었던 것이나, 막상 제 17 연대는 총 반격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기계·안강 지구에서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²⁹⁾

9월 14일 밤, 전선을 빠져 나온 제 17 연대는 15일에도 일부 부대가 한차례 적에 대한 마지막 추격 작전을 펼친 뒤에야 경주로 이동하였으며, 연대의 주력은 열차편으로 15일 중에 부산까

지 이동되었다. 전선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이 연대는 그 병력의 태반을 신병으로, 그러고도 또 병원을 뛰쳐 나온 부상병들로 병력의 상당 부분을 메워 부대를 재 편성하였다. 1 주일이 못되는 기간 안에 미 제 8군에서 지원된 장비를 갖추고 신병들의 기본 사격 훈련을 마쳐야 하는 이 연대의 재 편성 과정은 약 10 일 전에 이곳에서 해병들이 겪었던 그것과 흡사하였으며, 전 연대장이었던 백 인엽 대령이 연대의 지휘를 다시 맡았다. 제 1 대대장에는 류 창훈(柳昌燾) 소령, 제 2 대대장에 함 성열(咸成烈) 소령, 그리고 제 3 대대장에 노 의순(盧義淳) 대위가 각각 임명되었다. 재 편성 작업에 쫓겨 여념이 없었던 제 17 연대의 장병들은 부대 임무를 알지도 못한 채, 미 해군 지원 수송선 편으로 부산을 떠나 어느덧 인천에 이르렀다.

제 8 장 사선(死線)을 넘어

마침내 수도 탈환의 제일선에 선 해병 제 1 대대가 미 해병대대들과 함께 서울 북서쪽 외곽에 한 발판을 굳힌 것은 9월 21일 오후 늦어서였다. 대대장 고길훈 소령은 밤이 깊도록 졸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이제 손만 뻗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서울의 심장이 놓여 있다는 데서 느끼는 설레임의 탓도 있었으나, 바로 진지 전방인 신촌(新村) 일대의 골짜기에서 밤새도록 숨가쁘게 울려 오는 기적(汽笛)소리가 불길하게만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다음날의 공격 작전이 무척 힘들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다. 같은날 밤, 고길훈 소령의 불길한 생각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미 제 5해병연대가 지휘소로 쓰고 있던 수색역* 근방의 한 민가에 적의 포탄 1발이 떨어졌다. 연대장 「머리」 중령은 눈언저리에 찰과상(擦過傷)을 입는 정도로 위험에서 벗어났으나, 부연대장 「헤이즈」 중령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1)

적들은 밤사이 단속적(斷續的)으로 미 제 5해병연대 전·후방 진지에 포격을 가하는 한편, 일선 중앙의 한국 해병 진지에 역습을 가해왔다. 9월 22일 03:00 쯤에 시작된 이 적의 역습은 동녘이 흰해지자 약간은 그 기세가 수그러지면서도 무려 3시간 동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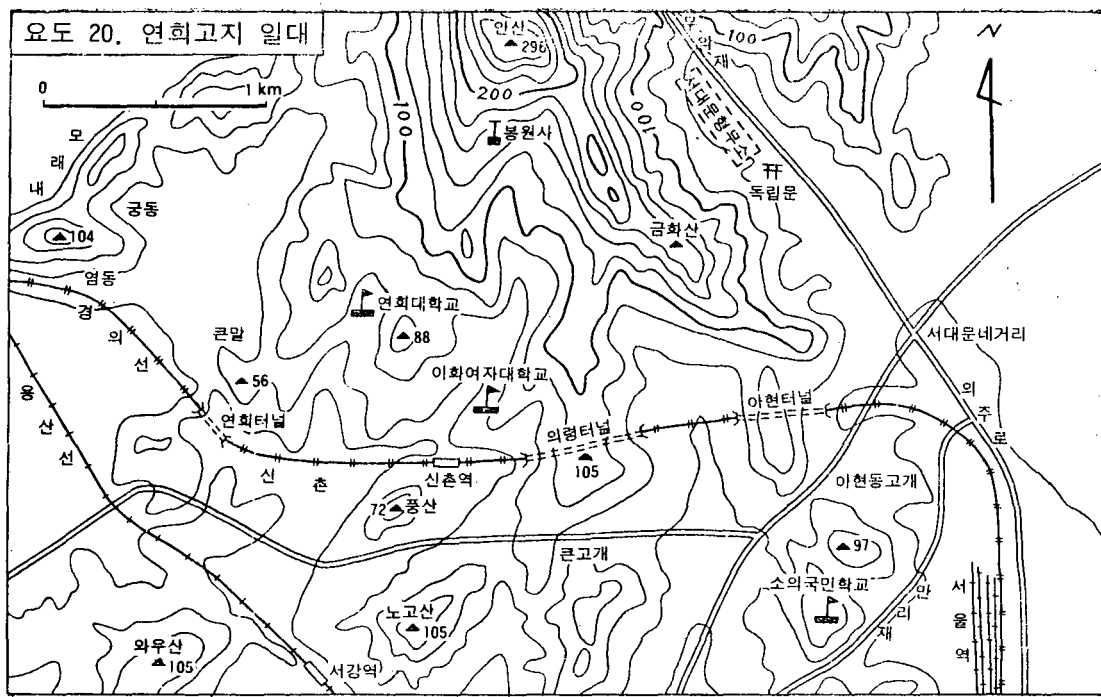
* 1958년에 신축, 이전된 지금의 수색역에서 북서쪽 500m 쯤 되는 곳에 당시의 수색역은 있었다.

나 계속되었다. 이 역습과 병행하여 적들은 한국 해병들의 바로 전방에 구축 중이던 그들의 주진지에 대한 마지막 보강 작업과 병력 배치를 강행했었다. 그러나, 적을 격퇴하는 데 모든 주의(注意)를 기울리던 한국 해병들은 물론, 미 해병측에서도 이 역습의 이면에 숨겨진 적의 기도(企圖)를 알아 채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국 해병과 인접한 미 해병대대 전방에서는 밤사이 적의 활동이 대단치 않았던 만큼, 미 해병들로서는 한국 해병 진지에 대한 적의 역습을 예사로운 것으로 보아 넘길만도 했을 것이다.²⁾ 더구나, 이제 곧 살피게 되겠지만 이 무렵, 미 해병사단에서는 부대가 좀더 진출해야 적의 주진지 지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도 탈환을 위하여 넘지 않으면 안될 사선(死線)은 해병들의 바로 눈 앞에 있었다.

1. 연희고지 일대의 지형과 적정

9월 21일, 한·미 해병 부대가 서울 북서쪽 외곽에 공격의 한 발판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이 부대들이 서울의 도심에 진입하려면 안산의 주봉 296 고지에서 뻗어 내린 몇 갈래의 능선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 바로 전방에는 이들이 진지를 잡고 있는 능선과 비슷한 형태의,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또다른 능선이 평행하게 놓여 있다. 안산에서 그 남서쪽 저지대의 56 고지로 이어지는 이 능선과, 그 동쪽의 88 고지가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진 복잡한 골짜



기 가운데에 연희(延禧) 대학교*가 있으며, 그 남쪽에 신촌(新村)이라는 마을이 있다.

예로부터 신촌 쪽에서 도성(都城)으로 들어 가려면 안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장 높직한 능선의 중턱에 걸쳐 있는 한 고개를 넘어야만 했는데, 일컬어 큰고개(大峴:대현)라 했다. 조선 시대 말기까지도 도성을 감싸는 서측방의 장벽은, 안산에서 속칭 애오개라고도 하는 아현동(阿峴洞)고개와, 만리재(萬里峴)로 이어지는 능선이었으나, 1950년대 초반에 있어서는 안산에서 큰고개로, 거기서 다시 그 남서쪽의 노고산(老姑山)과 와우산(臥牛山)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줄기가 서울 시가지의 서쪽 외곽을 형성하는 자연적인 장벽이 되고 있었다. 서울을 기점(起點)으로 하는 경의선도 아현동고개 밑으로는 아현터널을, 그리고 큰고개 밑으로는 의령(懿寧)터널†을 뚫고 지나 연희고지 남쪽 기슭을 감돌아 나갔다.

지금까지 대체로 살핀 서울에의 접근로와 그 주변 일대의 지형, 그리고 시가지 형태 등과 관련한 사전 연구 결과, 미 해병사단에서는 서울 서측방의 적 방어선이 안산의 296고지에서 큰고개, 노고산, 그리고 와우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장벽을 이용하여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연스럽게도, 당시 사용하던 지도에서는 큰고개 바로 북쪽의 고지와 노고산, 그리고 와우산이 모두 105고지로 표기되어 있었다. 미 해병사단에서는 이 3개 고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큰고개 북쪽의 고지를 북부

* 1957년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병합하여 연세(延世) 대학교로 개칭되었다.

† 이 터널의 이름은 의령원(懿寧園)에서 유래한다. 의령원이란, 2세에 죽은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만아들의 묘소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지금의 중앙여자중학교 자리에 있었으며, 1955년에 서오릉(西五陵)으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의소묘(懿昭墓)라고 했다가 의령원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속칭 애기능이라고도 했다.



사진 21. 서울 서측방의 교외 지대.

105 고지, 노고산을 중앙 105 고지, 와우산을 남부 105 고지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미 제 5 해병연대의 작전명령에서는 북부 105 고지가 한국 해병 제 1 대대의 목표로, 안산의 296 고지와 남부 105 고지가 미 제 5 해병연대 예하의 제 3 대대와 제 1 대대에 각각의 목표로 주어졌다.

미 해병사단의 지형 분석 및 적정 판단에 따른다면, 큰고개—노고산—와우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능선과 한국 해병 제 1 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104 고지 사이의 연희고지 일대는 적의 전초 지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불행하게도 적의 의도에 적중하지 못했다. 적들은 연희고지 일대의 골짜기와 큰고개 바로 북서쪽의 깊은 계곡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연희 대학교와 이화(梨花)여자대학교, 그리고 큰고개와 그 동쪽의 아현동고개 밑에 뿔려 있

는 2개의 터널 등을 지휘 및 지원 시설로 이용하였다. 특히 우군의 항공 폭격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적에게는 이러한 시설들과, 그리고 그 주변의 복잡한 계곡과 통로들이 병력 및 화기의 이동이나 기타 지원 활동을 위해 더 바랄 수 없는 요새가 되었다. 그리고 적들은 연희고지 능선 상에 그들의 주 진지를 잡은 것이다.

서울 서측방의 장벽에 투입된 주요 적 부대의 하나는 3개 보병대대와 약간의 지원 부대들로 구성된, 그리고 약 2,000명의 병력을 가진 북괴군 제 78 독립연대였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막강한 부대로서, 4,500명 안팎의 병력을 보유한 북괴군 제 25여단이 있었다. 4개 중화기 대대와 1개 보병대대 외에 공병, 120mm 박격포, 중(重) 포병 및 여단 포병 등, 각 1개 대대의 지원 부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대의 기간 장교 및 하사관들은 대부분이 중공군의 이른 바 팔로군(八路軍) 출신들이었다. 지난 8월 중순 철원(鐵原)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부대는 열차편으로 9월 15일에 남하하기 시작하여 9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자 곧 연희고지 일대에 투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 지역 주둔 군소 부대들이 더러는 보급·근무 지원 부대로, 더러는 최전방의 총알받이로 무수히 동원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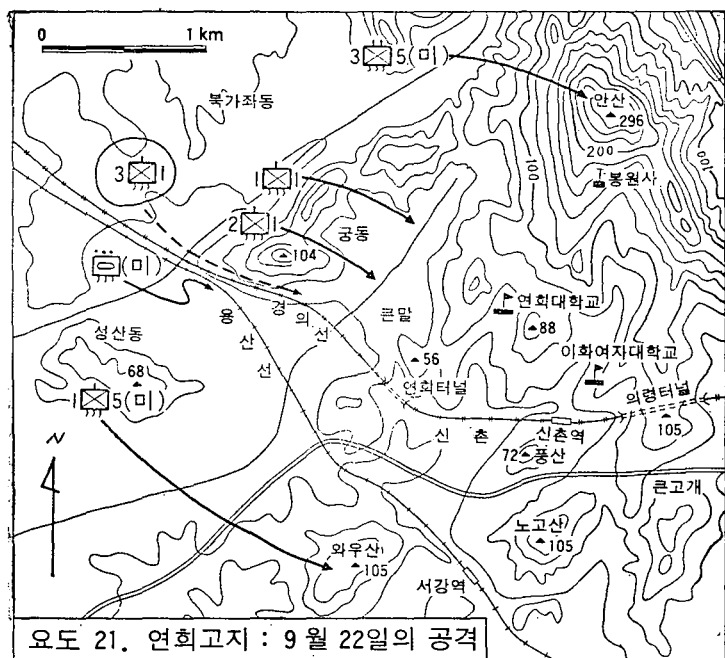
적들은 방어 전투를 위한 지형 상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8·15 이전 구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훈련용의 각종 진지와 교통호 등이 적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전술적, 지형적으로 중요한 능선 상에는 통상 중기 및 경기를 함께 배치하여 전방에 대한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절한 수의 소화기로 이들을 엄호하게 했다. 이러한 화기 진지 전사면(前斜面)에 산병호(散兵

擲)가 있고, 거기에는 총알받이에 해당하는 소총병 또는 척탄병(擲彈兵)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적들은 또 모든 참호에 포격 및 항공 폭격을 받을 때 은신할 수 있는 토끼굴까지 파 놓았었다. 모든 감제 고지에서는 관측소의 기능과 그들의 전방 전투원에 대한 감시 초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가까운 전방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새로운 방어선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비 진지가 마련되었다.

2. 결전의 시작

9월 22일 07:00, 미 제 5해병연대의 공격은 개시되었다. 전날과 같이 좌우 측방에 위치하는 이 연대 예하 제 3대대의 목표는 안산의 296 고지, 제 1대대의 목표는 와우산,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는 한국 해병 제 1대대의 목표는 의령터널고지라고 불러 무방할 북부 105 고지였다. 전날에는 영등포 공격의 미 제 1해병 연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미 해병 항공기들도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주로 제 5연대 지원에 나섰다.

이날의 공격 작전에서는 좌전방의 제 3대대가 안산의 주봉 296 고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만 있다면 중앙과 우전방에서의 진출은 좀더 용이해지리라는 것이 연대장 「머리」 중령의 생각이었다. 미 해병 전투기들이 안산 일대를 강타하는 동안, 제 3대대 공격의 선두에 선 H중대는 별로 대단치 않은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안산의 주봉에 올라 섰다. 제 3대대가 일단 목표를 점령한 것은 이날 09:45 쯤이었다. 그러나, 그뒤에 전개된 이 연대의 공격 상



황은 「머리」 중령이 기대했던 것처럼 순탄하지는 못하였다.

한국 해병 제 1 대대는 목표인 의령터널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앞서 때때 정면을 가로 막고 있는 연희능선, 즉 안산에서 56 고지로 이어지는 능선과, 이 능선 너머에 있는 88 고지를 먼저 탈취하여야만 했다. 이 대대의 공격 개시선이 될 염산(104고지)능선과 그 전방의 연희능선은 불과 1km 내외의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놓여 있었으며, 제 1 대대가 연희능선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양 능선 사이의 계곡, 저지대에 가로 놓인 300—500m 폭의 논들이 실질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되었다.

이날 새벽에 있었던 적의 역습을 물리친 뒤, 104 고지의 북쪽 사면(斜面)에서 부대를 재 정비한 제 1 및 제 2 중대는 능선을 넘어서자 제 1 중대가 궁동(宮洞) 좌측으로, 그리고 제 2 중대가 우측으로 전개하였다. 마침내 이들 중대가 개활지에 들어서자 적의 기습적인 사격은 시작되었다. 전방 능선 상에서 적의 중화기 및 자동화기들이 불을 뿜었고, 적의 야포 및 박격포탄도 날아 왔다. 일선 중대의 공격이 둔좌(頓挫)되자, 이윽고 우군 포병 및 항공기가 지원되었다.

우군의 지원 사격을 받은 뒤에도 전방 상황이 타개되지 않자, 우일선 대대로부터 배속 전환된 미 해병 전차소대와 함께 제 3 중대가 철로를 따라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104 고지 바로 서쪽에서, 철로는 연희터널을 통해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서강(西江)역으로 이어지는 용산선(龍山線)으로 갈라진다. 우측방 대대와의 경계는 용산선이었다. 높은 쪽위에 있는 경의선 좌측으로, 이 철로와 병행하여 좀 낮게 뻗은 길을 따라, 5 대의 전차와 이 전차들을 엄호하는 제 3 소대가 진출하였다. 잔여 중대는 염동(廉洞)을 거쳐 104 고지의 기슭을 따라 전진하였다. 보·전(步戰) 부대는 전방 연희능선 상의 56 고지와 연희터널고지로부터 집중되는 적의 자동화기 및 대전차포 사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제 3 중대의 다른 소대들 역시 개활지에 들어 서지도 못하였다.⁵⁾

결국에는 3개 중대가 모두 적의 사격에 묶이고 말았다. 전차도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제 1 및 제 2 중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사격도 감내(堪耐)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안산의 296 고지 쪽에서 날아 오는 적의 측방 사격이 더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고서야 제 1 대대는 104 고지로

다시 물러나 부대를 수습하였다. 전사자가 11명, 부상자가 45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후일의 포로 신문에서는, 복귀군 제 25여단도 이날 중에 무려 40%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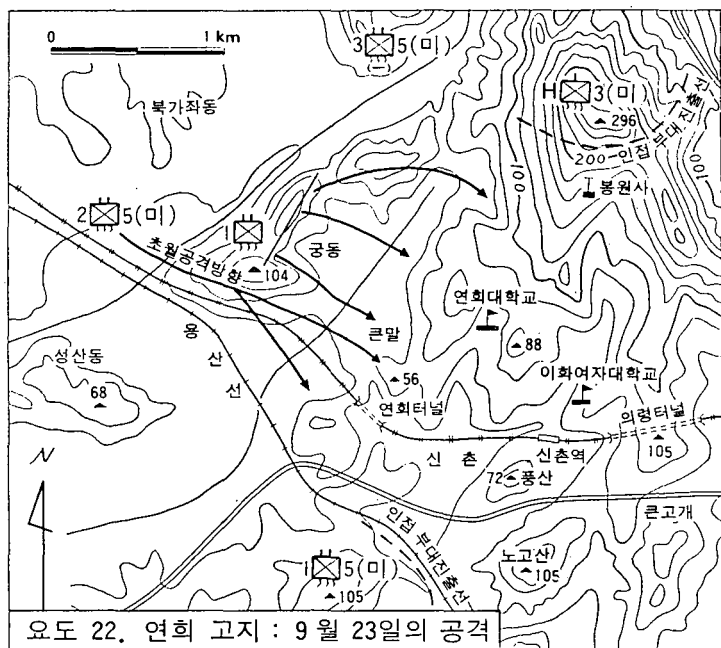
이날, 좌측 대대의 목표인 296 고지가 확보되면 다소간 호전되리라고 믿었던 상황이 막상 기대에서 어긋나자, 한동안 미 제 5해병연대에서는 그 원인이 한국 해병들의 경험 부족과 미숙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상, 좌측방의 제 3대대는 목표 상에 한 발판을 겨우 마련한 것에 불과하였다. 안산의 주봉과 거의 같은 높이의, 그 남쪽으로 뻗은 복잡한 능선들 위에 적 부대는 포진하고 있었다. 이 적들에 의한 역습과, 각종 직사 화기 및 박격포 등의 사격을 받아 좌측의 미 해병대대 역시 이날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와우산이 목표인 미 제 5해병연대 예하의 제 1대대는 이날, 용산선을 따라 전차와 B중대를 앞세워 한국 해병대대와 협조된 공격을 펼치려 했었으나, 전차소대가 한국 해병대대로 배속 전환되자 기동 계획을 바꾸었다. 이날 10:30 쯤에야 실질적인 공격에 나선 A중대는 와우산 하륙까지 접근했으나, 전사한 제 1소대장과 중상을 입은 제 3소대장 등,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공격이頓挫되었다. 이날 오후, 우측방으로 우회 기동한 C중대 역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한동안 고전했으나, 항공 및 포병의 지원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 부대를 다시 수습하고, 뒤따라 공격에 가세한 A중대와 함께 이날 17:35, 와우산의 정상을 탈취하였다. 이 대대는 3개 소총 중대에서 당한 전사 12명, 부상 31명의 희생 외에도 이날, 극심했던 적의 포격으로 후방 지역에서 입은 손실이 전사자 6명, 부상자 33명이나 되었다.

3. 반복된 공격

9월 23일 07:00, 해병 제 1 대대의 공격은 다시 시작되었다. 적진에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길 밖에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다만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개 중대를 병행시킨, 동시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공격이 시작되자 적의 각종 사격은 어김없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기필코 목표를 점령하려는 해병들의 바장한 각오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적의 사격은 전날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았다. 밤사이에 적들은 부서진 진지를 보수하고 손실 병력을 보충시켰다. 이때, 제 1 대대 전방에는 실제로 2,000에 달하는 적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걸음을 전진할 때마다 동시에 희생도 늘어 갔다. 좌전방의 제 1 중대에서는 안산쪽으로 우회, 진출하던 제 1 소대장 신 양수(申良秀) 소위가 부상하고 소대에 약간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들의 엄호 하에 잔여 중대를 이끌고 일제히 개활지를 횡단하려던 중대장 정 만진 중위의 계획은 쉽사리 실천될 수가 없었다. 김 광식(金光植) 대위가 지휘하는, 중앙의 제 2 중대에서는 소대들이 은폐물을 찾아 부지불식간에 양 측방으로 쏠려 버려, 이 소대들을 다시 규합하고 공격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심한 적의 사격을 받은 것은 아마도 우전방의 제 3 중대였을 것이다. 항공 및 포병 사격에도 까딱 없이 견딜 수 있는 연희터널과 56고지가 제 3 중대 정면에 있었다. 이 중대 우전방에서 전진하던 제 1 소대장 김 한수 중위는 개천을 건너 서지도 못하고 왼쪽 다리의 부상으로 후송되고 말았다.7)



제 1대대장 고길훈 소령은 각 중대의 전진이 부진하고, 통신도 잘 유지되지 않자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인사부관 이홍빈(李弘彬) 소위가 각 중대의 공격을 독촉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나아갔으나, 적의 사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은 사령부의 헌병, 정보대 등, 후방요원 중에서 급히 차출한 병력 62명을 이날 오전 중 제 1대대에 증원하였다.

적의 사격은 여전하였으나 해병들은 전날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한뼘 썩이라도, 쉬지 않고 전진을 거듭하였다. 제 3중대 좌

전방의 제 3 소대장 이 도조 일조(一曹)가 중대장 이 봉출 대위의 돌격 명령을 받고 개천을 뛰어 넘은 것은 한낮이 다 되어서 였다. 거의 같은 무렵에 다른 중대에서도 일부 소대들이 개천을 건너 섰다.⁸⁾ 어쩌면 해병들로서는 전진로 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이때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치열해지는 적의 사격에 부딪쳐 중대마다 주력의 대부분은 개천을 건너 서지 못했다. 그동안의 전투를 통해 어느 중대든 소대장 한 두명의 손실은 다 있었기 때문에, 각 중대 공히 전술적인 소대 운용은 사실상 어려웠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날은 대대와 각 중대가 모두 전혀 예비대를 운용하지 못한 데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 대대의 공격력은 지속될 수가 없었고, 각종 지원 화기는 물론 자체 공용화기 또한 부대 기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어쩌면 승(勝機)로 이어질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한낮이 조금 못되어 미 제 5 해병연대장 「머리」 중령은 예비대로 수색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예하 제 2 대대로 하여금 한국 해병대대와 교대 준비를 하라는 구두 예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장 「머리」 중령은, 전선 중앙의 불균형 상태를 조속히 타개하고 곧 실시될 미 제 1 해병연대의 한강 도하를 엄호하려면, 공격의 속도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13:00 쯤, 제 2 대대 지휘소가 104 고지 바로 뒤로 이동되었다. 이 대대로서는, 안산 쪽으로부터 종격실(縱隔室)을 따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으로 대대장 「로이즈」 중령과 연대장 사이에서는 일단 논의되었으나,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이미 이동 중에 있는 부대를 재 전개시켜야 하므로 공격 속도가 늦추어지게 마련이었다. 차선의 방법은 정면 공격 뿐이었다. E

중대가 104 고지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동안, D중대가 56 고지를, 그리고 F중대가 터널고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물론 적의 주진지는 월선 전방의 큰고개와 노고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이 가정을 전제로 결정된 공격 방법 이어서 약간의 포병 준비 지원 사격을 받고, 공격 간에는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으면 공격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미 해병 지휘관들은 내다보았던 것이다.

9월 23일 15:00, 전차의 직접 지원 하에, F중대가 선도(先導)하는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한국 해병대대 전방으로의 초월(超越) 공격이었다. 선두 전차가 개울에 빠져 전진로가 막히자 뒤따르던 전차들이 철독 위로 올라서는 동안, F중대는 철독 사이의 저지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차들이 다시 적진을 강타하는 동안, D중대는 소대별로 개활지를 횡단해 나갔다.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터널고지에 이른 F중대는 일대의 적들을 동쪽으로 몰아 붙이는 한편, 계획에 따라 D중대의 진출을 돕기 위해 예비소대인 제 2소대를 56 고지 쪽으로 진출시켰다. 제 2소대가 56 고지와 그 남서쪽 지대의 적들과 치열하게 접전하는 동안, D중대는 56 고지의 북쪽 사면을 기어 올라 갔다. D중대가 56 고지에 급편 방어 진지를 마련하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졌고, 그동안 56 고지와 터널고지 사이의 작은 봉우리에서 다수의 적과 혼전을 벌이던 F중대의 제 2소대에서는 10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했다. 살아 남은 소대장 「앤더슨」 소위와 소대원 7명은 부득이 전사상자들을 안고, 또는 이끌고 중대와 합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F중대는 터널고지 동쪽에서 야간 방어에 들

어갔다. 그리하여, D중대와 F중대는 지척에 있으면서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채로, 저마다 포병 사격에 의존하면서 이날 밤을 보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러운 공격 중지 명령을 받은 한국 해병 제 1 대대의 각 중대들은 미 해병대대가 초월 전진하기까지 전선을 지키고 있다가, 다음 명령에 따라 104 고지 후방으로 집결하였다. 그러나 대대 좌전방의 제 1 중대에서는 전방 깊숙이 전진했던 일부 병력이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적진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가 다음날 미 해병들이 통과한 뒤에야 중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틀째의 공격에서도 해병 제 1 대대는 전사 32명, 전상 68명, 그리고 실종자 1명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한편, 전선 양 측방의 미 제 5해병연대 예하 제 1 및 제 3 대대는 전날에 장악한 각각의 목표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중앙 대대의 전진을 사격으로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이날 새벽, 적의 가벼운 역습을 물리친 양 대대는 사실상 주변 지역의 적 탐색 활동 중 수월찮은 적의 저항을 받았다. 이들이 사격으로 인접 부대를 지원한다는 것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4. D 중대의 돌격

한국 해병 제 1 대대로부터 물려 받은, 미 제 5해병연대 제 2 대대의 공격 목표는 북부 105 고지라고도 불리던 의령터널고지였다. 이 목표 공격에 앞서, 안산에서 56 고지로 이어지는 능선과 88 고지를 포함한 연희고지 일대가 장악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 한국

해병 제 1대대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9월 24일, 대대장 「로이즈」 중령은 D중대와 F중대가 현 접촉선에서 공격을 재개하면, 이들 양 중대 사이로 E중대를 진출, 전개시켜, E중대로 하여금 88고지와 북부 105고지 공격에 앞장 서도록 할 생각이었다. 한편, 이날의 공격 개시 시간은 06:30으로, 그리고 이에 앞서는, 20분간씩의 항공 및 포병 준비 사격도 계획되었다.

9월 24일 이른 아침 제 2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분명히 날은 새었으나 주위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만큼 짙은 안개와 연기로 감싸여 있었다. 이 즈음 며칠동안 적들은 우군기의 공중 관측으로부터 그들의 진지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량의 발연통(發煙筒)을 피워대고 있는 터에, 이날 따라 안개가 더욱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56고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적 소탕전을 벌이게 될 D중대로서는 56고지 북쪽의 큰밭(큰 마을의 속칭)과, 이 큰밭에서 56고지 동쪽의 작은 계곡으로 뻗은 소로(小路)를 발견하고서야 주변의 대체적인 지형 판단이 가능했다.

56고지 동쪽의 소로를 횡단한 D중대의 제 3소대는 08:00 쯤 전후해서 맞은편 비탈을 통해 과히 넓지도, 그리고 과히 높지도 않은 능선에 올라 섰다. 시계(視界)는 아직도 극히 불량했기 때문에, 선두 분대가 불과 수류탄 투척 거리 앞에 있는 적의 교통호를 발견하기까지는 적들 역시 미 해병들의 접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면서 적들도, 미 해병들도 쓰러져 갔다. 한동안 격전이 계속되었다. 소대장 「맥노튼」 중위는 어깨를 다친 뒤에도 계속 소대를 지휘했다.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능선 우측으로 기동했던 「스미드」 병장의 제 3분대에서는 위

생명을 포함, 8명이 전사하고 부상한 3명만이 살아 돌아 왔다.

제 3소대 좌측방으로 진출한 제 2소대가 또 적진을 향해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사상자만 계속 늘어날 뿐이었다. 중대장 「스미드」 중위는 중대본부 요원을 포함, 가능한 모든 병력을 전방으로 내보냈다. 60mm 박격포반 요원들도 포탄이 소진되자 소총수로 나섰다. 그러나 미 해병들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적의 위치가 드러나자 비탈 위에 거치한 2정의 기관총이 그런대로 적의 사격과 맞섰다. 포병과 대대 81mm 박격포가 지원에 나섰다. 미 해병의 한 「코르세어」 편대는 폭탄과 로켓탄, 그리고 네이팜 등으로 적진을 사정 없이 때렸다.

불리한 상황하에서 오전 내내 D중대가 적과 혈전을 벌이는 동안, 전날의 손실로 가용 병력이 90명 정도에 불과했던 F중대는 또다른 미 해병 전투기 편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터널고지 동쪽의 한 고지에 올라섰다. 한편, 제 2대대의 이날 작전과 관련하여 연대 좌측방의 제 3대대에서는 296고지 위의 H중대가 안산의 주봉에 연한 남쪽 능선 일대의 적을 그 남동쪽의 사면(斜面)으로 구축(驅逐) 중에 있었고, G중대는 안산 서측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와우산 서측방에서는 미 제 1해병연대의 한강 도하작전이 진행 중에 있었다.

56고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D중대의 공격은 힘겹게 계속되고 있었다. 한걸음, 또 한걸음을 전진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그 병력은 줄어만 갔다. 더 전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중대장 「스미드」 중위가 대대에 세번째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의 응답은 여전히 공격을 속행하라는 명령

이었다. 대대장으로서의 다음 목표 공격을 위한 대비 때문에 예비대를 더 아껴 두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때, D중대와 한 능선 상에서 약 100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해 있는 적들은 100m가 조금 넘는 높이를 가진 능선 정상(頂上)에 강력한 진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낮이 지날 무렵, D중대장은 돌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맥노튼」 중위로 하여금 3개 소총소대의 남은 병력을 통합, 지휘하도록 했다. 돌격에 가담할 수 있었던 중대 병력은 부상자를 포함하여 44명이었다.

돌격에 앞서 1개 전투기 편대의 공중 지원을 받았다. 전투기 3대가 적진을 향해 기수(機首)를 내리꽂은 뒤를 이어 D중대는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돌진하는 미 해병들의 머리 위로 제 4번기가 또 날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투기가 취한 행동은 실제 공격이 아니라, 사전 약속된 바에 따라 적을 기만하기 위한 모의(模擬) 공격이었다. 미 해병들이 정상(頂上)에 이르렀을 때, 벌집처럼 복잡한 참호와 교통호 안에서 끝까지 버티던 적들은 모두 사살되었다. 극히 적은 수의 적병들은 공포와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채 투항했다. 한편, 정상에 다다른 26명의 미 해병들보다 더 많은 수의 적들이 도주하고 있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적들이 진지 주변에 죽어 있었다.

9월 24일 13:00 쯤 정상을 탈취한 뒤, 진지 방어에 참가한 D중대의 남은 병력은, 부상을 당했으나 후송을 거부하고 남아 있는 26명을 포함하여 56명이었다. 마지막 돌격에 앞장 섰던 중대장 「스미드」 중위는 정상에 이르기 전에 전사하였다. 후일 미 해병들에 의해서 「스미드 능선」이라고 명명된, 안산에서 56고지로 이어지는 이 능선이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

하기 위한 적의 주진지가 이 능선에 연하여 구축되었다는 사실이 들어났고, 또 지난 이틀 동안 한국 해병들이 선행(先行)한 전투의 진가(眞價)가 새삼스럽게 인식되었다. 제 2대대장 「로이즈」 중령이 추정 한 바로는, 이 능선 일대에 널린 적의 시체가 자그마치 1,500 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월 24일 오후, 제 2대대장 「로이즈」 중령은 예비대인 E중대를 56고지 동쪽으로 진출시켰으나, 최종 목표에 대한 공격은 다음날로 미루었다. 최종 목표 공격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72고지, 즉 풍산(風山)에는 아직도 적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 고지에 대한 공격을 이날 중에 선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⁹⁾

북부 105고지로 불려지던 제 2대대 목표를 비롯하여, 적에게 있어서는 서울 서측방의 장벽으로 이용되었던 안산 산계(山系)와 주요 능선들이 점령되는 것은 9월 25일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9월 25일 밤에도 이 일대에서 또 한차례 혈전이 있는 뒤에야 한·미 해병 부대는 서울의 도심에 들어 서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서울 서측방에 구축된 적 방어선 돌파 작전을 놓고 볼 때, 한국 해병 제 1대대와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에 의하여 연희고지 일대에서 수행된 전투는 분명히 서울 서측방에서의 전반적 돌파 작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것은 적 방어선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전투였다. 그러므로, 그 주전장(主戰場)으로서 연희고지가 지니는 의의를 함께 살려, 이 전투를 「연희고지 전투」라 이름해도 무방할 것이다.

5. 계획의 변경

「맥아더」장군이 인천 상륙을 고집한 이유의 하나는 수도 서울을 조속히 탈환하려는 데 있었던 사실을 지난 8월의 논쟁에서 이미 살핀 바 있었다. 수도 서울은 분명히 전략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치적 측면에서도 조속히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었다.

「맥아더」장군은 한강 북쪽에 교두보가 확보된 뒤 그의 사령부로 복귀하면서, 「아몬드」장군에게 9월 25일까지는 서울을 탈환하도록 당부하였다. 9월 25일은 북괴군이 불법 남침을 개시한지만 3개월째 되는 날이라는데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시한(時限)이 제시된 9월 21일이라는 시점(時點)에서 볼 때 사실상 서울의 조기 탈환 방침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었다.¹⁰⁾

「아몬드」장군은 「스미드」장군에게 「맥아더」장군이 희망하는 바를 밝히면서, 9월 25일까지 서울을 탈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 육군 제 17연대가 인천 해상에 도착하는 9월 23일자로 이 부대를 미 해병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이 무렵, 전투부대로서는 한국 해병대만을 배속 받고 있던 미 해병사단이 전담하게 될 서울 공격 계획은, 이미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제 1해병연대가 영등포 쪽에서 한강을 도하한 뒤, 앞서 도하한 제 5해병연대와 함께 서울의 서쪽과 남서쪽에서 병행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미 해병사단과, 그 남쪽에 포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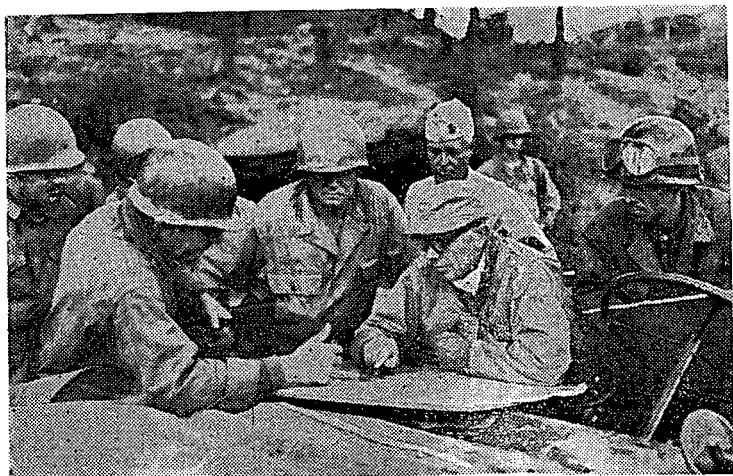


사진 22. 작전을 지사하는 「아몬드」 장군.

미 제 7보병사단과의 경계선을 노랑진에서 그 동쪽으로 한강 남쪽 제방을 따라 설정해 준 제 10군단의 계획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해병사단으로서는 파괴된 교량을 보수하여 제 1해병연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교량 복구를 위한 지원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사단 자체 수단만으로 25일쯤에나 도하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편, 서울 북서쪽 전선에서의 진격은 연희고지 일대에서의 격전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아몬드」 장군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11)

9월 23일, 제 10군단 사령부는 인천에서 부평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17:00, 「아몬드」 장군과 「스미드」 장군은 군단 사령부에서 다시 만났다. 「아몬드」 장군은 서울 서측방의 적의 방어가 너무나 강력한 만큼 제 1해병연대를 서울 남동쪽으로 도하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같은 포위 기동으로 서측방의 적도 와

해퇴리라는 것이 「아몬드」 장군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미드」 장군은 오히려 서측방의 적의 방어가 1개 연대 공격으로는 벅찰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들어 부대의 집중 운용을 주장하였다. 부대를 분할 운용한다고 해서 서측방의 적이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화력의 협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스미드」 장군의 생각이었다. 결국에는 두 지휘관의 의견이 절충되어, 미 해병사단의 공격은 원 계획대로 시행하되 공격이 여의치 못할 경우, 다른 부대로 서울 남동쪽에서 도하 공격하는 문제를 재고하기로 했다. 한국 육군 제 17연대는 미 해병 사단에 배속되었던 그날로 다시 배속 해제되었다.¹²⁾

이제는 미 해병사단이 공격을 서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9월 23일 22:00, 제 1해병연대로 하여금 다음날 한강을 도하하라는 사단 작명 10-50이 하달되었다.

9월 24일 08:00, 영등포 시가지의 북쪽 변방인 한강 남안(南岸)에서 대안의 절두산(切頭山) 쪽으로, DUKW와 LVT를 이용한 미 제 1해병연대의 도하·작전은 시작되었다. 이날 09:45까지, 연대의 선두 부대로 도하한 제 2대대는 한강 북쪽 강변을 따라 와우산 남동쪽으로 신속히 전진하였다. 후속 도하한 제 1대대는 경주(競走)라도 벌이듯 앞서 가던 제 2대대를 이날 13:10 쯤에 초월 전진하고, 같은날 17:00 쯤에는 용산구의 도원동(桃園洞)과 신창동(新倉洞) 사이에 있는 79고지를 점령하였다. 제 1대대는 79고지의 제 2대대보다는 약간 뒤 처진, 와우산 남동쪽으로 전개하였다. 제 3대대는 이날 15:15 쯤, 제 1한강교 남쪽의 고지대 방어 임무에서 벗어나 도하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DUKW와 LVT 지원이 여의치 못해 같은날 22:00 쯤에야 도하를 마쳤다.

이 연대의 도하 작전에는 문교(門橋)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연대를 지원하는 전차 중대는 행주나루로 우회 기동해야만 했다.

제 1 해병연대의 도하 작전에 대한 지원이 원활치 못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행주나루에서도 제 7 해병연대의 도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연대의 지휘소 및 예하 제 3 대대는 이미 그 전날에 한강을 건너 미 제 5 해병연대 후방 지역에 포진했다. 그러나, 김포 비행장 외곽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 22일, 김포 반도의 고촌 방면으로 전진 배치되었던 제 2 대대와, 그동안 인천에 머물고 있던 제 1 대대가 이날 오후에 차례로 도하를 한 것이다. 제 2 대대는, 일본을 거쳐 이날 김포 비행장에 도착하자 마 해병사단에 배속된, 미 육군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 제 3 대대에 비행장 방어 임무를 인계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 미 해병사단의 LVT 대대(-1개 중대)와 미 육군 지원의 수륙 양용 트랙터중대(-1개 소대)는 또다른 도하 작전 준비를 위하여 미 제 7 보병사단에 배속되기도 했다.

9월 23일과 24일에 걸친 제 1 및 제 7 해병연대의 재 전개와 관련하여 미 제 5 해병연대에서도 약간의 부대 재배치가 단행되었다. 23일, 이때까지 능곡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 해병 제 2 대대는 미 제 5 해병연대 지휘소의 북동쪽, 향동(香洞)으로 이동하였다. 이 연대 예하의 제 2 대대가 같은날, 전방 104 고지 쪽으로 진출함에 따른 이 연대의 좌측방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날 104 고지 후방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한국 해병 제 1 대대도 24일에는 제 2 대대와 인접하여 백련산 북쪽으로 정찰 활동을 폈다. 한편, 미 제 1 해병연대가 한강 북쪽의 사단 우측방으로 전개하게 됨에 따라, 제 5 해병연대에서는 와우산에 위치하

고 있던 제 1 대대를 연대 좌측방으로 이동시켰다. 이 대대로 하여금, 다음날 공격에 나설 제 3 대대가 맡아 오던 지역에서, 연대 좌측방을 방호하도록 하려는 조치였다.¹³⁾

9월 24일 09:30 쯤, 미 제 7 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한 「아몬드」 장군은 사단장 「바르」 소장에게 다음날 아침, 서울 남동쪽에서 실시 예정인 도하 작전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미리 알려 주었다. 이무렵, 미 제 7 보병사단 예하 연대들의 전개 상황을 대체로 살펴 보면, 22일 수원 비행장 일대에 전개했던 제 31 연대는 수원 일대를 확보하면서 수원—오산 간 도로를 중심으로 남측방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미 해병사단 우측방에서 제 1 해병연대와외 병행 전진을 계속해 오던 제 32 연대에서는, 그 예하 제 1 대대가 22일 과천(果川)으로 진출 중 한때 고전하기도 했으나, 23일에는 제 2 대대가 과천 북동쪽 약 4km 거리의 우면산(牛眠山)을 점령했으며, 24일 중에는 서울 남쪽의 한강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로 다시 돌아온 「아몬드」 장군은 전날 인천에 도착한 한국 육군 제 17 연대장 백인엽 대령과 만나, 제 17 연대를 다음날 도하 작전을 감행할 미 제 32 보병연대에 배속 예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아몬드」 장군은 이날 14:00 쯤, 「스미드」 장군과 「바르」 장군 등, 주요 지휘관들을 영등포 지역으로 소집하여 자신의 결심 사항을 밝혔다. 다음날 06:00에 제 32 연대가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공격에 가담하며, 한국 육군 제 17 연대가 미 제 32 보병연대

* 9월 16일 이후 미 제 8군의 해상 예비로 부산에 머물고 있었던, 미 제 7 보병사단 예하의 또 하나의 연대인 제 17 연대는 이날에야 인천에 도착하여 다음날 양륙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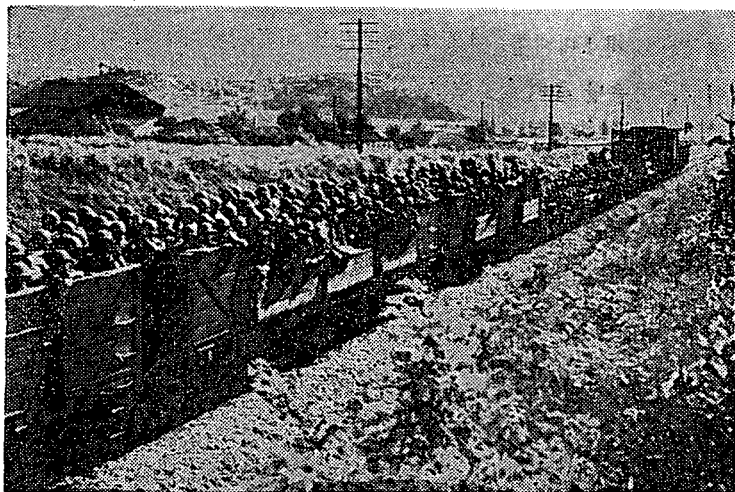


사진 23. 육군 제17연대의 이동(1950. 9. 24.).

에 배속된다는 것이었다.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이날 오후 미 해병사단의 LVT 대대(-)와 미 육군 제 56 수륙 양용 트랙터대대 A 중대의 2개 소대가 도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 7 사단에 배속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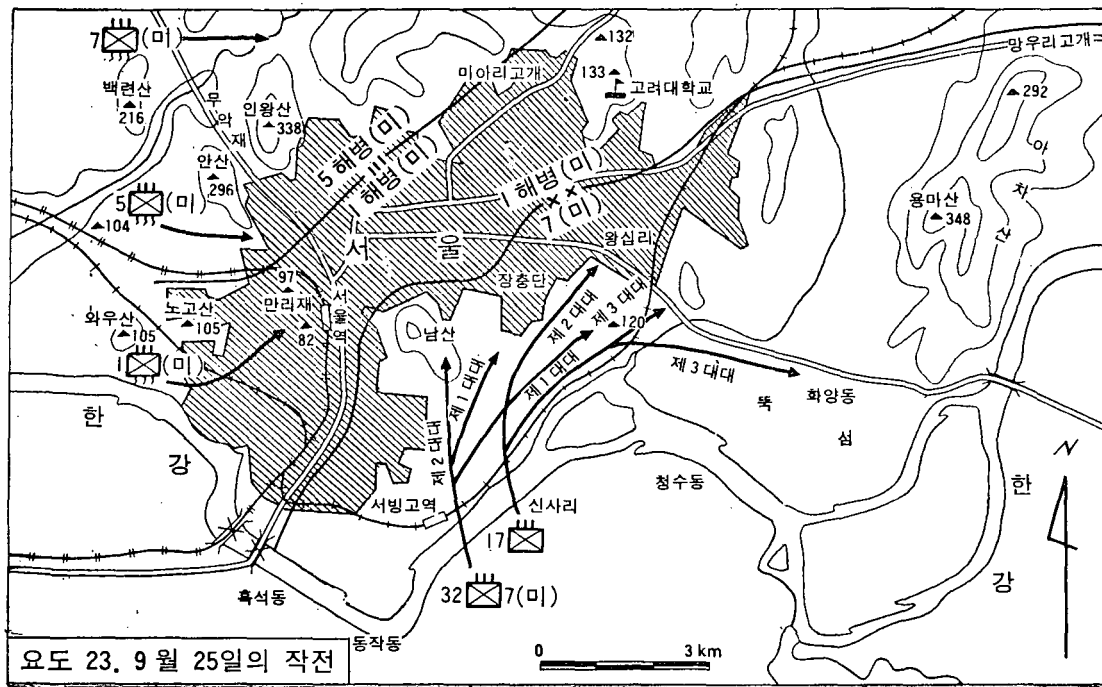
한국 육군 제 17 연대는 이날 서둘러 인천에 상륙하자, 곧장 영등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인천 상륙이 개시되던 당초부터 해안 지역에서는 물론, 그후 전투 부대가 진격하는 만큼 군무 지원 소요는 더욱 증가하게 마련이어서, 이때까지도 군단 전반에 걸쳐 수송 수단이 원활하지는 못했었다. 다행히도, 상륙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상했던 바 보다는 신속하게, 전진하는 전선을 뒤쫓아 철도 시설이 복구됨으로써 제 17 연대의 경우, 그 주력은 철도로 이동했으나 그 시설이 충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더러는 차량으로, 그리고 더러는 도보로 이동하였다.¹⁵⁾

제 17 연대의 주력은 이날로 다시 도보 행군을 시작하여 상도동(上道洞) 경유, 속칭 사당이고개를 넘어 사당리(舍堂里)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도로망을 따라 시흥(始興) 쪽으로 우회한 지원 부대들을 포함, 전 부대가 한강 남쪽의 신사리(新沙里) 부근에 집결 완료한 것은 다음날 새벽녘이었다.* 한편, 미 제 32 연대 참모들은 미 해병 지원 부대의 도움을 받아 밤늦도록 도하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작전을 지원할 LVT 들은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영등포 남쪽으로 돌아, 안양과 과천을 거쳐 제 32 연대의 집결지인 사당리로 이동하였다.¹⁶⁾

6. 서울 남동쪽에서의 도하 작전

한국 육군 제 17 연대를 배속 받은 미 제 32 보병연대가 9월 25일 06:30 을 H시로 신사리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하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목표는 서울의 심장부를 대부분 감제할 수 있는 남산이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남산 동쪽으로 약 3.5km의 거리에 있는 120 고지였는데, 매봉 또는 응봉(鷹峰)이라 불리는 이 고지는 그 남쪽의 한강과 뚝섬을 포함한 주변의 낮은 지대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 지물에 해당한다. 끝으로, 120 고지 동쪽의 중랑천(中浪川) 건너편에 남북으로 길게 가로 놓인 아차산(峨嵋山)의 주봉(主峰), 348 고지가 그 목표의 하나였다. 이 아차산은 예로부터 그 동쪽에서 서울에 이르는 접근로를 감제할 수

* 경기도 시흥군의 일부였던 시흥리, 사당리 및 신사리 일대의 지역들은 대체로 1963 년, 서울 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있는 요충지로 알려져 온 곳이기도 하다. 17)

돌격 도하 부대인 미 제 32연대 제 2대대는 새벽 04:30, 사당리의 집결지에서 LVT에 탑승하였다. F중대를 태운 제 1파의 LVT 8대가 05:45에 집결지를 출발하였으며, 06:00에는 포병 및 중박격포가 30 분간의 공격 준비 사격에 들어 갔다. 제 1파는 06:30에 LD를 통과하였다. 한강과 그 주변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도하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간간이 적의 소화기 사격과 때로는 76mm 대전차포 사격이 날아 왔으나 장갑의 보호를 받은 보병들은 거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 서빙고(西永庫) 쪽의 모래 사장을 통해 한강 북쪽 제방을 넘어 선 제 2대대가 남산을 향해 신속하게 진격하는 동안 안개는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남산과 120 고지 일대에 공중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후속 도하한 제 1대대가 제 2대대 우측으로 120 고지를 향해 전개하였다. 그러나 120 고지에 대한 공격은 한낮이 막 지난 뒤 도하하여 제 1대대를 초월 전진한 제 3대대가 맡았다. 별로 대단치 않은 적의 저항을 분쇄하고 제 2대대는 이날 15:00 쯤, 남산의 정상상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미 제 32연대의 도하가 거의 완료된 이날 16:00 경까지는 제 1대대가 제 2대대와 제 3대대 사이로 재 전개하여, 남산과 120 고지의 매봉을 잇는 전선이 거의 형성되었다. 18)

한국 육군 제 17연대의 도하 작전은 미 제 32연대에 뒤이어 곧 개시되었다. 제 1대대부터 차례로 신사리의 네거리 일대에서 LVT를 타고 한강 북쪽의 대안을 향해 출발하였다. 서빙고 쪽의 비좁은 모래 사장에는 미처 전방으로 추진되지 못한 미 제 32연대의 보급품 및 장비들이 쌓여 있어서, 제 17연대는 그 우측방의 보광동(普光洞) —한남동(漢南洞) 일대로 도하하였다. LVT의 내륙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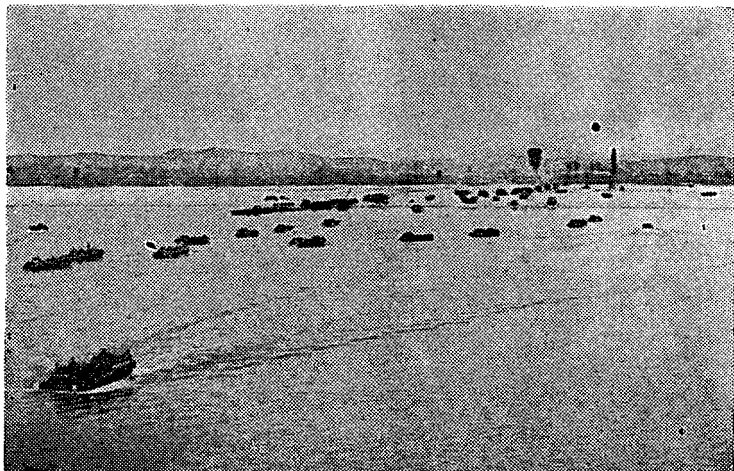


사진 24. 서울 동남쪽에서의 도하 작전(1950. 9. 25.).

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방 아래에서 LVT를 빠져 나온 제 1대대는 제방 위의 철로를 따라 미 제 32연대 제 3대대의 우측방으로 진출하였다.

제 17연대가 도하하는 동안에도 적의 76mm 대전차포와 박격포 사격을 더러 받았으나 별다른 손실은 없었다. 함성렬(咸成烈) 소령이 지휘하는 제 2대대는 제 1대대 좌측으로 전개하였다. 수문을 통해 제방 밑으로 빠져 나가려던 일부 병사들 중에서 적의 지뢰 폭발로 수경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남동과 장충단(獎忠壇) 사이의 고개를 넘어 120고지 서측방으로 진출하던 이 대대는 조적을 잃은 소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한동안 사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⁹⁾

제 17연대의 공격 목표는 348고지였다. 가능한 한 신속히 미 제 32연대 전방으로 진출하여 348고지를 확보하고 아차산 일대

에 차단 진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 연대의 임무였다. 도하 후 이 연대가 진출을 개시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어둠은 닥쳐 왔다. 제 17 연대의 제 1 및 제 2 대대는 이날 밤 21:50 쯤 미 제 32 연대 우측방 대대의 전선을 통과하였다.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야 제 1 대대는 120 고지 동쪽 1km 거리에 있는 살곶이다리 우측방에, 그리고 제 2 대대는 120 고지 북쪽의 93 고지인 무학봉(舞鶴峰) 일대에 일시적으로 숙영지를 잡았다. 연대 본부는 제 3 대대와 함께 독섬으로 건너가 화양동(華陽洞)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병력의 도하를 마친 뒤에도 계속 남아서 도하 부대 지원을 담당한 미 해병 LVT 대대의 C 중대에 의해서 제 17 연대의 보급품들은 인사리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의 거리에 있는 청수동(淸水洞)*을 거쳐 독섬으로 추진되었다.²⁰⁾

7. 시가지 전투의 서전(緒戰)

9월 25일, 서울의 남동쪽에서 도하 작전이 개시되던 바로 그 시간에 서울의 서측방에서는 미 해병사단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미 해병사단으로서는 이날 비로소 편제상의 3개 보병연대를 전방에 전개시켜 감행하는 공격이었다. 사단의 공격 정면에도 약간의 변경은 있었다. 제 10 군단의 작전 계획 변경에 따라, 인접 미 제 7 보병사단과의 경계선은 대체로 한강 인도교에서 용산까지는 큰길을 따라 나가다가 남산의 서쪽과 북쪽 하류를 통해 동대문에

* 독섬 서쪽, 한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 현 영동교(永東橋)가 놓인 부근임.

아르러서는 경춘(京春) 국도를 따라 그어졌는데, 서울의 도심 지역은 거의 미 해병사단 전투 지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날 밤 차정이 다 되어 하달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1-50에 의하면, 서울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도심 지역을 통해 진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공을 담당할 부대는 좌측방의 제 1 해병연대였고, 이 연대에는 고려 대학교 바로 북쪽의 132 고지와 133 고지 일대를 묶어 명명한 목표 A가 최종 목표로 부여되었다. 중앙에 위치하는 제 5 해병연대는 서울 시가지의 북서쪽 일각을 통해 약 3.5km를 진출하면 복잡한 산악 지대로 나서게 되며, 미아리 고개 바로 북쪽의, 서울-의정부(議政府) 간 국도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대의 목표 B가 이 연대의 최종 목표였다. 사단 예비로 지정된 1개 대대를 제외한 좌측방의 제 7 해병연대는 사단 좌측방 방호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연대의 목표로는 서울-개성(開城) 간 국도를 장악하기 위해 서오릉(西五陵) 동쪽 일대의 고지대에 선정된 목표 C가 할당되었다.²¹⁾

9월 25일 07:00, 미 제 5 해병연대 전방에서는 2개 대대에 의한 병행 공격이 시작되었다. 296 고지 남쪽의 복잡한 능선들을 따라 좌측방의 제 3대대가 여전히 별다른 진전도 없는 공격에 나섰을 때, 우측방의 제 2대대는 E중대를 앞장 세워 72 고지 공격에 나섰다. 한동안 심한 저항을 받기도 했으나 이날 13:35 즈음, E중대가 풍산을 확보했을 때는 D중대도 88 고지까지 진출하였다. 포병 및 항공 지원을 받은 뒤, 다시 E중대를 선두로 공격에 나선 제 2대대는 마침내 북부 105 고지를 포함한 큰고개 일대를 탈취하였다. 안산 남쪽의 능선을 따라 206 고지까지 진출한 제 3대대와 북부 105 고지를 장악한 제 2대대가 이날 오후 늦게 연결을

이런 뒤에도 제 3대대는 역습해 오는 적과 대치하여 또 한차례 싸워야만 했다.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가 지난 며칠동안 안산 296 고지의 남이 능선 지대에서 그토록 수월찮은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까닭은 지형이 그만큼 복잡한 데도 있었으나, 그동안 제 3대대가 이 지대에 투입했던 병력에 비해 대치하는 적의 병력 규모와 그 저항 정도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데도 원인은 있었다. 제 3대대 전방에 있는 아현터널과 그 서쪽의 의령터널은 이 일대에서 결전을 벌여 온 적에게 있어서 그동안 절대적인 거점이 되어 있었다. 미 해병사단이 집계(集計)한 것을 보면, 25일 중 이 일대를 중심한 제 5해병연대 전투 지대에서 적에게 입힌 인명 손실만도 1,750명에 달하였다.²²⁾ 이날 밤, 적들은 아현터널을 거점 삼아 가능한 모든 병력을 끌어 모으고 전차까지 동원하여 마지막으로 될지도 모르는 반격 준비를 서둘기 시작하였다.

9월 25일 아침, 미 제 1해병연대는 제 3대대로 하여금 제 2대대를 초월하여 연대의 공격 방향을 거의 직각(直角)이 되도록 왼쪽으로 틀어 나가도록 했다. 이 연대는, 전날에는 약간 남쪽으로 기운 동진(東進)의 공격 방향을 취했었으나, 미 해병사단과 인접 미 제 7보병사단의 경계선 재조정에 따라 북동쪽을 향해 새로운 공격 방향을 취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대대는 마포 전차 궤도를 따라 한동안 전진하다가 아현동고개를 좌측 경계로 하고서, 그 오른쪽의 만리재(萬里峴)를 넘어 서울의 도심에 들어 서게 된다. 이 동안 제 1대대는 우측방에 대한 차단 진지를 형성하면서, 좌측방의 제 3대대와 병행 전진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차대대 B중대의 2개 소대가 이날 아침 행주나루를

출발하였다. 이 즈음, 한강 도하를 위하여 전차가 이용할 수 있는 문교(門橋)는 행주나루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차 B 중대는 영등포 지역에서 전날 행주나루로 우회 도하하여 하룻밤을 숙영하고, 이날 아침 제 1 해병연대와 합류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이들보다 하루 앞서 한강을 도하한 1개 소대는 미 제 5 해병연대를 지원하는 전차 A 중대에 잠정적으로 배속되어 있었다.

공병과 보병 각 1개 소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전차 중대가 용산선 철로를 따라 제 1 연대 지역으로 넘어 설 무렵, 때마침 우군의 공백 지대가 된 와우산 쪽에는 이날 아침 미 해병 양 연대의 동시 공격에서 쫓긴 것으로 보이는 적의 한 무리가 몰려 있었다. 전차 중대의 접근을 보고, 당황한 적들이 먼저 사격을 퍼부었으나 이 싸움은 그다지 오래 가지도 않았다. 일부 전차들이 맹렬하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동안, 화염 방사기 전차가 적의 은신처를 찾아 무서운 불길을 뿜었다. 순식간에 적 150여명이 사살되었고, 겁에 질린 채 동굴과 참호 안에서 쏟아져 나와 붙들린 적 포로는 131명이나 되었다.

전차 지원 없이 이날 아침 공격에 나선 미 제 1 해병연대의 일선 대대들은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용산—수색 간 철로를 따라 강력하게 형성된 적의 최초 방어선에 부딪친 미 해병들은 집중 포격과 공중 공격 지원을 받아 힘겹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였으나, 다시금 진로를 가로 막는 도로상의 장애물과 광범한 건물 지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적들은 흙을 담은 가마니로 모든 교차로를 봉쇄하고 그 뒤에는 으레 대전차포나 기관총을 배치하였으며, 높은 건물의 창이나 지붕에는 소화기와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미 제 1 해병연대 전투 지대에서는 서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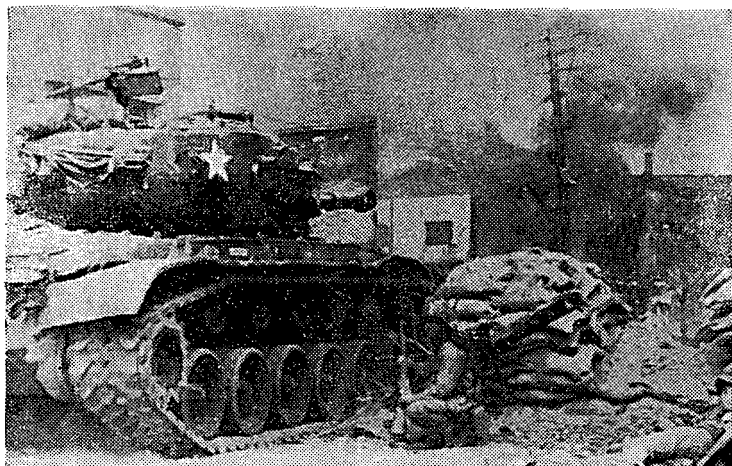


사진 25. 바리케이드를 헤치고 전진하는 전차와 미 해병들.

도심에 들어 서기도 전에 이미 시가지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한낮이 막 지나서야 비로소 미 제 1 해병연대의 전방 대대들은 전차 지원을 받았다. 다소간의 활기를 띄고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겹겹이 막아 놓은 도로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렵게나마 해질 무렵까지는 만리재 북쪽의 97 고지에 제 3 대대가, 그리고 만리재 남쪽의 82 고지에 제 1 대대가 진출하였다. 이날 18:30 쯤에 제 1 대대와 연결을 유지한 좌전방의 제 3 대대는 방어 상의 지형 조건 때문에 진출선을 약간 뒤로 물려 소의(昭義) 국민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만리재 바로 서쪽의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야간 진지를 마련하였으며, 좌측방의 마포 전차길에는 아현동 삼거리 조금 못미친 곳에 대전차 화기를 배치하였다. 연대 예비인 제 2 대대는 제 1 대대 후방에 전개하여 우측방에

대한 차단 임무를 함께 맡았다.

9월 25일에는 한국 해병대 안에서도 작전 상의 부대 지휘 계통에 일부 변동이 생기고, 그에 따른 상당한 부대 이동이 있었다. 바로 전날 밤 자정에 전달된 바 있는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1-50을 보면, 미 해병사단은 한국 해병들로 하여금 서울 시가지 소탕작전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미 해병 공격 연대들에게 한국 해병 1개 대대씩을 배속시켰다. 이 명령에 따라, 해병 제 1대대는 여전히 미 제 5해병연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지만, 제 2대대는 미 제 1해병연대로 배속 전환되는 것이다. 동시에 미 해병사단 예비로 지정된 한국 해병대에는 김포 지역에 있는 제 3대대의 원대 복귀가 예정되었다.

9월 25일 오후, 해병 제 2대대장 김 중기 소령은 미 제 5해병연대 지휘소에 들러 비로소 그의 대대가 미 제 1해병연대로 배속 전환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한국 해병대의 선봉으로 한강을 건넌던 제 2대대는 5일만에 제 5해병연대의 측방 및 후방 지역 경계 임무로부터 벗어나 미 제 1해병연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19:00 쯤, 대대 지휘소를 마포 국민학교에 개설했던 제 2대대는 용산선 철로를 대략적인 진출 한계선으로 하여 원효로 쪽에 우측으로부터 제 5중대와 제 6중대를 차례로 전개시키고, 좌측의 마포쪽에는 제 7중대를 배치하여, 이날 야간 숙영을 실시하도록 했다.²³⁾

해병 제 3대대 역시 9월 25일 오후,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수색으로 이날 21:00까지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김포지역을 떠났다. 김포 지역에 대한 책임은, 미국 본토로부터 일본을 거쳐

바로 전날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던, 미 육군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 제 3대대가 맡게 되었다. 이날 오후 늦게서야 절두산 쪽으로 한강을 도하한 해병 제 3대대는 밤늦도록 수색까지 도보 행군을 계속하였다.²⁴⁾

한편, 지난 8월 중순 이후 통영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해 오던 해병 김성은부대가 이날 인천에 도착하였다. 실상은 지난 8월 26일, 제 161 부대로 개칭되었던 이 부대는 9월 21일, 진해 해군통제부 산하의 한 잠정 편성 부대인 방위대(防衛隊) 제 1대대에 통영 지역 방어 임무를 넘겨 주고, 일단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한 뒤, 다시 부산을 떠나 해상 이동으로 이날 인천에 도착한 것이다. 곧 서울로 이동하여 해병대 사령부 재휘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대는 해병 제 5대대라는 새로운 단대호(單隊號)로 수도 탈환 전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8. 적의 역습

미 해병사단이 모처럼 2개 연대로 병행 공격을 감행한 9월 25일, 그 일부 연대에서는 이미 시가지 전투를 벌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어느 연대도 여전히 서울의 도심에는 들어 서지 못한 하루였다. 적의 저항은 아직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각 연대장들로서는 서울의 길다란 시가지를 다음날 하루에 전적으로 거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 출신인 한 저술가(著述家)의 표현에 따르면, 「이 무렵, 제 10군단 사령부의 분위기는 26일까지 서울을 탈취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간

장되어 있었다」²⁵⁾고 했다. 이날의 도하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친 끝에 이제는 서울의 심장부를 눈앞에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제10군단 참모진의 입장은 어쩌면 미 해병 지휘관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9월 25일 20:40, 미 해병사단은 제 10군단 사령부에서 텔레타이프를 발신된 한 긴급전문을 접수하였다. 이 전문은, 서울—의정부 간 국도를 따라 적군이 도주하고 있어서 군단 전술항공부대가 목하 맹렬한 공중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제 10군단 전술항공 사령관의 보고 내용을 밝히면서, 군단장의 다음과 같은 명령을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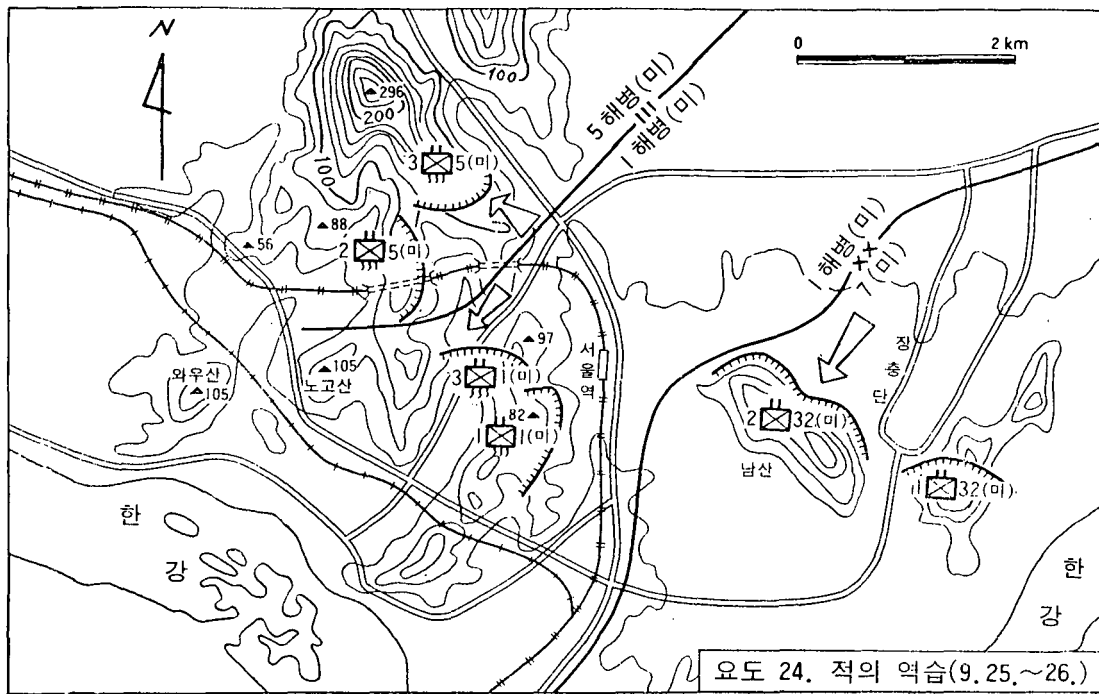
공격을 즉각 감행하여 귀 부대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적을 최대한 파쇄(破碎)토록 할 것. 「아몬드」서명(署名). ²⁶⁾

군단 전문을 받아 본 미 해병사단 작전참모 「바우저」 대령은 이날 해거름까지도 전방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군단 작전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피난민 대열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을만큼 야간 공중 관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그가 받은 대답은 명령대로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곧 모든 내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미드」 장군이 군단 참모장 「러프너」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생소하고 복잡한 시가지에 야간 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의 진의(直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러프너」 장군에게서도 군단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므로 지체없이 명령대로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 외에 별다른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9월 25일 22:05, 그리고 10분 뒤인 22:15에 미 해병사단의 야간 공격 명령은 제1해병연대와, 그리고 제5해병연대에 각각 하달되었다. 이어서 다른 연대에도 이 명령은 전달되었다. 사단장은 제1 및 제5연대장에게 상호간 공격을 협조하되 야간 식별이 용이한 도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전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야간 공격은, 포병의 집중 사격을 15분간 지원 받은 뒤, 9월 26일 01:45에 개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양 연대는 곧 야간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일선 연대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수령 중이던 25일 22:10 쯤에 약 200명의 병력 규모를 가진 적이 제5해병연대 제3대대 전방으로 역습해 왔다. 얼마 뒤에는 이보다 더 규모가 큰, 그리고 더욱 더 필사적인 다른 적 부대의 역습이 제1해병연대 제3대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포병의 준비 사격이 시작된 뒤였다. 지원 사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제1해병연대장 「풀러」 대령이 공격 개시 시간을 15분 더 늦추어 재조정하고 포병 사격을 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이, 불과 500m 거리의 아현동 삼거리쪽으로부터 전창길을 따라 적의 보·전 부대가 접근 중이라는 긴급 보고가 제3대대에서 날아 들었다. 그리고 뒤따라 일어난 돌발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미 해병들의 공격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미 제1해병연대 제3대대장 「리지」 중령은 좌전방 G중대의 대전차 방어 수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적 전차의 예상 접근로인 전창길 쪽에 「시몬즈」 소령이 지휘하는 화기중대의 대전차 화기를 추가 배치시켜 놓고 있었다.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적 역습 부대는 전차와 자주포(自走砲) 등, 12대를 앞세우고 제3대대 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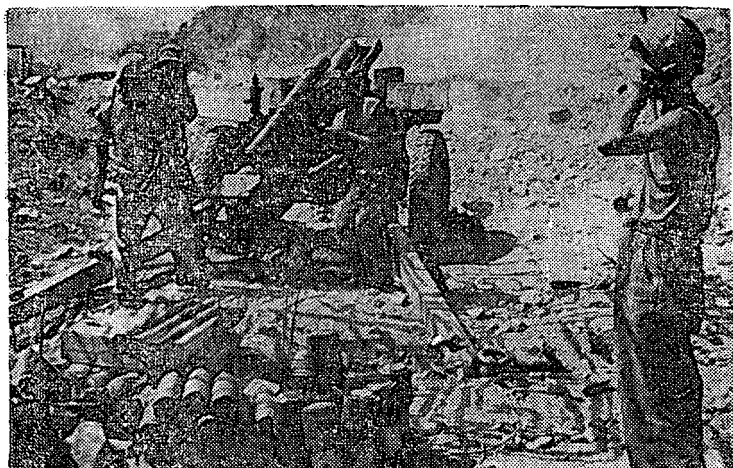


사진 26. 105mm 곡사포의 지원 사격.

으로 다가 왔다. 이들은 동시에 맹렬한 박격포 사격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적의 선도 전차는 미 해병들이 도로 상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3.5인치 로켓포가 다음 전차들을 격파하는 동안 포병 화력이 여기에 가세하였다. 물론 보병들의 빈틈없는 사격이 적 보병들의 침투를 막았다.

약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으로 야포의 포신과 소화기의 총열들이 마모될 지경에 이르렀다. 적의 공격 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수그러져 가기는 했지만, 날이 셀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미 해병들의 전방에서는 탄약이 바닥나는 심각한 사태에 까지 부딪혔었으나, 물론 적의 포화를 무릅쓰고 탄약은 보급되었다. 적을 격파한 뒤에 있었던 전투 현장 조사 및 포로 신문 결과에서는 적 전차 7대와 자주포 2대가 파괴되거나 운용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475 내지 500 명으로 추산되는 적 보병

이 사살되고, 이에 더하여 또 많은 수가 부상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83명의 적병이 생포되었다. 이러한 전과에 비한다면 매해병들의 손실은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9월 26일 04:30, 적의 역습은 또 한차례 시도되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수로 추산되는 적 부대가 이번에는 남산 위에 있는 미 육군 제 32 보병연대 제 2대대 진지에 역습을 해 왔다. 전 날 오후에 남산을 장악하자, 정상에 진지를 편성하여 야간 방어에 들어 갔던 제 2대대가, 화염이 치솟고 포화가 작렬하는 시가지들을 밤새도록 굽어 보며, 그런대로 별일 없는 밤을 막 넘기는가 싶었을 때에 적의 역습은 시작되었다. 27)

남산 서쪽의 공원 지대로 이어지는, 높고 가파른 봉우리에 진지를 잡고 있던 G중대는 끝까지 적의 공격을 잘 막아 냈으나, 장충단 쪽으로부터 적의 접근이 용이하고 봉우리도 훨씬 낮은 동쪽 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F중대는 적에게 진지를 유린당하고 말았다. 2시간 이상의 격전 끝에 예비대에 의하여 진지가 회복된 것은 07:00 쯤이었다. 제 2대대는 진내(陣內)에 널린 적 시체 110 구와, 그보다 더 많은 284 구를 진전(陣前)에서 헤아림으로써, 394명의 적 사살을 확인하였으며 174명을 포로로 붙잡았다. 28)

제 9 장

수 도 탈 환

1395년에 조선조(朝鮮朝)가 도읍하면서 한성(漢城)이라 불려진 이후 서울은 이 나라 정치·경제·문화·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일제(日帝) 치하 36년간의 암흑기에는 그 이름마저 빼앗겼다가 8·15 해방 후 「서울」이라는 민족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대한 민국의 탄생과 함께 수도로서의 영광도 되찾았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말, 134km²의 크기와 약 90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이 1949년에는 그 해저 구역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268km²로 넓어졌고, 1950년 4월의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인구도 약 170만명으로 늘어났다. 5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그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행정 구역 확장에 따른 자연 증가라는 사실 외에, 정든 고향 산천마저 등지면서 대다수의 북한 지역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하(南下)하여,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모여든 데에도 그 까닭이 있었다.¹⁾

일제로부터 당한 수도(受侮) 외에도 서울은 역사상 두번의 전란(戰亂)을 통해 왜구(倭寇)와 호적(胡狄)들에게 짓밟힌 일이 있다.

1592년의 임진 왜란과 1637년의 병자 호란이 바로 그것이다.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이에

서 민족적인 통분(痛憤)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들 국란(國亂) 중 북쪽으로부터의 두 침구(侵寇)는 너무나 기습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슷한 그 단기간(短期間) 중의 침탈(侵奪) 수법에 있어서 격세 유전(隔世遺傳)과도 같은 유사성을 보여 준다.

서울을 강점(強占)한 북괴의 주구(走狗)들은 제일 먼저 우익(右翼) 진영의 인사들을 체포하여 구금 또는 학살하였다. 전황이 악화하고 전쟁 자원이 고갈되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북괴의 수탈(收奪)은 시작되었다. 「의용군」(義勇軍)이라는 미명으로 젊은이들이 끌려 나갔다.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데는 「현물세」(現物稅)라는 회한한 명목까지 내세웠다. 그리고, 부서진 다리와 도로를 보수하거나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노력 동원」(勞力動員)이라는 이름 아래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몰아 세웠다. 이러한 만행이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 거리의 그 많은 바리케이드와 기타 방어 시설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서울 공방(攻防)의 대세가 한·미 공격군에게 기울자 적의 만행은 필경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살인과 방화, 그리고 납치가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나라의 심장으로서의 서울이 겪어야만 했던 300년 전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는 역사적·민족적 시련이었는지도 모른다.

1. 새로운 공격 부대들

9월 26일 09:00, 한국 해병 제3대대는 전혀 기대 밖의 부

대 이동 명령을 받았다. 다시 김포로 건너 가 미 육군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 제 3대대의 작전 통제를 받으라는 제 10 군단의 명령이 미 해병사단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밤사이엔 김포 비행장과 그 북서쪽의 김포 반도에 대한 경계 책임도 미 해병사단에서 제 10 군단 사령부로 넘겨졌고,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 제 3대대 또한 미 해병사단에서 배속 해제되어 군단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다.²⁾

김포로 다시 이동하라는 명령을 전해 들은 제 3대대 장병들은 한동안 실의(失意)에 빠져들고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 까닭은 전날에 떠나 온 김포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날의, 한강 도하라는 특별한 의미로 해서 절로 힘이 솟구치던 장병들로서는 먼 발치로만 서울을 보고 다시 등져야 하다는 데서 오는 실망이 더 컸던 것이다. 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중, 행주나루를 다시 건너 해병 제 3대대는 미 육군 제 187 공수연대전투단 제 3대대와 함께 김포 반도의 적 소탕작전을 맡게 되었다.³⁾

한편, 해상 이동으로 통영에서 인천에 도착했던, 별도의 해병 1개 대대는 이날 10:00 쯤 사령부에 합류하자, 곧 그 부대명을 제 5대대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미 그 전날, 새 대대장에는 그동안 해군 총참모장 손 원일 소장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직을 대행하여 오던 김 대식(金大植) 중령이 임명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김 성은 대령은 다시 사령부 참모장의 자리로 복귀하였다. 수색에 도착하던 그날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2-50에 따라 해병 제 5대대는 그 예하의 4개 소총중대 중 제 25중대를 사령부 직할로 넘기고, 제 21·제 22·제 23 중대와 화기중대

만으로 미 제 7 해병연대에 배속되어, 뒤늦게나마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⁴

9월 26일 12:30에 하달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2-50은, 미 해병사단이 그동안 북쪽의 측방 경계를 담당시켜 오던 제 7 해병연대를 마침내 공격작전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하면, 제 5 해병연대가 중앙청(中央廳) 일대를 장악하고 그 동쪽으로 약 1km를 진출한 뒤에는 제 7 해병연대가 그 공격을 이어 받아 제 1 해병연대와 더불어 서울의 북동쪽으로 병행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 7 해병연대의 전진로가 될 서울 북쪽의 변두리에는 새로운 목표들이 주어지고, 앞서 제 5 해병연대에 최종 목표로 주어졌던 목표 B도 제 7 해병연대에 다시 할당되었다. 이 새로운 명령에 따라 제 5 해병연대는 축소된 연대 전투 지대를 확보한 뒤 제 7 해병연대의 전진을 지원하다가, 제 7 해병연대가 진출한 뒤에는 사단 예비 임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제 7 해병연대에 주어졌던 목표 C를 포함한 사단 후방 지역과 북쪽의 측방 방호를 담당하게 되었다.⁵⁾

미 해병사단의 북쪽 측방에서 적극적인 정찰 활동을 전개하여 오던 제 7 해병연대에서는 불원간 예상되는 공격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사실상 9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인접 제 5 해병연대와의 연결을 유지할 목적으로 D중대가 개성—서울 간 국도를 따라 서울 쪽을 향해 출발하였으며, 제 2대대의 나머지 부대들은 D중대를 뒤따라 남하하다가 홍은동(弘恩洞) 동쪽의 고지대로 전개하였다.

한동안 적의 아무런 저항없이 행군을 계속하던 D중대는 이날

09:00 전후하여 무악재를 넘어 섰다. 오른쪽에 서대문 형무소를 끼고 큰길을 따라 진출하던 D중대는 약 400m 전방의 독립문 위에서 내려 쏘는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삼시간에 수명의 사상자를 낸 미 해병들은 신속히 도로 양측으로 전개하였으나, 이번에는 큰길 동쪽의 한 비탈진 언덕 위에서, 그리고 뒤이어 큰길 서쪽의 고지에서도 적의 사격이 날아 왔다. 이날 새벽 금화산 쪽의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 진지에 역습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한 뒤, 서대문 일대의 고지대를 발판으로 다시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적들이었다.

포병 지원조차 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 공격으로 지형상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이 중대는 뒤늦게 항공 엄호를 받으면서 큰길 북쪽의 약간 높은 지대로 물러나 전면 방어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동안 이 중대의 사상자는 40여명에 달하였으며, 중대장 「브린」 대위는 무려 세번이나 부상을 당하였다. 연대의 철수 명령을 받은 D중대는 이날 16:00 쯤 약 1km를 이동하여, 도로 양쪽에 우뚝 솟은 절벽으로 보호되는 무악재에서 일단 야전을 넘기기 위한 채비를 하였다.

D중대가 고립된 채로 고전하던 동안,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2-50을 수령한 제7해병연대는 서울의 북쪽을 에워싼 일련의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작전에 점진적으로 부대들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대는 이제부터 목표로 주어진 서울 북쪽의 고지들을 확보하면서 세검정(洗劍亭)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 그리고 북한산(北漢山) 남쪽으로 뻗어 내린 험준한 산허리를 타고 넘어, 서울 북동쪽의 서울—의정부(議政府) 간 국도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홍은동 동쪽의 고지대에 이미 전개해 있었던 제 2대대의 E중대와 F중대는 9월 26일 14:00 쯤, 남동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악산(北岳山) 북동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는 343 고지가 이들의 공격 목표였다. 약 1km를 전진하여 세검정 계곡으로 들어 서는 입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중대들은 인왕산으로부터 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한 능선 위에 진치고 있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뒤늦게, 같은 날 16:45 쯤에는 제 3대대가 제 2대대 우측으로 홍제천(弘濟川) 남쪽에 전개하였다. 338 고지인 인왕산의 북반부가 그 공격 목표인 이 대대 역시 홍제천 남쪽 약 600m의 거리에서 적의 심한 사격을 받았다.

제 2대대와 제 3대대 공히 적의 소화기, 자동화기 사격과 함께 인왕산 쪽에서 날아 오는 적의 박격포 사격을 받아 진출이 저지된 상태에서 이날의 공격작전은 그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제 7해병연대 예하의 제 1대대는 이날도 여전히 연대의 북서쪽 측방 방호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한국 해병 제 5대대는 이날 오후 연대 지휘소 근처로 이동하여 연대 예비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무악재에서 하룻밤을 보낸 D중대는 다음날 제 2대대로 복귀하였다.

2. 시가지 전투의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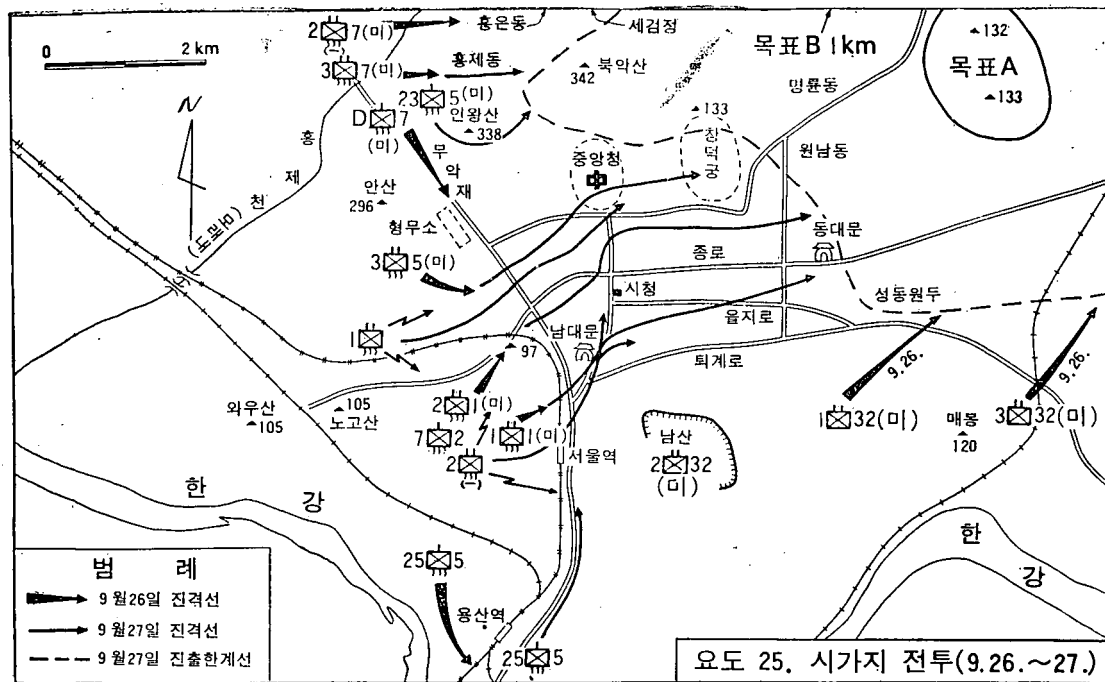
멀리는 고구려 때부터, 가까이는 조선조 말기까지 전승되어 온 석전(石戰)이라는 민속놀이가 있다. 돌싸움 또는 편싸움이라고도 한다. 대개는 하천을 사이에 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팔

매질을 해서 승부를 가리는 싸움이었는데, 하천이 없는 곳에서는 주먹만한 돌을 미리 주워다 놓고 정한 시간에 싸움을 시작한다. 이 돌싸움은 정월 보름날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단오날 또는 한가윗날에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⁶⁾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 서울에서는 만리재와 우수현(雨水峴)*에서 이 편싸움이 있었다. 만리재 위에서는 삼문(三門)* 밖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떼를 이루어 편을 가른 다음, 혹은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을 던지고 고향을 치면서 달려들어 접전을 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여 피를 보고서도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적의 발악적인 역습 끝에 날이 밝아 온 9월 26일은 음력 8월의 한가윗날이었다. 어이없이, 또는 어쩔 수없이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전란(戰亂)의 와중(渦中)에서 햇곡식과 송편을 마련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조출한 음식으로나마 차례(茶禮)를 지냈다. 이날, 만리재 바로 북쪽의 아현동고개 일대에서는 하루 종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옛날 만리재 위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상무(尙武)의 얼을 기리는 조상 전래(傳來)의 돌싸움은 아니었다.

9월 26일 08:30, 미 제 1해병연대 좌전방에서는 연대 예비로 있던 제 2대대가 제 3대대의 전선을 물려 받아 공격에 나섰다. 가파른 비탈과 조밀한 주거 지역이 전방에 가로 놓여 있어서 특히 보·전 부대를 위한 진출로는 전차길을 따라 아현동고개를 넘어 가는 길 뿐이었다. 그러므로, 대대의 공격 계획은 선두에 선 F중대가 일단 아현동고개를 넘어 서면, F중대는 계속 서대문쪽

* 우수현은 서울 역전의 도동(桃洞)에서 후암동(厚岩洞)으로 넘어 가는 고개 이름이며, 삼문이란 남대문, 동대문 및 서대문을 가리킨다.



으로 진출하되 뒤따르는 E중대가 F중대 우측으로 나서도록 되어 있었다.

아현동 삼거리 전방에서 F중대는 적의 맹렬한 사격을 받았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F중대의 진출이 저지되자, 뒤따르던 E중대가 지원에 나섰다. 지형이 가파른 우측방으로는 전차와 함께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E중대는 F중대의 좌측방으로 돌아 나갔다. 하지만, 아현동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대문으로 넘어 가는 아현동고개 일대에는 보다 강력한 바리케이드가 더욱 총총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길가의 높은 건물들이 또 예의없이 적에게 이로운 방벽 또는 참호와 같은 구실을 해 주고 있었다. 북피군 제 25여단의 잔존 부대들은 새벽의 역습에 실패한 뒤에도 여전히 아현터널과 아현동고개 일대를 거점 삼아 또 한차례의 결사적인 저항을 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전투는 점점 가열되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들이 내뿜는 열기가 대단했고, 연기 때문에 시계(視界)도 크게 제한되었다. 바리케이드와 고층 건물 안에 몸을 숨긴 적들과 맞서 보병들이 사격전을 벌이는 동안 공병들이 석의 지뢰를 제거하면 전차가 앞으로 나서서 적의 바리케이드를 분쇄한다. 이토록 어렵게 한곳의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면, 전방 300m 쯤에서 또다른 바리케이드가 나타난다. 똑 같은 방법이 공격이 되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료와 탄약을 소모한 전차들은 재 급유와 탄약 재 보급을 받기 위해 후방 지역으로 돌아 가야만 했다. 전차가 되돌아 오기까지 공격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한곳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는 데는 평균 45분이 소요되었다.

이날 이른 아침, 미 제 1해병연대 우전방에서는 항공 및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을 지원받은 뒤, 82 고지를 내려 선 C중대가 서울역 서쪽으로 전진했다. 여기서는 여러 가닥의 철로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 객·화차(客貨車)와 그 주변의 간이 건물들, 그리고 선로(線路) 사이의 승강대(昇降臺) 등이 적에게 이로운 방벽 구실을 했다. 이러한 시설들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총격을 가한 뒤에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다시 숨어버리는 적들이 미 해병들을 적지않게 괴롭혔다. C중대는 몇 차례의 격전을 치른 뒤에야 서울역 청사를 장악하였다. 한편, 이 중대 우측으로 전개한 B중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갈월동(葛月洞)을 거쳐 후암동(厚岩洞)을 돌아 서울역 쪽으로 진출하였다.

미 제 1 해병연대의 후방 지역 소탕작전은 한국 해병 제 2대대가 맡고 있었다. 마포 쪽을 담당한 제 7 중대 이외의 중대들은 우측방의 미 해병 공격대대를 뒤따라 전진했다. 청과동(靑坡洞) 일대를 소탕한 심 포학(沈布學) 중위 지휘 하의 제 6 중대가 서울역 서쪽으로 진출하는 동안, 원효로 쪽으로 돌아 나간 제 5 중대는 갈월동 굴다리를 빠져 큰길로 나갔으며, 거기서부터는 B중대의 미 해병들과 더불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울역전 쪽으로 접근해 갔다.

서울역전의 언저리에 있는 건물들은 이미 엄청난 폭격과 포격에 시달려 만신창이였으며, 더러는 아직도 화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역 광장을 사이에 두고 큰길 건너편의 고층 건물들을 방벽 삼아 적들은 한동안 버티었다. 여기서도 한차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미 해병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진출하던 문 판호(文判鎬) 삼조(三曹)가 적 탄에 맞아 쓰러졌고 윤 치호 이조(二曹)가 부상했다. 적의 완강한 저항이 일

단 꺾인 것은 뒤늦게 전방으로 진출한 전차의 기증 및 화염 세례를 받고서였다.⁷⁾

이날 오후, 남산의 미 제 32연대 제 2대대와 연결을 이룬 미 제 1해병연대 제 1대대는 서울역 일대와, 그 동쪽으로 남산 공원에 이르는 도동(桃洞)의 고지대에 야간 방어선을 형성하였으며, 제 7중대를 제외한 해병 제 2대대 역시 서울역 일대에서 야간 진지를 준비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아현동고개와 그 남쪽의 97고지를 넘어 얼마 쯤 전진하던 미 제 1해병연대 좌측방의 제 2대대는 야간 방어를 위해 아현동고개 쪽으로 약간을 다시 물러섰다. 때마침 이 대대를 뒤따라 아현동고개를 넘어 선, 정 광호(鄭光鎬) 중위 지휘하의 해병 제 7중대는 충정로(忠正路) 북쪽의 구세군본영(救世軍本營) 일대에 야간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⁸⁾ 서대문 서쪽의 충정로를 경계로 하는 그 양쪽의 대대들이 병력으로 전선 연결을 이루지 못했던 이날 밤, 결과적으로는 해병 제 7중대가 그 전선의 간격을 훌륭하게 담당한 셈이 되었다.

미 제 5해병연대가 9월 26일에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은 이 연대의 남쪽에서 제 1해병연대가 병행 진격하게 됨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는 연대 전투 정면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제 1해병연대와 연결을 유지하는 대로 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는, 예하 제 2대대와 전선이 그 남쪽에서의 제 1해병연대의 진출에 따라 자연히 뒤로 처지게 되는만큼, 당연히 제 3대대에 주어졌다. 따라서, 제 3대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남동쪽으로 공격해 나가다가 남쪽의 인접 대대와 연결을 이룬 뒤에는 점진적으로 그 공격 방

향을 북동쪽으로 돌려 나가야 한다.

9월 26일 새벽, 적의 역습을 물리칠 때까지도 금화산 남쪽의 높은 능선 지대에 있었던 제3대대는 마침내 남동쪽으로 떨어 나가는 하향(下向) 능선과 비탈을 따라 공격에 나섰다. 능선을 따라 진출하던 좌전방의 1중대는 서대문 쪽으로 돌출한 작은 능선 끝쪽의 한 봉우리에 버티고 있던, 약 200명 규모의 적으로부터 맹렬한 사격을 받았다. 돌격을 감행한 전방 2개 소대에서는 두 소대장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오랫동안 혼전이 거듭되었다. 마침내 예비 소대가 투입되고 격렬한 근접 전투가 이어진 뒤에 적들은 밀려났다. 그러나 이내 반격해 오는 적을 맞아 미 해병들은 또 한차례 격전을 벌여야 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역전의 용사였던 중대장 「맥멀린」 대위가 그의 생애 중 일곱번째의 전상(戰傷)을 입고 후송되었다.

한편, 비탈을 따라 의령터널과 아현터널 사이의 골짜기로 내려선 우전방의 G중대는 북아현동의 북쪽 주택 지대로 들어 서면서 적의 집요한 저항을 받았다. 한동안 주택가에서 적과의 사격전을 치루면서 조심스럽게 진출하던 이 중대는 그 공격 방향을 동쪽으로 재조정하여, 남쪽에서 아현동고개를 향해 진격 중인 제1해병연대 제2대대와 나란히 북아현동 일대의 비탈을 넘어 가면서 저항하는 적과 혈전을 거듭하였다.

이날 해질 무렵까지는 제3대대가 서대문 네거리 쪽으로 불거진 작은 봉우리와 그 주변의 저지대를 장악함으로써, 마침내 아현터널을 거점으로 한 적의 조직적인 저항은 와해되었다. 제3대대가 이날 하루 종일 쉴 사이 없이 전투를 계속하는 동안, 이 대대 바로 뒤를 따라 진출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북아현동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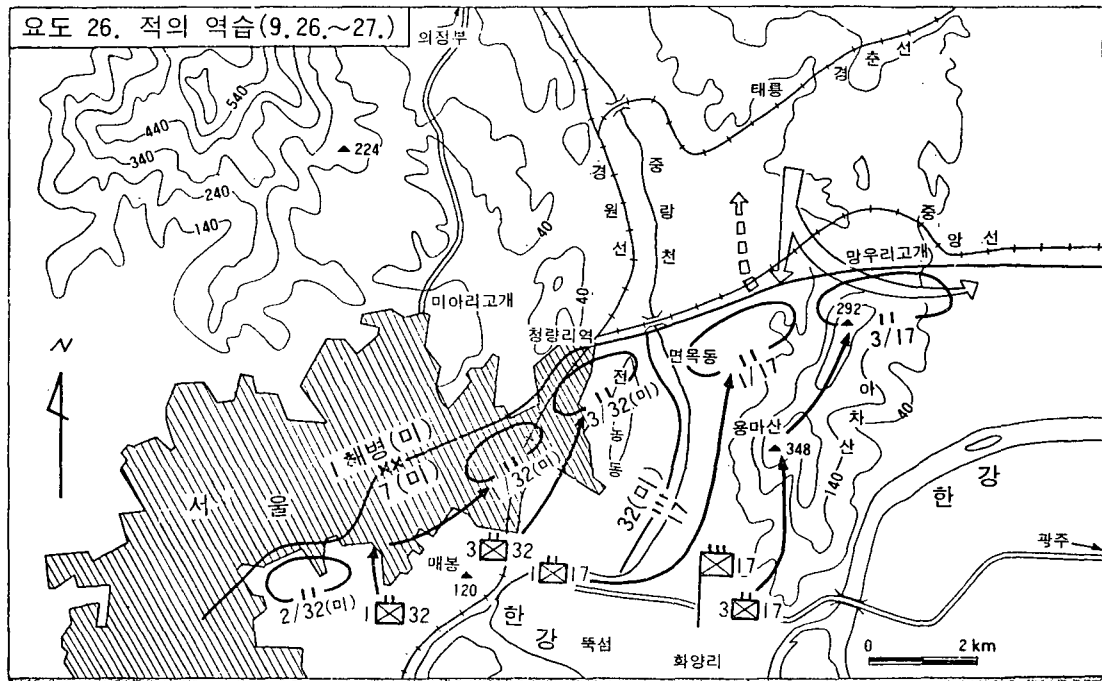
대를 소탕하면서 다수의 적을 생포하였으며, 큰고개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는 미 제 1해병연대와와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 지대를 소탕하였다.

한편, 제 3대대의 진출에 따라 안산의 296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사단 수색중대와 제 3대대 사이의 전선에도 상당한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날 오후 미 제 5해병연대에서는 한국 해병 제 1중대를 금화산 북쪽의 능선 지대에 배치시켜 그 간격을 메우도록 했다. 전날, 안산과 백련산 일대에는 미 제 5해병연대 예하의 제 1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연대에서는 전날 오후 늦게 사단으로부터 수색 중대를 배속받아 제 1대대와 대치시키고, 제 1대대는 장차 서울 시가지 진입 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봉원사 부근에 집결, 대기시켰던 것이다. 9월 26일에도 이 대대는 봉원사 부근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3. 서울 남·동쪽의 차단 부대들

남산 위의 미 제 32보병연대 제 2대대 진지에 적 1개 대대가 역습해 왔던 9월 26일 새벽, 또다른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제 2대대 동쪽의 다른 대대들 전선에도 나타났었다.¹⁰⁾ 그러나 남산에 대해서처럼 공격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직적으로 통제된 공격을 펼칠 수도 없었던 적들로서는 번번히 공격해 보지도 못한 채, 날이 밝아 오자 맥없이 물러서 버렸던 것 같다. 새벽녘에는 왕십리 일대에도 수대의 적 진차가 나타났었으나, 한동안 허둥거린 뒤 스스로 물러가버렸다.¹¹⁾

요도 26. 적의 역습(9.26.~27.)



9월 26일 이른 아침, 제 2대대에 대한 측방 지원 임무를 띤 제 1대대가 남산 동쪽 기슭의 장충단을 거쳐, 그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시가지로 들어 서는 큰길 가까이 전개 중이던 제 1대대의 일부 중대들은 남산 역습 부대의 한 패잔병 집단으로 보이는 적과 부딪쳤다. 물론 여기서도 한차례의 전투가 있는 뒤 약 80명의 적이 미군들에게 붙들렸다.

같은날 08:00, 제 32연대 제 3대대는 매봉의 120 고지로부터 북·동쪽 약 4km 거리에 있는 106 고지를 공격 목표로 하고 진출을 개시하였다. 청량리역(淸凉里驛)으로부터는 약 1km 동쪽에 있는 이 106 고지를 I 중대가 공격하는 동안, L 중대는 경춘(京春) 국도를 따라 서울을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의 적 부대를 포착하였다. 적의 이동 상황이나 그 서두는 품으로 보아 틀림없이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 부대라는 것을 간파한 L 중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적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였다. 기습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약 500명의 적이 사살되고 적 전차 5대가 파괴되었다. L 중대는 이 외에도 40대 이상의 차량과 수 문의 야포, 그리고 기관총, 탄약, 기타 적의 보급품들을 파괴 또는 노획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

서울을 고수하려고 안간힘 쓰던 적들로서도 서측방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산에서 밀려나는 마당에서는 서울에서의 퇴각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서울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적 지휘부에서는 9월 24일 중에 서울로 퇴각, 집결되었던 적 제 18사단의 잔존 병력 약 5,000 명을 그 다음날인 9월 25일 저녁부터 북쪽으로 퇴각시켰다. 그리고 이 퇴각 부대를 엄호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적들은 9월 25일 밤과 9월 26일 새벽에 걸쳐

대대적인 역습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9월 25일 저녁에는 적 퇴각 부대의 일부가 제 10 군단 전술 항공 부대에 의하여 포착되었고, 9월 26일에도 적의 서울 방어 담당 부대가 시가지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한편에서, 계속 퇴각 중에 있었던 적 제 18사단의 지휘부 또는 서울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그 이상의 적 지휘부가 미 제 32연대 제 3대대에 의하여 격파된 것으로 보인다.¹³⁾

9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한국 육군 제 17연대에서도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작전은 재개되었다. 전날의 연대 예비였던 제 3대대가 공격의 선봉에 섰고, 제 1대대가 그뒤를 따라 전진하였으며, 제 2대대는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제 2대대는, 미 제 32연대 제 3대대가 도주하는 적 부대를 포착하여 북쪽으로 급속히 전진하게 됨에 따라, 연대 예비로서보다는 이 대대의 후방 지역을 소탕하는 일로 더 바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¹⁴⁾

광나루 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348고지 공격의 선두에 선 제 3대대는 진출 중 이따금 소규모의 적 부대와 조우하였다. 적과 조우할 때마다 전투는 벌어지게 마련이었지만, 그 대부분의 적이 고지나 능선 상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부대이기 보다는 계곡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산된 부대였기 때문에 이 적들을 격파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후의 반나절이 지날 무렵에 제 3대대는 용마산을 확보하고, 아차산의 능선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전진하여 292고지를 점령하였다. 오후 늦게, 경춘 국도를 따라 제 3대대가 망우리(忘憂里)교개 일대에 야간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동안, 그 좌측으로는 제 1

대대가 전개하여 제 3대대와 나란히 야간 진지를 잡았다.¹⁵⁾

각 대대의 진지를 대체로 살펴 보면, 제 1대대가 위치한 망우리역 일대는 비록 얇은 구릉(丘陵) 지대이기는 해도 지형이 비교적 평탄해서 소화기 유효 사거리 범위의 사계(射界)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당시 태릉(泰陵) 쪽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와 갈림길이 이 대대의 우측방에 있었다. 이에 비하면, 제 1대대 동쪽으로 망우리고개까지의, 도로 연변의 들쭉날쭉한 고지 상에 준비된 제 3대대의 진지는 지휘 및 사격 통제 면에서 이롭지 못한 편이었다. 게다가, 미 제 32 보병연대와 제 1 해병연대 사이의 경계선이었던 경춘 국도가 이날 제 17 연대의 진출, 또는 적절하게 지형을 이용한 방어 진지 편성에 다소나마 제한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연대가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때, 일선 대대들로서는 방어를 위한 적절한 중심(縱深)을 갖지 못한 편이었다.

밝은 추석달이 중천(中天)에 걸린 이날 밤 23:00 쯤, 태릉 쪽의 간선 도로를 따라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적 부대가 제 1대대 우전방으로 접근해 왔다. 이 적 부대가 역습으로 노리는 바는 서울에서 철수하는 적 부대의 퇴로를 열어 주려는 것이었다. 전초의 보고로 적의 역습에 사전 대비할 수 있었던 제 1대대의 전방 중대들은 적이 진전에 바짝 다가 오기를 기다려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물러 섰던 적들은 그들 뒤로부터 몰아 세우는 압력에 의하여 제 3대대 진지 쪽으로 밀렸다. 제 3대대에서도 물론 이들 적에게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으나, 비교적 방비가 허술했던 측방으로 일시에 밀물처럼 적이 몰려 들어, 끝내는 진지의 일부가 적에게 유린되고, 한동안 혼전은 계속되었다.

공격의 선두에 선 대부분의 적들은 남한(南韓) 지역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혼란이 덜 된 '신병들이었다. 이들은 제풀에 분산되어 그 대다수가 진지를 빠져 달아났다. 하지만, 이들을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뒤따라 온 적의 후위 제대는 그같은 꾀나기들이 아니었다. 이들 적의 후위 제대로부터 다시 악착스러운 공격을 받은 제 1 대대도 끝내는 그 우측방의 일부를 돌파당하였으며, 한동안 공방의 격전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약 4 시간의 전투 끝에 적들은 많은 사상자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물러가고 말았다. 날이 밝은 뒤, 양 대대의 진지 주변에서는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상당수의 잔적들이 붙들렸으며, 적의 사상자는 약 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비록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격을 받은 대대들이 입은 손실, 특히 제 3 대대의 손실도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6)

수원 비행장 바로 남쪽의 고지대에 차단 진지를 형성하고 있던 미 제 31 보병연대는 항공 관측에 의하여 오산(烏山) 바로 북쪽의 고지대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된 적 부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9월 26일 중 예하 2개 대대를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17) 날이 어두워지자 목표 전방의 국도를 중심으로 야간 진지를 잡고 있던 제 3 대대는 전방이 되는 오산 쪽으로부터 수대의 전차가 접근해 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

일선에는 전차와 75mm 무반동총, 그리고 보병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던 미군들은 전방에서 다가 오는 전차들의 엔진 소리와 전조등(前照燈)의 불빛,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그 주행(走行) 속도 등으로 미루어 이 전차들을 쉽사리 적 전차로 속단할 수는 없었다. 이들이 사격을 늦추고 조

명 수류탄을 먼저 터뜨렸을 때, 거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군 전차들이었다.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미 제 1기병사단 제 7기병연대 예하의 한 특수임무부대가 지난 9월 22일 08:00, 대구 북방의 다부동 바로 서쪽에서 북상을 시작한 사실만은 앞서 기술한 바 있었다. 그 주축 부대인 제 3대대장의 이름을 붙인 「린치」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Lynch)는 상주(尙州)와 보은(報恩)을 거쳐 계속 북으로 달렸었다. 9월 26일 11:30, 보은에서는 약간의 보병이 수반된 전차 1개 소대가 전투에 서서 먼저 출발하였다. 도중에 미처 연료 보급을 받지 못한 이 전차소대는 6대의 남은 연료를 굵어 모아 3대만으로 다시 출발하여 이날 20:30 쯤에는 천안(天安) 남쪽에서 경부 국도에 들어 섰다.

오직 전진에 방해되는 적들만을 쓸어 버리면서, 이미 전의(戰意)를 상실한 적의 무리가 준비한 천안(天安) 거리와 오산 북쪽의 적 전선도 거침없이 통과한 이 작은 전차 부대가 마침내 제 10 군단의 남쪽 전선에 도착한 것이었다. 때는 9월 26일 22:26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후속하던 「린치」 특수임무부대의 선봉 중대는 다음날, 즉 9월 27일 08:26에 오산 북쪽의 한 작은 다리 위에서 미 제 31보병연대 H중대와 연결을 맺게 되었다.

4. 시가지 전투의 마지막 날

9월 27일의 새벽이 밝아 오면서 한가위의 만월(滿月)도 기울기 시작하였다. 일찌기 우리의 조상들은 기우는 달을 보고 삶의

바른 자세를 터득했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은 막다른 극한 상황에 몰린 침략자의 말로(末路)를 예고하는 경구(警句)였다. 정녕 그들의 밤은 지나 갔고, 서울은 새로운 날을 맞았다.

9월 27일, 미 제 1 및 제 5 해병연대의 공격 개시 시간은 똑같이 06:30으로 예정되었다. 대부분의 서울 도심 지역을 통해 공격하게 되는 제 1 해병연대는 처음부터 좌·우전방에 제 2 및 제 1 대대로 병행 공격 대형을 취할 예정이며, 제 5 해병연대에서는 중앙청(中央廳)을 공격 목표로 하는 제 3 대대가 서대문—영천(靈泉) 간의 도로 바로 북동쪽에 있는 구릉(丘陵) 지대까지 전진하면 후속 제 1 대대를 그 좌전방으로 진출시켜 인왕산을 목표로, 함께 공격에 나서도록 예정하고 있었다.

남대문쪽으로 진출하려는 제 1 해병연대 제 1 대대가 전달처럼 서울역 광장 건너편에서 대항하는 적과 치열한 사격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제 2 대대는 프랑스 대사관 일대를 소탕하면서 충정로를 따라 서대문 네거리 쪽으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제 2 대대 좌측으로 충정로 건너편에서는 아현터널 동쪽 저지대의 주택가를 소탕 중이던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도 서대문—영천 간의 전차길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 1 및 제 5 해병연대의 전선은 마침내 이날 09:30 쯤 서대문 네거리 가까이에서 연결되고, 이들 양 연대 예하의 서로 인접한 2개 대대는 나란히 협조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접 대대와 연결이 이루어진 잠시 뒤에 적의 저항과 바리케이드를 뚫고 공격을 계속한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는 1시간이 못되어 서울 중학교와 그 주변의 구릉 지대를 확보하였다. 이때, 전차를 동반한 D중대를 선두로 하여 서대문 네거리에서 광화문



사진 27. 시가지 전투.

쪽으로 진격하던 제 1해병연대 제 2대대는 방벽과 대전차화기로 맞서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고전 중이었으며, 이들의 우측에서도 전차를 앞세워 서울역 광장을 건너 선 제 1대대가 남대문 쪽의 큰길로 접어들었으나, 그 길 역시 어느 길 못지 않은 방벽으로 가로 막혀 있었다.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거둬먹고, 그럴수록 희생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덧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공격 부대들은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시가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투 방법도 한결 개선되어 갔다. 전차와 공병과 보병의 협동이 훨씬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시에 전진하던 전차들은 공격의 간단을 막기 위해 교대로 전진하였다. 전투기들은 건물이 내뿜는 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상 부대의 진격에 한발 앞서서

바리케이드에 로켓트와 기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전투기들의 저공 비행과 폭음이 늘어 갈 수록, 직접적인 공중 공격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적들의 사기는 저하하게 마련이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차례 적과 접전한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 예하의 G중대는 전차의 충격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돌파하자, 단숨에 중앙청으로 진입하였다. 이날 15:08, 마침내 G중대는 중앙청을 확보하고 적의 깃발을 끌어 내렸다. 제 1해병연대 제 1대대는 서울역으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500m 내외의 거리에서 적이 매설한 지뢰와 대전차포에 의해 전차 1대씩을 파손당하고 진격마저 부진했었으나, 오후의 반나절을 넘길 무렵에는 남대문 일대의 장벽을 넘어 섰다. 이 대대 좌측의 제 2대대도 같은 날 15:30 쯤에는 덕수궁(德壽宮) 일대를 거쳐 시청(市廳) 앞으로 진출하였다.

남대문에서 시청앞과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중앙청에 이르는 길은 서울의 심장 부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울의 상징적인 거리였다. 시가지 전투는 마침내 서울의 심장부에 이르면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를 이용한 적의 저항은 사실상 여기서 종식되었다.

미 제 5해병연대는 이날, 제 3대대가 창경원(昌慶苑) 일대까지 확보한 데 이어 뒤늦게나마 제 1대대가 무악재 동쪽으로 인왕산에서 북악산에 이르는 능선과 그 남쪽 사면(斜面)을 장악함으로써, 연대에 부여된 마지막 공격 임무를 완수하였다. 한편, 제 1해병연대에서는 제 1대대가 을지로(乙支路)를 따라 성동 원두(城東原頭)까지,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선회한 제 2대대가 중앙청 동쪽의 안국동(安國洞)과 종로(鍾路) 거리를 따라 동대문(東大門)까지

진출하였다. 간간이 엮빠진 저격병들의 사격을 받았고, 때로는 화염과 연기를 내뿜는 건물들 사이를 빠져 나가야 했지만, 심장부를 통과한 뒤의 전진은 훨씬 빨라졌다. 이들 제 1연대의 공격부대들은 이미 그들의 연대장으로부터 소탕전은 한국 해병들에게 맡기고 서둘러 전진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금화산 일대에 배치된 제 1중대를 제외한 한국 해병 제 1대대는 잔여 부대로 서대문 일대를 소탕하고, 계속해서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를 뒤따라 전진하였다. 전날 오후 늦게 아현동고개 너머까지 진출했었던 제 7중대는 이날 정오 쯤 서울역 쪽으로 잔출하여 제 2대대와 합류하였으며, 이 대대는 서울역 일대를 소탕한 뒤 남대문 쪽으로 전진하였다. 한편, 공격부대의 전진에 따라 공백 지대가 된 용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적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날 밤늦게 사령부 직접 지휘를 받는 제 25중대가 한강교 쪽으로 이동했었다. 날이 밝으면서부터 이들은 용산 일대의 시가지를 소탕하고 삼각지(三角地)에 이르러 육군본부의 막사(幕舍)들을 수색하였다.¹⁸⁾

한국 해병들의 전법(戰法)도 그동안 어제 오늘이 다르게 나아졌다. 건물 수색은 3인 1조(三人一組)로 실시하였다. 건물 밖에서 1명이 경계하는 동안, 건물 안으로 들어 간 2명은 수색과 엄호를 나누어 하게 된다. 소대장과 분대장들로부터 닭달질을 당해 오던 신병들도 이제는, 줄줄이 큰길을 따라 가기보다는, 산개하여 골목들을 살살이 뒤져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대개 성격이 활달하고 동작이 날랜 해병들은 어느덧 미 해병들과 어울려 나란히 전진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거둬되는 바리케이드 싸움에 지치거나 질려버린 미 해병들을 대신하여 곧잘 싸웠다.

제 1 대대가 신문로(新門路)에서 효자동(孝子洞)에 이르는 복잡한 주택가들을 소탕하는 동안, 남대문을 통과한 제 2 대대의 소탕전도 한동안 더 계속되었다. 중앙 우체국을 지나 퇴계로(退溪路) 쪽으로 진출한 제 5 중대는 날이 저물자 해군본부 청사(廳舍)에서, 그리고 제 7 중대는 을지로 입구의 내무부 자리에서 각각 야간 숙영을 하게 되었고, 제 6 중대와 함께 시청(市廳) 쪽으로 진출하였던 제 2 대대 본부는 조선(朝鮮) 호텔에 지휘소를 정하였다. 거기서 가까운 덕수궁과 그 주변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 관저(官邸) 일대에 미 제 1 해병연대 제 3 대대와 연대 지휘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도 이날 15:00 에는 북아현동의 한성(漢城) 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그 서쪽으로 큰고개 너머 이화여자 대학교에는 미 제 5 해병연대 지휘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5. 시가지 확보

한·미 해병 부대는 마침내 서울 시가지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확보해야 할 목표가 남아 있었고, 명실 상부한 서울의 수복을 위해서는 전 시가지를 소탕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9월 28일에 완수해야 할 한·미 해병 부대의 과업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

9월 28일 06:45, 전날의 전진 대형을 그대로 유지한 미 제 1 해병연대 예하의 2개 돌격 대대는 목표 A를 탈취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아리고개 바로 동쪽의 고지대에 선정된 이들의 공격 목표는 실지로는 2개의 고지로 되어 있었다. 경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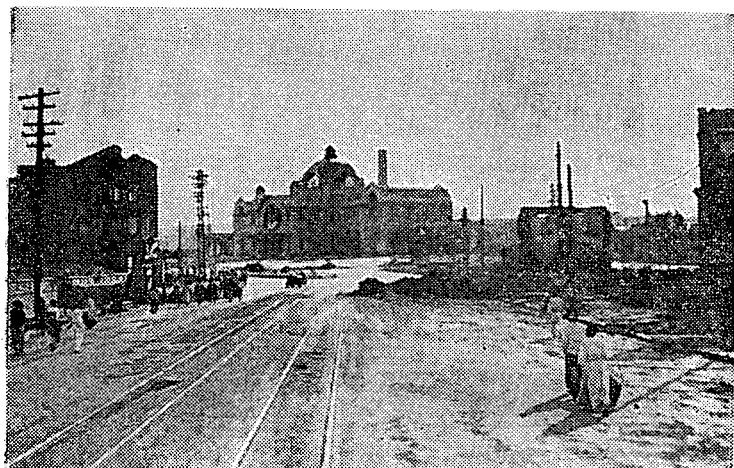


사진 28. 폐허가 된 서울 시가지.

저항을 물리치면서 약 1시간 안에 목표로 접근할 수 있었던 좌전방의 제 2대대에 비하여, 우전방의 제 1대대는 적의 심한 저항을 받았으며, 이들의 전진은 진출로 상에 매설된 지뢰 때문에 더욱 지연되었다. 결국에는, 제 2대대가 보다 쉽고 빠르게 목표 북단(北端)의 132 고지를 장악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제 1대대는 이날 18:00 쯤에야 목표 남단(南端)의 133 고지를 점령하고 뒤늦게 제 2대대와 더불어 목표 상에 방어 진지를 준비하였다.

서울의 북동쪽으로 뻗어 나가는 의정부(議政府) 방면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또하나의 목표가 A목표 북서쪽의 177 고지를 중심으로 미아리 공동 묘지 일대에 선정되어 있었다. 최초에는 제 5해병연대에 할당되었던 이 목표 B가 작전 도중에 제 7해병연대의 목표로 재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앞서 기술한 바 있다. 제 1해병연대가 목표 A를 완전히 확보할 즈음에는, 이날 아침 북

악산 북쪽의 험준한 능선을 넘어 공격을 강행한 제 7 해병연대 제 2 대대에 의하여, 마침내 이 목표 B도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26일 서울 북쪽의 험준한 산악 지대를 통해 공격에 나섰던 제 7 해병연대 제 2 대대는 그날에 장악하지 못했던 목표 343 고지를 그 다음날 해질 무렵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확보했다. 한국 해병 제 23 중대와 함께 공격을 속행한 제 3 대대 역시 유리한 고지들을 이용해 대항하는 적의 저항을 받아, 이날 중에는 인왕산 북쪽의 능선 일부를 장악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후로 접어들 무렵, 후방 지역인 능곡 일대에는 중대 규모의 적 부대가 출현했었다. 이들 적과 교전 중인 제 7 해병연대 제 1 대대 소속의 일부 중대들을 증원하기 위하여 해병 제 5 대대의 다른 2개 소총중대가 출동하였다. 곧 격퇴된 적들은 북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9월 27일 중의 제 7 연대 작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았다.

9월 28일, 이른 아침 제 7 해병연대 제 2 대대는 전날에 확보한 목표 G, 즉 343 고지를 발판으로 최종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진출하던 이 대대는 다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하향 능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한낮이 조금 못되었을 즈음에는 창덕궁 북쪽의 133 고지인 목표 F를 별다른 저항 없이 확보하였다. 한편, 제 3 대대는 크게 약화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아침 일찍 목표 D인 인왕산의 북쪽 능선 일대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인왕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한국 해병 제 23 중대와 함께 계속 진출한 이 대대는 비교적 손쉽게 목표 E인 북악산을 점령하였다.¹⁹⁾

9월 28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제 7 해병연대 제 2 대대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북동쪽으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정릉 일대를 통과하면서 이 대대는 적의 심한 사격을 받기도 했으나, 선두 공격 부대인 D중대가 이날 오후 늦게 목표 B의 177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들의 전진 중 제 5 및 제 1해병연대와의 연결이 차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도 탈환을 위하여 선정된 모든 목표가 드디어 확보된 것이다. 그동안 김포 비행장 남쪽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미 해병사단 지휘소도 이날 중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육군 본부 주변의 막사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20)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의 시가지 소탕은 공격 부대를 뒤따라 계속 전진한 해병 제 2대대가 주로 담당하였다. 중앙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선을 경계로 하여 제 1대대가 그 서쪽 지역을 다시 소탕하는 동안, 제 1중대는 금화산의 고지대에서 내려와 중앙청 주변의 대대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총격전이 한차례씩 스쳐 간 거리에는 어느 사이엔가 시민들이 뛰어 나왔다.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새로운 소식은 빨리 퍼진다. 서울 수복의 소식은 전파(電波)를 타고 방방 곡곡으로 전파되었다. 부산 거리에는 특호 활자로 인쇄된 신문 호외가 뿌려지고, 역전 광장에서는 수도 탈환을 축하하는 시민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만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서울 거리에서는 새 삶을 찾아 환호하는 시민들 말고 부모 형제와 가재(家財)를 잃고 통곡하거나 탄식의 눈물을 뿌리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반갑다고 불렀고, 슬픔에 겨워 불들 때면, 함께 일회 일비(一晝一夜)하지 않을 수 없는 장병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분노의 불길이 솟구쳤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는 시급히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민간인 사상자의 처리, 난민의 구호, 그리고 공공 시설의 복구 등, 시급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맡아 볼 정부 기관의 선발대가 이미 지난 9월 22일 부산에서 공로(空路)로 파송되었다. 9월 26일 영등포에 임시로 사무소를 마련했던 이 기봉(李起鵬) 서울 특별시장은 9월 28일에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구호 및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무렵, 선편(船便)으로는 서울·경기 일원의 수복 지역 치안을 담당할 경찰과, 그리고 헌병 부대도 이동 중에 있었다.

민간인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미 해병사단에 의하여 재빨리 개설되었으나, 절대적인 수송 수단의 결핍으로 인하여 손수 병원을 찾아 가는 부상자에게만 혜택이 미칠 수 밖에 없었다. 해상 수송된 약 50톤의 쌀이 제 10군단을 통해 서울에 반입(搬入)되었으며, 정부 공무원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서울 지역 안에서도 많은 식량이 확보되어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식량난(食糧難)도 일단 해결 될 수 있었다. 수도와 전기, 기타 공공 시설의 복구 사업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활발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진척되었다.²¹⁾

다른 한편에서는, 9월 29일 서울에서 환도식(還都式)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도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맥아더」장군은 서울을 실제보다는 좀더 빨리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가장 빠르게는 9월 21일 즈음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는대로 한국 정부에 되돌려 주는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전황은 이러한 생각들이 기대했던대로 조기에 실현되는 것을 허용치 않았던 것이다. 그뒤, 수복되는 서울에서 이



사진 29. 한강 부교(浮橋).

러한 의식을 9월 29일에 거행하려는 「맥아더」 장군의 복안은 9월 24일 주한 미국 대사에게 통보되었으며, 그날로 이 승만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이 대통령과 정부 요인 및 주한 외교 사절들을 서울로 태우고 가기 위해서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였던 「바탄」호와 C-54 수송기 1대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22)

서울의 작전 부대들도 중앙청에서 곧 거행될 환도식을 수일 전부터 대비하고는 있었다. 제 10군단에서는 이 역사적인 의식을 줄머 장엄하고 화려하게 치루려는 생각에서 군악대와 의장대의 준비를 서둘고 있었으나, 「맥아더」 장군의 지시로 그러한 준비는 중지되고 말았다. 서울의 작전 부대들이 준비해야 할 일 중에서 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한강의 주교(舟橋) 설치 문제였다. 「맥아더」

장군은 9월 29일 김포 공항에 내리면 육로(陸路)로 서울에 입성(入城)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급히 공수해 온 장비로 마포 도로에 연결되는 주교를 가설하기 위하여 군단 공병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주교를 때 맞추어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작전용으로 미 해병사단이 가설했던 문교(門橋) 장비까지도 해체·동원시켜야만 했고, 철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²³⁾

6. 환 도 식

9월 29일, 새로운 소식은 역시 빠르게 전파되었다. 환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의 시민들은 손과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서울 시민들로서는 모든 시름을 잠시 제쳐 두고 축포(祝砲)라도 쏘아 이날의 기쁨을 더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도 서울의 북동쪽 전선에서는 공격 부대의 전진을 일시라도 자지시켜 보려는 듯 박격포 사격과 역습으로 새벽부터 대드는 적과 미 해병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미 해병들은 이날의 역사적인 행사가 거행될 중앙청 일대와 한강—중앙청 사이의 도로 연변 경비도 담당해야만 했다.

미 해병사단장 「스미드」 소장은 이날 행사를 위한 경비 임무를 주로 제 5해병연대에 맡기되 가급적 미 해병들이 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그리하여 제 5연대 예하의 제 3대대가 중앙청 외곽에, 그리고 제 1대대는 그 북쪽의 고지대에 경계 배치되었으며, 새로이 주교가 설치된 마포 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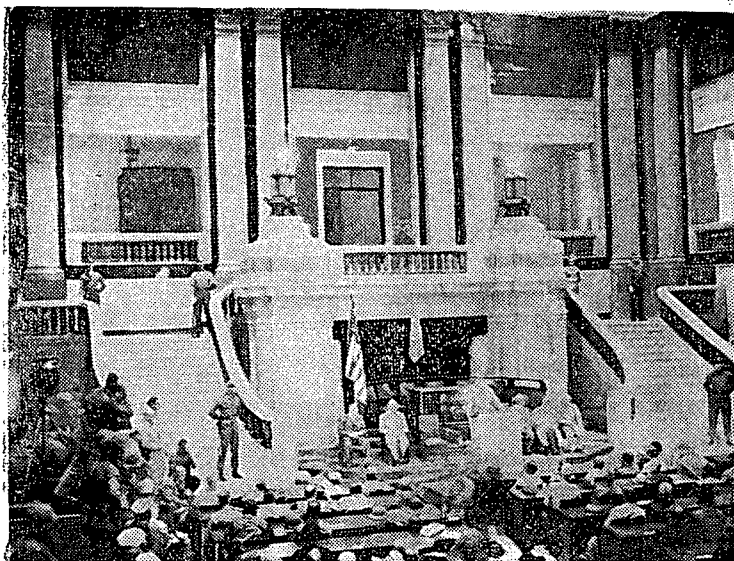


사진 30. 환 도 식.

부터 중앙청에 이르는 도로 연변은 한국 해병 제 2대대와 함께 미 제 1해병연대 제 3대대가 경비를 맡았다. 그리고, 경무대(景武臺) 경비를 위하여 긴급 차출된 한국 육군 제 17연대의 일부 병력과 합동으로 한국 해병 제 1대대가 중앙청 내곽에 삼엄한 경계망을 구성하였다. 24)

이날 아침 부산을 출발했던 이 대통령 일행의 비행기는 10:30쯤 김포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는 앞서 일본 도쿄(東京)로부터 비행(飛來)한 「맥아더」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75세의 노(老)대통령과, 이 해로 70세가 된 노장군은 서로 겨안으며 감격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이 승만 대통령은 한사코 「맥아더」 장군을 앞세워 서울로 향하였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 먼저 환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이다. 함께 한강을 건너 이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은 연도(沿道)에 나온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중앙청에 도착하였다. 25)

환도식은 중앙청의 중앙 홀에서 거행된다. 이 중앙청은 앞서 불을 지르고 도주한 적들의 소행으로 건물의 서쪽편 일부가 그 불길에 휩싸인 일이 있었다. 이때 연기에 그을린 바 있는 건물 안에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유리창도 산산이 깨어진 채로였다. 하지만, 홀 안에 준비된 의자에는 주로 부산과 극동 미군 사령부에서 초대되어 온 손님들, 그리고 작전 부대의 각급 지휘관들로 가득 찼다. 정오로 접어들 무렵, 이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나란히 중앙 홀로 들어 섰다. 한동안 소란스러웠던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홀 중앙의 단상에 나와 선 「맥아더」 장군은 식 진행을 위한 별도의 사회자 없이 손수 식을 이끌어 나갔다.

『대통령 각하 :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인간 규범에 합당한, 위대한 희망과 영감(靈感)을 안고 싸운 우리 UN군 부대들은 마침내 이 유서 깊은 한국의 수도를 해방시켰습니다…….』

수도 서울의 기능과 권한을 한국 정부에 돌려 준다는 요지를 담은 「맥아더」 장군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감격적이었다. 일순(一瞬)의 고요가 흐른 뒤 신(神)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기도문(主祈禱文)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좌중(座中)의 인사들도 모두가 「맥아더」 장군과 한마음이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누구보다도 더 감동이 클 수 밖에 없었던 이 대통령은 단상에 나와서도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과, 다른 제복의 참석자들을 둘러 보면서 UN군의 노고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두루 승리자로서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맥아더」장군의 업적과 UN군 사령관으로서의 탁월한 통솔력을 극구 찬양한 이 대통령은 그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였다.²⁶⁾

식이 진행되는 동안, 결코 이 장엄한 의식의 일부로 조화로운 것이 될 수는 없는, 따라서 유쾌롭지 못한 포성이 이때끔 은은하게 들려 왔다. 이보다 더 좌중을 불안케 하고, 특히 모자를 쓰지 않은 인사들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은 천정에서 달랑거리는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면서 내는 소리였다. 다행스럽게도 식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다치지지는 않았다. 장엄하면서도 간략하게 진행된 이 역사적인 환도식이 끝나고, 그날로 「맥아더」장군은 다시 그의 사령부로 돌아 갔다.

제 10 군단은 마침내 서울을 탈환하였으나, 낙동강을 돌파한 제 8군의 부대들이 진격해 오기까지,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서울 외곽에 일련의 차단 진지를 구축하여 서울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쪽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적에게 제 8군이 철퇴(鐵退)를 가결할 때, 이를 받쳐 주는 모루, 즉 철침(鐵砢)의 역할을 해 주는 일이었다.

제 10 군단은 미 해병사단과 제 7 보병사단 사이의 경계선을 북동쪽으로 더 연장시키고, 한국 해병대를 한국 육군 제 17 연대가 위치하고 있던 동쪽의 외곽 지역으로 이동시켜 미 해병사단의 남쪽 측방을 보강토록 하는 한편, 한국 해병 제 1 대대는 서울 남동쪽으로 한강을 건너 미 제 7 사단 지역의 후방 경계를 담

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사단 명에 왜
거 이미 이날 00:01을 기하여 원대 복귀한 예하 제 1 및 제 2
대대로 서울 시가지 경비를 담당할 준비를 진행 중이었으며, 사
령부는 이날 18:00 까지 다시 해군 본부 청사로 이동하였다. 그
러나, 제 10 군단의 부대 재 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시가지 경비
임무는 한국 육군 제 17 연대에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
이동은 9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7. 작전의 종결

제 10 군단이 애당초 구성된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였
다. 그러므로, 서울 탈환이 거의 확실해지면서부터는 이 작전 후
의 제 10 군단은 어찌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하
였다. 대체로 그 의론(議論)이 귀결되는 초점은 제 8군에 흡수되
거나, 아니면 그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리라는 데에 있었다. 「맥
아더」장군의 복안에 따라 마련된 그 해답이 환도식 직후에 제시
되었다. 제 10 군단은 서울 지역에서의 임무를 제 8군에 인계하고
인천으로 다시 집결하며, 원산(元山)에 새로운 상륙작전을 감행하
여 서해안으로 진격하는 제 8군과 연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과
20여일의 여유 뿐으로, 이 작전은 10월 20일을 잠정 D일로 하
고 있었다.

제 8군에 흡수되거나 제 8군에 현 진지를 인계하고 이동하는
두 경우에 있어서, 제 10 군단이 수행해야 할 과업은 크게 달라진
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현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하는 외에 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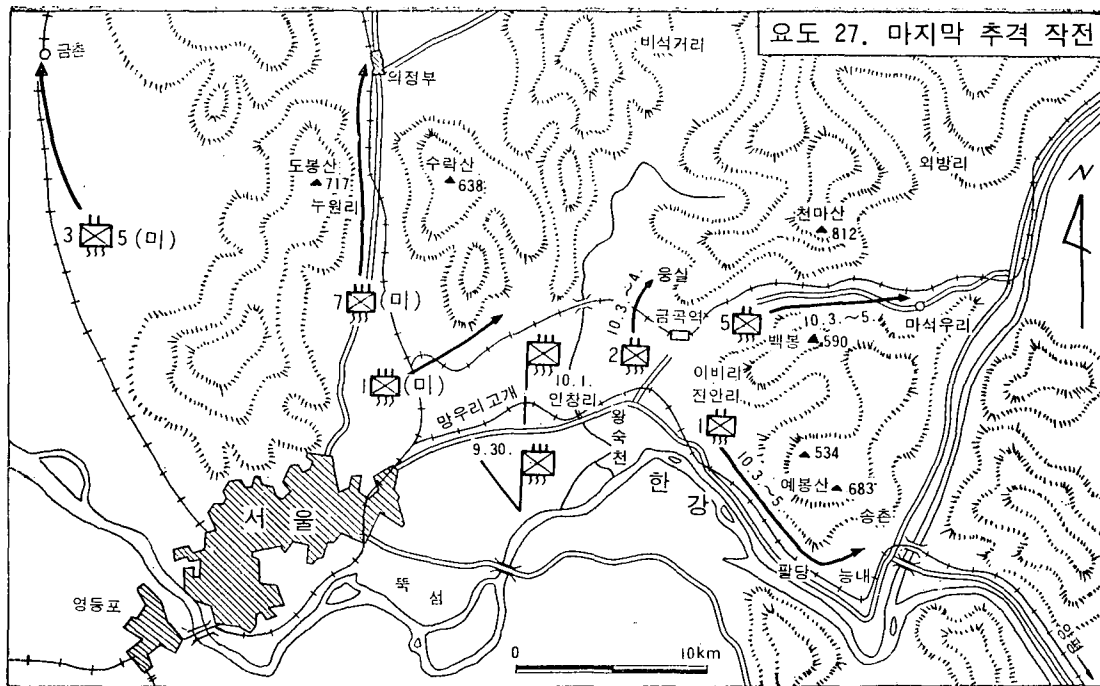
른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대 이동 및 탑재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며, 공격작전을 이어 받을 제 8군을 위해서는 공격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이다.

9월 30일, 제 10 군단은 미 해병사단과 제 7 보병사단의 경계를 서울 남쪽으로는 한강을 따라, 그리고 그 북동쪽으로는 북한강(北漢江)을 따라 다시 조정하는 한편, 미 해병사단 예하 연대들로 하여금 서울 북동쪽의 의정부(議政府)와 북서쪽의 금촌(金村)까지 공격해 나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사단 남측방으로 다시 확장된 경춘 국도와 북한강 사이의 지역에는 한국 해병대를 전개시켜, 그 동쪽으로 국도와 강이 마주치게 되는 곳까지 공격작전을 계속해 나가도록 조치하였다.

서울 북서쪽의 금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작전은 10월 1일에 개시되었다. 이에 앞서, 의정부 쪽으로 전진하는 제 7 해병연대 제 1 대대를 대신하여 수색(水色) 북쪽으로 전개하였던 미 제 5 해병연대 제 3 대대가 이 작전을 담당하였으며, 이때금 약간의 저항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10월 2일 오전 중에 금촌 지역을 확보하였다.

의정부를 향한 제 7 해병연대의 공격은 사실상 9월 30일 07:00 부터 시작되었다. 제 2 대대가 미아리 공동 묘지 북서쪽의 224 고지 일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 진지를 향해 공격하는 동안, 그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제 1 대대가 병행 공격을 실시하였다. 10월 1 일에는, 앞서 한국 해병 제 23 중대와 함께 서울 북쪽의 산악 지대를 횡단했던 제 3 대대가 도로를 따라 전차와 함께 제 1 대대 우측에 나섬으로써 공격은 유기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요도 27. 마지막 추격 작전



날 오후, 제 3대대가 누원리(樓院里) 일대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도봉산(道峰山)과 수락산(水落山)으로 이어지는 도로 양측의 고지대에 저지 진지를 구축한 적들은 박격포와 대전차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10월 2일 이른 아침에 재개된 공격은 항공 및 포병의 지원까지 받았으나, 지뢰로 뒤덮여 있는 도로는 참호 속에 틀어 박힌 적들의 사격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공병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날의 공격에서는 제 1대대가 도로 동쪽으로 우회하여 능선을 따라 누원리 동쪽의 한 고지를 장악했을 뿐, 제 3대대의 전진 거리는 300m를 넘지 못하였다. 10월 3일에는 제 3대대가 일찍 도봉산 쪽의 고지대로 진출하면서 도로 우측의 제 1대대와 협공하는 동안, 이들 대대 사이로 제 2대대가 전차와 함께 진출하면서 공격에 가담하였다. 전날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들은 벌써 도주한 뒤여서 공격은 의외로 빨리 진전되었다. 이날 17:10, 제 7해병연대는 마침내 의정부를 확보하였다.

9월 30일 15:00, 앞서 제 17연대 제 1대대가 위치하고 있던 서울 동쪽의 면목동(面牧洞)으로 이동 완료한 해병대 사령부는 같은 시간에 하달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4-50을 수령하였다. 동쪽으로 더 전진하여 한강과 북한강의 합류 지역 일대에 차단 진지를 설치하라는 새로운 명령이었으며, 이와 함께 장병 65명으로 구성된 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 파견대가 이 작전을 위하여 지원되었다.²⁷⁾ 10월 1일 13:00에는 미 제 7해병연대에 배속되었던 제 5대대가 원대 복귀하였다. 이날 망우리교개동쪽의 인창리(仁倉里)로 사령부를 옮긴 해병대는 전방으로 경춘

국도 북쪽에 제 5대대를, 그리고 그 남쪽에 제 2대대를 포진시켜 다음날에 있을 작전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좌측방의 미 제 1해병연대는 제 7해병연대와의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을 메우면서 북동쪽으로 그들의 전선을 확장하고 있었다.

10월 2일 09:00, 해병 제 2 및 제 5대대는 전날에 사전 전개하였던 대형으로 병행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전방의 제 2대대가 국도를 따라 금곡(金谷) 전방 약 4km의 거리에 이르면, 중앙선(中央線) 철도가 경춘 국도와 엇걸려 오른쪽으로 굽어 나가고, 이 철도와 나란히 양평(楊平)쪽으로 또 한가닥의 도로가 갈려 나가는 교통상의 요지(要地)가 있었다. 적들로서도 이 일대를 고수하지 못하면, 경춘 국도를 따라서 뿐만 아니라, 서울의 훨씬 남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북한강 줄기를 따라 또는 그 동쪽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퇴로가 차단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 같다. 약 700명의 병력을 가진 적 부대가 금곡 전방의 사전 준비된 진지에 배치되어 있었다.²⁸⁾

도로를 강제할 수 있는 양 측방의 고지들로부터 적의 기습적인 사격이 시작된 것은 선두의 제 6중대를 뒤따라 제 7중대가 철로를 막 횡단했을 때였다. 뒤로는 화기중대와 제 5중대가 중대로 따르고 있었다. 가장 심한 사격을 받은 것은 제 6중대였으나, 때때의 거의 전부가 적 박격포의 사거리 안에 있었다. 한동안 고전을 면할 수는 없었다. 치열한 사격전 끝에 전방 중대들은 공격기세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제 6중대가 도로 좌측으로 돌파를 시도하였다. 제 7중대는 도로 우측으로 공격력을 집중시켰다. 오후 늦게서야 대대는 진안리(鎭安里)로부터 이비리(二碑里)에 이르는 고지들을 장악하였다. 전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서 적들은 사실상 퇴각하고 말았다. 적 사살 200, 포로 50명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제 2대대의 손실도 컸다. 전사자가 16명, 전상자가 63명이나 되었다.²⁹⁾

10월 3일에는 사령부의 변경된 공격 계획에 따라 제 5대대가 금곡을 거쳐 경춘 국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미 제 7보병사단으로부터 전날 늦게 원대 복귀하였던 제 1대대가 이날 13:30을 기하여 한강변을 끼고 남동쪽으로 진출하였다. 적의 저항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10월 4일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작전은 계속되어, 동쪽으로 진출한 제 5대대가 마석우리(麻石偶里)를 확보하고 남쪽으로는 제 1대대가 팔당리(八堂里)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제 2대대가 웅실(熊室)까지 진출하여 예정된 차단 진지를 형성하였다. 10월 5일 08:00, 마침내 공격작전을 끝낸 해병대는 다시 인천리에 집결한 뒤, 미 해병사단의 지원 차량 90대에 분승하여 10월 7일 인천(仁川)에 지정된 집결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무렵, 해병 제 3대대는 김포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김포 반도의 작전을 담당하고 있던 미 육군 제 187공수연대전투단 제 3대대가 지난 10월 2일에 다른 작전 임무를 위하여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에는 다시 미 해병사단에서 재원된 약간의 부대들과 함께 해병 제 3대대가 김포 반도 전방에 대한 정찰 활동을 계속하였다. 10월 6일에는 강화도(江華島)에 대한 정찰 임무가 제 10군단으로부터 부여되었다가 곧 취소되었다. 해병 제 3대대도 10월 7일에는 인천으로 이동하였다.³⁰⁾

미 해병 사단의 전 부대들은 10월 6일과 7일 사이에 인천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인천에서 승선하게 될 제 10군단 사령부

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직할 부대들은 또다른 탑재항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서울 수복 후 한·미 해병 부대들이 한강 북쪽의 서울 외곽 지역에서 추가적인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대체로 인천에서 수원, 그리고 한강과 북한강의 합류 지점을 잇는 반원형(半圓形)의 한강 남쪽 지역에 차단 진지를 완성했던 미 제 7 보병사단 역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인천에 상륙했던 제 10 군단 산하의 부대로서는 한국 육군 제 17 연대만이 서울에 남게 되었다.

10월 7일, 마침내 인천—서울 지역에 대한 제 10 군단의 책임이 제 8 군에 이관됨으로써 수도 탈환을 궁극의 목표로 했던 인천 상륙 작전은 그 대단원(大團圓)을 맺었다.

8. 결 론

인천 상륙작전의 기습적인 일격(一擊)으로 전세(戰勢)는 급전(急轉)되었다. 승승 장구(乘勝長驅)하는 한국군과 UN군에게 쫓기는 적들은 완전히 지리 멸렬(支離滅裂)하고 말았다. 실제로, 낙동강 전선으로부터의 추격과 인천—서울 지역에서의 포위를 벗어나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북괴군은 25,000 내지 30,000을 넘지 못하였다. 이같은 수자는 곧 「맥아더」 장군 특유의 이 전략이 거둔 성공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치(數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³¹⁾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의 작전을 주도하였던 미 해병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거둔 전과(戰果)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과를 적절하게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으로

열거하였다.

(1)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 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

(2)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여타 부대들의 공격이 이에 수반됨으로써 적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3)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 작전에 의해서 인천 항만 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 시설이 북진(北進) 작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³²⁾

이러한 성과들을 거두기까지, 즉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동안, 가장 격렬한 전투를 치루었던 미 해병사단은 전사 415명(부상 후 사망한 49명 포함), 부상 2,029명 및 실종 6명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해병대가 전사 97명, 부상 300명, 그리고 실종이 16명에 달하였다. 이에 버금가는 손실을 입은 부대는 미 제 7 보병사단 중의 제 32연대로서 전사 66명, 부상 272명, 그리고 실종이 47명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이같이 구체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손실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한국군과 UN군의 총 손실은 4,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집계는 가능할 뿐이다.

전과 통계(戰果統計)의 정확한 산출 역시 어려운 일에 속한다. 제 10 군단 보고에 의하면 사살로 산정(算定)된 적의 총수는 14,000명, 그리고 전투를 통한 포로가 7,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살 통계를 한 예로 들어 보면, 미 해병사단의 13,666명과 미 제 32 보병연대의 3,000명만을 합쳐도 16,666명에 달한다. 따라서 제 10 군단의 전과 통계는 최소한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파

된 적 전차는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자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50 대에 달한다.³³⁾

이제까지 살펴 본 전과가 앞서 작전 과정에서 설명된 적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이해되려면 적정에 대한 다소간의 추가 설명이 여기에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상륙 이전의 적장 판단에서는, 조직적인 부대로 서울에 있는 적 병력을 약 5,000 명으로 보았었다. 실제로는 서울에만 약 8,000 명이,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별도로 5,000 명의 적 병력이 있었으며, 인천 상륙이 감행된 뒤에 증원된 적 부대가 적어도 20,000 명에 달했던 것으로 작전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한강과 수원 사이에 최소한 1,000 명이, 그리고 수원 남쪽으로 오산 일대에 2,000—3,000 명이 있었다. 따라서 인천—수원—서울 일원에서 전투에 가담한 적 부대는 30,000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며, 그 밖의 주변 지역에 있었던 부대 또는 너무 늦게 도착했던 부대들로서 미처 동원되지 못한 잡다한 병력이 10,000 명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⁴⁾

여기서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보의 중요성이다. 적정의 과소 평가는 결과적으로 전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희생을 치루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전 상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은 모든 군사 분야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 해이해지거나 소홀해지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예는 이미 한강 도하작전의 최초 실패 원인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다. 적정과 관련하여 상기(想起)되어야 할 사실은 적의 공중 및 해상 대응 능력이 이 작전 기간 중에는 거의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작전에

서와 같은 제공·제해권이 장차의 작전에서는 결코 기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전사(戰史)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은 전사의 한 장(章)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맥아더」 장군에게서 비롯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 힘은 한강변에서의 구상(構想)을 가능케 한 「맥아더」 장군의 군사적 예지(叡智)와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 작전의 성공을 보장케 하는 또하나의 요소는 미 해군·해병들의 전문적인 상륙전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힘의 배경 요소로서 모든 작전 참가 부대와 그 구성 요원들을 또한 빠뜨릴 수는 없다.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리지웨이」 장군의 다음과 같은 찬사(讚辭)를 여기에 어울리는 결어(結語)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대담한 구상(構想)과, 전문적 수완에 의한 계획수립, 게다가 용감하고 공격적이며, 숙달된 작전 수행 역량으로 해서 이 작전은 전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35)

부록 1.

특수 용어(약어) 해설

ADCOM—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사령부
AGC—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 기함
AKA—Attack Cargo Ship	공격 화물 수송함
AMS—Motor Minesweeper (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 연락 중대
APA—Attack Transport	공격 인원 수송함
APD—High Speed Transport	고속 수송함
ASCOM—Army Service Command	육군 기지창
ATF—Fleet Tug	예인함
BB—Battleship	전함
BLT—Battalion Landing Team	대대 상륙단
CA—Heavy Cruiser	중(重) 순양함
CP—Command Post	지휘소
CL—Light Cruiser	경(輕) 순양함
CV—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 항공모함
CVL—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Destroyer	구축함
DUKW—Amphibious Truck (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 양용 트럭
FBHL—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Fleet Marine Force	함대 해병대
GQ—General Quarters	전투 배치
SPOG—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 전략 계획단
JTF—Joint Task Force	합동 기동 부대

KLO—Korean Liaison Office	한국 연락 사무소
LCM—Landing Craft, Medium	중형 상륙정
LCVP—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 주정
LD—Line of Departure	공격 개시선
LF—Landing Force	상륙군
LSD—Landing Ship, Dock	상륙 선거함
LSMR—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켓트 포함
LST—Landing Ship, Tank	전차 양륙함
LSU—Landing Ship, Utility	대형 상륙정
LVT—Landing Vehicle, Tracked	수륙 양용차
LVT(A)—Landing Vehicle, Tracked (Armored)	장갑 수륙 양용차
MAG—Marine Air Group	해병 비행 전대
MAW—Marine Air Wing	해병 항공 사단
MTT—Mobile Training Team	이동 교육반
OP—Observation Post	관측소
PC—Submarine Chaser	구잠함
PF—Frigate	호위함
RCT—Regimental Combat Team	연대 전투단
RLT—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 상륙단
SFCP—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 사격 통제반
TAC—Tactical Air Command	전술 항공 본부
TF—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 부대
TG—Task Group	기동 전대
TTU—Troop Training Unit	부대 훈련대
USAFIK—U.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 전투기 대대
VMF(N)—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 전천후 전투기대대
YAK—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부록 2.

외래어 표기 대조표

(1) 인명 (人名)

Almond	아몬드	Ewen	어원
Anderson	앤더슨	Forney	포니
Andrewes	앤드류스	Gay	게이
Austin	오스틴	Hagenah	해그나
Barr	바르	Hannum	해넘
Barrow	배로우	Harris	해리스
Bohn	보운	Harrison	해리슨
Bowser	바우저	Hartman	하트먼
Bradley	브래들리	Hawkins	호킨즈
Breen	브린	Hays	헤이즈
Capps	캡스	Henderson	헨더슨
Cashion	캐손	Higgins	히긴즈
Cates	케이츠	Houghton	호튼
Church	처치	Howard	호워드
Clark	클라크	Jaskilka	재스킬카
Collins	콜린즈	Joy	조이
Counselman	카운슬먼	Kean	킨
Craig	크레이그	Ledet	레디트
Cushman	쿠쉬먼	Litzenberg	리첸버그
Davis	데이비스	Lopez	로페즈
Deptula	덱틀라	Luosey	루시
Doyle	도일	Lynch	린치
Ely	엘리	MacArthur	맥아더
Erskine	어스킨	Magness	매그니스
Eubanks	유뱅크스	McMullen	맥멀런
		McNaughton	맥노튼
		Merritt	메리트
		Montcalm	몽칼름

Muccio	무초	Wright	라이트
Muetzel	뮤첼	毛澤東	마오쩌둥
Murray	머리		
Newton	뉴튼		
Noble	노블	(2) 지명(地名)	
Puller	풀러		
Radford	래드포드	California	캘리포니아
Rickert	리케르트	Crete	크레테
Ridge	리지	Dardanelles	다다넬즈
Ridgway	리지웨이	Dunkerque	덩케르크
Roise	로이즈	El Toro	엘토로
Ruffner	러프너	Fort Benning	포트 베닝
Sears	시어즈	Gallipoli	갈리폴리
Shepherd	셰퍼드	Hawaii	하와이
Sherman	셔먼	Lejeune	리쥔
Simmons	시몬즈	New Britain	뉴브리튼
Simpson	심프슨	Paris	파리
Smith	스미드	Peleliu	펠렐리우
Snedeker	스네디커	Pendleton	펜들턴
Stelter	스텔터	San Diego	샌디에이고
Stevens	스티븐즈	Suda Bay	수다만
Stratemeyer	스트래트머 이어	Washington	워싱턴
Struble	스트러블	神戶	고베
Sutter	서터	九州	큐슈
Taplett	태플리트	東京	도쿄
Truman	트루만	佐世保	사세보
Underwood	언더우드	沖繩	오키나와
Walker	워커	横須賀	요코스카
Westover	웨스트오버	横濱	요코하마
Whitney	휘트니	伊丹	이다미
Wildman	와일드먼	板付	이다즈게
Wolfe	울프	福岡	후쿠오카

(3) 함선명 (艦船名)

Athabaskan	아타바스칸
(DD, HMCS*)	
Belfast(CV, HMS*)	벨파스트
Bexar(APA, USS*)	벅사
Cavalier(APA, USS)	캐벌리어
Charity(DD, HMS)	채리티
Collett(DD, USS)	콜레트
Endicott(DD, USS)	엔디코트
Helena(CA, USS)	헬레나
Henderson(DD, USS)	헨더슨
Henrico(APA, USS)	헨리코
Jamaica(CL, HMS)	자마йка
Kenya(CL, HMS)	케냐
Mansfield(DD, USS)	맨스필드
Missouri(BB, USS)	미주리
Montague, (AKA, USS)	몬터규
Mount McKinley	마운트 머
(AGC, USS)	킨리
Pickaway(APA, USS)	피카웨이
Rochester(CA, USS)	로체스터
Sicily(CVE, USS)	시실리
Toledo(CA, USS)	톨레도
Triumph(CVL, HMS)	트라이엄프

* HMCS : 캐나다 해군 함선.

HMS : 영국 해군 함선.

USS : 미 해군 함선.

(4) 기 타

ANGLICO	앵글리코(부대)
ASCOM	애스콤(부대)
Bataan	바탄(항공기)
Bluehearts	블루하트(작전)
Chromite	크로마이트(작전)
Corsair	코르세어(전투기)
DUKW	더크(차량)
Grace	그레이스(태풍)
Jane	제인(태풍)
Kezia	케지아(태풍)
Mustang	무스탕(전투기)
New York Herald Tribune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
Pershing	퍼싱(전차)
Shooting Star	슈팅스타(전투기)
YAK	야크(전투기)

부록 3.

작 전 일 지

월 일	시 : 분	상 황
6. 25.	04 : 00	북괴군의 전면 무력 남침이 시작됨.
	14 : 00	UN 안전보장 이사회 개최. 북괴군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 침략 행동의 즉각 중지 및 철수를 요구.
6. 27.		「트루만」 미 대통령, 미 해·공군 부대의 한국 지원을 명령.
6. 28.		북괴군 서울에 침입. 한강 인도교 폭파.
6. 29.		「맥아더」장군 한국 진선 시찰. 한강변에서 인천 상륙 구상.
7. 2.		「맥아더」장군, 자체 항공 지원을 받는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의 극동 파견을 워싱턴에 건의.
7. 4.		한국 서해안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최초의 준비 회의가 극동미군 사령부에서 개최됨.
7. 7.		UN 안보 이사회, 통합 사령부 창설 제의. 미 제 5해병연대 및 제33비행전대를 주축으로 한 미 제 1임시해병여단 발족.
7. 8.		극동미군 사령부, 전황의 악화로 상륙작전 계획 추진을 일단 중지.
7. 10.		「맥아더」장군, 극동에 파견될 미 해병여단을 사단으로 증강 파견해 주도록 미 합참에 건의. 미 제 1기병사단의 포항 상륙 결정.
7. 18.		미 제 1기병사단 포항 상륙 감행.
7. 23.		합동전략계획단이 성안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개요가 극동미군 사령부의 관계 참모부서에 회람됨.
7. 24.		UN 군 사령부 발족.
7. 25.		「맥아더」장군, 미 본토로부터 극동으로 항해 중인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을 한국으로 직행하도록 명령. 미 합참본부, 미 제 1해병사단(—1개 RCT)의 출동,

- 준비를 지시.
8. 2—3. 미 제 1임시해병여단 부산 도착. 창원 지역으로 이동.
8. 7. 「맥아더」장군, 미 제 7사단에 상륙 훈련 실시 지시.
8. 14—16. 미 제 1해병사단 주력, 극동을 향해 미국 본토 서해안에서 출항.
8. 16. 미 제10군단 발족.
8. 12. 극동미군 사령부, 「크로마이트」 작전을 위한 훈련 시달.
8. 20. 극동미해군 사령관 작전계획 108-50 하달.
8. 23. 극동미군 사령부, 인천 상륙작전 관련 최종 회의 개최.
9. 2. 인천 상륙을 위한 제 7합동기동부대(JTF-7) 및 제 1상륙전대 작전 명령 하달.
한국 해병대 주력 진해 도착.
9. 5. 24 : 00 미 제 5해병연대,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으로 이동 개시.
9. 6. 한·미 해병부대 부산 집결.
9. 11—12. 상륙군을 탑재한 공격부대 합선들 목표 지역으로 이동 개시.
9. 13. 미 제 1임시해병여단 해체, 미 제 1해병사단에 흡수됨.
9. 15. 06 : 30 인천 주 상륙에 앞서,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가 월미도 녹색 해안에 상륙 개시.
12 : 15 소월미도를 포함한 월미도 확보 및 소탕 완료.
9. 15. 17 : 30 인천 주 상륙 개시. 적색 해안에 미 제 5해병연대 (一)와 한국 해병대가, 그리고 청색 해안에 미 제 1해병연대가 상륙.
23 : 59 적색 해안의 O-A 통제선 확보.
이날 한국 육군 제17연대는 안강 전선에서 부산으로 이동.
9. 16. 01 : 30 청색 해안의 O-1 통제선 확보.
05 : 00 미 해병 함재기 편대, 간석동 부근에서 적의 T-34 전

- 차 6대를 포착, 5대를 격파함.
- 이날 중 미 제 1해병사단의 돌격 연대들은 대체로 해안두보선을 확보, 한국 해병대는 인천 시가지를 소탕.
- 9.17. 05:50 인천 해역에 적기 2대 출현, 1대는 격추되고 다른 1대는 북쪽으로 사라짐.
- 06:00 경인 국도 따라 인천으로 접근하던 1개 대대(증강) 규모의 적 보·전 부대를 미 제 5해병연대의 전방 부대가 포착, 원통이고개에서 전멸시킴.
- 07:00 한국 해병 제 3대대, 부평 지역에서 공격 개시. 미 제 5해병연대는 이날 늦게 김포 비행장 장악, 제 1해병연대는 경인 국도 따라 점증하는 적 저항에 부딪침. 한국 해병 제 3대대는 효성리(목표 1)로 진출.
- 9.18. 새 벽 김포 비행장을 방어하던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 적의 역습을 격퇴.
- 이날 중 한국 해병대(—제 2대대)는 계산동(구 부평리)으로 진출, 미 해병사단의 좌측방 방호 담당.
- 미 제 7사단 예하 제32연대 인천에 상륙.
- 9.19. 미 제31보병연대 인천에 상륙. 미 제 7사단이 경인 국도 남쪽으로 전개.
- 미 해병 전투기들, 김포 비행장에서 출격개시.
- 김포 비행장 주변을 소탕한 미 제 5해병연대는 이날 중 도하작전 준비. 미 제 1해병연대는 오류리 동쪽의 덕고개까지 진출. 한국 해병 제 3대대 고촌 진출, 제 2대대는 인천에서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
- 20:00 미 해병사단 수색중대 정찰반 한강 도하 개시.
- 적의 저항으로 수색중대의 야간 도하작전 좌절됨.
- 9.20. 새 벽 전날 김포읍으로 진출했던 한국 해병대 정보대의 한 파견대가 한강을 도하한 적 부대의 습격을 받음.
- 새 벽 미 제 1해병연대의 전방 대대들, 적의 역습을 격퇴.
- 06:45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 도하 개시. 한강 북쪽 대안의 교두보 확보. 후속 도하한 한국 해병 제 2대대는 북쪽 측방 방호 담당.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제 1 대대는 이날 중 한강 남쪽의 정곡리로 이동.

9.21.

한국 해병 제 1 대대 한강 도하. 미 제 5 해병연대의 전선 중양을 담당, 이날 중 104 고지까지 진출.

한국 해병 제 3 대대, 한강을 도하하여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려는 적 2개 대대를 김포 지역에서 포착, 이를 격파함.

미 제 1 해병연대의 공격 대대들, 영등포 일대의 적 저지 부대와 격전.

미 제 7 해병대 인천에 상륙.

미 제 32 보병연대, 안양—수원 간 도로 확보.

18:00

미 제 10 군단 지휘소 인천에 개소. 「아몬드」 장군이 육상작전 지휘권을 장악함.

야 간

한국 육군 제 17 연대, 인천을 향해 부산 출항.

9.22.

07:00

한국 해병 제 1 대대, 양 측방의 미 해병 대대들과 함께 공격 개시. 연희고지 전투 시작됨.

미 제 7 사단 예하의 부대들, 수원 비행장을 확보.

9.23.

07:00

한국 해병 제 1 대대 공격 재개, 적과 격전.

15:00

미 제 5 해병연대 제 2 대대가 한국 해병 제 1 대대를 초월 공격.

미 제 1 해병연대는 전날 영등포를 장악한 데 이어, 이날 중 한강교 일대까지 진출.

9.23—24.

미 제 7 해병연대, 행주나루로 한강을 도하, 미 해병 사단 북쪽 측방으로 전개.

9.24. 08:00

미 제 1 해병연대, 한강 도하 작전 개시.

미 제 5 해병연대 D 중대, 연희 능선에서 적과 혈전.

미 제 5 해병연대 제 2 대대, 연희고지 일대를 장악.

미 제 32 연대, 한강 남쪽으로 진출, 도하 지역 확보.

한국 육군 제 17 연대 인천에 상륙, 한강 남쪽의 신사리로 이동.

미 제 187 공수연대 전투단 제 3 대대, 미국 본토로부터 일본 경유, 김포 비행장으로 공수 이동.

- 24 : 00 수도 탈환을 위한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1-50 하달. 한국 해병 제 1대대는 미 제 5해병연대에, 제 2대대는 미 제 1해병연대에 각각 배속됨.
- 9.25. 06 : 30 미 제32연대 도하 작전 개시. 한강 북쪽의 남산 및 매봉(120 고지) 탈취. 한국 육군 제17연대 후속 도하.
- 07 : 00 한·미 해병 부대 서울 시가지 돌입을 위한 공격 개시. 시가지 전투 시작. 미 제 1해병연대는 만리재까지 진출, 제 5해병연대는 신촌 동쪽의 큰고개 장악. 한국 해병 제 5대대 인천에 상륙, 미 제 7해병연대 배속.
- 9.26. 한국 육군 제17연대, 서울 동쪽의 348 고지 탈취, 경춘 국도 남쪽으로 전개.
한·미 해병 부대, 서울역과 서대문 영천 간 도로 서쪽 지대를 장악.
- 9.27. 08 : 26 수원 남쪽으로 진출한 미 제31보병연대의 H중대와 미 제 8군의 공격 선두부대인 미 제 7기병연대 예하 「린치」 특수임무부대의 선발대가 오산 북쪽에서 연결 성공. 한·미 해병 부대들, 중앙청을 포함, 서울의 도심을 장악.
- 9.28. 한·미 해병 부대, 서울을 완전 수복.
- 9.29. 중앙청에서 수도 탈환 기념 및 환도식 거행.
- 9.30. 미 제 7해병연대, 서울 북쪽으로 공격 재개.
한국 해병대 서울 동쪽으로 이동. 육군 제17연대는 수도 서울 경비 담당.
- 10.1. —5. 서울 외곽에 차단 진지 형성을 위한 공격 전작 계속.
기간 중 미 제 7해병연대는 의정부를 탈취하고 그 북쪽에,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는 서울 북서쪽으로 진격하여 금촌 북쪽에, 한국 해병대는 서울 동쪽으로 진격하여 북한강변에 각각 차단 진지를 형성하였으며, 한강 남쪽은 미 제 7사단이 담당함.
- 10.7. 제10군단, 인천—서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제 8군에 이관. 인천—서울 지역 작전 종결.

부록 4.

참고 문헌에 관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군사적 측면에서 다룬 단행본으로서는 다음의 2권을 들 수 있다.

1. Lynn Montross & Nicholas A. Canzona,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 II,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Historical Branch, G-3, U.S.M.C., 1955.

2. Robert D. Heinl, Jr., *Victory at High Tide: The Inchon-Seoul Campaign*.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68.

전자는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미 해병대 사령부 공간(公刊) 한국 참전사 전 5권 중의 제 2권으로서, 인천의 돌격 상륙 부대였던 미 제 1 해병 사단의 활동 과정, 상륙작전의 계획수립 단계를 포함한 전 작전 과정, 그리고 수도 탈환 작전을 다룬 책이다. 후자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범위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작전 지도면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기술한 점이 크게 돋보인다.

다음에 열거하는 2권의 문헌은 미 육군의 발간 계획에 따른 한국 참전사 전 5권 중 제 1권 및 제 3권에 해당되며, 이 책들 가운데에서는 전황의 전반적 추이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미 육군 부대에 대하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얹힌 정책적인 배경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 Army in Korea*.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56.

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U.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72.

해군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1952.

2. M. W. Cagle and F.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Washington: U.S. Naval Institute, 1957.

3. James A.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epartment of the Navy, 1962.

인천 상륙작전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문헌들이면 크게 만족할 만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 국군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상기한 문헌들 중에서도 기대하는 만큼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어느 역사의 기록에도 그렇겠지만, 전사 역시 사실(史實)로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리하여, 1982년 말, 본 전사 편찬 위원회에서는 미 해병대 사령부에 「인천 상륙작전」 집필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앞서 열거한 문헌들을 참고로 「인천 상륙작전」의 전반부 집필에 착수하였다.

미 해병대 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입수하게 된 것은 1983년 8월 말이었다.

1. 미 제1해병사단 및 그 예하 부대들의 인천 상륙작전 결과 보고서 (일부 부분 발췌) 사본.

2. 인천 상륙 당시 미 제1해병사단장이었던 「스미드」 장군의 「비망록」 사본.

3. 미 제1해병사단의 한 보고서인 「1950.9.—1952.5. 기간 중 미 제1해병사단과의 관계로 본 한국 해병 제1연대」(1952. 6. 13.) 사본.

4. 인천 상륙작전 기간 중 미 제1해병사단 수훈자 공적서 사본 및 주요 지휘관 약력서.

5. 기타: 사진 수집.

이 귀중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가 당초 1983년으로 계획하였던 전투사 발간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서는 상당 부분에 걸친 사실(史實)의 구명이 가능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기」(註記)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이들 사료에 의해서 구명된 우리 국군의 각종 전투 기록들은 본 위원회 소장(所藏) 참전자 증언록으로 다시 보장되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편답이 가능한 참전자를 찾아 증언을 청취하여 더욱 보장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활용된 참고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전쟁사 제1권(개정판):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국방부, 1977.

2. 한국 전쟁사 제 2 권(개정판) : 지연 작전기. 국방부, 1979.
3. 한국 전쟁사 제 3 권 : 낙동강 방어 작전기. 국방부, 1970.
4. 한국 전란 1 년지. 국방부, 1951.
5. 6·25 사변 육군 전사 제 1 권. 육군본부, 1952.
6. 6·25 사변 육군 전사 제 2 권. 육군본부, 1954.
7. 6·25 사변 육군 전사 제 3 권. 육군본부, 1954.
8. 6·25 사변 육군 전사 제 4 권. 육군본부, 1956.
9.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 1 집. 해군본부, 1954.
10. 해병 전투 상보 제 5 권. 해병대 사령부, 1952.
11. 해병 전투사 제 1 집(증보판). 해병대 사령부, 1962.
12.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13. Robert F. Futrell, *U.S. Air Forces in Korea*.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61.
14. Andrew Geer, *The New Bre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2.
15.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 New York: Doubleday, 1951.
16.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1964.
17.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18.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19. Matthew B. Ridgway, *The War in Korea*. New York: Doubleday, 1967.
2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62.

부록 5.

증언인명록

(1) 해군·해병

참 전 당 시				증언일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해군 본부	총참모장	소 장	손원일 孫元一	1964. 12. 16.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	대 령	신현준 申鉉俊	1970. 6. 23.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 대리 ¹⁾	중 령	김대식 金大植	1966. 7. 14.
사령부 작전 참모실	작전보좌관 ²⁾	소 위	이서근 李西根	1965. 6.
사령부 헌병대	헌병	1등수병	변인철 卞寅徹	1982. 10. 28.
사령부 정보대	정보병	1등수병	박기수 朴基洙	1966. 3. 22.
제 1대대	대대장	소 령	고길훈 高吉勳	1965. 9. 1.
제 1대대 본부	통역장교	준 위	장대길 張大吉	1965. 2. 23.
제 1대대제 1중대	중대장	중 위	정만진 鄭滿鎭	1982. 12. 10.
제 1대대제 1중대 제 1소대	소대장	소 위	신양수 申良秀	1982. 11. 11.
제 1대대제 1중대	소총병	전습수병	부두진	1965. 4.
제 1대대제 2중대	중대장	대 위	김광식 金光植	1982. 12. 27.
제 1대대제 2중대 제 3소대	소대장	중 위	이학표 李鶴杓	1982. 11. 1.
제 1대대제 2중대 제 3소대	분대장	3등병조	김영환 金榮煥	1965. 2. 18.
제 1대대제 3중대 제 1소대	소대장	중 위	김한수 金漢壽	1982. 11. 3.
제 1대대제 3중대 제 3소대	소대장	1등병조	이도조 李道祚	1965. 2. 19.
제 1대대제 3중대 제 3소대	신임하사	2등병조	고문갑 高文甲	1964. 5. 28.

참 전 당 시				증언일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제 1 대대제 4 중대	탄약수	전습수병	김인수 金仁洙	1965. 4. 14.
제 2 대대	대대장	소령	김중기 金鍾淇	1969. 6. 25.
제 2 대대	부대대장	대 위	김용국 金龍國	1982. 12. 22.
제 2 대대제 5 중대 제 2 소대	소대장	소 위	강복구 姜福求	1965. 2. 19. 1982. 12. 14.
제 2 대대제 5 중대 화기소대	선임하사	1등병조	최창선 崔昌善	1966. 3. 10.
제 2 대대제 5 중대 제 1 소대	소총병	수 병	문시철 文時哲	1965. 4. 14.
제 2 대대제 5 중대 제 2 소대	소총병	수 병	남영우 南英佑	1965. 4. 16.
제 2 대대제 6 중대 제 1 소대	분대장	2등병조	양병수 梁炳守	1965. 9. 27.
제 2 대대제 6 중대 제 3 소대	분대장	2등병조	정하춘 鄭河春	1965. 4. 19.
제 2 대대제 6 중대 제 1 소대	소총병	수 병	김칠룡 金七龍	1965. 6.
제 2 대대제 6 중대 제 1 소대	소총병	수 병	최국방 崔國防	1965. 10. 16.
제 2 대대제 7 중대 제 1 소대	소대장	소 위	조성준 趙性俊	1965. 3. 14. 1982. 12. 14.
제 2 대대제 8 중대	소대장	소 위	이원경 李元炯	1966. 1. 25.
제 3 대대	대대장	소 령	김운근 金潤根	1982. 11. 16.
제 3 대대제 9 중대 화기소대	화기소대장	소 위	서상국 徐相國	1982. 12. 17.
제 3 대대제 9 중대 제 2 소대	소대장	소 위	이홍희 李弘熙	1965. 5.
제 3 대대제 9 중대 제 3 소대	선임하사	1등병조	정병윤 鄭炳潤	1965. 4. 19.
제 3 대대제 9 중대 제 3 소대	분대장	1등수병	지영조 池永祚	1966. 3. 9.
제 3 대대제 10 중대 제 2 소대	분대장	3등병조	임경섭 林景燮	1982. 12. 21.
제 3 대대제 11 중대 제 1 소대	소대장	소 위	육동욱 陸東旭	1965. 2.
제 3 대대제 11 중대 제 2 소대	소대장	소 위	신현옥 申鉉玉	1965. 11. 29.
제 3 대대제 11 중대 제 2 소대	소총병	수 병	강태용	1965. 4. 7.

참 전 당 시					증언 일 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제 3 대대 제 12 중대	분대장	1 등 수병	서석구 徐錫九	1982. 10. 28.	
제 3 대대 제 12 중대	분대장	1 등 수병	이진호 李鎭浩	1966. 3. 9.	
제 3 대대 제 12 중대	박격포사수	수 병	진문섭 秦文燮	1965. 4. 14.	
제 5 대대 제 21 중대	중대장	대 위	안창관 安昌寬	1966. 7. 7.	
제 5 대대 제 23 중대 제 1 소대	소대장	소 위	조의정 趙義正	1966. 1. 25.	
제 5 대대 제 23 중대 제 3 소대	분대장	3 등 병조	배순득 裵順得	1965. 4.	

1) 1950. 9. 25. 부 제 5 대대장.

2) 1950. 9. 24. 부 제 1 대대 제 1 중대 선임장교.

(2) 육군 제 17 연대

참 전 당 시					증 언 일 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연대본부	연대장 ¹⁾	대 령	백인엽 白仁燦	1966. 12. 15.	
연대본부	연대장 ²⁾	대 령	김희준 金熙濬	1966. 11. 28.	
연대본부	부연대장	중 령	빈철현 賓哲顯	1982. 7. 7.	
연대본부	작전장교	소 령	이극성 李極星	1982. 6. 9.	
근무중대	중대장	대 위	조성현 曹成鉉	1969. 6. 28.	
제 1 대대	대대장	소 령	류창훈 柳昌煥	1982. 6. 17.	
제 1 대대제 1 중대	중대장	대 위	양성식 梁成植	1982. 6. 16.	
제 1 대대제 4 중대	중대장	대 위	김희제 金熙濟	1982. 7. 8.	
제 1 대대제 4 중대	소대장	소 위	김병원 金秉元	1967. 11. 1.	

참 전 당 시				증 언 일 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제 1 대대 제 4 중대	분대장	하 사	이문재 李文宰	1966. 3. 28.
제 2 대대 본부	작전장교	소 위	고성룡 高成龍	1965. 12. 9.
제 2 대대 제 5 중대	중대장	중 위	박배근 朴培根	1967. 2. 1.
제 2 대대 제 6 중대	소대장	소 위	이장영 李張永	1966. 3. 21.
제 2 대대 제 7 중대	중대장	대 위	오병진 吳秉珍	1965. 12. 9.
제 3 대대 본부	부대대장	대 위	정득만 鄭得萬	1982. 7. 19.
제 3 대대 제 10 중대	소대장	소 위	유병상 劉秉常	미 상
제 3 대대 제 11 중대	소대장	소 위	황 열 黃烈	1965. 12. 8.
제 3 대대 제 12 중대	중대장	대 위	박종한 朴鍾漢	1967. 5. 24.
제 3 대대	소총병	2 등병	최우웅 崔雨雄	1966. 7. 12.

1) 1950. 8. 8.—9. 11. 기간 중에는 수도사단장을 역임했으며, 1050. 9. 17. 부로 두 번째 연대장 역임.

2) 1950. 7. 5. 부로 연대장 대리, 1950. 7. 27.—9. 17. 기간 중 연대장 역임.

(3) 기 타

참 전 당 시				증 언 일 자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시흥진투사령부	참모장	대 령	김종갑 金鍾甲	1964. 12. 9.
육군 제 1 독립 유격대대	대대장	대 위	이종훈 李宗勳	1980. 7. 30.
미제 5 해병연대 (파견)	통역관	중 위	고봉철 高奉哲	1982. 8. 6.
미제 1 해병사단 (파견)	어학장교	미 해군 대 위	Horace G. Underwood	1982. 11. 3.
미제 5 해병연대 본부	통신정비하사	미 해병 하 사	Clarence E. Prince, Jr.	1982. 11. 12.

주 기(註記)

제 1 장 인천 상륙 : 최초의 구상

- 1) ①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1964), p. 332. ②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72), p. 74.
- 2)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86—87.
- 3) ① MacArthur, *Reminiscences*, pp. 331—332. ② Noble, *Embassy at War*, p. 89. ③ 김종갑 증언록(1964. 12. 9.).
- 4) MacArthur, *Reminiscences*, p. 333.
- 5) 위의 책, p. 333.
- 6) 위의 책, pp. 333—334.
- 7)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 (New York: Doubleday, 1951), p. 33.
- 8) MacArthur, *Reminiscences*, p. 169.
- 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78에서 재 인용.
- 10) 위의 책, pp. 52—54.
- 11)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 44.
- 12) ① 위의 책, pp. 45—48. ② Robert D. Heinl, Jr., *Victory at High Tide*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68), pp. 9—10.
- 13) Field, *U. S. Naval Operations, Korea*, pp. 42—50.
- 14) ① Lynn Montross & Nicholas A. Canzona, *U. 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 II,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5), pp. 81—82.
- 15) Field, 위의 책, pp. 83—84.

- 16) Monstros & Canzona, 앞의 책, pp. 4—6.
- 17) Field, 앞의 책, p. 102.
- 18) Schnabel, 앞의 책, pp. 82—85.
- 19)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 1집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1954), p. 50.
- 20) 포항 상륙에 관한 위의 기술 중 별도 주기(註記)한 이외의 내용들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로 한 것이다. ①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13—15. ② Field, 앞의 책, pp. 102—108. ③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1952), pp. 88—98. 미 제 1기병사단의 출동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Appleman, 앞의 책, pp. 195—19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1) 아래에 묘사된 「맥아더」 장군과 「세퍼드」 장군 사이의 대화 내용은 전적으로 Heinl, 앞의 책, p. 19에서 인용하였다. 두 장군의 대화분 위기를 서술하는 데는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9—11도 함께 참고로 하였다.
- 22) ① Schnabel, 앞의 책, p. 160. ② Heinl, 앞의 책, p. 21.
- 23) ① Schnabel, 앞의 책, p. 161. ②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22. ③ Heinl, 앞의 책, p. 23.
- 24) Heinl, 앞의 책, p. 23에서 재 인용.

제 2 장 「크로마이트」 작전 : 발전적 구상

- 1) 인천 상륙과 관련한 「블루하트」 계획이 무산되고 다시 「크로마이트」 작전 개념이 구체화되기까지, 극동미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진전된 상황에 대한 기술은 주로 다음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①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41—146. ②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이하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으로 생략), pp. 489—490.
- 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56에서 재 인용.

- 3) 위의 책, p. 157 참조.
- 4) Appleman, 앞의 책, p. 490 참조.
- 5) Montross & Conzona, 앞의 책, p. 23 참조.
- 6) Heinl, *Victory at High Tide*, p. 36.
- 7) Montross & Conzona, 앞의 책, p. 24.
- 8) Andrew Geer, *The New Breed: The Story of the U. S. Marines in Kore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2), pp. 105—106.
- 9)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33.
- 10) 위의 책, pp. 34—35.
- 11) 제 10 군단의 구성 부대들에 관하여 이제까지 이 절(節)에서 기술한 내용은 주로 Schnabel, 앞의 책, pp. 165—171을 근거로 한 것이다.
- 12) 1950년 당시의 인천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① Karig 외, 앞의 책, pp. 161—164. ②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p. 78—80. ③ Appleman, 앞의 책, pp. 498—499. ④ Heinl, 앞의 책, pp. 25—28.
- 13) Cagle &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81.
- 14)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39.
- 15) 8월 23일의 이 역사적인 회의 내용이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알려진 것은 없으나, Karig 외, 앞의 책, pp. 166—169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뒤에 발간된 「맥아더」장군 자신의 「회고록」과 기타 문헌들도 참고로 하되, 이하의 기술 중 직접 화법(直接話法)으로 표현된 「맥아더」장군의 대화 내용은 전적으로 상기한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 16) ① Heinl, 앞의 책, pp. 42—43. ② Schnabel, 앞의 책, p. 150.

제 3장 계획수립 단계

- 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75.
- 2) Cagle &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83에서 재 인용.
- 3) Heinl, *Victory at High Tide*, pp. 16—17.

- 4)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55—56.
- 5) Heinl, 앞의 책, p. 49.
- 6)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64—65.
- 7) 이하 항공·함포 지원 문제에 관련한 기술은 주로 위의 책, pp. 67—71을 근거로 한 것이다.
- 8) Field, *U. S. Naval Operations, Korea*, p. 183.
- 9) ① 해군사, 작전편 제 1집, pp. 108—118. ② Field, 앞의 책, pp. 183—184.
- 10)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500.
- 11) 「클라크」대위 일행의 활동 상황에 관한 이제까지의 기술은 주로 Karig et al.,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 176—191을 근거로 한 것이다.
- 12) 이상, 한국 육군 제 17 연대가 한국 해병대로 배치되기까지의 경위는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73—74 참조.
- 13) 이하, 한국 해병대가 출동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별도 주기되지 않은 부분은 주로 해병 전투사, 제 1집 증보판(해병대 사령부, 1962. 6. 15.)과 다음 증언록들을 참고로 하였다. ① 강복구 증언록(1982. 12. 14.). ② 고길훈(1965. 9. 1.). ③ 김용국(1982. 12. 22.). ④ 김윤근(1982. 11. 16.). ⑤ 서석구(1982. 10. 28.). ⑥ 신현준(1970. 6. 23.). ⑦ 임경섭(1982. 12. 21.). ⑧ 최창선(1966. 3. 9.).
- 14) 허윤택(許允澤), 해군 여자 의용군. 해군지. 1979년 제 6호(해군본부 정훈감실, 1979. 12. 1.), pp. 85—91.
- 15) Montross & Canzona, *U. 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 I, *The Pusan Perimeter* (Washington: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U. S. Marine Corps, 1954), pp. 208—209 참조. 위 문헌은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 해병대 사령부가 공간(公刊)한 한국 참전사 전 5권 중의 제 1권이다.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의 발족으로부터, 이 여단이 한국 전선에 투입되고, 다시 낙동강 전선을 빠져 나오기까지, 이 책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물론 위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기술한 것이다.

- 16) 이하,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의 부대들이 미 제 1해병사단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기술은 다음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① Montross & Co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65—67. ②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64—165.
- 17) ① 손원일 증언록(1964. 12. 16.). ② 고길훈 증언록(1965. 9. 1.). ③ 서석구 증언록(1982. 10. 28.).
- 18) ① 손원일 증언록(1964. 12. 16.). ② 고길훈 증언록(1965. 9. 1.).
- 19) ①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p. 477—478. ② 해군사 작전편 제 1집, pp. 98—102. ③ 이원경 증언록(1966. 1. 25).
- 20) ① 강복구 증언록(1982. 12. 14.). ② 고길훈 증언록(1965. 9. 1.). ③ 김용국 증언록(1982. 12. 22.). ④ 김한수 증언록(1982. 11. 4.).
- 21) 허윤택, 앞의 글 참조.

제 4 장 인천으로의 항진(航進)

- 1) Field, *U. S. Naval Operations, Korea*, pp. 180—181.
- 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52.
- 3)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53—154.
- 4)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74 참조. 한국 해병대가 실제로 연대 단위의 전술 편제를 갖게 된 것은 1950년 12월 말, 원산(元山)에서 진해(鎭海)로 철수한 뒤의 재 정비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1950. 9.—1952. 5. 기간 중 미 제 1해병사단과의 관계로 본 한국 해병 제 1연대」(1952. 6. 13.)라는 미 제 1해병사단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대로서의 승인된 장비를 갖추게 된 것은 1951년 2월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보인다.
- 5) 미 제 1해병사단 보고서, 「1950. 9.—1952. 5. 기간 중 미 제 1해병사단과의 관계로 본 한국 해병 제 1연대」(1952. 6. 13.), pp. 4—5 참조. 미 해병대 사령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해그나」(Edward Reno Hagenah) 중령은 뉴욕 시 태생(1902. 4. 16. 생)으로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미 해병대에서 복무하였으며, 다시 1935년에 장교로 임관되어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지중해와,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근무한 바도 있다. 원산(元山)에 상륙하여 한국 해병대와 함께 활동

- 중 불행하게도 심장 마비로 1950. 12. 4. 한 병원선에서 사망하였다.
- 6)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 7) ① Feld, 앞의 책, p. 188. ②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83.
 - 8)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79—80.
 - 9) 해병대 사령부 발행 경인 지구 전투 상보(1952년, 발행 월·일 미상에 의하면 인천에 상륙한 다음날인 9월 16일 현재의 한국 해병대 병력을 2,555명으로 밝히고 있으며, 반면에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321에서 밝힌 한국 해병대의 최종 출동 병력을 보면 2,78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쪽에서도 정확성을 함께 찾아 보기는 어렵다. 전투 상보에 수록된 편성표에서는 중부·누락·오류 등이 쉽게 발견된다. 한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미 해병대 측 자료에 의한 2,786명이라는 수자는 해병대 전투 상보를 분석해 봄으로써 승선 예정 인원이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즉, 해병대 전투 상보에 수록된 합선 할당표를 보면, 「피카웨이」(APA 222)호에 2,412명, LST에 220명, 그리고 51명 씩을 다른 APA 3척에 각각 승선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2,785명으로서, 미 해병대 측 자료와는 1명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결국, 다소간에 승선 시의 가감을 고려한다면, 2,786명 안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0) ① 신현준 증언록(1970. 6. 23.). ②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 11)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 12) 경인 지구 전투 상보(해병대 사령부, 1952. 발간 월·일 미상).
 - 13) Field, 앞의 책, p. 183 및 p. 193.
 - 14) ① 한국 해군사, 작전편 제 1집, pp. 118—119. ② 해병 전투 상보.
 - 15)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이원경 증언록(1966. 1. 25.). ③ 이흥희 증언록(1965. 5.).
 - 16) Noble, *Embassy at War*, p. 193.
 - 17) Karig at al.,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 211—212.
 - 1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 568.
 - 19) Karig 외, 앞의 책, p. 243.
 - 20) 이종훈 증언록(1980. 7. 30.).
 - 21) 이하, 장사동 작전을 기술하는 데는 주로 Karig 등이 쓴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제 20장을 참고로 하였다. 이 외에도 장사

동 작전에 관한 기록은 한국 전쟁사 제 3 권, 낙동강 방어 작전기(국방부, 1970. 12. 25.), pp. 647—650 과 소부대 전례 제 12 집(육군본부, 1981. 3. 4.), pp. 279—30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에 든 두 문헌은 해군 상황에 대한 기술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오류까지 범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유격 부대 참전자들의, 오랜 뒤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문헌과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를 들면, 상륙 일자가 전자에서는 9월 15일, 후자의 두 문헌에서는 9월 14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한국 해군사 작전편 제 1 집, pp. 124—127의 기술을 보면 비교적 전자의 내용에 가깝고, 상륙 일자 또한 전자의 것과 같다. 이 점은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현지 답사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나, 이 책에서는 일단 전자의 기록에 더 의존하였다.

22) 한국 전쟁사 제 3 권, p. 649.

23) Cagle &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299.

24) ① Appleman, 앞의 책, p. 568. ② Karig 외, 앞의 책, p. 254.

25) ①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85—87. ② Field, 앞의 책, pp. 191—195.

26) ①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87—88. ② Field, 앞의 책, pp. 195—197.

27) 월미도를 확보하기까지의 아래 기술 내용 중 별도 주기한 외에는 다 음 문헌들을 근거로 하였다. ①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88—96. ② Field, 앞의 책, pp. 197—198. ③ Geer, 앞의 책, pp. 124—125. ④ Heinl, 앞의 책, pp. 90—96.

28) 한국에 파병된 미 제 1임시해병여단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될 때, 이 부대에 대대 단위 1명씩의 통역 장교가 육군 본부에서 파견되었었다. 이 부대가 인천 상륙을 위하여 부산을 출항할 무렵에는 대부분 현역 이 아닌, 또 다른 일단의 통역 요원들이 제 8군을 통해 미 해병사단에 파견되었다. 이와는 달리, 각급 부대의 필요에 따라 현지 채용되는 통역관도 있었는데, 미 제 5해병연대 제 3대대의 경우, 이때 막 중원된 1중대를 위하여 부산에서 김 정득(金正得) 통역관이 채용되었었다고, 이 대대 통역 장교였던 고 봉철(高鳳哲) 중위(당시 제급)는 증언했다. 미국 본토에서 뒤늦게 파병된 미 제 7해병연대가 상륙할 무

첩에는 이 부대를 위한 통역관을 인천에서 급히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후에 현역으로 임관되었다.

제 5 장 돌격 단계

- 1) ① 해병 전투 상보, pp. 14—15. ② 해병 전투사, 제 1집(증보판), pp. 90—91. ③ 서석구 증언록(1982. 10. 28.).
- 2)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02.
- 3) 이하, 별도 주기한 외에, 이 장(章)의 전반적인 기술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근거로 하였다. ① 위의 책, 제 6장 및 제 7장. ② Geer, *The New Breed*, pp. 125—129. ③ Heintz, *Victory at High Tide*, 제 4장.
- 4) Smith, *Aide-Mémoire*, p. 170. 앞서, 참고 문헌에 관한 기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 해병대 사령부에서 제공된 자료들은 돌격 단계의 집된 시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Smith, *Aide-Mémoire*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면서, 가능한 한 미 해병사단 및 그 예하 연대·대대들의 가용한 작전 결과 보고서(SAR: Special Action Report)를 참조하였다. 주기 편의상, 앞으로 이들 작전 결과 보고서는 SAR로, 그리고 미 해병사단 예하의 연대 및 대대들에 대해서는 RLT 및 BLT로 각각 생략 표기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 5) ① 해병 전투 상보, p. 15. ② 손원일 증언록(1964. 12. 16.). ③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④ 김용국 증언록(1982. 12. 22.). ⑤ 정만진 증언록(1982. 12. 10.).
- 6) ① 해병 전투 상보, p. 15. ② Smith, *Aide-Mémoire*, p. 196.
- 7)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이 증언에 의하면 100여명이 학살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미 해병사단 SAR, 정보 부록의 소록 5, p. 2를 보면 30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8) 위의 증언록 참조.
- 9) ① 강태용 증언록(1965. 4. 7.).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10) ① 해병 전투 상보, p. 15. ② 해병 전투사, 제 1집(증보판), p. 94.
- 11) ① 해병 전투 상보, p. 15. ② 변인철 증언록(1982. 10. 28.).
- 12) Smith, *Aide-Mémoire*, pp. 176—177.

- 13) Smith, *Aide-Mémoire*, p. 186.
 14) Field, 앞의 책, p. 204.

제 6 장 서울을 향하여

- 1) ① Cagle &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100. ② Heint, *Victory at High Tide*, p. 141.
- 2) Smith, *Aide-Mémoire*, p. 188.
- 3) ① SAR, BLT-5, USMC, p. 8. ② SAR, BLT-3/5, USMC, p. 5.
- 4)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Heint, 앞의 책, p. 124. 이 연락 장교의 제급은 위 증언에 의거한 것이며, Heint의 저서에서는 중위(정확히는 Lieutenant)로 기술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위 증언자는 이 연락 장교의 이름(personal name)을 기억하지는 못했으며, Heint의 저서에서도 알 길은 없다. Heint은 오히려 간접 증언에 의존했던 까닭에 「데이비스」라는 성(姓: last name)마저 확증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 5)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③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 6) ① SAR, RCT-5, USMC, p.8. ② 육동욱 증언록(1965. 2.). ③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④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7) 육동욱 증언록(1965. 2.).
- 8)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9) ①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155—156. ②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③ 강태용 증언록(1965. 4. 7.).
- 10) Smith, *Aide-Mémoire*, p.203.
- 11) ① Smith, *Aide-Mémoire*, pp. 204—205. ②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151—152.
- 12) ①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155—156. ② Geer, *The New Breed*, p. 132.
- 13) 미 해병사단 SAR에서는 김포 비행장이 이날 20:05에, 그리고 제 5 연대 SAR에서는 20:00에 확보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제 2대

대의 SAR에는 「어둠으로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상의 이같은 차이는 상황을 파악하는 각급 부대의 여건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이날 밤 공항 동쪽 외곽에 E중대 제 1소대가 전초로 배치된 것을 보면 공항 청사, 격납고, 기타 주요 지역은 이미 그 이전에 확보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14) 이 절(節)의 기술에 있어서, 이하 별도 주기한 외에는 주로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p. 173—178을 참고로 하였다.
- 15) ① Smith, *Aide-Mémoire*, p. 198. ② 실지(失地) 회복에 따른 경인지구의 치안 확보를 위하여 편성된 경찰 선발대는 1950. 9. 25. 대구를 출발, 부산을 거쳐 해상 이동으로 1650. 10. 1. 인천에 상륙하였다. 한국 경찰사 II(내무부 치안국, 1973. 10. 21.) 참조.
- 16) ① Smith, *Aide-Mémoire*, p. 198. ② 경기도사, 제 2 권(경기도, 1982. 4. 10.), p. 65.
- 17) ① Smith, *Aide-Mémoire*, pp. 198—200. ② 최창선 증언록(1966. 3. 10.).
- 18) ① 해병 전투 상보, pp. 16—19. ② Smith, *Aide-Mémoire*, pp. 242—244.
- 19) ① 해병 전투사, 제 1 집(증보판), p. 96. ② Smith, *Aide-Mémoire*, p. 243. ③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④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20)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해리슨」 중령은 그뒤 「해그나」 중령에 이어 미 해병사단의 연락 장교 겸 한국 해병대 수석 고문을 역임하였다.
- 21) Smith, *Aide-Mémoire*, pp. 217—218.
- 22) SAR, RCT-5 및 예하 각 대대 SAR 참조.
- 23) ① Smith, *Aide-Mémoire*, p. 244. ②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③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 2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512.
- 25) ①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9. ② Montross & Canzona, 앞의 책, p. 180.
- 26) 전사 편찬 위원회 소장(所藏), 북괴군 제 107 연대 김포 방어 계획 지도 참조. 이 지도는 1950. 9. 21. 김포 지역의 적 제 107 연대 지휘소

를 급습한 한국 해병 제 3대대가 노획했던 것으로, 그후 이를 보관해 오던 당시의 대대장 김 윤근 소령(중장 예편)이 1980. 10. 31. 본 전사 편찬 위원회에 기증하였다.

- 27) 미 해병사단 SAR, 정보 부록의 소록 2(p. 3)를 보면, 한국 해병 전선에서 지연전을 시도하는 적 부대가 북괴군 제 107연대인 것으로 9월 17일의 적정에서 나타난다. 9월 18일의 적 상황에서는 이 연대 예하의 제 27대대가 김포 비행장 방어에 가담했었다는, 한 포로의 진술이 있었다고 했고, 동일자 미 제 5해병연대의 적정 기술(동 연대의 SAR, 정보 부록의 소록 1, p. 2)에서는 적 제107연대장 한(Han Choi Han)이라는 자가 9월 17일 밤에 한강을 건너 도망쳤다는 포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괴군 제 107연대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Montross & Canzona, 앞의 책(p. 160)과 Heintz, 앞의 책(p. 139)은 모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좀더 깊이 살펴 보면, 9월 17일 적 부대가 한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하한다는 보고를 받은 제 5연대장이 함포 사격을 요청, 이 적 부대를 북쪽으로 퇴각시켰다는 기록이 있다(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9). 한편, 한국 해병대는 9월 19일 고촌 방면의 96고지를 탈취하기까지 적의 미미한 저항을 받았을 뿐이라는 기록(동 SAR, 정보 부록의 소록 2, p. 4)이 보이는데, 이는 다수의 참전자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해병 제 3대대의 김포 지역 전투 상황은 앞으로 제 7장 제 4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겠지만,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pp. 15—16)의 9월 21일 작전 상황에서는 이때 한강을 도하하여 김포 지역에 전개된 적이 2개 대대, 그리고 다른 2개 대대가 한강 북쪽에 있다는 것이 한 포로(북괴군 장교)의 신문 결과에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같은 내용들과 앞서 설명된, 노획한 적의 지도에 기입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해 볼 때, 북괴군 제 107연대의 부대들이 9월 19일 이전에 김포 비행장 방어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은 포로진술 내용의 잘 못 해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28) Appleman, 앞의 책, pp. 513—514.

제 7 장 한강과 낙동강 전선

- 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73.
- 2)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571.
- 3) 이하, 이 절과 다음 절의 기술에 있어서 별도 주기한 외에는 다음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①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187—197. ② Geer, *The New Breed*, pp. 141—147. ③ Heinl, *Victory at High Tide*, pp. 190—199.
- 4) 「언머우드」 증언록(1982. 11. 3.).
- 5) ① Smith, *Aide-Mémoire*, p. 231. ② 해병 전투 상보, p. 25. ③ 조성준 증언록(1982. 12. 14.).
- 6) ①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14. ② Smith, *Aide-Mémoire*, pp. 227—233.
- 7) Smith, *Aide-Mémoire*, pp. 253—254.
- 8) ① Smith, *Aide-Mémoire*, p. 224. ② 강복구 증언록(1965. 2. 19.). ③ 최창선 증언록(1966. 3. 10.).
- 9) ① 부두진 증언록(1965. 4.). ② 정만진 증언록(1982. 12. 10.).
- 10) ① 이도조 증언록(1965. 2. 19.). ② 김한수 증언록(1982. 11. 4.).
- 11) 조성준 증언록(1982. 12. 14.).
- 12) Smith, *Aide-Mémoire*, p. 245.
- 13)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박기수 증언록(1966. 3. 22.).
- 14)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 15)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16)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③ 이홍희 증언록(1965. 5.).
- 17) ① 신현욱 증언록(1965. 11. 29.). ② 강태용 증언록(1965. 4. 7.).
- 18) 서석구 증언록(1982. 10. 28.).
- 19)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석구 증언록(1982. 10. 28.).
- 20) ① 이홍희 증언록(1965. 5.). ② 지영조 증언록(1966. 3. 9.). ③ 이진호 증언록(1966. 3. 9.).
- 21)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22) Smith, *Aide-Mémoire*, pp. 245—246.
- 23) Smith, *Aide-Mémoire*, p. 249.
- 2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519.
- 25) 이하, 별도 주기한 외의 부분은 Appleman, 앞의 책, 제 27 장을 참고로 기술하였다.
- 26) ① Appleman, 앞의 책, pp. 542—543. ② 김희준 증언록(1966. 11. 28.).
- 27) 응지 지구 전투 상황에 관해서는 한국 전쟁사, 제 1 권(개정판), 북파의 남침과 서전기(국방부, 1977. 12. 30.), pp. 459—492 를 참조할 것.

제 8 장 사선(死線)을 넘어

- 1) ① 고길훈 증언록(1965. 9. 1.). ② Smith, *Aide-Mémoire*, p. 262.
- 2) ① 신양수 증언록(1982. 11. 11.). ②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17 에 의하면 9월 21~22일 밤사이 미 제 5해병연대 지역에서는 단속적인 적의 포격이 있었을 뿐, 아주 조용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RCT-5, USMC, SAR, an. B, app. 1, pp. 4—6.
- 4) RCT-5, USMC, SAR, p. 17.
- 5) 이도조 증언록(1965. 2. 19.).
- 6) ① 해병 전투 상보, p. 30. ② RCT-5, USMC, SAR, an. B, app. 1, p. 6.
- 7) ① 신양수 증언록(1982. 11. 11.). ② 정만진 증언록(1982. 12. 10.). ③ 김광식 증언록(1982. 12. 27.). ④ 김한수 증언록(1982. 11. 4.).
- 8) ① 해병 전투 상보, p. 30. ② 고길훈 증언록(1965. 9. 1.). ③ 이도조 증언록(1965. 2. 19.). ④ 김한수 증언록(1982. 11. 4.).
- 9) D중대의 결전 상황을 포함, 미 제 5해병연대 제 2대대의 전투 상황에 대한 이제까지의 기술 내용은 주로 다음 자료에 근거하였다. ① BLT-2/5, USMC, SAR. ② Geer, *The New Breed*, pp. 157—162. ③ Nicholas A. Canzona, "Dog Company's Charge," U. S. Naval Institute Proceedings(1956년 11월호). ④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245—249. ⑤ Heinl, *Victory at High Tide*, pp. 214—218. Geer와 Heinl의 각 저서에 따르면, D중대의 사상자는 중대 병력 총 206명 중 176명이었는데, 전사자가 36명, 부상하여 후송된 자가 116명, 그리고 부상했으나 후송을 거부하고 남은 자가 26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10) ① Smith, *Aide-Mémoire*, p. 263. ②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 527.
- 11) ① Smith, *Aide-Mémoire*, pp. 262—267 및 p. 348. ② Appleman, 앞의 책, p. 520 및 p. 527.
- 12) ① Smith, *Aide-Mémoire*, pp. 263—264 및 p. 348. ② Appleman, 앞의 책, p. 527.
- 13)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RCT-5 & BLT-1/5, USMC, SAR.
- 14) ① Appleman, 앞의 책, p. 528 및 p. 538. ② Smith, *Aide-Mémoire*, p. 265.
- 15) ①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29. ② 이극성 증언록(1982. 6. 9.). ③ 빈첼현 증언록(1982. 7. 7.). ④ 유병상 증언록(증언 년·월·일 미상).
- 16) ① Smith, *Aide-Mémoire*, pp. 275—277. ② 류창훈 증언록(1982. 6. 17.). ③ 김병원 증언록(1967. 11. 1.). ④ 이장영 증언록(1966. 3. 21.). ⑤ 빈첼현 증언록(1982. 7. 7.).
- 17) Appleman, 앞의 책, pp. 528—529.
- 18) ① 위의 책, pp. 529—530. ② Smith, *Aide-Mémoire*, pp. 277—278.
- 19) ① Smith, *Aide-Mémoire*, p. 278. ② 류창훈 증언록(1982. 6. 17.). ③ 박배근 증언록(1967. 2. 1.).
- 20) ① Appleman, 앞의 책, p. 530. ② Smith, *Aide-Mémoire*, pp. 278—279. ③ 류창훈 증언록(1982. 6. 17.). ④ 양성식 증언록(1982. 6. 16.). ⑤ 이장영 증언록(1966. 3. 21.). ⑥ 빈첼현 증언록(1982. 7. 7.).
- 21) Smith, *Aide-Mémoire*, pp. 280—283.
- 22)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24.
- 23) ① 김종기 증언록(1969. 6. 25.). ② 조성준 증언록(1982. 12. 14.). ③ 강복구 증언록(1982. 12. 14.).
- 24) ① 김윤근 증언록(1982. 11. 16.). ②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 25) Geer, *The New Breed*, p. 167.
- 26)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25.
- 27) Appleman, 앞의 책, pp. 530—531.
- 28) 위의 책, p. 530.
- 28) 제 17 연대의 화평장 전투, 권빈리 전투에 관해서는 한국 전쟁사, 제 2권(개정판), 지연 작전기(국방부, 1979. 6. 10.), 제 10 장 제 3 절, 제 14 장 제 3 절을 각각 참조할 것.
- 29) 기계·안강 지구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사, 제 3 권, 낙동강 방어 작전기, 제 22 장을 참조할 것.

제 9 장 수도 탈환

- 1) 서울 통사, 하권(서울특별시, 1973. 10. 1.), pp. 427—429.
- 2) Smith, *Aide-Memoire*, p. 295.
- 3) ① 서상국 증언록(1982. 12. 17.). ② 임경섭 증언록(1982. 12. 21.).
- 4)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김대식 증언록(1966. 7. 14.).
- 5) Smith, *Aide-Memoire*, pp. 292—294.
- 6) 서울의 전통 문화(서울특별시, 1982. 12. 30.), pp. 538—539.
- 7) ① 이원경 증언록(1966. 1. 25.). ② 강복구 증언록(1982. 12. 14.).
- 8) ① 이원경 증언록(1966. 1. 25.). ② 조성준 증언록(1982. 12. 14.).
- 9) ① Smith, *Aide-Memoire*, p. 298. ② 정만진 증언록(1982. 12. 10.).
③ 김광식 증언록(1982. 12. 27.).
- 10) 이하, 별도 주기한 부분 이외의 기술은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pp. 530—531 을 참고로 하였다.
- 11) 류창훈 증언록(1982. 6. 17.).
- 12) ① Appleman, 앞의 책, p. 531. ②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274.
- 13) ① Appleman, 위의 책. ② Heinl, *Victory at High Tide*, p. 244.
- 14) ① Appleman, 위의 책. ② 이장영 증언록(1966. 3. 21.).
- 15) ① 류창훈 증언록(1982. 6. 17.). ② 박중환 증언록(1967. 5. 24.).
③ 최우웅 증언록(1966. 7. 12.).
- 16) ① 한국 전쟁사, 제 3 권(국방부, 1970. 12. 25.), pp. 781—782. ②

최우웅 증언록(1966. 7. 12.).

- 17) 이하, Appleman, 앞의 책, p. 538 및 pp. 590—597 참조.
- 18)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27. ③ 김용국 증언록(1982. 12. 22.). ④ 조성준 증언록(1982. 12. 14.).
- 19) ①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31.
- 20) ① Smith, *Aide-Mémoire*, p. 308. ② 미 해병사단 SAR, 작전 부록, p. 31.
- 21) Smith, *Aide-Mémoire*, pp. 311—312.
- 22) ① Noble, *Embassy at War*, p. 198. ② 「프란체스카」 여사 비망록, 6·25와 이 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 8. 4. 및 8. 6.).
- 23) Smith, *Aide-Mémoire*, pp. 314—315.
- 24) ① Smith, *Aide-Mémoire*, p. 315. ② 해병 전투 상보, p. 40.
- 25) ① Smith, *Aide-Mémoire*, p. 316. ② 「프란체스카」 여사 비망록, 6·25와 이 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 8. 8. 및 8. 9.).
- 26) ①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p. 537. ② 「프란체스카」 여사 비망록, 6·25와 이 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 8. 9.).
- 27) ① 해병 전투 상보. ② Smith, *Aide-Mémoire*, pp. 320—321 및 p. 334.
- 28) 해병 전투 상보에는 이날의 계획된 공격 개시 시간이 08:00, 실제 공격은 10:00에 시작되었으며, 이날 약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대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기술된 공격 개시 시간과 적의 병력 규모는 Smith, *Aide-Mémoire*, pp. 334—335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0명이란 적의 병력수는 포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29) 해병 전투 상보.
- 30) Smith, *Aide-Mémoire*, pp. 336—338.
- 31) Appleman, 앞의 책, p. 604.
- 32) Smith, *Aide-Mémoire*, pp. 367—368.
- 33) ① Smith, *Aide-Mémoire*, pp. 353—361. ② Appleman, 앞의 책, p. 541.
- 34) Appleman, 앞의 책, p. 540.
- 35)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1967), p. 41.

— 색 인 —

7

- 가양리 加陽里 : 212
 가좌리 佳佐里 : 179
 간석동 間石洞 : 169
 갈리폴리 Gallipoli : 129
 갈월동 葛月洞 : 312
 강덕호 康德鎬 : 103
 강매리 江梅里 : 223, 233
 강화 江華 : 219, 341
 개성 開城 : 219
 개화산 開花山 : 196, 197, 212, 225, 231, 233, 235, 246, 247
 거창 居昌 : 32, 258
 검암리 : 241
 게이 Hobart H. Gay : 21
 경무대 景武臺 : 333
 경부(京釜) 국도 : 253, 254, 321
 경부선 京釜線 : 30, 250
 경의선 京義線 : 232, 238, 265, 270
 경인(京仁) 국도 : 156, 166-169, 174, 175, 179, 181, 183-185, 198, 200, 215, 218, 220, 225, 249, 250, 252
 경인선 京仁線 : 168, 171, 174, 179, 183, 184, 187, 200 주, 252
 경주 慶州 : 254, 259, 260
 경춘(京春) 국도 : 292, 317-319, 337, 339-341
 경 항공모함 CVL : 86
 계산동 桂山洞 : 183, 206, 209, 215
 계인주 桂仁珠 : 90
 고길훈 高吉勳 : 111, 262, 273
 고베 神戸 : 104, 114, 115
 고성 固城 : 63
 고성산 古城山 : 208, 219
 고속 수송함 APD : 78
 고지
 21고지(전호리) : 194 요도, 212
 37고지(부평) : 188
 46고지 : 188 요도, 189, 190
 51고지(능곡) : 228 요도, 223
 56고지(연회) : 263, 269-272, 275-280
 68고지(성산동) : 237, 238, 240
 71고지 : 194 요도, 195
 72고지(풍산) : 264 요도, 280, 292
 79고지 : 212, 283
 80고지 : 214, 251
 82고지(만리재) : 295, 312
 85고지 : 214, 251
 88고지(연회) : 263, 269, 276, 277, 292
 89고지(원통이교개) : 188 요도, 184, 185
 93고지(무학봉) : 291
 94고지 : 154 요도, 158
 95고지(강매리) : 223, 233
 96고지(고촌) : 242 요도, 215, 241
 96고지(수색) : 236 요도, 237
 97고지(아현동교개) : 295, 313
 104고지(염산) : 238, 239, 266, 269, 270-276, 284
 105고지(월미도) : 134-138
 105고지(서울) 남부(화우산) : 265, 266; 북부(큰교개) : 265, 268, 276, 277, 280, 292; 중앙(노고산) : 266
 106고지 : 317
 117고지(수봉산) : 154, 156
 118고지 : 214, 215, 249
 120고지(매봉) : 287, 289-291, 317
 123고지(소사) : 183, 202
 125고지(덕양산) : 211, 223, 225, 226, 229, 230
 127고지(대덕산) : 232
 131고지 : 188 요도, 184

132고지(부평) : 184, 188 요도
 132고지(서울) : 310 요도, 292, 327
 133고지(서울) : 292, 310 요도, 327, 328
 137고지(부평) : 188 요도, 189
 165고지(수색) : 236 요도, 237
 176고지 : 198 요도, 201
 177고지(미아리) : 327
 179고지(망월산) : 228 요도, 232
 186고지 : 179, 184, 18 요도
 206고지(금화산) : 292
 206고지 : 188 요도, 198, 199, 201
 216고지(백련산) : 238, 240, 284, 315
 224고지 : 316 요도, 337
 233고지(문학산) : 157, 158, 170
 292고지(아차산) : 318
 296고지(안산) : 238, 263, 265-268, 270, 271, 278, 292, 293, 315
 338고지(인왕산) : 308
 343고지 : 308, 328
 348고지(용마산) : 287, 290, 318
 고촌 高村 : 215, 243, 284
 공격 인원 수송함 APA : 10, 48
 공격 화물 수송함 AKA : 10
 과천 果川 : 285, 287
 관측 고지 Observatory Hill : 59주
 광나루 : 318
 광화문 光化門 : 322-324
 구로동 九老洞 : 250
 구세군 본영 救世軍本營 : 313
 구감함. PC 702함 : 87 ; PC 703함 : 90, 118
 군산 群山 : 30, 35, 57, 68, 70, 95, 101, 111, 118, 122, 222, 258
 군위 軍威 : 257
 궁동 宮洞 : 258
 권빈리 勸彬里 : 258, 260
 규수 九州 : 119, 120
 그레이스(Grace) 호, 태풍 : 21
 금강선 錦江線 : 20

금곡 金谷 : 340, 341
 금산 錦山 : 31
 금촌 金村 : 337
 금화산 金華山 : 307, 314, 315, 325, 329
 기계 杞溪 : 259, 260
 김 광식 金光植 : 111, 272
 김 용선 金龍善 : 243
 김 윤근 金潤根 : 111, 116, 174, 184, 244, 245
 김 중기 金鍾琪 : 111, 296
 김 진태 金振泰 : 239
 김천 金泉 : 256
 김포 金浦 : 193, 195, 196, 205, 219, 240-246, 248, 296, 305, 333 ; 김포반도 : 205, 206, 215, 217, 219, 235, 240, 241, 305, 341 ; 김포 비행장(공항) : 61, 86, 88, 182, 183, 194-197, 205, 206, 209, 211, 212, 216-222, 232, 242, 246-248, 284, 297, 305, 329, 332, 341
 김 한수 金漢壽 : 239, 272
 김 회준 金熙濬 : 254, 259

L

낙동강 洛東江 : 33, 98, 256, 335 ; 낙동강 돌출부 : 33, 65, 101, 103 ; 낙동강 방어선(천선) : 33, 35-37, 53, 62, 68, 71, 101, 105, 107, 123, 124, 178, 206, 220-222, 238, 248, 253-257, 321, 342, 343
 난지도 蘭芝島 : 237
 남강 南江 : 33
 남대문 : 322-326, 329
 남동(南洞) 반도 : 167, 179
 남산 南山 : 234, 287, 289, 302, 313, 315, 317
 남산 공원 : 313
 남원 南原 : 31
 베덜란드, 29, 86, 106
 노고산 老姑山 : 265, 266, 275

노량진 鷺梁津 : 252, 282
 노블 Harold J. Noble : 121
 노 의순 盧義淳 : 261
 녹색 해안 : 58, 60, 82, 134, 163, 177, 204
 누원리 樓院里 : 339
 뉴브리튼 New Britain : 46 ; 뉴브리튼 상록 : 24
 뉴욕 헤럴드 트리뷴 (New York Herald Tribune) 지 : 6
 뉴질랜드 : 29, 86, 107
 뉴튼 George R. Newton : 150
 능곡 陵谷 : 223, 231, 240, 284, 328

ㄷ

다다넬즈 (Dardanelles) 해협 : 129
 다부동 多富洞 : 64, 257, 321
 다이이찌 (第一) 빌딩 : 67
 당곡 堂谷 : 214, 247
 대구 大邱 : 30, 32, 33, 62, 64, 65, 98, 101, 256, 259, 321
 대덕산 大德山 : 232
 대부도 大阜島 : 91, 92
 대전 大田 : 21, 27, 257-259 ; 대전 전 투 : 30, 31 ; 대전 협정 : 29
 대정리 大井里 : 183 주
 대한 해협 : 114, 120
 덕고개 德峴 : 214, 250 주
 덕수궁 德壽宮 : 324, 326
 덕양산 德陽山 : 225, 227, 230
 덕적도 德積島 : 54, 87, 88, 90
 데이비스 Davis : 184, 208
 데이비스 Raymond G. Davis : 48
 엠플라 Edwin A. Deptula : 145
 도쿄 東京 : 11, 25, 26, 28, 66, 74, 75, 93, 97, 122, 248, 259, 333
 도동 (桃洞) 고개 : 313
 도봉산 道峰山 : 339
 도원 공원 桃源公園 : 174, 175
 도원동 桃園洞 : 283
 도일 James H. Doyle : 10, 11, 16, 17,

19, 21, 38, 66, 67, 74, 99, 101, 105, 107, 115, 119, 132, 137, 142, 178, 179
 도화동 道禾洞, 인천 : 175, 184
 독립문 : 307
 독석리 獨石里 : 124
 독일 : 129
 동국 세시기 東國歲時記 : 309
 동대문 東大門 : 291, 324
 동산 공원 東山公園 : 174
 동수도 東水道 : 55, 56
 동지나해 東支那海 : 114
 독섬 : 287, 291
 딘 William F. Dean : 30 주

ㄹ

라이트 Edwin K. Wright : 12, 40, 67, 100, 222
 래드포드 Arthur W. Radford : 10, 15, 28
 러프너 Clark L. Ruffner : 37, 75, 100, 298
 레다트 A. O. Ledet, Jr. : 227 주
 로이즈 Harold S. Roise : 185, 193, 274, 277, 280
 로체스터 (Rochester) 호, 미해군 CA : 105, 114, 118, 119, 130, 132, 180
 로페즈 Baldomero Lopez : 147, 148
 루시 M. J. Luosey : 124
 류 창훈 柳昌燾 : 261
 리준 Lejeune : 47
 리지 Thomas L. Ridge : 156, 157, 299
 리지웨이 Matthew B. Ridgway : 345
 리켄버그 H. L. Litzenberg : 48
 리케르트 Robert W. Rickert : 161
 린치 (Lynch) 특수임무부대 : 321

ㄴ

마리아나 군도 (群島) : 114
 마분리 馬墳里 : 부개동 참조.

마산 馬山 : 33, 62, 64, 98, 102
 마석우리 磨石偶里 : 341
 마오 찌둥 毛澤東 : 173
 마운트 머킨리 (Mount McKinley) 호,
 미해군 AGC : 41, 66, 74, 76, 93,
 115, 119, 120, 132, 136, 178, 181,
 190
 마포 麻浦 : 293, 295, 296, 312, 332 ;
 마포국민 학교 : 296 ; 마포나루 :
 211
 만국 공원 萬國公園 : 59 주
 만리재 萬里峴 : 265, 293, 295, 309
 만석동 萬石洞 : 174
 망우리 고개 : 318, 319, 339 ; 망우리
 역 : 319
 망월산 望月山 : 232
 매그니스 Byron L. Magness : 150
 매봉 鷹峰 : 287, 289
 맥노튼 G. C. McNaughton : 277, 279
 맥멀린 O. F. McMullen : 146
 맥멀린 R. A. McMullen : 135, 230,
 314
 맥아더 Douglas MacArthur : 1-8, 10,
 12, 15, 18, 22-30, 34, 42, 47, 49-
 52, 59주, 60, 65-70, 75, 99, 108,
 119-122, 132, 136, 137, 178, 181,
 190-192, 221, 222, 233, 247-250,
 256, 281, 330-336, 342, 345
 맨스필드 (Mansfield) 호, 미해군 DD :
 130
 머리 Raymond L. Murray : 116, 192,
 205, 262, 268, 269, 274
 메리트 Max A. Merritt : 150
 면목동 面牧洞 : 339
 모래내 沙川 : 237-239
 모슬포 森瑟浦 : 95, 96
 목동 木洞 : 251
 목포 木浦 : 31, 131
 몬터규 (Montague) 호, 미해군 AKA :
 48
 몽칼름 Marquis de Montcalm : 69
 무스탕 Mustang, F-51 : 9

무악재 母岳峴 : 307, 324
 무주 茂朱 : 31
 무초 J. J. Muccio : 4
 무학봉 舞鶴峰 : 291
 묵호 (墨湖) 경비부, 해군 : 20
 문교 門橋 : 223, 234, 284, 294, 332 ;
 6-浮舟 M4A2 문교 : 233
 문산호 汶山號 : 전차양륙함 참조.
 문 판호 文判鎬 : 312
 문학산 文鶴山, 인천 : 157, 158, 170
 뮈첼 F. W. Muetzel : 147
 미군 전차. M26 전차 : 199
 미아리 고개 : 292, 326 ; 미아리 공
 동묘지 : 337
 미주리 (Missouri) 호, 미해군 BB :
 123, 217, 245
 민 기식 閔機植 : 31
 민 동기 閔東基 : 239
 밀양 密陽 : 65, 98

B

바덴 스트레이트 (Badoeng Strait) 호,
 미해군 CVE : 85
 바르 David G. Barr : 67, 248, 285
 바우저 Alpha L. Bowser : 66, 238
 바탄 (Bataan) 호 : 3, 331
 박촌리 朴村里 : 208, 215, 219
 배다리 시장 (市場), 인천 : 174
 배로우 Robert H. Barrow : 251
 백련산 白蓮山 : 238, 240, 284, 315
 백 인엽 白仁燁 : 258-261, 285
 보광동 普光洞 : 289
 보운 Robert D. Bohn : 134
 보은 報恩 : 258, 321
 보원사 奉元寺 : 315
 부개동 富開洞 (바분리), 인천 : 199
 부곡 富谷 : 256
 부대 훈련대 TTU : 10, 11, 19, 38
 부산 釜山 : 8, 18, 32, 33, 36, 51, 65,
 96, 97, 102-109, 117, 119, 124,
 126, 127, 248, 254, 261, 329-334,

342; 부산항 : 18, 100, 104, 115, 248, 257
 부천 富川 : 200 주
 부평 富平 : 178, 183, 184, 187-190, 193, 198, 206, 208, 209, 215, 218, 220, 282; 부평동 : 183; 부평리 : 183 주; 부평역 : 183, 187-190, 195
 북가좌동 北加佐洞 : 238, 239
 북아현동 : 314, 326
 북악산 北岳山 : 308, 324, 327, 328
 북한강 北漢江 : 307, 337, 339, 340, 342
 불광천 佛光川 : 238
 브린 Richard R. Breen : 307
 블루하트(Bluehearts) 작전 : 12, 16, 19, 34, 52, 89
 비어 수도 飛魚水道 : 56 주

人

사당리 舍堂里 : 287, 289; 사당이고개 : 287
 사세보 佐世保 : 90, 105, 116, 120
 사천 泗川 : 63
 사천 沙川(모래내) : 237
 산지항(港), 제주 : 96
 산청 山淸 : 31
 살곶이다리 : 291
 삼각지 三角地 : 325
 삼랑진 三浪津 : 33
 삼정리 三井里 : 195
 삼척 三陟 : 123
 상도동 上道洞 : 287
 상록 기습 上陸奇襲 : 72 주, 87
 상록 돌격 上陸突擊 : 72 주, 73, 74, 78
 상록 선거함 LSD : 78
 상록 양동 上陸陽動 : 72 주, 123
 상록 장소 : 85
 상록전 기함 AGC : 10, 74
 상록 지역 : 80, 83, 84, 88

상록 철수 上陸撤收 : 72 주
 상주 尙州 : 33, 257, 321
 샌디에이고 San Diego : 23, 25, 28, 47, 49
 서강역 西江驛 : 270
 서공원 西公園, 인천 : 59 주
 서대문 西大門 : 307, 311, 313, 314, 322, 325; 서대문 형무소 : 307
 서빙고 西氷庫 : 289
 서 상국 徐相國 : 174, 243
 서북산 西北山 : 33
 서수도 西水道, 인천 : 54
 서오릉 西五陵 : 232, 265, 292
 서우물 西井 : 233
 서울 : 2, 4, 5, 37, 68, 77, 87 이하, 123, 124, 162, 180, 181, 195, 203, 209 이하, 245, 251, 253, 257, 259, 262 이하, 279-285, 287, 291-297, 303-305, 307, 309, 315, 317-319, 322, 324, 326-344; 서울시청 : 324, 326; 서울역 : 312, 313, 322-325; 서울 중학교 : 322
 서터 Allan Sutter : 155, 156
 석바위 石岩里 : 185, 218
 선수동 仙壽洞 : 242, 243
 성동원두 城東原頭 : 324
 성산동 城山洞 : 237, 238, 240
 성주산 聖柱山 : 200
 세검정 洗劍亭 : 307, 308
 셔먼 Forrest P. Sherman : 15, 25, 26, 28, 44, 66-68, 70
 셰퍼드 Lemuel C. Shepherd, Jr. : 23, 24, 26, 28, 70, 120, 190, 231
 소련 : 118
 소사 素砂 : 183, 200-202, 205
 소원도 小猿島, 인천 : 161
 소월미도 小月尾島 : 57, 84, 137-139
 소의(昭義) 국민학교 : 295
 손 원일 孫元一 : 88, 101, 102, 119, 141, 171, 191, 203, 204, 237, 305
 송내촌 松內村 : 200, 201
 송림동 松林洞, 인천 : 174

수다만 Suda Bay : 48
 수락산 水落山 : 339
 수봉산 壽鳳山 : 154, 156
 수색 水色 : 225, 232, 237, 238, 274, 292, 297, 305, 337 ; 수색역 : 262
 수송기 C-54 : 331
 서에즈(Suez) 운하 : 48
 수원 水原 : 3, 4, 6, 220, 253, 285, 320, 342, 344 ; 수원 농업 시험장 : 4 ; 수원 비행장 : 2, 3, 253, 285
 순양함 CL, 86
 순천 順川 : 31
 슈팅스타 Shooting Star, F-80 ; 9
 스네티커 Edward W. Snedeker : 93, 94
 스미드 Alvin E. mith : 277
 스미드 H. J. Smith : 184, 278, 279
 스미드 Oliver P. Smith : 44-46, 49, 66, 67, 74-77, 99, 100, 107, 115, 129, 136, 179, 181, 190, 192, 203-205, 237, 246, 248, 281-285, 298, 332
 스미드 능선 : 279
 스튜어트 Joseph L. Stewart : 93
 스트래트마이어 G. E. Stratemeyer : 9
 스트러블 A. D. Struble : 9, 75, 84, 99, 190, 100, 114, 118, 119, 122, 130, 132, 137, 231
 스티븐즈 John R. Stevens : 147, 148
 시몬즈 Edwin H. Simmons : 299
 시실리 (Sicily) 호, 미해군 CVE : 85, 169
 시어즈 Norman W. Sears : 131
 시흥 始興 : 95, 287, 287 ; 시흥리 : 287
 신리 新里 : 243
 신문로, 서울 : 326
 신사리 新沙里 : 287, 289, 291
 신 성모 申性模 : 101
 신 양수 申良秀 : 272
 신월리 新月里 : 195, 196
 신의주 新義州 : 220

신창동 新倉洞 : 283
 신촌 新村 : 262, 265, 270 ; 신촌역 : 270
 신 현준 申鉉俊 : 96, 102, 116, 117, 119, 141, 191, 273
 심 포학 沈布學 : 312
 심프슨 W. F. Simpson : 169
 십정동 十井洞 : 184, 209

○

아몬드 Edward M. Almond : 40-42, 67, 99, 100, 105, 231, 248, 281-285, 298
 아차산 峨嵋山 : 280, 287, 318
 아타바스칸 (Athabaskan) 호, 캐나다 해군 DD : 88
 아현동 阿峴洞 : 295, 311 ; 아현동고개 : 265, 266, 293, 309, 313, 314, 325 ; 아현터널 : 265, 293, 311, 314, 322
 안강 安康 : 20, 124, 254, 259, 260
 안국동 安國洞 : 324
 안도 鞍島 : 56
 안동 安東 : 258
 안산 鞍山 : 238, 263, 265-274, 276-280, 292, 293
 안양 安養 : 253, 287 ; 안양천 : 215, 250, 251
 애기능, 265
 애스콤 ASCOM : 183주
 애오개 : 아현동고개 참조.
 앤더슨 T. A. Anderson : 275
 앤드류스 Sir W. G. Andrewes : 86, 106, 123
 앵글리코 ANGLICO : 10, 11, 339
 야크 YAK : 197
 양곡 陽谷 : 219
 양평 楊平 : 340
 양평동 楊坪洞 : 251
 어스킨 G. B. Erskine : 43
 어윈 E. C. Ewen : 106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원두우) : 224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원일한), 미해군 예비역 대위 : 224
 엄 순길 嚴順吉 : 244
 엔디코트 (Endicott) 호, 미해군 DD : 125, 126
 엘리 Louis B. Ely : 123
 엘토로 El Toro : 14, 22, 43, 47
 여수 麗水 : 31
 여의도 汝矣島 : 252
 연세 (延世) 대학교 : 224, 265 주
 연 정 延禎 : 90
 연희 (延禧) 고지 : 265-267, 276, 280, 282
 연희 능선 : 269, 270
 연희 대학교 : 265, 266
 연희리 連喜里 : 209
 연희 전문 학교 : 224
 연희터널 : 270, 272
 연희터널 고지 : 270, 275, 278
 염동 廉洞 : 270
 염산 廉山 : 238, 269
 영국 英國 : 56주, 영국 영사관 : 29, 107, 149
 영국군 제27여단 : 257
 영덕 盈德 : 20 주, 33, 124
 영등포 永登浦 : 181, 196, 198, 209 이하, 247, 250-252, 268, 281, 283, 285-287, 330, 344
 영산 靈山 : 33, 64, 65, 94, 98, 99, 101
 영일만 迎日灣 : 19, 21
 영천 永川 : 322
 영흥도 永興島 : 54, 87, 88, 91-93
 오키나와 沖縄 : 9, 32, 46, 51, 90
 오류리 梧柳里 : 214
 오륙도 五六島 : 110
 오봉리 五峰里 : 65 ; 오봉리 능선 : 99
 오산 烏山 : 17, 258, 320, 321, 344
 오 세 동 吳世東 : 241

오스트리아 : 129
 오스틴 B. L. Austin : 106
 웅진 熊津 : 258
 와우산 臥牛山 : 265, 266, 268, 271, 278, 283, 284, 294
 와일드먼 P. W. Wildman : 134
 왕십리 往十里 : 315
 왜관 倭館 : 33, 101, 256
 외 오쇠리 外五銑里 : 211
 요꼬스카 横須賀 : 115
 요코하마 横濱 : 19, 21, 105, 248
 용마산 龍馬山 : 318
 용산 龍山 : 257, 291, 325 ; 용산선 : 270, 271, 294, 296
 우면산 牛眠山 : 285
 우수현 雨水峴 : 309
 울프 James Wolfe : 69
 웅실 熊室 : 341
 워싱턴 Washington : 1 주, 6, 7, 28, 44, 107, 221
 워커 Walton H. Walker : 8, 30, 33, 43, 51, 62, 64, 65, 72, 98, 257
 원도 猿島 : 58, 161
 원미산 遠美山 : 202
 원두우 元斗尤 : 언더우드 참조.
 원산 元山 : 35, 118, 336
 원일한 元一漢 : 언더우드 참조.
 원종리 遠宗里 : 246, 247
 원통이 고개 圓通峴 : 184-187, 190, 192, 220
 원효로 元曉路 : 296, 312
 월미도 月尾島 : 57, 58, 78, 82, 84, 88, 91, 112, 123, 130-137, 139-142, 148, 162, 163, 166, 176-178, 204, 229, 231
 웨스트오버 G. C. Westover : 156
 육군 기지창 ASCOM : 183 주
 육 동욱 陸東旭 : 188
 윤 치호 : 312
 은행정 銀杏亭 : 247
 을지로 乙支路 : 324, 326
 응봉 鷹峰 : 매봉 참조.

응봉산 鷹峰山, 인천 : 59, 145, 149-151, 171, 173
 의령원 懿寧園 : 265 주
 의령 터널 : 265, 293, 314 ; 의령 터널 고지 : 268, 269, 276
 의소묘 儀昭墓 : 265 주
 의정부 議政府 : 327, 337, 339
 이 광수 李光洙 : 244
 이 기봉 李起鵬 : 330
 이다미 伊丹 : 216
 이다즈게 板付 : 120
 이 도조 李道祚 : 239, 274
 이리 裡里 : 30
 이 명흠 李明欽 : 125, 127
 이 봉출 李鳳出 : 111, 239, 274
 이비리 二碑里 : 340
 이 승단 李承晩 : 4, 6, 29, 97, 331, 333-335
 이 작전 李作戰 : 87
 이 장옥 : 239
 이탈리아 Italy : 42
 이 흥빈 李弘彬 : 273
 이화(梨花) 여자대학 : 266, 326
 이 회경 李熙鼎 : 87
 인왕산 仁旺山 : 324, 328
 인창리 仁倉里 : 339, 341
 인천 仁川 : 12, 16, 17, 19, 27, 35, 37-39, 52-53, 54 이하, 65, 68 이하, 82, 88-92, 97, 98, 100, 104, 108, 112, 114, 116, 118, 120-124, 130 이하, 144, 155 이하, 190, 202-206, 208-212, 215-224, 232-234, 240, 245-248, 254-258, 261, 281-282, 285-287, 305, 336, 341-344 ; 인천부 仁川府 : 183 주 ; 인천상륙 : 6, 12, 24, 39-42, 46, 53, 54, 56 주, 59 주, 61 이하, 92, 93, 99, 105, 108, 113, 116, 121, 141, 162, 171, 175, 179, 180, 199 주, 203 이하, 229, 237, 248, 253, 254, 259, 281, 286, 336, 342-354
 인천 상업 중학교 : 175

인천 수도(수로) : 56 주, 119, 130, 131, 139, 140, 162
 인천 측후소 : 139, 150
 인천항 仁川港 : 55, 57, 59 주, 131, 132
 일본 日本 : 6, 8, 10, 18, 25, 32, 49, 51, 114, 122, 216, 217, 222, 224, 248, 259, 284, 296, 332
 임 경섭 林景燮 : 186
 임진강 臨津江 : 219

ㅈ

자마이카(Jamica) 호, 영해군 CL : 86, 130, 180
 자유 공원 : 59
 장기리 : 楊基里 : 215
 장사동 長沙洞 : 124, 125, 129
 장 익삼 張翼三 : 243
 장진호(長津湖) 전투 : 46
 장충단 獎忠壇 : 290
 장항 長項 : 30
 제스킬카 Samuel Jaskilka : 148
 적색 해안 : 58, 60, 78-82, 112, 143-145, 149, 153, 163-165, 171, 176, 177
 적 전차 : T-34 전차 : 169, 185-187, 191, 196, 199, 220, 249
 전 단 Flotilla : 11
 전대 Group : 11
 전대 Squadron : 11
 전방사령부 ADCOM : 2
 전 성호 全盛鎬 : 125, 127
 전의 全義 : 17
 전주 全州 : 31
 전차 양륙함 LST : 10, 79
 LST 문산호 : 125-128
 LST 조치원호 : 127, 128
 LST 857호 : 151
 LST 859호 : 151
 LST 914호 : 151
 LST 975호 : 151

LST(H) 898호 : 165
 전호리 錢湖里 : 212
 절두산 切頭山 : 283, 287
 정곡리 井谷里 : 235, 237
 정관십 鄭寬雙 : 174
 정광호 鄭光鎬 : 313
 정릉 貞陵 : 329
 정만진 鄭滿鎭 : 239, 272
 정중철 鄭重鐵 : 244, 245
 제인(Jane)호, 태풍 : 104, 114
 제주 濟州 : 95, 96
 제주도 : 31, 95, 101, 103
 조선 호텔 : 326
 조이 C. Turner Joy : 9, 15, 52, 67, 70, 99, 129
 조치원호 鳥致院號 : 전차 양륙함 참조.
 종덕원 鍾德遠 : 173
 종로 鍾路 : 324
 주문진 注文津 : 35
 주안 朱安 : 167, 208, 209
 주정로 舟艇路 : 79
 중공군 : 267
 중랑천 中浪川 : 287
 중앙선 中央線 : 340
 중앙 우체국 : 326
 중앙청 中央廳 : 306, 322, 324, 329, 331-334
 지리산 智異山 : 31
 지중해 地中海 : 50, 129
 진남포 鎭東浦 : 35, 57, 118
 진동리 鎭東里 : 63, 109
 진복룡 陳福龍 : 174
 진안 鎭安 : 31
 진안리 鎭安里 : 340
 진주 晉州 : 31-33, 62, 63
 진주만, 하와이 : 14
 진해 鎭海 : 20, 94, 97, 101, 102

元

창경원 昌慶苑 : 324

창덕궁 昌德宮 : 328
 창녕 昌寧 : 33
 창릉천 昌陵川 : 232
 창원 昌原 : 94, 96, 102
 채리티 (Charity) 호 : 90
 처치 John H. Church : 2, 4
 천등고개 天登峴 : 215, 241, 244
 천안 天安 : 17, 30, 321
 철원 鐵原 : 207
 청색 해안 : 58-60, 78, 79, 82, 143., 144, 153, 157-159, 163-165, 177., 190 ; 청색 1호 해안 : 153-155., 161 ; 청색 2호 해안 : 153, 154., 156, 161 ; 청색 3호 해안 : 154., 157
 청수동 淸水洞 : 291
 청량리 역 淸凉里驛 : 317
 청천리 淸川里 : 209
 청파동 靑坡洞 : 312
 최초 지시 Initiating Directive : 74
 충정로 忠正路 : 313, 322

ㅋ

카운슬먼 John D. Counselman : 137
 캐나다 Canada : 29, 59주, 69주, 86., 107
 캐벌리어 (Cavalier) 호, 미해군 APA : 142
 캐손 Dana M. Cashion : 225, 226
 캡스 Arlie G. Capps : 62
 케냐 (Kenya) 호, 영해군 CL : 88, 130
 케이츠 Clifton B. Cates : 15, 26
 케지아 (Kezia) 호, 태풍 : 114, 118., 120, 123, 125
 코르세어 Corsair, F4U : 22
 콜레트 (Collett) 호, 미해군 DD : 131
 콜린즈 J. Lawton Collins : 66, 67, 222
 쿠쉬먼 Thomas J. Cushman : 86, 216
 퀘벡 (Quebec) 전투 : 69
 크레이그 Edward A. Craig : 23, 25., 43, 97, 116, 166, 178

크레테 (Crete) 섬 : 48
 크로마이트 (chromite) 작전 : 34, 35,
 37, 40, 106, 221
 큰고개 大峴 : 265, 275, 292, 315, 326
 큰말 : 277
 클라크 E. F. Clark : 90-92, 132

E

탑재 전대 塔載戰隊 : 21
 태릉 泰陵 : 95, 319
 태백 (太白) 산맥 : 20
 태플리트 Robert D. Taplett : 132,
 135-137
 터키 Turkey : 129
 톨레도 (Toledo) 호, 미해군 CA : 130
 통영 統營 : 102, 297, 305
 퇴계로 退溪路 : 326
 트라이엄프 (Triumph) 호, 영해군
 CV : 86
 트루만 Harry S. Truman : 1, 7, 29

II

파리 Paris : 46
 팔달리 八堂里 : 341
 팔로군 八路軍 : 267
 팔미도 八尾島 : 55, 92, 132
 퍼싱 Pershing, M26 : 135
 페더슨 Poul F. Pederson : 150
 펜들턴 Pendleton : 14, 22, 26, 43, 44,
 46-48
 펠렐리우 Peleliu : 46
 평양 平壤 : 122
 평택 平澤 : 17, 258
 평해 平海 : 20
 포니 Edward S. Forney : 10, 16, 17,
 38
 포트 베닝 Fort Benning : 46
 포항 浦項 : 19-21, 94, 98, 124, 256 ;
 포항 상륙 : 17, 19, 21, 23 ; 포항
 지구 전투사령부 : 64 ; 포항 특

수입 무부대 : 64
 표 양문 表良文 : 203, 204
 풀러 Lewis B. Puller : 158, 160, 191,
 250, 299
 풍무리 豊舞里 : 241, 243
 풍산 風山 : 280
 풍천 豊川 : 219
 프랑스 France : 86, 107 ; 프랑스 대
 사관 : 322
 피카웨이 (Pickaway) 호, 미해군
 APA : 115, 117, 119, 120, 140, 142
 필리핀 : 9, 90

H

하동 河東 : 32
 하와이 Hawaii : 23, 33, 40 ; 진주만 :
 14
 하인천역 : 173, 177
 하트먼 C. C. Hartmann : 126-128
 한강 漢江 : 4, 5, 61, 77, 181, 196, 197,
 206, 210-219, 221이하, 274, 281-
 284, 287, 289, 294, 296, 297, 332-
 339, 342, 344, 345 ; 한강교 :
 210, 234, 283, 291, 325 ; 한강 도
 하작전, 209-212, 215, 218, 221
 이하, 278, 285, 289, 291, 344
 한남동 漢南洞 : 289, 290
 한성 漢城 : 303, 326
 함대 예인함 ATF : 10
 함대 해병대 FMF : 13, 40
 함 명수 咸明洙 : 88
 함 성렬 咸成烈 : 261, 290
 함안 이동 艦岸移動 : 83
 함양 咸陽 : 31
 합동 전략 계획단 JSPOG : 12, 36, 37,
 40, 41
 합동 통신 UP, 미국 : 1
 항공 · 함포 연락중대 ANGLICO : 영
 글리코 참조.
 해그나 Edward R. Hagenah : 112,
 113, 208

- 해넘 C. S. Hannum : 257
 해리스 Franklin A. Harris : 216
 해리슨 C. W. Harrison : 208
 해상 덩크 Floating Dump : 79
 해안두보 Beach Head : 73, 77, 78, 82,
 84, 203, 204; 해안두보산 FBHL :
 81, 82, 167, 170, 178-182
 해안 사격 통제반 SFCP : 206
 해운공사 海運公社 : 125
 해주 海州 : 35, 118
 행주 幸州 : 219, 223, 225; 행주나루 :
 211, 225, 226, 229, 231, 237, 248,
 284, 293, 294, 305; 행주산성 :
 229
 향동 香洞 : 284
 향산리 香山里 : 242, 243
 허 흥 許泓 : 243
 헤이즈 L. C. Hays : 262
 헨더슨 G. R. Henderson : 106
 헨더슨 (Henderson) 호, 미해군 DD :
 131
 헨리코 (Henrico) 호, 미해군 APA : 142
 헬레나 (Helena) 호, 미해군, CA : 126,
 128
 형산강 兄山江 : 124
 호워드 Lee R. Howard : 185
 호주 Australia : 29, 86, 90
 호킨즈 Jack Hawkinz : 160, 161
 호튼 K. J. Houghton : 224-226
 홍은동 弘恩洞 : 306, 307
 홍제천 弘濟川 : 308
 화력 지원 구역 : 85
 화령장 化寧場 : 258, 260
 화수동 花水洞 : 174
 화양동 華陽洞 : 291
 환도식 還都式 : 330, 331, 334-336
 황색 해안 : 204
 황 영 黃泳 : 243
 효성리 曉星里 : 207
 효자동 孝子洞 : 326
 후꾸오까 福岡 : 119
 후암동 厚岩洞 : 312
 휘트니 Courtney Whitney : 41 사진
 히긴즈 Marguerite Higgins : 6

執筆委員：崔 亨 坤

仁川上陸作戰

韓國戰爭 戰鬪史

1983年 12月 1日 印刷

1983年 12月 15日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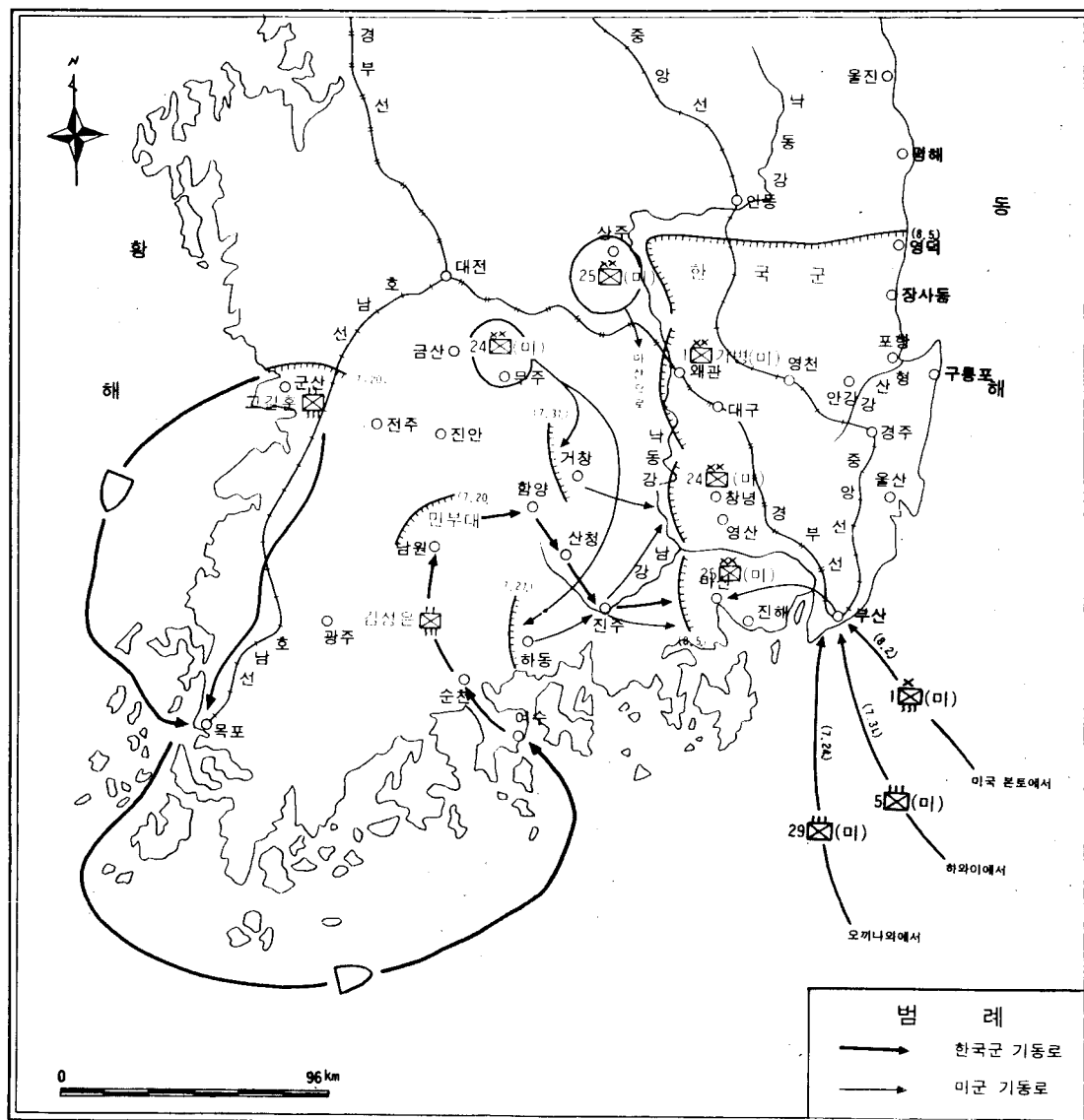
發行處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洞 山 5—7
	國 防 部 戰 史 編 纂 委 員 會
發行人	尹 錫 宇
印刷處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楊坪洞 1街 19
	三 和 印 刷 株 式 會 社
印刷人	柳 健 洙

〈非賣品〉

韓國戰爭 戰鬥史 目錄

多 富 洞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年 刊
長 津 湖 戰 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年 刊
38도선 初期 戰鬥 (中・東部 戰線篇)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2年 刊
仁 川 上 陸 作 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年 刊

상황도 1. 남서부 전선의 대치 상황 (1950.7.20~8.5)



상황도 2. 낙동강 전선의 미 해병여단 (1950.8.7~19.)

